러블리 본즈

The Lovely Bones

앨리스 세볼드 지음 | 공경희 옮김

북@북스

앨리스 세볼드
Alice Sebold

1962년 위스콘신 주에서 태어나 시래큐스 대학을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대학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졸업 후 교편을 잡으면서 〈뉴욕 타임스〉와 〈시카고 트리뷴〉 등에 기고하며 작가를 꿈꾸었다. 1999년에는 대학 1학년 때 성폭행을 당하고 그 괴로운 경험을 극복하기까지를 회고한 『럭키』를 써서 화제를 모았다. 데뷔작 『러블리 본즈』는 '2002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 으로서 독서계의 화제를 독점하였다. 이 책은 세계 30개국에서 출판이 결정되었고, 필름 포(Film Four)가 영화 판권을 사들여 뤽 베송, 린 램지 등이 감독 물망에 올라 있다. 작가인 남편 글렌 데이빗 골드와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다.

원제인 'The Lovely Bones' 는 작가가 만든 말로서 사람의 죽음을 계기로 점점 넓어져 가는, 좋은 의미에서의 사람들간의 유대감을 뜻한다. 주인공 수지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옥수수밭에 모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무언가 새로운 재생을 위해 모여드는 관계 자체가 '러블리 본즈' 이다.

illusration ⓒ Masaco Hanaii

MAY -- 2005

CHICAGO PUBLIC LIBRARY

THE CHICAGO PUBLIC LIBRARY
ALBANY PARK BRANCH
5150 N. KIMBALL
CHICAGO, ILLINOIS 60625

THE LOVELY BONES

Digitized by the Internet Archive
in 2024

https://archive.org/details/lovelyboneskorea0000alic

러블리 본즈

앨리스 세볼드 지음 · 공경희 옮김

CHICAGO PUBLIC LIBRARY
ALBANY BRANCH
5150 N. KIMBALL AVE.
60625

Ko/ FIC SEBOLD
Sebold, Alice.
L ob ulli bonj u

북@북스

THE LOVELY BONES

by Alice Sebold

Copyright ⓒ 2002 by Alice Sebold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 2003 by Book@Books Publishing Co.
Korean translation rights arranged with Dunow & Carlson Literary Agency
through Eric Yang Agency, Seoul.

CHICAGO PUBLIC LIBRARY
ALBANY BRANCH
5150 N. KIMBALL AVE. 60625
R03030 20086

러블리 본즈

아버지 책상 위에 있는 스노우볼 안에는 빨간색과 흰색 줄무늬
스카프를 두른 펭귄 한 마리가 있었다. 어릴 적, 아버지는
나를 무릎에 앉히고 스노우볼을 들곤 했다. 스노우볼을 거꾸로 뒤집어
눈을 위로 올라가게 한 다음 재빨리 다시 뒤집었다. 아버지와 나는
펭귄 머리 위로 눈이 내리는 광경을 지켜봤다. 내가 펭귄이
거기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걱정하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걱정 말아라, 수지. 펭귄은 멋지게 살고 있단다.
완벽한 세상에 갇혀 있잖니."

1

나는 생선 이름(연어의 영어 단어는 salmon : 역주)과 똑같은 새먼이었고, 이름은 수지였다. 1973년 12월 6일 살해되었을 때 내 나이는 열네 살이었다. 1970년대 신문에 게재된 실종된 소녀 사진은 대부분 나와 비슷했다. 연갈색 머리의 백인 소녀들.

지금이야 우유팩이나 신문에 다양한 인종의 남녀 실종자 사진이 실리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다. 사람들이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던 시절이었다.

중학교 문집에 나는 후안 라몬 히메네즈라는 시인의 시구를 옮겨 적었다.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다.

"사람들이 줄친 종이를 주거든 뒤집어서 글을 써요."

내가 이 구절을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우선 교실의 꽉 짜인 환경에 대한 경멸감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또 록그룹의 멍청한 노래 가사가 아니니 내가 문학 소녀로 보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

다. 나는 체스 클럽과 화학 클럽 회원이었고, 델미니코 선생님의 가사 시간에 실습한 것은 뭐든 태워먹었다.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은 생물 담당 보트 선생님이었다. 보트 선생님은 우리가 해부해야 하는 개구리와 가재를 후라이팬에서 펄쩍 뛰게 만드는 분이었다.

하지만 날 죽인 사람은 보트 선생님이 아니었다. 여기서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 모두를 용의자로 생각하지 말기를. 그게 문제다. 여러분은 모른다. 보트 선생님은 내 추도식에 참석해서(덧붙이자면 중학교 전체가 왔다. 난 그리 인기 많은 학생이 아니었는데도.) 많이 울었다. 선생님에겐 병약한 딸이 있었다. 다들 그걸 알기에, 선생님이 농담을 하고 웃음을 터뜨리면 우리는 촌스럽다고 생각하면서도 같이 웃었다. 때론 그러는 게 선생님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선생님의 딸은 내가 죽은 지 1년 반 만에 세상을 떠났다. 백혈병으로 죽었지만, 내가 있는 천국에서 그 아이를 못 봤다.

나를 죽인 사람은 이웃집에 사는 남자였다. 우리 엄마는 그가 마당 가장자리에 심은 꽃을 좋아했고, 아버지는 전에 그 남자와 비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는 퇴비로 옛날처럼 계란 껍질이나 커피 찌꺼기 같은 걸 써야 한다고 믿었고, 자기 어머니도 그런 걸 사용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면서 집에 들어와서는, 그 남자네 정원이 아름답긴 하지만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엄청난 악취를 발산할 거라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그런데 1973년 12월 6일 그날은 눈이 내렸고, 나는 학교에 갔다가 집에 오면서 옥수수밭을 지나는 지름길을 선택했다. 겨울은 해가 짧기 때문에 어두웠고, 부러진 옥수숫대가 사방에 널려 있어서 걷기가 더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작은 손을 휘젓는 것처럼 눈이 폴폴 내렸다. 나는 코로 숨을 쉬다가 콧물이 흘러서, 결국은 입을 벌려야 했다.

하비 씨가 서 있는 곳에서 여섯 발자국쯤 떨어진 곳에서, 나는 혀를 내밀고 눈을 맛보고 있었다.

"나 때문에 놀라지 말아라."

하비 씨가 말했다.

어두운 옥수수밭에서 사람이 불쑥 나타났으니 당연히 놀랐다. 죽은 후 생각해 보니, 그 부근에서 향수 냄새가 살풋 났지만 난 신경 쓰지 않았다. 혹은 저 앞에 있는 집에서 나는 냄새라고 생각했거나.

"하비 씨."

내가 말했다.

"새먼네 큰딸이구나."

"네."

"부모님은 안녕하시니?"

나는 맏딸이고 과학 시험에 달인이었지만, 어른을 대하면 불편했다.

"잘 계세요."

추웠지만, 그가 어른이고 이웃에 사는 아저씨인데다 아버지랑 비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으니, 대꾸하며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가 말했다.

"내가 여기다 뭘 좀 만들고 있거든. 보고 싶니?"

"좀 추워서요. 또 엄마가 어둡기 전에 집에 오라고 하셨거든요."

"지금은 어두워진 뒤잖니, 수지."

이 대목이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난 그에게 이름을 가르쳐 준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귀여워한다는 뜻으로 엉뚱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내 이름을 말했으리라 짐작했다. 아버지는 자식이 세 살 때 목욕탕에서 벌거벗고 찍은 사진을 갖고 있는 타입이

었다. 천만다행으로 동생 린지가 사진의 주인공이었다. 난 그런 창피를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린지가 태어나자 언니인 내가 샘이 나서 린지의 요람에 쉬를 하려 했던 이야기를 자주했다. 그때 아버지가 다른 방에서 전화를 받다가, 그 광경을 봤다나.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난 창피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우리 교회 목사님, 이웃에 사는 스테드 부인한테 그 얘기를 늘어놓았다. 아버지는 심리치료사인 스테드 부인의 견해를 듣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또한 아버지는 만나는 사람마다 '수지가 성깔이 있다니까요!' 라고 떠들어 댔다.

"그 사람이 성깔이 있다고! 성깔이 있는 게 뭔지 내 말해 주지."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면서 '수지가 린지에게 오줌 싼 사연' 을 풀어놓는 것이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아버지는 하비 씨에게 우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더구나 '수지가 린지에게 오줌 싼 사연' 은 말한 적도 없었다.

나중에 하비 씨는 우리 엄마를 길에서 만나자 그런 얘기를 했다.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따님의 이름이 뭐였지요?"

"수지예요."

엄마는 아픈 마음을 억누르며 대답했다. 엄마는 순진하게도 언젠가는 마음이 달래지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평생 이런저런 방식으로 아픔이 계속되리란 걸 몰랐다.

하비 씨는 엄마에게 흔연스럽게 말했다.

"그놈을 잡기를 바랍니다. 따님을 잃어서 정말 안됐습니다."

그때 나는 팔다리가 회복되어 천국에 있었다. 그의 뻔뻔스러움에 놀람을 금할 수가 없었다. 나는 천국 카운슬러인 프래니에게 말했다.

"정말 뻔뻔한 사람이군요."

"맞아."

프래니는 간단히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 천국에서 허튼 소리는 별로 없었다.

하비 씨가 시간이 별로 안 걸릴 거라고 말하자, 나는 그를 따라 옥수수밭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 길은 학교까지 지름길이었으나 그쪽으로 다니는 애들이 없어서, 부러진 옥수숫대는 별로 없었다. 남동생 버클리가 왜 사람들이 옥수수밭에 있는 옥수수를 안 먹냐고 묻자, 엄마는 그건 먹지 못한다고 말해 준 적이 있었다. 엄마가 "옥수수는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니라 말이 먹을 사료란다."라고 말하자, 버클리는 "개도 안 먹어요?"라고 물었다. 엄마가 "안 먹어."라고 대답하자, 버클리는 "공룡은요?"라고 물었다. 그런 식으로 한참 질문과 대답이 오간 적이 있었다.

하비 씨가 말했다.

"자그마한 비밀 집을 만들어 놨지."

그는 걸음을 멈추더니 내게 몸을 돌렸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난 하비 씨가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렸다. 어린 티를 벗고 날씬해지자 나보다 나이 많은 남자들의 시선을 받곤 했지만, 이때처럼 파란색 파카와 풍성한 노란색 바지 차림일 때는 묘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없었다. 하비 씨는 작고 동그란 금테 안경 너머로 날 빤히 쳐다봤다.

"수지, 넌 좀더 조심성이 있어야겠다."

그가 말했다.

거기서 빠져 나갈 길을 궁리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왜 그랬

을까? 프래니는 이제 와서 그런 질문을 해 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했다.

"그렇게 안 했고 그걸로 끝이야. 곰곰이 따지지 마. 소용없는 일이니까. 이제 넌 죽었고, 그걸 인정해야 해."

하비 씨는 말했다.

"다시 해 봐."

그는 쪼그려 앉더니 땅을 두드렸다.

"이게 뭔데요?"

내가 물었다.

귀가 꽁꽁 얼었다. 엄마가 크리스마스 때 만들어 준 방울 귀마개를 하기 싫어서 그냥 나온 참이었다. 추워서 파카 주머니에 손을 찔렀다.

하비 씨 옆에서 허리를 굽히고 발을 쾅쾅 구른 기억이 난다. 얼어붙은 땅보다 더 단단한 것 같았다. 아주 딱딱했다.

"나무란다. 입구가 무너지는 걸 막아 주지. 이 부분을 빼면 다 흙으로 만들어졌지."

"이게 뭔데요?"

내가 물었다. 이제 춥지도, 그의 눈길이 이상스럽지도 않았다. 과학 수업을 받는 기분이었다. 난 호기심이 많았다.

"들어가서 보렴."

구멍 속에 뭐가 있을까 싶어서 안에 들어간다는 게 이상했다. 하지만 그가 불을 피우면 연기가 빠져 나갈 굴뚝을 만든 방법을 보자 몹시 놀라서, 구멍을 드나드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 따위는 사라져 버렸다.

또 도망친다는 느낌도 경험하게 됐다. 도망쳐야 할 최악의 대상은 아티. 아티는 학교에 같이 다니는 아주 이상하게 생긴 애인데, 그애 아버지가 장의사였다. 그애는 방부제가 가득 든 주사기를 갖고 다니

는 체하길 좋아했다. 공책에는 검은 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주삿바늘을 그려 댔고.

"짱이네요!"

내가 하비 씨에게 말했다. 그는 우리가 프랑스어 시간에 읽은 『노트르담의 꼽추』에 나오는 꼽추일까. 그렇든 아니든 상관없었다. 이런저런 생각이 피어올랐다. 내가 남동생 버클리와 뉴욕 자연사 박물관에 현장학습을 갔을 때 버클리는 전시 중인 대형 뼈 구조물에 홀딱 반했다. 나는 초등학교 때 이후로 '짱'이란 말을 써 본 일이 없었다.

"아기한테서 사탕을 빼앗는 것과 같은 짓이지."

프래니가 말했다.

* * *

지금도 어제 일처럼 그 토굴이 눈에 훤하다. 사실 어제 일이나 마찬가지다. 우리에겐 삶이 영원히 어제니까. 그 토굴은 작은 방 크기였다. 흙 묻은 장화 같은 것을 넣어 두는 우리 집 창고와 비슷했다. 우리 엄마는 거기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포개 설치해 놓았다. 어쨌거나 그 토굴에서 난 서 있을 수 있었지만 하비 씨는 몸을 굽혀야 했다. 그는 토굴을 팔 때 가장자리에 의자를 만들어 놓았다. 그가 거기 앉았다.

"구경하려무나."

그가 말했다.

나는 놀란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하비 씨 머리 위로 흙을 파서 만든 선반이 있었다. 선반에는 성냥, 여러 개의 배터리, 배터리로 충전하는 형광등이 있었다. 토굴을 밝히는 빛은 그 형광등 불빛뿐이었다. 불빛이 으스스해서 그가 내 몸을 덮쳤을 때 얼굴을 알아보기가 힘

들었다.

선반에는 거울이 있고, 면도날과 면도 크림도 놓여 있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집에서 면도하지 않을까? 하지만 멀쩡한 집이 있는데, 겨우 반 마일쯤 떨어진 곳에 토굴을 짓는 사람이니 머리가 돌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을 점잖게 "개성이 강한 사람이라 그렇지."라고 말했지만.

그래서 나는 하비 씨를 개성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또 토굴이 마음에 들었다. 따뜻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했다.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그는 어디서 그런 기술을 배웠는지.

하지만 사흘 후, 길버트네 개가 옥수수 껍질이 묻은 내 팔꿈치를 발견해서 입에 물고 집에 갈 무렵, 하비 씨는 토굴을 막아 버렸다. 그때 나는 이동 중이었다. 그래서 그자가 땀을 흘리며 토굴을 막고, 나무 받침대를 제거하고, 팔꿈치를 제외한 토막낸 내 몸과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을 함께 싸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 지상을 내려다볼 수 있게 됐을 즈음, 나는 무엇보다도 가족이 걱정되었다.

엄마는 입을 멍하니 벌리고 현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난 엄마가 그렇게 창백해진 것은 처음 보았다. 파란 눈으로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행동을 취했다. 아버지는 정황을 세밀히 알고 싶어 했고, 경찰과 옥수수밭을 샅샅이 뒤지려 했다. 체구가 작은 렌 퍼너먼이라는 형사에 대해서는 신께 감사한다. 그는 제복 차림의 경관 두 명에게 아버지와 시내에 들어가서, 내가 친구들과 다닐 만한 곳을 다 파악하게 했다. 첫날 쇼핑몰 한 곳에서 경관들은 아버지를 바쁘게 만들었다. 열세 살로 사정을 알아들을 만한 린지나 네 살로 아무것도 이해 못할 버클리 둘 모두에게 아무도 내용을 알려 주지 않았다.

하비 씨는 내게 음료를 마시겠냐고 물었다. 그는 '음료'라고 표현

했다. 나는 집에 가야 된다고 대답했다.

"인사로 콜라라도 마시지. 다른 애들이라면 그랬을 텐데."

그가 말했다.

"다른 애들이라니 누구요?"

"난 동네 아이들을 위해 토굴을 만들었단다. 여길 클럽하우스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는 이 말을 믿지 않았던 것 같다. 그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안쓰러운 거짓말이라고 받아들였다. 그가 외로워서 그러는 것 같았다. 학교에서 그런 사람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었다. 결혼도 안 하고, 매일 밤 냉동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거부당할까 두려워서 애완견조차 못 키우는 사람. 하비 씨가 가여웠다.

"좋아요, 콜라 마실게요."

잠시 후 그가 말했다.

"덥지 않니, 수지? 파카를 벗지 그러니."

나는 파카를 벗었다. 그러자 그가 다시 말했다.

"굉장히 예쁘구나, 수지."

"고맙습니다."

친구 클라리사와 나는 그런 사람을 '도라이'라고 불렀지만, 인사는 했다.

"남자 친구는 있지?"

"없는데요."

나머지 콜라를 삼켰다. 제법 양이 많았다.

"이제 가야겠어요, 하비 씨. 멋진 곳이긴 하지만 집에 가야 해요."

그는 일어나서 곱사등이처럼 등을 굽히고 토굴 입구까지 걸어갔다. 그곳에서 바깥 세상까지는 여섯 발자국이었다.

"왜 네가 돌아가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구나."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비 씨가 개성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두기 위해서다. 그가 문까지 막고 섰으니 '도라이'에다 역겹기까지 했다.

"하비 씨, 정말 집에 가 봐야 해요."

"옷을 벗어."

"네?"

"옷을 벗으라고. 아직 처녀인지 확인하고 싶으니까."

"처녀예요."

내가 말했다.

"확실히 알고 싶다. 네 부모가 나한테 고마워하겠지."

"부모님이요?"

"부모는 착한 딸만 원하니까."

"하비 씨, 제발 내보내 주세요."

"넌 못 간다, 수지. 이제 넌 내 거야."

헬스로 몸을 단련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절이었다. '에어로빅' 같은 말은 있지도 않았다. 여자 애들은 부드러워야 했다. 머슴애 같은 여자 애들이나 학교에서 줄타기를 했다.

나는 힘껏 싸웠다. 하비 씨에게 당하지 않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 버텼지만, 그 정도로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나는 땅바닥에 눕게 됐고, 하비 씨는 내 위에 올라와서 숨을 헐떡대고 땀을 줄줄 흘렸다. 나랑 실랑이를 벌이다 그는 안경을 잃어버렸다.

그때는 아직 살아 있었다. 난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일이 땀을 흘리는 사내가 바닥에 누워 있는 나를 덮치고 있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토굴 안에 갇혔으니, 아무도 내가 어디 있는지 몰랐다.

엄마를 생각했다.

엄마는 오븐에 달린 시계를 점검하고 있을 터였다. 오븐은 새것이었고, 엄마는 오븐에 달린 시계를 마음에 들어 했다.

"시간을 정확하게 쟀다가 음식을 꺼낼 수 있다구요."

엄마는 외할머니에게 자랑했다. 외할머니는 오븐 따위엔 관심도 없었다.

엄마는 내가 늦는다고 걱정할 터였다. 아니 걱정보다는 화를 내겠지. 아버지가 퇴근해서 차를 몰고 차고로 들어가면, 엄마는 분주히 움직이며 아버지를 위해 칵테일을 준비하겠지. 산뜻한 쉐리주를 주든지. 그리고 분한 표정을 지을 거고.

"중학생들이 어떤지 알잖아요. 봄이 돼서 나돌아다니느라 늦겠죠."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는 이렇게 대꾸하겠지.

"여보, 눈이 내리는데 봄이 돼서 나돌아다닌다니 말이 돼?"

핑계가 먹히지 않자, 엄마는 "아빠랑 놀아라."라면서 버클리를 방으로 떠밀고 나서, 살그머니 부엌으로 가서 쉐리주를 홀짝일 테고.

하비 씨는 입술로 내 입술을 눌렀다. 돼지비계 같고 축축한 입술이었다. 난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너무 무서웠고, 버티느라 힘이 빠졌다. 딱 한 번, 좋아하는 사람한테 입맞춤을 받아 본 적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레이였고, 인도인이었다. 영어 발음이 좀 이상했고 피부가 검었다. 나는 그를 좋아하면 안 됐다. 클라리사는 눈꺼풀이 반쯤 감긴 그의 큰 눈을 '두꺼비 눈'이라고 놀렸지만, 레이는 착하고 영리했고, 수학 시험을 볼 때는 모르는 체하면서 내가 커닝하게 도와 주었다. 졸업 앨범에 낼 사진을 제출하기 전날, 레이는 내 사물함 옆에서 내게 키스를 했다. 여름이 끝날 무렵 졸업 앨범이 나오자, 그의 사진 밑에 '내 마음을 _____에게 바칩니다'의 빈칸에 '수지 새먼'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다. 그의 입술이 터졌던 게 기억난다.

"이러지 마세요, 하비 씨."

계속 그 말만 되풀이했다.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이란 말도 많이 했다. 프래니 말로는 누구나 죽기 전에는 '제발'이라며 매달린다고 한다.

"널 갖고 싶어, 수지."

그가 말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두 마디를 섞어서, '제발 이러지 마세요.'나 '이러지 마세요, 제발.'이라고 말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마구 눌러 댄다고 빨리 도착하는 게 아닌데도 계속 버튼을 눌러 대는 것과 비슷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그는 내 간청을 듣는 데 싫증을 냈다. 내 파카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엄마가 만들어 준 모자를 꺼내 둘둘 말더니 내 입을 막았다. 그후 내가 낼 수 있었던 소리는 모자에 달린 방울의 미약한 음향뿐이었다.

그가 축축한 입술로 내 얼굴과 목덜미까지 더듬다가, 셔츠 밑으로 손을 밀어 넣자, 난 울기 시작했다. 나는 내 몸에서 떠나기 시작했다. 공기와 침묵 중에서 살기 시작했다. 울면서, 느끼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 그는 엄마가 솜씨를 부려 만든 옆 지퍼를 찾지 못하자, 바지를 찢었다.

"흰 팬티를 입었구나."

그가 말했다.

몸이 커진 느낌이 들었다. 내가 바다가 되고, 그가 서서 오줌을 갈

기는 듯한 기분이었다. 몸의 구석구석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 같았다. 실뜨기를 하는 것처럼. 린지를 달래려고 실뜨기 놀이를 하곤 했는데…… 그가 내 몸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수지! 수지! 식사 준비 다 됐다."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내 몸 안에 있었다. 그는 신음 소리를 냈다.

"콩이랑 양고기랑 먹을 거야."

나는 사발이고, 그는 절굿공이였다.

"네 동생이 새로 손가락 그림을 그렸고, 엄마는 사과 케이크를 만들었단다."

하비 씨 때문에 난 꼼짝 못하고 누워서, 그와 나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다. 내 심장은 토끼처럼 뛰었고, 그의 심장은 망치로 옷감을 때리는 것처럼 뛰었다. 우리는 몸을 대고 누워 있었고, 나는 몸을 흔들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가 나한테 이런 짓을 했는데도 살아 있다는 것. 그게 다였다. 난 아직도 숨을 쉬고 있었다.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의 입에서 나는 냄새도 맡았다. 주변의 흙에서는 흙 냄새가 났다. 벌레와 작은 동물이 일상을 사는 축축한 흙 냄새가. 몇 시간쯤 계속 소리를 질러 댄 것 같았다.

그가 나를 죽이리란 걸 알았다. 그때는 내가 죽어 가는 동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왜 안 일어나니?"

하비 씨가 바닥으로 내려가더니, 내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상냥하고 친근한 말투였다. 아침나절 연인의 목소리처럼. 명령이

아니라 권유하는 말투였다.

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일어날 수가 없었다.

내가 일어나지 않으려 하자—단지 그의 권유대로 안 했기 때문이었을까?—그는 옆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머리 위쪽 선반을 더듬었다. 면도날과 면도 크림이 놓여 있었다. 하비 씨는 입꼬리를 올리며 씩 웃더니, 칼을 꺼냈다.

그가 내 입에서 모자를 뺐다.

"사랑한다고 말해 봐."

그가 말했다.

나는 나직이 말했다.

그래도 끝은 왔다.

2

처음 천국에 들어왔을 때는 내가 보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본다고 생각했다. 모든 이의 천국에 멀리 축구 골대가 있고, 몸집이 큰 여자들이 포환던지기와 창던지기를 하는 줄 알았다. 건물이 다 1960년대에 교외에 지어진 고등학교처럼 생긴 줄 알았다. 모래 운동장에 크고 넓은 건물이 있고, 건물 끝이 옆으로 쭉 나오고, 트인 공간이 있어 현대적인 느낌을 자아냈다.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페어팩스 고등학교랑 똑같이 옥색과 오렌지색이 칠해진 건물이었다. 지상에 있을 때 가끔 아버지에게 페어팩스 고등학교에 데려가 달라고 졸랐다. 차를 타고 그곳을 지나면서 학교에 다니는 상상을 하곤 했다.

살아 있었다면 중학교 과정인 7, 8, 9학년을 마치고, 페어팩스 고등학교에서 고교 생활을 시작했을 것이며, 난 '수잔'이라고 불러 달라고 고집부렸을 것이다. 머리를 세우거나, 올린 머리를 했을 거고. 남

자 애들이 탐내고 여자 애들이 샘내는 몸매를 가졌으면서도, 워낙 성격이 좋아서 다들 날 좋아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교내 식당에서 따돌림당하는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 내 모습—여왕 같은 지위에서—을 그려 보는 게 좋았다. 누군가 클라이브 선더스를 계집애처럼 걷는다며 놀리면, 놀리는 아이가 방심하는 부분을 발길질해서 복수해 주리라. 남자 애들이 가슴이 크다고 피비 하트를 놀리면, 가슴에 관한 농담이 재미없는 이유를 일장 연설할 테고. 나 역시 피비가 지나갈 때 공책 귀퉁이에 '왕 가슴, 젖소부인'이라고 낙서했던 기억은 잊어야겠지만. 몽상의 끝에 이르면 나는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나무랄 데 없이 잘 풀리던 참이었는데. 몇 년이 아니라 며칠 만에 고등학교를 평정하고, 2학년 때는 아카데미 최우수 여배우상을 받을 정도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지상에서의 내 꿈이었다.

천국에 들어와서 며칠 지나자, 포환던지기와 창던지기를 하던 여자들이나 농구를 하던 남자들이 모두 나름의 천국에 대한 환상 속에 있다는 걸 알았다. 그들의 환상은 내 환상과 맞아떨어졌다. 정확히 똑같지는 않았지만, 같은 점이 많았다.

사흘째 되는 날, 내 룸메이트가 된 할리를 만났다. 그애는 그네—고등학교에 무슨 그네가 있냐고는 묻지 않았다. 여긴 천국이니까. 앉는 부분이 편편한 나무가 아니라 검은색 고무로 된 1인용 그네였다. 검은 고무로 된 부분에 앉아서, 하늘로 올라갈 때 몸을 구를 수 있었다.—에 앉아 있었다. 할리는 이상한 활자로 된 책을 읽고 있었다. 아버지가 '뚱뚱보 식당'에서 포장해 온 돼지 볶음밥이랑 비슷하게 생긴 글자였다. 뚱뚱보 식당…… 막내 버클리는 그 이름을 좋아해서 있는

힘껏 '뚱뚱보' 라고 소리치길 좋아했는데. 이제 난 베트남 사람에 대해 안다. '뚱뚱보 식당' 의 주인 허먼 제이드가 베트남 사람이 아닌 것도 알고, 허먼 제이드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만든 이름이란 것도 안다. 할리가 그 모든 걸 가르쳐 줬다.

"안녕, 내 이름은 수지야."

내가 말을 걸었다.

나중에 할리는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란 영화를 보고 이름을 그렇게 정했다고 털어놓게 된다. 하지만 그날은 그냥 자기 이름만 말했다.

"난 할리야."

그애는 천국에서 영어를 진짜 미국 사람처럼 말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유창하게 발음했다. 나는 할리의 검은 머리를 바라보았다. 잡지에 나오는 사람처럼 반들반들했다. 내가 물었다.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

"사흘."

"나도."

나는 할리 옆 그네에 앉아서, 몸을 비틀고 비틀어 그네의 사슬이 말리게 만들었다. 그런 다음 사슬이 다 풀릴 때가지 빙빙 돌았다.

할리가 물었다.

"여기가 맘에 드니?"

"아니."

"나도 그래."

그렇게 시작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천국에서 가장 소박한 꿈을 가졌다. 학교에는 선생님이 없었다. 나는 미술 수업, 할리는 재즈 밴드에만 들어갔다.다른 수업에는 들어가지 않아도 되었다. 남자 애들은 우리 등을 꼬집거나 냄

새가 난다고 장난치지 않았다. 교과서는 「세븐틴」 「글래머」 「보그」 같은 잡지였다.

우리의 우정이 쌓여갈수록 우리의 천국도 넓어졌으며 우리가 같이 원하는 것도 많아졌다.

내 천국 카운슬러인 프래니가 우리의 안내인이 되었다. 프래니는 우리 엄마 정도 나이인 40대 중반이었고, 할리와 나는 한참 지난 후에야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였음을 알게 되었다. 바로 엄마.

천국에서, 프래니는 봉사한 결과로 감사라는 보답을 받았다. 그녀는 지상에서는 노숙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사였다. 여성과 아동들에게만 식사를 제공하는 '성 마리아'라는 교회에서 일하면서, 전화를 받는 일부터 바퀴벌레를 잡는 일까지 온갖 업무를 담당했다. 그녀는 부인을 찾는 남자가 쏜 총탄에 얼굴을 맞아 천국에 왔다.

닷새째 되는 날, 프래니가 할리와 나에게 다가왔다. 우리는 그녀가 내민 라임맛 주스가 담긴 컵을 받아 마셨다. 프래니가 말했다.

"도와 주려고 왔어."

나는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파란 눈을 응시하다가, 그녀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우린 심심해요."

할리는 혀를 내밀어 라임색으로 변했는지 보려고 바빴다.

"뭘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원하는 바를 소망하기만 하면 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를 이해한다면, 진짜로 안다면 이루어질 거야."

아주 간단한 것 같았고, 사실 그랬다. 그런 식으로 할리와 나는 복층 아파트를 갖게 됐다.

지상에 살 때 나는 단층집이 싫었다. 부모님의 가구도 싫었고, 언덕 위까지 똑같은 집이 줄줄이 사탕처럼 늘어서 있는 게 질색이었다. 우리의 복층 아파트에서는 공원이 내다보였고, 멀리,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멀진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깝지도 않게 다른 집들의 불빛이 보였다.

마침내 나는 여러 가지 바람을 갖게 됐다. 이상한 것은 내가 지상에서는 몰랐던 것을 알고 싶어 한다는 점이었다. 어른이 되고 싶었다.

나는 프래니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른이 되잖아요. 나도 살고 싶어요."

"그건 끝난 일인걸."

프래니가 말했다.

"적어도 사는 것을 구경할 수는 있지요?"

할리가 물었다.

"이미 그러고 있잖니."

"할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 전부를 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알고 싶은 거죠. 비밀도 알고 싶고요. 인생을 더 잘 알게 될 테니까요."

내가 말했다.

"경험하지 못하게 될 텐데."

프래니가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고마워서 죽을 지경이네요, 박사님!"

난 그렇게 비꼬았지만, 우리의 천국은 자라기 시작했다.

페어팩스 고등학교 같은 건물의 학교는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거기서 더 밖으로 뻗은 길을 가게 되었다.

프래니가 말했다.

"오솔길을 걷다 보면 필요한 걸 찾게 될 거야."

그래서 할리와 나는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우리 천국에 있는 아이스크림 집에서는, 민트 아이스크림바를 찾아도 아무도 '여름 상품이라 없는데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 가게에 있는 신문에는 우리 사진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중요한 사람 같았다. 할리와 나는 패션 잡지를 좋아했으며 거기 나온 진짜 남자들과 미녀도 많이 봤다. 어떤 때 할리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았고, 찾으러 가 보면 사라지고 없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때 할리는 우리가 공유하지 않는 천국의 어떤 곳으로 가고 없었다. 그럴 때면 친구가 그리웠지만, 영원의 의미를 알기에 그리움의 종류가 좀 달랐다.

가장 원하는 것은 가질 수 없었다. 하비 씨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은 불가능했으니까. 하지만 내가 세심하게 지켜보면서 갈구하면, 지상에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고 믿게 되었다.

12월 9일 전화를 받은 사람은 아버지였다. 그게 끝의 시작이었다. 아버지는 경찰에 내 혈액형을 알려 주고, 피부 색깔을 자세히 설명해야 했다. 경찰에서는 나를 알아볼 만한 특색이 있는지 물었다. 아버지는 내 얼굴을 자세히 설명하다가 어쩔 줄 몰라 했다. 퍼너먼 형사는 아버지가 더듬더듬 말하게 내버려 두었다. 너무 끔찍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기에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해 주었다. 하지만 마침내 형사는 그 끔찍한 소식을 전했다.

"새먼 씨, 저희가 신체의 일부를 찾았습니다."

부엌에 서 있던 아버지는 한기를 느꼈다. 이 소식을 어떻게 엄마에게 전할까?

아버지가 물었다.

"설마 우리 아이가 죽었다고 확신하는 건 아니겠죠?"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렌 퍼너먼 형사가 대답했다.

아버지는 엄마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했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

사흘 밤 동안 아버지는 엄마에게 무슨 말을 할지, 엄마를 어떻게 안아 줘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이전에는 두 분 모두 상심한 적이 없었다. 보통은 한 사람이 상심하면 강한 사람의 힘을 빌어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껏 '무서움'이란 말의 의미를 모르고 살았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의 바람대로 엄마는 그 한 마디에 매달렸다.

엄마는 내 팔찌에 달린 장식의 의미까지 다 아는 분이었다. 그것을 어디서 샀는지, 왜 그걸 좋아하는지까지도. 엄마는 그날 내가 뭘 입고 뭘 가지고 나갔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먼 곳이나 외따로 떨어진 곳에서라도 그런 물건이 발견되면 경찰은 나의 죽음과 연결지을 수 있을 터였다.

내가 지녔고 좋아한 물건을 줄줄 읊는 엄마를 보는 즐거움과 그게 중요한 단서라고 보는 엄마의 헛된 소망 사이에서 내 마음은 출렁거렸다. 엄마는 만화 주인공이 그려진 지우개나 록스타 배지를 발견하는 사람은 경찰에 신고할 거라는 희망을 가졌다.

형사의 전화를 받은 후, 아버지는 손을 뻗었고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앉아서 앞을 응시했다. 엄마는 내 소지품 목록에 매달렸고, 아버지는 어두운 터널에 들어가는 기분을 느꼈다. 어느 시점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두 분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두 분 다 말하지 않았다. 내가 빗속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생

각…… 두 분은 내가 무사하길 바랐다. 어딘가 들어가서 비 맞지 않고 따뜻하게 있기만을.

누가 먼저 잠들었는지 두 분 다 몰랐다. 지쳐서 뼈가 욱씬거리자, 두 분은 잠에 빠졌고, 죄책감을 느끼며 동시에 눈을 떴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몇 번인가 빗줄기가 변하더니, 이제 우박이 떨어졌다. 얼음 알갱이가 지붕 위에 떨어지는 소리에 엄마, 아버지는 잠에서 깨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 방 저편에 켜 둔 스탠드 등의 불빛에 서로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엄마가 울기 시작하자, 아버지는 엄마를 안고는, 광대뼈 위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닦아 주었다. 그리고 눈에 부드럽게 입맞췄다.

부모님이 입맞추자, 나는 시선을 딴 데로 돌렸다. 옥수수밭을 봤다. 아침에 경찰이 뭘 알아 냈는지 궁금했다. 우박이 내려 옥수숫대가 꺾였고, 동물들은 다 구멍을 찾아갔다. 그리 깊지 않은 땅 밑에 토끼굴이 있었다. 나는 동네에 있는 채소와 꽃을 먹는 토끼를 좋아했다. 토끼들은 가끔 굴에 독약을 갖고 갔다. 사람들이 정원에 둔 독약 미끼 때문에 토끼 가족 모두 웅크리고 죽었다.

10일 아침, 아버지는 부엌 개수대에 위스키를 쏟아 부었다. 린지가 왜 그러냐고 물었다.

"술을 마시게 될까 봐."

아버지의 대답에 여동생은 또 물었다.

"무슨 전화였어요?"

"전화라니?"

"아빠가 수지 언니의 미소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별이 폭발하는 것 같다고."

"내가 그런 말을 했나?"

"아빠,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요. 경찰 전화였죠?"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

"거짓말하면 안 되죠."

린지가 맞장구쳤다.

"경찰이 신체의 일부를 찾았다는구나. 수지의 몸일지도 모른대."

배에 심한 충격이 일어났다.

"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단다."

아버지는 무마하려 노력했다.

린지는 식탁에 주저앉아서 말했다.

"토할 것 같아요."

"린지?"

"아빠,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몸의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토해 버릴게요."

아버지는 커다란 양푼을 꺼냈다. 그것을 린지 바로 앞에 받쳤다.

"됐어요. 말씀해 주세요."

린지가 말했다.

"팔꿈치라는구나. 길버트네 개가 발견했대."

아빠가 손을 잡아 주자, 린지는 장담했던 대로 은색 양푼에 토했다.

그날 아침나절 날이 개자, 경찰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옥수수밭에 줄을 두르고 수색을 시작했다. 비, 진눈깨비, 눈, 우박이 뒤섞여 녹아서 땅이 질퍽했다. 한데 막 손을 댄 듯한 땅이 눈에 띄었다. 경찰은 그곳부터 파기 시작했다.

나중에 감식반은 내 피가 흙과 뒤범벅이 된 부분을 발견하게 되지만, 이 당시에 경찰은 점점 좌절감을 느끼며 소녀를 찾아 젖은 땅을 열심히 파기만 했다.

축구장 주변에 몇 명의 이웃 사람이 나와, 짙은 감색 파카 차림의 경관들이 삽과 갈퀴를 의료 도구처럼 들고 작업하는 광경을 의아하게 지켜보았다. 그들은 경찰이 친 줄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서 있었다.

아버지와 엄마는 집에 남아 있었다. 린지는 자기 방에 있었다. 버클리는 근처에 사는 친구 네이트네 집에 가 있었다. 최근 버클리는 그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부모님은 버클리에게 내가 클라리사네 집에서 자고 온다고 둘러 댔다.

나는 내 시신이 있는 곳을 알았지만, 가족에게 알릴 수가 없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며 기다릴 뿐이었다. 그런데 오후 늦게, 경찰관 한 명이 흙투성이 주먹을 불끈 쥐면서 천둥치듯 소리쳤다.

"여깁니다!"

다른 경찰관들이 달려와 그를 에워쌌다.

다른 이웃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스테드 부인만 남아 있었다. 경찰관들이 의논을 마치자, 퍼너먼 형사가 무리를 빠져 나와 스테드 부인에게 다가갔다.

"스테드 부인이시죠?"

그가 줄을 가운데 두고 물었다.

"네."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까?"

"네."

"저와 함께 가 주시겠습니까?"

젊은 경관이 줄을 들어 스테드 부인이 옥수수밭으로 들어가게 해

주었다. 울퉁불퉁하고 잔뜩 파헤친 옥수수밭에 나머지 경찰관들이 서 있었다.

렌 퍼너먼 형사가 말했다.

"스테드 부인, 이걸 보신 적이 있나요?"

그는 문고판 『앵무새 죽이기(하퍼 리가 쓴 소설. 미국 현대 소설 중 수작으로 손꼽히며, 중·고등학교에서 널리 읽힌다 : 역주)』를 들어 보였다.

"학교에서 이 책을 읽나요?"

퍼너먼 형사가 물었다.

"네."

부인은 간단히 대답했지만, 얼굴에 핏기가 가셨다.

"혹시 자녀분이 몇 학년인지 여쭤 봐도……."

부인은 렌 퍼너먼의 파란 눈을 응시하며 대답했다.

"9학년이요. 수지랑 같은 학년입니다."

그녀는 심리치료사로, 환자의 어려운 인생살이에 대해 잘 들어 주고 합리적으로 의논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다. 하지만 안내해 준 젊은 경찰관에게 자기도 모르게 몸을 기댔다. 스테드 부인이 다른 이웃들이 떠날 때 집에 갈 걸 그랬다고 후회하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거실에 있거나 아들과 뒷마당에서 놀고 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수업의 담당 교사는 누구죠?"

"드위트 선생님이세요. 아이들은 『오델로』를 읽은 후에는 안도하죠."

"『오델로』요?"

"네."

스테드 부인이 대답했다. 그녀가 학교에 대해 아는 내용이 갑자기

중요해져서 경찰관 모두가 귀담아 듣고 있었다.

스테드 부인이 설명했다.

"드위트 선생님은 도서 목록 바꾸기를 좋아해서, 크리스마스 전에 셰익스피어 작품을 읽도록 밀어붙이죠. 그 다음에는 상을 주는 차원으로 하퍼 리의 작품을 과제로 내 주고요. 수지가 『앵무새 죽이기』를 갖고 다녔다면, 이미 『오델로』에 대한 과제물을 제출했다는 뜻일 거예요."

모든 내용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전화 통화를 했다. 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지켜봤다. 드위트 선생님은 내 과제물을 갖고 있었다. 마침내 선생님은 채점하지 않은 과제물을 우편으로 우리 집에 보냈다. 과제물에는 '이걸 보관하고 싶으시리라 생각했습니다.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엄마가 그것을 보는 것은 너무 가혹했기 때문에, 린지가 그 과제물을 처리했다. 나는 '추방당한 자 : 한 남자가 홀로.' 라는 제목을 달았었다. 린지가 '추방당한 자' 라는 제목을 권했고, 뒷부분은 내가 붙였다. 동생은 옆으로 구멍 세 개를 뚫어서, 새 공책에 한 장씩 정성껏 붙였다. 그리고 공책을 옷장의 바비 인형 상자 밑에 넣었다. 그 상자에는 내가 늘 부러워하던 앤과 앤디 인형도 담겨 있었다.

퍼너먼 형사가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교과서를 찾았다. 그들은 마지막 날, 내가 학교에서 받은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꼭 수지 책이란 법은 없지. 아니면 수지가 오는 길에 떨어뜨렸을 수도 있고."

불면의 밤을 시작하면서 아버지가 엄마에게 말했다.

증거는 쌓여 갔지만,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틀 후인 12월 12일, 경찰은 내 공책을 찾아냈다. 보트 선생님 담

당인 생물 시간에 쓰는 모눈종이 공책이었다. 동물들이 공책을 원래 묻혔던 곳에서 다른 데로 옮겨 놨다. 내가 이해도 못하는 이론을 얌전히 적은 모눈종이가 까마귀 둥지에서 나왔다. 나뭇가지와 잎 사이에 찢어진 종이가 뿌려져 있었다. 경찰관이 맞춘 모눈종이 외에 다른 종류의 종이가 나왔다. 더 얇고 잘 부서지고 줄이 없는 종이였다.

그 나무가 있는 집에 사는 소녀가 종이에 적힌 필체의 임자를 알아봤다. 내 글씨체가 아니라, 나한테 반한 레이 싱의 글씨체였다. 그는 어머니에게 얻은 라이스 페이퍼(만두피처럼 생긴 쌀로 만든 얇은 피 : 역주)에 사랑의 글을 적어 놓았다. 나는 읽지 못했지만. 레이는 수요일 실험 시간에 내 공책에 끼워 놓았다. 그의 필체가 분명했다. 경찰관들은 내 생물 공책과 레이 싱의 연애 편지 조각을 맞췄다.

형사가 레이의 집에 가서 그를 만나고 싶다고 하자, 그의 어머니는 말했다.

"레이는 몸이 좋지 않은데요."

하지만 경찰은 알고 싶은 내용을 레이의 어머니에게서 알아 냈다. 경찰이 물어 보려는 내용을 어머니에게 들은 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다, 그는 수지 새먼에게 연애 편지를 썼다. 그랬다, 그는 보트 선생님이 수지에게 쪽지 시험지를 걷어 오라고 했을 때 수지의 공책에 편지를 끼워 놓았다. 그랬다, 그는 자신을 '무어인'이라고 불렀다.

레이 싱이 첫 번째 용의자가 되었다.

"그 친절한 아이가요?"

엄마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물었다.

"레이 싱은 착해요."

그날 밤 린지도 식사를 하면서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지켜보기만 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대로, 나를

죽인 것은 레이 싱의 짓이 아니었다.

경찰은 레이의 집에 가서, 교묘한 질문을 던졌다. 레이의 검은 피부 때문에, 그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분노 때문에, 아름답지만 너무 이국적이고 도움이 안 되는 그의 어머니 때문에 경찰은 그의 유죄를 장담했다. 하지만 레이에겐 알리바이가 있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손님들이 그를 위해 증언해 주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식민지 이후 역사'를 가르치는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인터내셔널 하우스'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십대의 경험을 얘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날이 내가 죽은 날이었다.

처음에 레이가 학교에 결석한 것이 유죄라는 증거처럼 보였지만, '교외 주민들 : 미국적 체험'이라는 강연회에서 레이를 본 참석자 45명의 명단을 확보한 경찰은 그의 결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싱의 집 밖에 서서, 생울타리 가지를 뚝뚝 잘랐다. 마법처럼 쉽게 범인을 잡을 수도 있었는데.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범인이 뚝 떨어질 수도 있었건만. 그런데 학교에 소문이 퍼졌고, 안 그래도 소극적이었던 레이는 더욱 움츠러들었다. 그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에 가기 시작했다.

난 이 모든 것에 미칠 것 같았다. 뻔히 보면서도 경찰을, 하비 씨가 토막 낸 시체를 감춘 온실로 데려갈 수 없었기에 답답했다. 하비 씨는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온실에 고딕풍의 인형 집을 짓고 있었고, 거기에 토막 낸 내 시체를 감추었다. 그는 뉴스를 보고 신문도 봤지만, 낡은 코트처럼 편안하게 결백한 표정을 짓고 다녔다. 예전에는 마음속에 격동이 일었지만, 지금은 차분해졌다.

나는 우리 개 할리데이에게 위로를 얻으려 했다. 아직 부모님과 동생들에 대해서는 그리움을 갖지 않으려고 내 마음을 다잡았지만, 할

리데이만은 그리웠다. 다시는 같이 있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가족에게는 그런 그리움을 갖지 않으려 애썼다. 우스꽝스럽게 들리겠지만, 난 가족과 못 만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고, 믿으려 하지도 않았다. 할리데이는 밤에는 린지 곁에 있었고,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아버지가 문을 열어 줄 때마다 그 옆에 있었다. 식사할 때 은근히 한 몫 끼어서 엄마에게 위로를 줬다. 또 버클리가 꼬리와 귀를 잡아당겨 집으로 들여보내도 가만히 있었다.

땅에 피가 너무 많았다.

12월 15일, 낯선 사람들—친절하지만 어색해하는 이웃들, 더듬거리며 말하지만 잔인한 기자들—이 현관문을 두드릴 때마다 가족들은 멍해져서 문을 열곤 했다. 그 중 아버지가 결국은 현실을 받아들이게 만든 사람도 끼어 있었다.

줄곧 친절한 태도를 보여 준 렌 퍼너먼 형사와 제복 차림의 경찰관 한 명이 찾아왔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는 제법 집에 익숙해졌다. 엄마는 동생들이 듣지 않도록 거실에서 이야기하도록 했다.

"수지의 것이라고 여겨지는 소지품을 발견했습니다."

퍼너먼 형사가 말했다. 그는 신중했다. 그가 말을 가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우리 부모님이 처음 한 생각에서—경찰이 내 시체를 찾아야 내가 분명히 죽은 거라는—벗어나게 자세히 설명했다.

"뭐라고요?"

엄마가 다급하게 물었다. 엄마는 팔짱을 끼고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의미 있게 보는 것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웠다. 엄마는 벽이었다. 공책과 소설 따위도 엄마에겐 아무 소용 없었다. 엄마의 딸은 팔이 하나 없어도 살아 있을 테니까. 피를 많이 흘

려도 피를 많이 흘린 것뿐이니까. 그게 시체는 아니니까. 아버지도 그렇게 말했었고 엄마도 그 말을 믿었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경찰이 내 모자가 든 증거물 봉투를 보이자, 엄마는 무너져 내렸다. 엄마의 심장을 떠받치던 크리스탈 벽이 박살나 버렸다.

"언니 모자네."

린지가 말했다. 린지는 부엌에 있다가 살그머니 거실에 들어와 있었다. 나 말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엄마는 소리를 내면서 손을 뻗었다. 금속성의 소리가 났다. 기계 인간이 부서지는 것 같은 소리랄까, 엔진이 멈추기 전에 마지막으로 덜커덕대는 소리 같달까.

퍼너먼 형사가 말했다.

"조직 검사를 해 봤는데, 범행 중에 수지에게 말을 건 자가 이것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가 반문했다. 아버지는 아무 힘도 없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듣고 있을 따름이었다.

"수지를 입 다물게 하려고 이걸 쓴 것 같습니다."

"뭐라구요?"

"모자에 수지의 타액이 묻어 있습니다. 범인이 이걸로 재갈을 물린 겁니다."

지금껏 조용히 있던 제복 차림의 경찰관이 나서서 말했다.

엄마가 퍼너먼 형사의 손에서 모자를 빼앗을 때 모자에 붙인 방울이 울렸다. 엄마가 무릎을 꿇었다. 엄마는 내게 만들어 준 모자를 쥐고 몸을 숙였다.

문간에서 린지가 뻣뻣해지는 것을 봤다. 린지는 부모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했다.

아버지가 퍼너먼 형사와 경찰관을 현관으로 안내했다.

형사가 말했다.

"새먼 씨, 지금껏 밝혀진 증거물뿐만 아니라 발견된 혈액의 양과 가해진 폭력의 정도로 미루어 따님이 살해되었다는 가정 하에 수사를 진행해야겠습니다."

린지가 그 말을 들었다. 사실 닷새 전, 내 팔꿈치가 발견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짐작하던 내용이었다. 엄마가 울기 시작했다.

"이 시점부터는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하겠습니다."

퍼너먼 형사가 말했다.

"하지만 시체가 없잖습니까."

아버지가 말했다.

"모든 증거가 따님의 죽음을 말해 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복 차림의 경찰관은 아버지의 간절한 눈길을 비꼈다. 나는 경찰학교에서 그런 것도 가르쳐 주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퍼너먼 형사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이따가 전화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거실로 돌아왔을 즈음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카펫에 주저앉은 엄마에게 손을 내밀지도 못했다. 옆에서 뺏뺏하게 굳은 린지에게도. 아버지는 그들에게 얼굴을 보일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서재에 있을 할리데이를 떠올리며 계단을 올랐다. 개는 거기 있었다. 아버지는 할리데이의 목덜미에 얼굴을 파묻고 울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세 식구는 숨을 죽였다. 발소리만 내도 그 소식이 사실로 확인되기라도 할 듯이 사방이 고요했다. 네이트의 엄마가 버클리를

데려다 주러 와서 현관문을 두드렸다.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집 안의 기류에 변화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돌아간다. 집의 겉모습은 다른 집들과 다름이 없었지만. 그녀는 내 부모님과 한편이 되어 버클리를 속이기로 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자고 했다. 그가 밥맛을 잃을 게 분명한데도.

4시, 부모님은 아래층 방으로 내려왔다. 각자 반대편 문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엄마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한테."

엄마가 말하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내 조부모 중 유일하게 살아 계신 외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동생이 혼자 있다가 경솔한 짓을 벌일까 걱정스러웠다. 린지는 제 방에 있는 소파에 앉아서 마음을 다지고 있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가만히 있어 봐. 더 오래 가만히 있으려고 애써 봐. 너를 작게 만들어서 돌처럼 되어 봐. 아무도 못 보는 곳에서 너 자신의 끝을 접어 봐.'

엄마는 린지에게 크리스마스까지는 앞으로 1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학교에 가고 싶냐고 물었고, 린지는 학교에 가겠다고 했다.

월요일 조회 시간, 린지가 교실로 가자 모두 쳐다봤다.

드위트 선생님이 다급히 말했다.

"교장 선생님께서 보자고 하시는데."

린지는 드위트 선생님이 말할 때 쳐다보지 않았다. 그 아이는 상대방을 꿰뚫어 보며 대화하는 재주가 있었다. 내가 뭔가 해야겠다고 처음 생각한 것도 그런 면 때문이었다. 드위트 선생님은 담임이면서 영

어 선생님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남편인 남학생 축구부 코치가 린지에게 팀에 들어오라고 권했다는 사실이었다. 린지는 드위트 선생님 내외를 좋아했지만, 그날 아침에는 맞붙어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눈만 응시하기 시작했다.

동생이 소지품을 챙길 때, 사방에서 소곤대는 소리가 들렸다. 린지는 교실에서 나가기도 전에 대니 클라크가 비아 헨리에게 귓속말을 하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교실 뒤에서 누군가 물건을 떨어뜨렸다. 린지는 아이들이 일부러 물건을 집었다 떨어뜨렸다 하면서, 죽은 언니에 대한 소문을 수군댈 거라고 믿었다.

린지는 사물함이 죽 늘어선 복도를 지났다. 근처에 있는 사람은 모두 린지를 피해 갔다. 동생과 함께 걸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강당에서 조회를 할 때마다 '교장 선생님은 여러분의 친구다!' 라고 말하는 교장 선생님의 흉내를 낼 텐데. 린지의 귀에 대고 낑낑 소리를 내서 한바탕 웃겨 주기도 하고.

하지만 다행히 텅빈 복도를 걸어 교무실로 들어가자, 끔찍하게도 행정 직원들의 위로하는 눈길이 쏟아졌다. '상관없어.' 린지는 이미 자기 방에서 마음의 준비를 했다. 누군가 동정심을 비추면 확 물어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카든 교장이 말했다.

"린지, 오늘 아침에 경찰에서 전화를 받았다. 상실감이 얼마나 크니. 안됐구나."

린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눈길이라기보다 레이저 광선을 쏟는 것 같았다.

"정확히 제가 뭘 잃었는데요?"

카든 교장은 아동이 겪는 위기 상황에 대해 강조할 필요성을 느꼈

다. 그는 책상 앞으로 걸어 나와 린지를 '소파'로 이끌었다. 학생들은 그것을 '소파'라 부르며 묘한 뉘앙스를 풍겼다. 나중에 학교 위원회가 교장에게 '교장실에 소파를 두는 것은 좋지 않으니 의자가 낫겠습니다. 소파는 엉뚱한 생각을 심어 줄 수도 있거든요.'라는 권고를 받고 의자 두 개로 바꾸게 될 터였다.

교장이 소파에 앉자, 린지도 따라 앉았다. 그 순간, 린지가 화가 나긴 했지만 드디어 소파에 앉게 된 사실에 제법 흥분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다. 내가 동생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싶다.

교장이 말했다. 그는 최선을 다했다.

"우린 할 수 있는 바를 다해 돕겠다."

"저는 괜찮은데요."

린지가 말했다.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니?"

"무슨 일이요?"

린지가 물었다. 그애는 아버지가 '건방지다'고 말하는 태도를 취했다. 가끔 아버지는 "수지, 내게 그런 건방진 말투로 말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곤 했다.

"네 상실감 말이다."

교장은 손을 뻗어 내 동생의 무릎을 만지려 했다. 그의 손이 낙인을 찍는 뜨거운 인두처럼 린지의 몸에 닿았다.

"저는 잃어버린 게 없는데요."

린지는 젖먹던 힘까지 다 내서, 주머니를 뒤적이는 체했다.

카든 교장은 뭐라고 해야 좋을지 몰랐다. 지난해에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비키 커츠는 그의 품에 쓰러졌다. 그 일도 어려웠지만, 지금

생각하면 비키 커츠가 어머니를 여읜 일은 솜씨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그는 비키를 소파로 데려가서—아니, 그게 아니라 비키가 소파로 곧장 가서 주저앉았다.— '상실감이 크겠구나. 유감스럽다.' 라고 말하자, 비키는 풍선이 한껏 부풀었다 터지듯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흐느끼는 비키를 안아 주었고, 그날 밤 양복을 세탁소에 맡겼다.

한데 린지 새먼은 완전히 달랐다. 주 영재 심포지엄에 나갈 학교 대표 20명에 뽑힌 아이였다. 영재 대표를 선출할 때, 린지가 학년 초에 선생이 외설 도서 『날기가 두려워』를 교실에 가져왔다고 꾸짖었을 때 약간 언쟁을 벌인 일이 기록된 것만이 문제였다.

교장 선생님에게 말하고 싶었다.

"린지를 웃게 해요. 막스 브라더스 영화를 보게 하고, 방귀 쿠션에 앉게 해요. 악마가 핫도그를 먹는 그림이 그려진 선생님의 사각 팬티를 보여 주든지요!"

그런 말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나마도 지상에서는 들을 수 없었다.

교육청에서는 모든 학생에게 시험을 치르게 해서 영재를 가리기로 했다. 난 동생보다 멍청한 것보다 머리카락이 흉한 게 더 화가 난다는 말을 곧잘 했다. 둘 다 태어날 때는 금발이었는데, 내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갈색 머리카락이 엉성하게 자랐다. 린지의 머리는 그대로 있어서 아주 보기 좋았다. 우리 가족 중 진짜 금발은 린지뿐이었다.

하지만 일단 영재로 뽑히자, 린지는 그 이름에 걸맞게 생활했다. 자기 방에 틀어박혀 어려운 책들을 읽기 시작했다. 내가 『하나님, 저 마거릿이에요.』를 볼 때, 린지는 카뮈의 『저항, 반항 그리고 죽음』을 읽었다. 책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그 책을 갖고 다니면서 선

생님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말도 못 걸게 만들었다.

카든 교장 선생님은 말했다.

"린지, 난 우리 모두 수지를 그리워할 거란 말을 하고 싶었단다."

린지는 대답이 없었다.

교장 선생님이 다시 말했다.

"굉장히 영리한 학생이었는데."

린지는 멍하니 그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이제 네 어깨에 달렸다. 새먼 자매 중 너만 남았으니."

그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그저 침묵이 부담스러울 따름이었다.

"오늘 아침 누가 날 만나러 왔는지 아니?"

그가 마지막 펀치를 날렸다. 이번에는 잘 먹힐 것 같았다. 카든 교장이 말했다.

"드위트 코치가 왔더구나. 여학생 팀을 지도할까 생각 중이라더라. 그 계획은 너를 중심으로 짠 거야. 드위트 코치는 네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쭉 지켜봤고, 네가 주장을 맡으면 다른 여학생들도 팀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더구나. 어떻게 생각하니?"

내 동생의 마음은 꽉 닫혀 있었다.

"언니가 살해되었다고 짐작되는 곳에서 6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축구장에서 축구 경기를 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점!'

교장은 입을 헤벌리고 린지를 쳐다보았다.

"달리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린지가 물었다.

"아니, 나는……."

교장이 다시 손을 내밀었다. 이해하려는 열망이…… 한 가닥 끈이 있었다.

"우리가 얼마나 유감으로 여기는지 알아 주면 좋겠구나."

"첫 수업 시간에 늦었는데요."

린지가 말했다.

그 순간의 린지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서부 영화의 주인공을 연상시켰다. 우리가 자주 보는 심야 서부 영화에는 주인공이 총을 쏜 후, 총구를 입술에 대고 연기를 후 부는 장면이 나왔다.

린지는 일어나서 천천히 교장실 밖으로 나왔다. 거기서 행정실까지의 공간이 린지에겐 유일한 휴식 시간이었다. 행정 직원들은 문 밖에, 선생님들은 교실 앞에, 학생들은 책상에, 우리 부모님은 집에, 경찰은 수사현장에 있었다. 린지는 무너지지 않으리라. 나는 동생을 보며 그 아이가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뇌는 말을 느껴 보았다.

'괜찮아, 다 괜찮아. 언닌 죽었지만, 그거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사람은 죽기 마련이니까.'

그날 린지는 행정실로 나와 직원들의 눈을 똑바로 보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립스틱이 번진 자국이나 실크 투피스의 올챙이 무늬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날 밤, 린지는 제 방 바닥에 누워 발을 옷장 밑에 넣었다. 윗몸일으키기를 열 차례 했다. 그런 다음 팔굽혀펴기에 들어갔다. 여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드위트 코치가 해군에서 했다고 가르쳐 준 대로 머리를 들거나 한 손만 땅에 대는 식으로 했다. 팔굽혀펴기를 열 차례 한 다음, 책꽂이로 가서 제일 무거워 보이는 사전과 세계 연감을 꺼냈다. 그러고는 양손에 한 권씩 들고 팔이 아플 때까지 아령 운동을 했다.

린지는 호흡에만 집중했다. 들이쉬고. 내쉬고.

나는 천국의 마당에 있는 전망대에 앉아서(이웃에 사는 오드와이어네 집에 전망대가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샘이 많이 났다.) 린지가 분노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내가 죽기 몇 시간 전, 엄마는 냉장고에 버클리의 그림을 붙였다. 그림에서는 짙은 파란색 선이 하늘과 땅을 나누었다. 그후 며칠간 가족이 그 그림 앞을 오가는 것을 보면서, 그 짙은 파란색 선이 실제로 있는 곳이라고 믿게 됐다. 천국과 지상의 수평선이 만나는 중간 지대 같은 게 있다고. 그곳에 가서 파란색, 쪽색, 남색, 옥색, 하늘색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가끔 나도 모르게 소박한 것을 원했고, 그걸 얻었다. 개도 그렇게 생겼다.

내 천국에는 매일 작은 개, 큰 개, 온갖 종류의 개들이 내 방 바깥 공원에서 뛰어 놀았다. 문을 열면 뚱뚱하고 행복한 개, 마르고 털이 많은 개, 늘씬하고 털이 없는 개가 보였다. 아메리카 테리어들이 뒹굴었고, 암놈들의 젖이 부풀어서 새끼들이 어서 태어나, 햇빛을 받으며 젖을 빨기를 바랐다. 바셋 하운드(다리가 짧은 사냥개 : 역주)가 자기 귀에 걸려 넘어지고, 슬금슬금 걷다가 닥스훈트의 엉덩이를 찌르고, 그레이하운즈의 발목과 발바리의 머리를 건드렸다. 그때 할리가 테너 색소폰을 들고 공원이 내려다보이는 문 밖에 서서, 블루스 음악을 연주하자 개들이 합창하듯 뛰어다니거나 웅크리고 앉아 울었다. 다른 집 문이 열리고, 혼자 살거나 룸메이트랑 사는 여자들이 나왔다. 내가 밖으로 나가면 할리는 끝없이 앙코르곡을 연주했고, 쏟아지는 햇살

속에서 우리 모두는 개들과 춤을 췄다. 우리는 점박이무늬 가운, 꽃무늬 가운, 줄무늬 가운, 단색 가운을 입었다. 달이 높이 뜨자 음악은 멈췄다. 춤도 멈췄다. 우리는 가만히 있었다.

내 천국에서 가장 연장자인 베델 어트메이어 부인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나오곤 했다. 할리는 가볍게 색소폰을 불었다. 두 사람은 이중주를 연주했다. 한 여자는 늙고 말이 없었고, 또 한 여자는 아직 소녀티도 가시지 않았고. 그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열광적인 위안을 빚어내곤 했다.

춤꾼들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음악은 계속되다가, 할리가 마지막 대목을 연주하면 어트메이어 부인이 조용히 활을 내리그으며 연주를 맺었다.

그때쯤 우리 가족은 잠들었다. 이것이 나의 저녁 기도였다.

3

밑을 내려다보면 지상은 아주 이상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지만, 자세히 보면 전 세계에서 영혼들이 몸을 떠나고 있는 광경이었다.

할리와 나는 여기저기 잠깐씩 내려다보며, 특별한 일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산 사람 옆을 뛰다가 어깨나 뺨을 가볍게 스치고 하늘로 오는 영혼도 있었다. 산 사람들은 죽은 자를 제대로 볼 수 없지만, 뭔가 주변에 변화가 있었음을 아는 사람들도 있는 듯하다. 그들은 공기가 서늘하다고 말한다.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들은 꿈을 꾸다가 일어나서, 침대 끝이나 문간에 서 있는 형체를 보기도 한다. 시내버스에서 그러기도 하고.

나는 지상에서 빠져 나오다가 루스라는 여자 애를 건드렸다. 같은 학교에 다녔지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 그날 밤 내 영혼이 지상에서 빠져 나오는 길에 루스가 서 있었다. 그애를 스치고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런 폭력 속에서 생명을 놓느라, 발걸음 수를 제대로 계산할 수가 없었다. 폭력 속에서는 빠져 나가는 데만 집중하기 마련이다. 경계를 넘기 시작하면서, 해안에서 배가 미끄러져 나가듯 생명이 빠져 나가면, 죽음에 바싹 매달리게 된다. 나를 구해 줄 생명줄처럼 매달려서, 죽음을 타고 날아간다. 방금 빠져 나온 곳에서 먼 곳에 내려 주기를 소망하면서.

우연히 감옥에서 잘못 걸려 온 전화처럼, 나는 루스 코너스를 스쳤다. 나는 보트 선생님의 빨간 고물차 근처에 서 있는 그애를 봤다. 그 옆을 질주할 때, 손이 튀어나가 그애를 스쳤다.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만져 본 얼굴은 별난 여자 애 얼굴이었다.

12월 7일 아침, 루스는 어머니에게 꿈을 꿨는데 너무 실제 같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루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교직원 주차장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축구장 아래쪽에서 유령 같은 게 내 쪽으로 뛰어오는 걸 봤어요."

코너스 부인은 냄비에 든 굳은 죽을 저었다. 그녀는 길고 가는 손가락을 저으며 얘기하는 딸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를 닮은 손이었다.

"여자였어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게 들판에서 휙 날아왔어요. 눈이 움푹 패었어요. 몸에는 천 기저귀 같은 베일을 두르고 있었어요. 천 안쪽의 얼굴이 보였어요. 코랑 눈, 얼굴, 머리카락 모두 다요."

코너스 부인은 스토브에서 죽 냄비를 내리고 불을 끄며 말했다.

"루스, 또 상상에 빠졌구나."

루스는 입을 다물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다시는 꿈이 아닌 그 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열흘 후 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학교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고, 점점 공포 소설 같은 분위기가 덧붙여져서 소문이 퍼져 나갔다. 내 또래들은 실제보다 공포스런 이야기로 꾸미려

고 애썼다. 하지만 상세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다. '누가, 언제, 무슨 짓을' 같은 부분은 어림짐작할 수 없어서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악마 의식, 한밤중, 레이 싱……' 이런 얘기만 돌 뿐이었다.

다른 사람은 발견하지 못한 은팔찌가 있는 곳으로 루스를 이끌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러면 그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는데. 팔찌는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며 드러나 있었다. 그것을 알아보고 '단서'로 생각할 사람을 기다리며. 하지만 옥수수밭에 있지는 않았다.

루스는 시를 쓰기 시작했다. 어머니나 선생님들이 그녀가 경험한 어두운 현실에 대해 듣고 싶어 하지 않으니, 이런 현실을 시로 쓸 작정이었다.

나는 루스가 우리 집에 찾아가서 이야기하기를 알마나 바랐던지. 린지 말고는 다들 루스의 이름도 몰랐다. 루스는 체육 시간에 팀을 뽑을 때 꼴찌에서 두 번째쯤으로 선택되는 그런 아이였다. 배구공이 자기 쪽으로 날아오면 몸을 움츠리고 가만히 서 있어서 공이 코트 밖으로 나가 버렸다. 그러면 팀 동료들과 체육 선생님은 신음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써야 했고.

엄마가 복도에 놓인 의자에 앉아서, 이런저런 일로 뛰어다니는 아버지를 보고 있을 때—이제 아버지는 가족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어린 아들과 아내, 하나 남은 딸이 어디 있는지 신경을 썼다.—루스는 학교 주차장에서 나와 우연히 만났고 지하로 숨어들었다.

루스는 지난 연도의 학교 앨범을 꺼내 우리 반 사진과 클럽 활동 사진을 찾아서, 수예용 가위로 오려냈다. 그애가 나와의 만남에 집착할수록 나는 주시했다. 그러다 크리스마스 전 주, 학교 복도에서 뭔가가 루스의 눈에 들어왔다.

내 친구 클라리사와 브라이언 넬슨이었다. 브라이언은 여학생들이

넋을 잃고 쳐다볼 만큼 넓은 어깨를 가졌지만, 얼굴은 삼베 주머니에 짚을 채운 것 같아서 난 '허수아비'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다. 그는 헐렁한 가죽 모자를 쓰고, 학생 흡연실에서 손으로 만 담배를 피웠다.

우리 엄마 말로는 클라리사가 파란 아이섀도를 좋아하는 것부터 싹이 노랗다고 했지만, 난 그런 이유 때문에 그애가 좋았다. 클라리사는 내게 금지된 일을 하니까. 긴 머리에 염색을 하고, 통굽 구두를 신고, 방과 후에는 담배를 피우고.

루스가 다가갔지만 두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루스는 사회 과학 담당인 카플란 선생님에게 빌린 책을 한아름 안고 있었다. 모두 초기 여성학 관련 도서였는데, 루스는 다른 사람이 못 보도록 책등을 자기 몸쪽으로 돌려서 운반했다. 루스의 아버지는 튼튼한 고무줄로 책 바인더를 만들어 주었다. 루스는 방학 중에 읽을 책을 고무줄 두 개로 묶어서 가져가는 중이었다.

클라리사와 브라이언은 키득대고 있었다. 브라이언의 손이 클라리사의 셔츠 속에 있었다. 그가 손을 움직이자 클라리사는 더 키득대면서도, 매번 몸을 비틀거나 몸을 조금 움직였다. 루스는 늘 그렇듯 이런 장면에서도 비켜서 있었다. 평소처럼 머리와 고개를 돌리고 지나가고 싶었지만, 클라리사가 내 친구란 사실은 누구나 알았다. 그래서 루스는 그들을 지켜보았다.

"자, 클라리사. 이건 사랑이 넘을 언덕일 뿐이야. 딱 한 번만."

루스가 메스꺼워서 입술을 삐죽이는 걸 난 봤다. 천국에서 내 입매도 올라갔다.

"브라이언, 난 못 해. 여기선 안 돼."

"옥수수밭에 나가서 할까?"

클라리사는 초조하게 킬킬대면서도 그의 목과 어깨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 지금은 그를 거부할 작정이었다.

그후 클라리사의 사물함에 도둑이 들었다.

스크랩북과 사물함 안에 붙여 둔 사진이 없어졌다. 브라이언이 여자 친구 몰래 숨겨 둔 마리화나 봉지도 없어졌다.

마리화나를 피워 본 적이 없는 루스는 그날 밤, 엄마의 담배를 손에 넣었다. 루스는 담배에서 가루를 털어내고 그 자리에 마리화나를 넣었다. 그러고는 창고에 들어가 손전등을 들고 앉아서, 내 사진을 보며 마리화나를 많이 피우는 애들보다도 많은 마리화나를 피웠다.

부엌 창문 앞에서 설거지를 하던 코너스 부인은, 창고에서 새나오는 연기 냄새를 맡았다.

"루스가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나 봐요."

그녀가 남편에게 말했다. 코너스 씨는 커피를 마시며 「이브닝 블레틴」을 읽고 있었다. 그는 하루 일과가 끝나면 너무 고단해서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잘됐네."

그가 대꾸했다.

"루스는 아직 희망이 있어요."

"언제든 그렇지."

그날 밤늦게 루스가 손전등 불빛을 받으며 담배를 여덟 개비나 피워서 흐리멍덩한 눈으로 들어오자, 어머니는 싱긋 웃으며 딸을 맞아 주었다. 그녀는 부엌에 블루베리 파이가 있다고 말해 주었다. 루스는 앉은 자리에서 파이 한 판을 먹어치운 이유가 마리화나를 피운 후의 공복감 때문이었음을 며칠이나 걸린 끝에 알게 되었다. 수지 새먼에 대한 연구와는 관계없는 일이긴 했지만.

내 천국에는 스컹크 비슷한 냄새가 자주 났다. 꼭 그 냄새는 아니지만. 내가 지상에서 늘 좋아하던 냄새였다. 그 냄새를 맡으면, 향 같은 걸 느낄 수 있었다. 동물의 두려움과 힘이 섞여서 사향 비슷한 냄새가 풍겼다. 프래니의 천국에서는 순수한 A급 담배 냄새가 풍겼다. 할리의 천국에서는 귤 냄새가 났고.

나는 밤낮없이 전망대에 앉아서 지상을 내려다보곤 했다. 내 생각을 하던 클라리사의 마음이 브라이언의 위로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도 봤다. 루스가 교실 부근 모퉁이나 양호실 근처 구내 식당 밖에서 클라리사를 지켜보는 것도 봤다. 처음에는 학교 전체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자유 때문에 흥분됐다. 풋볼 보조 코치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유부녀인 과학 선생님 자리에 초콜릿을 놔 두는 장면도 봤다. 치어 리더 주장이 너무 많은 학교를 전전해서 몇 군데 다녔는지 헤아리지도 못하는 문제아의 관심을 끌려고 쩔쩔매는 것도 봤다. 미술 선생님이 도자기 가마실에서 애인과 사랑을 나누는 장면도 봤고, 교장 선생님이 풋볼 보조 코치에게 넋을 잃는 것도 봤다. 나는 케넷 중학교에서 이 풋볼 보조 코치가 폭풍의 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 네모진 턱을 보면 등줄기가 서늘해졌지만.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 읍내'라는 연극에서 본 고풍스런 가로등 밑을 지났다. 여러 개의 전구가 아치를 그리며 쇠기둥에 달려 있었다. 가족과 그 연극을 보면서, 그 가로등을 빛을 내뿜는 거대한 포도송이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생생했다. 천국에서 나는 집으로 가는 길에 그림자를 움직여 포도송이를 따는 놀이를 하곤 했다.

어느 밤, 나는 루스를 지켜보다가 프래니를 만났다. 광장은 텅 비어 있었고,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공중에서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나는 일어나서 프래니를 바라봤다. 많이 웃어서 눈가와 입가에 주름이 잔

뜩 잡혀 있었다.

프래니가 물었다.

"왜 몸을 떠니?"

공기가 축축하고 서늘했지만, 그 때문은 아닌 것 같았다.

"엄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요."

내가 대답하자 프래니는 두 손으로 내 왼손을 잡더니, 가볍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뺨에 가볍게 뽀뽀하거나 포옹하고 싶었지만, 나는 내 앞을 지나가는 그녀를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프래니는 푸른 드레스 자락을 끌고 가 버렸다. 나는 그녀가 내 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엄마인 척할 수는 없었다.

나는 몸을 돌려 다시 전망대로 갔다. 축축한 공기가 팔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머리칼도 가볍게 날렸다. 아침의 거미집을 생각했다. 거미집에 이슬이 보석처럼 매달려 있었는데…… 나는 별 생각 없이 거미집을 없애 버리곤 했다.

열한 살 되는 생일 아침, 나는 일찌감치 잠에서 깼다. 가족 모두 자고 있었다. 아니, 그렇게 생각됐다. 살그머니 아래층에 내려가서 식당을 들여다봤다. 선물이 거기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식탁 위는 어제랑 똑같았다. 하지만 몸을 돌리다가 거실에 있는 엄마의 책상이 눈에 들어왔다. 늘 말끔히 정돈된 예쁘장한 책상이었다. 다들 '고지서 책상'이라고 불렀다.

거기 포장하지 않은 카메라가 놓여 있었다. 책상으로 가서 카메라를 봤다. 자동 카메라였고 옆에는 필름 세 통과 네모난 플래시 네 개가 든 상자가 놓여 있었다. 내가 갖고 싶다고 징징댔지만, 정말 갖게 되리라곤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었다. 이것은 내가 처음으로 갖는 기계였고, 장래 소망을 이룰 도구를 처음으로 갖춘 셈이었다. 야생 생

물 전문 사진 작가가 내 꿈이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블라인드 틈으로 밖을 내다봤다. 엄마는 언제나 블라인드를 반쯤 열어 놓았다. '폐쇄된 느낌은 들지 않아야 하지만 조심성은 있어야 된다' 면서. 길 아래 살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그레이스 타킹이 발목에 보조 기구를 달고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카메라에 필름을 넣고 그레이스 타킹에게 따라붙기 시작했다. 나중에 커서 코끼리와 물소 떼를 따라붙는 상상을 하면서. 블라인드와 창문은 높이 자란 갈대밭이라고 상상했다. 나는 소리 내지 않았다. 빈 손으로 잠옷 치맛단을 모아 쥐고 살그머니 걸었다. 그레이스가 우리 거실 앞을 지나더니, 현관 홀을 지나 저쪽에 있는 터널로 들어갔다. 그레이스 타킹이 사라지는 것을 보니, 뒷마당으로 가서 아무 장애 없이 그애를 보고 싶었다.

그래서 발끝으로 걸어 집 뒤로 가니, 뒷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엄마를 보자 나는 그레이스 타킹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렸다. 이보다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엄마가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걸 본 적이 없었다. 어찌 보면 엄마는 '거기' 없었다. 엄마는 뒷문 밖에 알루미늄 접의자를 내놓고 앉아 있었다. 뒷마당과 마주 보는 자리였다. 손에는 커피 잔과 받침을 들고 있었다. 그날 아침, 커피잔에는 립스틱 자국이 묻지 않았다. 립스틱을 발라도 보여 줄 사람도 없었으니까. 한데 엄마는 누구한테 보여 주려고 립스틱을 바를까?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 우리?

할리데이는 기분 좋게 헉헉대며, 모이통 옆에 앉아 있었다. 녀석은 내가 다가가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엄마만 쳐다봤다. 엄마는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엄마는 우리 엄마가 아니라 나랑은 상관없는 존재 같았다. 내가 보는 사람은 내가 알던 엄마가 아니었다. 화장

을 하지 않아도 엄마의 피부는 뽀송뽀송했다. 눈썹과 눈은 보기 좋게 어울렸다. 아버지는 엄마가 술 캐비닛에 감춰 두고 혼자 먹는 체리 초콜릿을 먹고 싶을 때면, 엄마의 눈을 '바다 같다' 고 칭찬했다. 나는 엄마의 눈이 파란색이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눈이 바닥을 알 수 없이 깊어서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걸 알았다. 그런데 그렇게 바닥을 알 수 없이 깊어 보이는 게 두려웠다. 그때 본능적으로 카메라로 엄마를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리데이가 내 냄새를 맡기 전에, 잔디에 맺힌 이슬이 날아가 버리기 전에, 평소 아침의 엄마 모습으로 되돌아오기 전에 사진을 찍기로 했다.

인화한 사진을 보니, 차이를 금방 알 수 있었다. 엄마가 '애비게일'로 보이는 것은 딱 한 장뿐이었다. 처음에 찍은 사진. 엄마가 모를 때 찍은 사진. 내가 찰칵 소리를 내며 촬영하자, 엄마는 생일을 맞은 딸의 엄마이자 행복한 개의 주인, 사랑 많은 남편의 아내인 엄마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딸 둘과 소중한 아들을 하나 둔 엄마 모습으로. 가정 주부, 정원사, 활달한 이웃. 우리 엄마의 눈은 바다 같았고, 그 안에는 상실이 있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엄마를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날 처음으로 엄마를 알았다. 나는 지상에서 '애비게일' 인 엄마를 보았지만, 금세 그 모습을 놓아 버렸다. 환상 속에서 그런 엄마가 되어 주기를, 그런 엄마로서 나를 안아 주기를 바라긴 했지만.

전망대에 앉아서 그 사진을, 엄마를 생각하는데, 린지가 밤중에 일어나 살그머니 복도로 나왔다. 영화에서 도둑이 까치발로 집 안을 돌아다니듯 나는 린지를 따라다니며 지켜보았다. 동생이 내 방의 손잡이를 돌리자, 나는 왜 그런지 알았다. 내 방은 벌써 이 집에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 되어 버렸다. 엄마는 내 방을 건드리지 않았다. 내가 죽던 날 아침, 정리도 안 하고 서둘러 나간 모습 그대로였다. 하마 인

형이 침대 이불과 베개 사이에 놓여 있고, 내가 노란 바지를 입기 전에 벗어 던진 옷도 그대로 놓여 있었다.

린지는 바닥에 깔린 러그 위를 지나, 청색 치마와 빨간색과 파란색 니트 조끼를 매만졌다. 린지도 같은 무늬의 오렌지색과 초록색 조끼를 갖고 있었다. 린지는 조끼를 꺼내더니 침대에 납작하게 펴 놓고 편편하게 매만졌다. 조끼는 보기 흉했지만 그래도 소중했다. 나는 그것을 알 수 있었다. 린지가 조끼를 어루만졌다.

린지는 내가 서랍장 위에 놔 둔 금색 쟁반을 쓰다듬었다. 쟁반에는 여러 선거와 학교에서 받은 배지가 담겨 있었다. 제일 맘에 드는 것은 '엉덩이를 흔들어요.' 라고 써 있는 배지였다. 학교 주차장에서 주웠는데, 그걸 달지 않겠다고 엄마에게 약속해야 했다. 나는 여러 개의 배지를 그 쟁반과 아버지의 모교인 인디애나 대학의 대형 깃발에 꽂아서 보관했다.

난 린지가 그 배지들 중 옷에 달 한두 개 정도를 슬쩍할 거라고 짐작했지만, 그게 아니었다. 린지는 배지는 집어 들지도 않았다. 그냥 쟁반에 담긴 것들을 손으로 쓰다듬어 볼 뿐이었다. 그때 흰 귀퉁이가 삐죽 나온 것이 린지의 눈에 띄었다. 린지는 그것을 빼냈다.

그 사진이었다.

린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사진을 들고 아직도 입을 헤벌리고 있었다. 텐트가 무너지듯, 밧줄 같은 것이 린지에게 쏟아지며 몸을 휘감았다. 그 사진을 찍은 날 아침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낯선 엄마의 모습을 이제 린지도 보았다. 린지는 그 다음에 찍은 사진들도 보았다. 엄마는 피곤해 보였지만 미소짓고 있었다. 엄마와 할리데이가 층층나무 앞에 서 있을 때, 햇살이 엄마의 잠옷 가운에 파고들었다. 하지만 나는 다른 모습의 엄마를 아는 사람은 집에서 나

뿐이기를 바랐다. 우리가 모르는 신비로운 사람임을.

내가 처음 끼어든 것은 우연이었다. 1973년 12월 23일이었다.

버클리는 자고 있었다. 엄마는 린지를 치과에 데려가서 집에 없었다. 그 주에는 가족들이 발을 내딛는 일에 시간을 쏟기로 했다. 아버지는 오래 전에 아버지의 개인 방이 된 위층 손님방을 정돈하겠다고 자원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병 속에 배를 넣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 엄마와 린지, 버클리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난 병 속에 든 배에 감탄했다. 아버지 방에는 배가 든 병이 아주 많았다.

아버지는 온종일 '채즈 포드 보험 회사'에서 숫자를 헤아리다가 밤에는 배를 만들거나 남북 전쟁과 관련된 책을 읽으며 긴장을 풀었다. 아버지는 돛을 올릴 때마다 나를 불렀다. 그즈음이면 배를 병 바닥에 붙일 준비가 끝났다. 내가 방에 들어가면, 아버지는 문을 닫으라고 했다. 곧장 저녁 식사를 알리는 종소리가 날 때도 있었다. 엄마는 자기가 관심 없는 일은 기막히게 알아 내는 육감이 있는 사람 같았다. 하지만 이런 육감이 작동하지 않을 때면, 나는 병을 들고 있었다.

아버지는 말했다.

"가만히 있으렴. 넌 내 일등 항해사란다."

아버지가 병 목 밖에 나온 줄을 가만히 잡아당기며 "야호! 범선의 마스트에서 돛이 올랐다. 우린 배를 갖게 됐다."라고 말하고 손뼉을 쳤다. 나는 병을 들고 있어서 손뼉을 치지는 못했지만, 언제나 손뼉을 치고 싶었다. 아버지는 촛불에 달군 옷걸이로 줄의 끝을 태워 병 속으로 밀어넣었다. 이 과정을 제대로 못하면 배가 무너지거나, 작은 종이 돛에 불이 붙어서 내가 들고 있는 병이 불길에 휩싸일 수도 있었다.

마침내 아버지는 목재 스탠드를 만들어 거기에 병을 올렸다. 두 동생은 나와는 달리 병에 든 배에 열광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세 사람에게 열정을 불어넣으려 애쓰다가 포기하고, 아버지의 방에 틀어박혔다. 다른 가족은 병에 든 배를 별스럽게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방 청소를 하면서 아버지는 내게 말했다.

"내 딸 수지…… 내 꼬마 선원. 넌 항상 더 작은 배들을 좋아했지."

나는 아버지가 병에 든 배들을 선반에서 책상으로 옮겨 와 쭉 늘어놓는 모습을 지켜봤다. 아버지는 걸레가 된 엄마의 낡은 셔츠로 선반의 먼지를 닦았다. 책상 밑에는 빈 병들이 있었다. 배를 더 만들기 위해 우리가 모아 놓은 병이 줄줄이 쌓여 있었다. 옷장에는 더 많은 배들이 들어 있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랑 만든 배, 아버지 혼자 만든 배, 우리 둘이 만든 배. 완벽한 것도 있었지만 누렇게 변해 버렸고, 어떤 것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무너지고 부서졌다. 그리고 내가 죽기 전 주에 불길에 휩싸였던 배도 있었다.

아버지는 그 배를 주먹으로 쳤다.

내 가슴이 멎는 듯했다. 아버지는 몸을 돌려 다른 배들을 쳐다봤다. 죽은 아버지의 배들, 죽은 딸의 배들. 나는 아버지가 나머지 배들을 부수는 광경을 지켜봤다. 아버지가 벽과 의자에 배를 내던져 내 죽음을 알리는가 싶더니, 나중에는 손님방 겸 아버지 방이 초록색 유리투성이로 변했다. 깨진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돛과 선체가 나뒹굴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내가 나선 게 바로 그때였다. 깨진 유리 조각에 나는 얼굴을 비췄다. 아버지는 힐끗 내려다보더니 주변을 둘러봤다. 두리번두리번. 나는 한순간 거기 있다가 사라졌다. 아버지는 잠시 조용히 있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뱃속 밑바닥에서 터져나오는 울부짖음이었다. 아버지가 너무 크게 웃어서, 그 떨림 때문

에 내 천국에서 나도 떨었다.

아버지는 방에서 나가 내 방으로 갔다. 복도는 좁았고, 내 방문도 다른 방들처럼 주먹으로 치면 문이 움푹 팰 정도로 약했다. 아버지는 서랍장 위에 달린 거울을 부수고, 벽지를 마구 찢으려다가 대신 침대에 주저앉았다. 아버지는 보라색 이불보를 손에 말아쥐고 흐느꼈다.

"아빠?"

버클리가 물었다. 동생은 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아버지는 몸을 돌렸지만,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이불보를 손에 감은 채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와, 팔을 벌렸다. 그러고는 버클리에게 두 번이나 이리 오라고 했다. 전에 없는 일이었다. 버클리가 다가왔다.

아버지는 내 체취가 밴 이불보로 동생을 감쌌다. 아버지는 내가 방을 보랏빛으로 칠하고 도배해 달라고 조르던 날을 기억했다. 지나간 「내셔널 지오그래픽스」를 내 책꽂이 맨 밑칸에 옮기던 일도 기억했다(나는 야생 생물 전문 사진 작가가 되고 싶었다). 린지가 태어나기 전, 내가 아주 잠시 동안 우리 집의 외동딸이었던 때를 기억했다.

아버지는 아들을 꼭 안으면서 말했다.

"넌 아빠에게 정말로 특별하단다."

버클리는 몸을 빼고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가의 눈물 자국도 봤다. 버클리는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버지의 뺨에 뽀뽀했다. 천국에서는 아무도 만들어 내지 못했을 성스러운 뭔가가 있었다. 아이가 어른을 보살피는 마음…….

아버지는 버클리의 어깨에 이불보를 씌워 주면서, 내가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지고도 깨지 않던 일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서재의 초록색 의자에 앉아 책을 읽을 때, 내가 침대 밑으로 떨어지는 소리에 아

버지는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일어나서 내 방까지 오곤 했다. 아버지는 딱딱한 바닥에서도 고이 자는 나를 보는 게 좋았다. 악몽도 꾸지 않고 곤히 잠든 나를 보는 게 좋았다. 그럴 때면 자식들이 왕이나 통치자나 예술가, 의사, 야생 생물 사진 작가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꿈꾸는 대로 뭐든 될 수 있다고 믿었다.

내가 죽기 몇 달 전, 아버지가 내 방에 와 보니 침대에 버클리가 같이 누워 있었다. 버클리는 잠옷을 입고 곰 인형을 껴안고 내 등에 달라붙어 자고 있었다. 엄지손가락을 빨면서. 아버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아버지 노릇도 끝이 있다는 생각을 하며 슬픔을 느꼈다. 평생 자식 셋을 낳았고, 그 숫자가 위안을 주었다. 아내나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세 아이는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겠지. 어떤 면에서 아버지는 미래로 영원히 이어지고 있었다. 강한 철사 필라멘트처럼. 그가 어디서 쓰러질지라도 그 선은 그를 지나 계속되리라. 호호백발 노인이 된 후까지도.

이제 아버지는 아들에게서 딸 수지를 발견할 터였다. 그 사랑을 살아 있는 자식에게 줘야지. 아버지는 그런 말을 되뇌었다. 마음속으로 크게 말했다. 하지만 내 존재가 아버지를 뒤로 뒤로 잡아당겼다. 아버지는 품에 안은 어린 아들을 바라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물었다.

"넌 누구냐? 어디서 왔니?"

나는 동생과 아버지를 지켜봤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아주 달랐다. 사실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의 끈은 우울하고 흐릿한 것 같았다.

4

살해되고 몇 시간 후, 어머니는 전화에 매달리고 아버지는 집집마다 다니며 날 찾고 있었다. 그때 하비 씨는 옥수수밭에 만든 토굴을 무너뜨리고, 토막 낸 내 몸을 담은 자루를 옮겼다. 그는 아버지가 타킹 부부와 이야기하던 곳 인근의 두 집을 지나갔다. 그는 두 집의 생울타리 사이로 걸었다. 오드와이어네와 스테드네 사이로. 뻣뻣한 초록색 잎 사이로 내 시체를 끌고 지나갔다. 거기서 길버트네 개가 냄새를 맡고 쫓아가 내 팔꿈치를 발견하게 될 터였다. 그후 사흘 간 내린 비로 그 냄새가 씻겨서, 경찰견이 수색을 시작했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하비 씨는 나를 자기 집으로 옮겼다. 그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나는 그를 기다렸다.

그 집 주인이 바뀌었고, 새 주인들은 차고 바닥의 검은 자국을 보고 혀를 찼다. 부동산 중개인은 그들에게 집 구경을 시켜 줄 때 기름 얼룩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건 내 시신에서 흐른 피였다. 하비 씨가

나를 끌고 와서 콘크리트 바닥에 팽개쳤을 때 흘러나온 흔적이었다. 그건 내가 세상에 보내기 시작한 은밀한 신호였다.

하비 씨가 죽인 사람이 내가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여러분은 이미 짐작했을 것이다. 그는 내 시신을 옥수수밭에서 옮겨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날씨를 지켜봤다가, 비나 눈이 내릴 때 살해했다. 그러면 경찰이 증거를 못 찾을 테니까. 그리고 그는 경찰의 눈에 띌 만큼 괴팍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내 팔꿈치를 잊었고, 피 흘리는 시신을 천으로 된 부대에 담았다. 누군가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가 집과 집 사이에 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을 미심쩍게 생각했을 터였다. 집 사이에 있는 빽빽한 생울타리는 숨기 좋아하는 애들도 너무 답답해할 정도였으니까.

그는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 몸을 씻었다. 우리 남매가 쓰는 욕실과 똑같은 구조의 욕실이었다. 그는 초조한 기색 없이 느릿느릿 움직였다. 그의 마음이 차분해졌다. 그는 욕실의 불을 끄고, 더운 물로 내 흔적을 씻어 내면서 내 생각을 했다. 내가 입이 모자로 막힌 채 토해내는 비명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기가 막힌 내 신음 소리가. 햇빛을 본 적이 없는 어린애 같은 흰 피부는 그의 칼날에 완벽하게 잘렸다. 뜨거운 물 속에서 팔과 다리에 소름이 돋는 쾌감에 그는 몸을 떨었다. 그는 나를 천으로 된 부대에 넣으면서, 면도 크림과 면도날, 시집, 마지막으로 피묻은 칼도 던져 넣었다. 그것들은 내 무릎, 손가락, 발가락과 뒤섞였지만, 그는 나중에 밤에 물건이 피범벅이 되기 전에 꺼내야 한다는 걸 기억해 뒀다. 적어도 시집과 칼은 건졌다.

저녁 시간에 온갖 종류의 개가 다 모였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개들은 흥미로운 냄새를 맡으면 고개를 들곤 했다. 냄새가 짙은데 무슨 냄

새인지 구분하지 못하거나 정확히 모르면, 개들은 그 물건이 있는 곳까지 추적했다. 진짜 물건을 만나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했다. 개들은 그런 식이었다. 그들은 냄새가 나쁘다거나 물건이 위험하다고 해서 알고자 하는 욕구를 접지 않았다. 그들은 사냥을 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하비 씨는 토막 낸 시체를 담은 부대를 집에서 8마일쯤 떨어진 하수구로 가져갔다. 최근까지 기차 철도와 부근의 오토바이 수리소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던 곳이었다. 그가 차 안에서 듣고 있던 라디오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왔다. 그는 넓은 스테이션 웨건 차 안에서 휘파람을 불며 포만감을 자축했다. 사과 파이, 치즈 버거, 아이스크림, 커피. 배가 불렀다. 낡은 수법을 썼으면 지루했겠지만 점점 실력이 좋아져서, 이제는 살인을 저지를 때마다 발전하는 자신의 실력에 스스로도 놀랐다.

차 안의 공기는 차가웠다. 나는 그가 숨을 내쉴 때 축축한 공기를 볼 수 있었다. 그걸 보자 내 굳은 폐를 만져 보고 싶어졌다.

하비 씨는 새 공장 부지 사이에 난 좁은 길로 차를 몰았다. 차 뒤가 흔들리면서 아주 깊이 팬 곳을 지나쳤다. 그때 내 몸이 든 자루가 담긴 금고가 바닥에 부딪혀 뒷바퀴를 감싸고 있던 플라스틱이 깨졌다.

"제기랄."

하비 씨는 욕설을 중얼거리더니 계속 휘파람을 불었다.

아버지와 이 길을 달린 기억이 났다. 아버지는 운전대를 잡았고, 나와 버클리는 포개 앉아 함께 안전띠를 매고 있었다. 불법이었지만 신나는 드라이브였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냉장고가 사라지는 광경을 보고 싶은 사람이 있

냐고 물었다.

"땅이 냉장고를 삼켜 버릴 거야."

아버지가 말했다. 아버지는 모자를 쓰고 검은 가죽 장갑을 꼈다. 내가 탐내던 장갑이었다. 손가락을 끼는 장갑은 어른을, 벙어리 장갑은 어른이 아님을 뜻했으니까(1973년 크리스마스에 엄마는 내게 장갑을 사 줬다. 린지가 장갑을 없애고 말았지만, 그애는 그 장갑이 내 것임을 알았다. 어느 날 린지는 학교에서 집에 오는 길에 장갑을 옥수수밭 끄트머리에 흘렸다. 그애는 늘 그런 식이었다).

"땅에 입이 있어요?"

버클리가 물었다.

"커다랗고 동그란 입인데 입술은 없단다."

아버지가 대답했다.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여보, 그만 해요. 당신이 공연한 말을 하는 바람에 버클리가 밖에서 금어초한테 신경질을 내고 있더라고요."

"전 갈 거예요."

내가 말했다. 버려진 지하 광산을 하수구를 만들려고 무너뜨렸다는 이야기를 아버지에게서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런 건 상관없었다. 땅이 물건을 삼키는 광경을 보고 싶었다. 옆에 앉은 남동생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하비 씨가 나를 하수구로 데려가는 것을 보자, 그가 영리하다 싶었다. 철제 금고에 토막 낸 시체가 든 부대를 담다니. 나를 그 무거운 금고 안에 넣어 두다니.

그가 거기 도착했을 때는 늦은 시간이었다. 그는 금고를 차에 놔 둔 채, 프래너건의 집으로 다가갔다. 프래너건 일가는 하수구가 있는 곳

에 살았다. 그들은 가재 도구를 버리러 온 사람들에게 비용을 받아 생계를 잇고 있었다.

하비 씨가 하얀 문을 두드리자, 여자가 나왔다. 허브와 양고기 냄새가 내 천국을 채웠고, 하비 씨도 그 구수한 냄새를 맡았다. 그는 부엌에 있는 남자를 보았다.

프래너건 부인이 말했다.

"안녕하세요. 뭘 버리려고요?"

"차 뒤에 있어요."

하비 씨가 말했다. 그는 2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준비해 두었다.

"거기 뭐가 들었는데요, 시체라도 들었나요?"

부인이 농담을 했다.

그녀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다. 프래너건 부인은 작지만 따뜻한 집에 살았다. 그녀의 남편은 늘 집에서 지내면서 물건을 고쳐 주고, 일하지 않아도 생계가 해결되는 걸 고마워하며 부인에게 잘했다. 또 아들은 아직 어려서 세상에서 엄마밖에 몰랐다.

하비 씨는 씩 웃었다. 그의 미소를 난 빤히 쳐다보는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오래된 금고인데, 드디어 여기로 가져왔네요. 몇 년째 없애려고 마음먹었거든요. 금고 번호를 아는 사람도 없다니까요."

"안에 뭐가 들었나요?"

부인이 물었다.

"썩은 공기뿐이겠죠."

"그럼 가져오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래 주시면 고맙고요."

하비 씨가 말했다.

그때 프래너건 부부는 그후 몇 년간 신문에서 읽게 될—실종, 살해 추정. 이웃 개가 팔꿈치를 발견. 14세 소녀. 스톨퍼즈 옥수수밭에서 살해됐다고 추정됨. 죽은 소녀의 여동생 린지 새먼이 조사를 읽음.—여학생이 어느 날 밤 외로운 남자가 가져와서 20달러를 내고 내다 버린 회색 철제 금고에 들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하비 씨는 차로 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내 은팔찌가 거기 들어 있었다. 그는 내 팔목에서 빼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바지를 갈아입으면서 주머니에 넣었던 것도 잊었다. 그는 팔찌를 만졌다. 팔찌에 달린 펜실베이니아 돌, 발레 슈즈, 골무, 실제로 돌아가는 자전거 바퀴가 손끝에 만져졌다. 202번 도로를 달리다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미리 준비해 온 소시지 샌드위치를 먹은 다음, 다우닝톤 남쪽에 공사 중인 산업 단지로 차를 몰았다. 공사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시절에는 교외 지역에 보안 장치가 없었다. 그는 야외 화장실 부근에 차를 세웠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핑곗거리를 만들어 둔 것이다.

나중에 하비 씨를 생각할 때 이런 점이 떠올랐다. 그는 얼마나 흙투성이 굴들을 돌아다니고, 어둠 속에 무시무시하게 버티고 있는 불도저들 사이에서 길을 잃었을까. 내가 죽은 다음 날 밤 하늘은 짙은 청색이었고, 탁 트인 공사장에 서서 그는 멀리까지 내다보았다. 나도 곁에 서서 그가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그가 가는 곳에 가 보고 싶었다. 눈은 그치고 바람이 불었다. 하비 씨는 곧 인공 호수가 될 곳으로 걸어갔다. 거기 서서 마지막으로 내 팔찌를 만졌다. 그는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 머리글자를 새겨 준 펜실베이니아 돌이 마음에 들어서—난 팔찌에 달린 것 중 자전거가 마음에 들었다.—그 돌만 떼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고는 팔찌를 곧 인공 호수가 될 자리에 힘껏 던졌다.

크리스마스 이틀 전, 하비 씨는 말리의 어떤 부족에 대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아프리카 부족이 천과 로프를 이용해 천막을 짓는 대목을 읽다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또다시 뭔가를 짓고 싶었다. 토굴을 만들었던 것처럼 실험을 하고 싶었다. 그는 책에 나온 것 같은 잔치용 천막을 짓기로 했다. 간단한 재료를 모아서, 뒷마당에다 몇 시간이면 지을 수 있을 터였다.

아버지는 병 속에 든 배를 몽땅 부순 후, 뒷마당에 있는 하비 씨를 봤다. 밖이 추웠지만, 하비 씨는 얇은 셔츠만 걸치고 있었다. 서른여섯 살이 된 그는 시험 삼아 하드 콘텍트 렌즈를 착용하고 있었다. 렌즈 때문에 계속 눈에 핏발이 섰고, 아버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그가 술에 취해서 그렇다고 믿었다.

아버지가 물었다.

"이게 뭡니까?"

새먼 집안 남자들은 심장질환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건강했다. 그는 하비 씨보다 체구가 커서, 초록색 집을 빙 돌아 뒷마당으로 걸어갈 때는 당당해 보였다. 하비 씨는 뒷마당에서 골대 같은 걸 세우고 있었다. 아버지는 깨진 유리 조각에서 날 본 이후 머릿속에서 윙윙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학교에 가는 고등학생들처럼 잔디밭을 질러서 하비 씨네 뒷마당으로 걸어갔다. 딱총나무 생울타리 바로 앞에서 아버지가 멈춰 섰다.

"이게 뭔가요?"

아버지가 다시 물었다. 하비 씨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보더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적 천막이에요."

"그게 뭔데요?"

"새먼 씨, 상을 당하셔서 안됐습니다."

아버지는 몸을 곧추세우며 조문을 받는 사람의 태도를 취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목에 돌덩이가 걸린 것 같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하비 씨는 아버지가 돌아갈 의사가 없는 걸 알고 도와 주겠냐고 물었다. 그래서 난 천국에서, 아버지가 날 죽인 자와 천막을 세우는 광경을 지켜보게 됐다.

아버지는 특별한 방법을 배우진 않았다. 아치 모양의 대를 묶고, 더 가는 대를 다른 방향으로 엮어 반원형을 만드는 법을 배웠다. 여러 개의 대를 모아서 크로스바에 묶었다. 하비 씨가 아프리카 부족에 대한 책을 읽다가 그들이 만드는 천막을 만들어 보고 싶어져서 이런 걸 만들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아버지는 이웃 사람들이 하비 씨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금까지는 그 정도만 파악했다.

하지만 한 시간 정도의 작업으로 기본 구조가 완성되자 하비 씨는 이유도 말하지 않고 집으로 갔다. 아버지는 휴식 시간이라고 짐작했다. 하비 씨가 커피나 차를 준비하려고 집에 들어갔으려니 했다.

아버지의 짐작은 완전히 빗나갔다. 하비 씨는 집에 가서 위층으로 올라가, 침실에 놔 둔 칼을 검사했다. 칼은 침대 옆 작은 탁자에 놓여 있었다. 또 스케치북도 있었다. 그는 꿈에서 본 것을 한밤중에 스케치북에 그리곤 했다. 하비 씨는 구겨진 종이 봉투 안을 들여다봤다. 칼에 묻은 내 피가 검게 굳어 있었다. 토굴에서의 행위를 떠올리자, 그는 남부 에어셔에 사는 어느 부족에 대해 읽은 내용이 기억났다. 신혼부부를 위한 천막을 세울 때는, 부족 여인들이 천을 아름답게 꾸며서 천막에 씌운다고 했다.

밖에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내가 죽은 후 처음 내리는 눈이었고, 아버지도 그걸 느꼈다.

내가 말을 걸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는 내게 말했다.

"내 소리가 들리니, 아가? 이건 뭐니?"

나는 아버지가 보고 있는 죽은 제라늄에 신경을 집중했다. 제라늄 꽃이 피면 아버지에게 내가 보내는 대답이 되리라 생각했다. 내 천국에서는 꽃이 피었다. 내 천국에서는 제라늄 꽃잎이 너풀거려 내 손목을 간지럽혔다. 그러나 지상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눈발을 통해 나는 알아차렸다. 아버지가 초록색 집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의아해하기 시작했다.

집 안에서는 하비 씨가 두꺼운 면셔츠를 걸쳤지만, 아버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가 팔에 안아 옮기는 것이었다. 하비 씨는 흰 면 이불보를 한아름 안고 있었다.

"뭐에 쓰려는 건가요?"

아버지는 물었다. 아버지 앞에 갑자기 내 얼굴이 떠올랐다.

"방수천인데요."

하비 씨가 대답했다. 그가 아버지에게 천을 건넬 때, 손등이 아버지의 손에 닿았다. 전기가 일어나는 것 같았다.

"잘 아나 보군요."

아버지가 말했다.

그는 아버지의 눈을 응시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둘은 함께 일했다. 눈이 펄펄 내렸다. 아버지가 움직일 때 아드레날린이 솟았다. 아버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점을 점검했다. 경찰은 수지가 실종된 날 이 사람이 어디 있었는지 조사했을까? 옥수수밭에서 이 자를 본 사람이 있을까? 이웃 사람들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집

저집 다니며 은근히 주민들을 조사했다.

아버지와 하비 씨는 방수천을 아치형의 천막 골조에 걸친 다음, 여러 개의 크로스바가 만들어 낸 공간 위에 천을 늘어뜨렸다. 천 끝이 바닥에 끌렸다.

천 씌우기를 마칠 즈음, 눈이 천막에 쌓여 있었다. 아버지의 셔츠와 벨트 위에도 눈이 쌓여 있었다. 난 마음이 아팠다. 다시는 할리데이와 눈밭에서 뛰지 못하고, 린지를 썰매에 태워 밀어 주지 못하리라. 버클리에게 눈덩이를 단단하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지 못하리라. 난 화사한 꽃잎의 바다 속에 홀로 서 있었다. 지상에서는 눈발이 하염없이 펄펄 내렸다. 세상에 흰 커튼을 친 것 같았다.

하비 씨는 천막 안에 서서, 아프리카 부족의 처녀 신부가 낙타를 타고 오는 광경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다가가자, 하비 씨는 손을 들어 막으며 말했다.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이제 집에 가 보시지요."

아버지가 할 말을 생각해야 될 때가 됐다. 하지만 생각나는 말은 '수지' 한 마디뿐이었다. 아버지는 내 이름을 나직하게 내뱉었다.

하비 씨가 말했다.

"우리가 천막을 세웠네요. 이웃들이 우리를 봤어요. 이제 우린 친구가 됐군요."

"잘 아는군요."

아버지가 말했다.

"그만 집에 가 보십시오. 제가 도와 드릴 게 없으니까요."

하비 씨는 웃지도, 나와 배웅하지도 않았다. 그는 신부의 천막에 틀어박혀 천을 마저 씌웠다.

5

마음 한편으로는 빨리 복수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길 바랐다. 분노에 차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으로. 왜 영화나 사람들이 읽는 책에서 보면 그렇게 되듯이. 총이나 칼을 들고, 가족의 살인범을 미행하듯이. 그가 범인을 해치우면 관객이나 독자는 환호하고.

이런 식이었다.

아버지는 매일 일어났다. 잠을 완전히 떨치기 전에는 예전과 같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의식이 깨어나면, 독이 퍼지는 것처럼 됐다. 처음에는 일어날 수조차 없었다. 아버지는 무거운 무게에 눌려 누워 있었다. 하지만 움직이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었다. 그래서 움직이고 또 움직였다. 아무리 움직여도 예전 같지가 않았다. 신은 아버지를 죄책감으로 눌러 댔다. '네 딸에게 네가 필요할 때 넌 거기 없었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가 하비 씨네 집으로 가기 전, 엄마는 현관 홀에 놓인 조각상 옆에 앉아 있었다. 두 분이 구입한 프랜시스 성자의 조각상이었다. 아버지가 돌아와 보니 엄마는 거기 없었다. 아버지는 엄마의 이름을 세 번 부르다가, 방으로 가서 작은 공책에 적었다. '주정뱅이? 그럼 마시라고 하고. 헛소리하는 사람일까?' 그 옆에는 '수지가 날 지켜보는 것 같다.' 고 적었다. 난 천국에서 흥분했다. 할리를 껴안고, 프래니를 껴안았다. 아버지가 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린지가 평소보다 요란하게 현관문을 닫았고, 아버지는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반가웠다. 아버지는 어떤 낙서를 하게 될지 두려웠다. 뭐라고 쓰는 게 겁났다. 묘한 오후에 쾅 소리가 메아리쳤다. 그 소리에 아버지는 현실로 돌아왔다. 상념에 빠지지 않으려면 행동을 해야 했다. 난 그것을 이해했다. 그렇다고 다 괜찮다는 말은 아니다. 린지가 부모님에게 시험을 잘 봤다고 말하거나 역사 선생님이 교육청에 우수 학생으로 추천했다는 얘기를 하는 저녁 식탁에 나도 앉아 있어야 하지 않은가. ……하지만 린지는 살아 있었고, 산 사람이 관심을 받아 마땅하지 않은가.

린지가 쿵쾅대며 계단을 올라갔다. 무거운 신발이 소나무 계단을 때리자 집이 흔들렸다.

나로서는 린지가 아버지의 관심을 끄는 걸 시샘했을지도 모르지만, 그애가 상황을 다루는 방식을 존경했다. 가족 중 할리가 '죽은 사람 증후군(사람들이 그 사람에게서 죽은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 이라고 부르는 상태를 감당해야 될 사람은 린지였다.

사람들은 린지를 보면서 나를 봤다. 심지어 엄마와 아버지에게서도 날 봤다. 린지까지도 그랬다. 동생은 거울을 피했다. 샤워도 어둠 속에서 했다. 뜨거운 김이 몸을 감싸면 어둠 속에서 안정감을 느꼈으니

까. 집이 조용하거나 아래층에서 웅웅대는 소리가 들리면, 린지는 방해받지 않으리란 것을 알았다. 이럴 때는 나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린지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를 생각했다. '언니' 한 마디만 생각해도 울음을 터뜨렸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눈물을 줄줄 흘렸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상상했다. 내가 달아나고, 대신 자기가 끌려가다가 마구 달려들어서 결국 자유로워지는 장면을 상상했다. 린지는 '지금 언니는 어디 있을까?' 라고 끝없이 물으며 싸웠다.

아버지는 린지가 방에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다. 쾅! 문이 닫혔다. 탁! 책을 던지는 소리. 털썩 침대에 주저앉는 소리. 틱! 틱! 벗어 던진 신발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몇 분 후 아버지는 린지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린지."

아버지가 노크를 하며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린지, 들어가도 되겠니?"

"그냥 가세요."

대답은 단호했다.

"이러지 마라, 얘야."

아버지가 간절히 말했다.

"그냥 가시라고요!"

아버지는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린지, 왜 아빠를 못 들어가게 하니?"

아버지는 이마를 문에 가만히 댔다. 나무가 차게 느껴졌고, 그 순간 관자놀이가 뛰는 것도 잊은 채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의심만 되풀이

했다. 하비. 하비. 하비.

린지는 양말만 신은 채 조용히 문으로 갔다. 린지가 문을 열자, 아버지는 물러서서 '달아나지 마라.' 는 표정을 지었다.

"왜요? 뭔데요?"

린지가 물었다. 뻣뻣하고 무례한 표정이었다.

"네가 어떤지 알고 싶어서."

아버지가 말했다. 아버지는 그와 하비 씨 사이에 커튼이 내려졌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가족이 거리를 지나다니고, 학교에 가고, 하비 씨의 초록색 집 앞을 지나다니게 놔 뒀다. 심장에 다시 피가 돌려면 자식이 필요했다.

린지가 말했다.

"혼자 있고 싶어요. 보면 모르세요?"

"네가 필요할 때 부르렴. 아빤 여기 있을게."

아버지가 말했다.

"저기요, 아빠. 저 혼자서 감당할래요."

린지가 마음을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어쩔 수 있을까? '혼자 감당하지 않을래요, 못해요, 저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라는 린지의 호소를 알아들을 수도 있으련만, 아버지는 그저 잠시 서 있다가 물러났다.

"이해한다."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말했다.

나는 아버지를 번쩍 들어올리고 싶었다. 미술사 책에는 여자가 남자를 드는 동상 사진이 있었다. 반대로 구해 주는 것이다. 딸이 아버지에게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이제 아버지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지켜보기만 했다. 아버지는 렌 퍼너먼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건 발생 후 첫 2주일간, 경찰은 경건했다. 소녀가 실종되어 사망한 사건은 교외 지역에서는 좀처럼 없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시체가 어디 있는지, 누가 살해했는지 단서가 나오지 않자, 경찰도 점점 초조해했다. 물리적인 증거가 발견되는 시점이 있기 마련인데, 매일 그 시점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퍼너먼 형사님, 정신 나간 소리로 들리시겠지만요……."

"렌이라고 불러 주십시오."

형사는 엄마에게 받아 온 학교 사진을 고무판 밑에 끼우며 말했다. 그는 누구한테 듣지 않아도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웃에 뭔가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말했다. 아버지는 창 밖의 옥수수밭을 내다봤다. 옥수수밭 주인은 언론에 당장은 그 땅에 농사를 짓지 않겠다고 밝혔다.

"누굽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셨습니까?"

형사가 물었다. 그는 서랍에서 몽당 연필을 꺼냈다.

아버지는 천막 이야기며, 하비 씨가 집에 가 보라고 한 것, 내 이름을 말한 것, 이웃이 일정한 직업도 없고 자녀도 없는 그를 미심쩍어 한다는 것까지 털어놓았다.

"제가 알아 보죠."

퍼너먼 형사가 말했다. 그게 그의 의무였으니까. 그가 이번 춤에서 맡은 역할이었으니까. 하지만 아버지가 알려 준 것은 별다른 정보가 아니었다. 형사가 덧붙였다.

"다른 사람에겐 말하지 마시고, 다시는 그에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전화를 끊자 이상스레 마음이 공허해졌다. 힘이 쭉 빠져서 문을 열고 방에서 나와 조용히 문을 닫았다. 아버지는 복도에서 두 번째로 엄마 이름을 불렀다.

"애비게일!"

엄마는 아래층 욕실에서 몰래 마카롱(달걀 흰자와 설탕, 살구씨 등으로 만든 과자 : 역주)을 먹고 있었다. 아버지 회사에서는 크리스마스 때면 꼭 마카롱을 보내 왔다. 엄마는 과자를 욕심내어 먹었다. 과자는 입 안에서 태양처럼 터졌다. 나를 임신한 여름, 엄마는 면으로 된 임신복 한 벌로 버티며 돈을 쓰지 않았지만 먹고 싶은 것은 다 먹었다. 그리고 배를 문지르며 "고맙다, 아가."라고 속삭이곤 했다.

노크 소리가 났다.

"어-엄-마!"

엄마는 과자를 약장에 쑤셔넣고, 입에 든 과자를 얼른 삼켰다.

"어-엄-마!"

버클리가 다시 불렀다. 졸린 목소리였다.

"어-어-엄-마!"

엄마는 버클리가 그렇게 부르는 게 싫었다.

엄마가 문을 열자, 내 남동생은 엄마의 무릎에 매달렸다. 버클리는 엄마의 무릎에 얼굴을 문질러댔다.

무슨 소리가 나자 아버지가 내려와서, 부엌으로 가서 엄마를 만났다. 두 분이 같이 버클리를 달래면서 위로를 받았다.

"큰누나 어딨어?"

아버지가 빵에 잼을 바를 때 버클리가 물었다. 아버지는 빵 세 쪽을 발랐다. 한쪽은 아버지, 한쪽은 엄마, 한쪽은 버클리의 몫이었다.

"게임은 치웠니?"

아버지는 버클리에게 그렇게 물으면서도, 아이가 먼저 묻는데 왜 얘기를 피하려는지 자신이 의아했다.

"엄마는 왜 그래?"

버클리가 물었다. 아버지와 남동생은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는 개수통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우리 이번 주에 동물원에 가면 어떨까?"

아버지가 물었다. 아버지는 그런 자신이 싫었다. 뇌물이나 속임수, 기만이 싫었다. 하지만 아들에게 큰누나는 토막 난 시체로 어딘가 누워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버클리는 '동물원'이란 말을 듣자 다른 건 안중에도 없었다. 버클리에게 동물원은 곧 원숭이였다. 덕분에 하루는 더 그냥 넘길 수 있었다. 버클리는 아직 어렸다. 내가 어딘가 갔다는 건 알았지만, 떠난 사람은 늘 돌아온다고 생각했다.

렌 퍼너먼 형사는 집집마다 돌아다녔지만, 조지 하비에 대해 딱히 눈에 띄는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하비 씨는 혼자 사는 남자로, 원래 부인과 같이 이사 올 작정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사 오기 전에 부인이 죽었다. 그는 인형 집을 전문으로 파는 가게에 물건을 만들어 넘기면서 혼자 살았다. 그건 다들 아는 사실이었다. 사람들이랑 사귀지는 않았지만, 모두 그에게 연민을 느꼈다. 집집마다 사연이 있었다. 퍼너먼 형사가 보기에는 조지 하비가 가장 독특한 편이었다.

하비 씨는 새먼 일가를 잘 모른다고 말했다. 그집 애들을 보긴 했다고. 애들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은 누구든 안다고…… 그는 푹 숙인 고개를 약간 왼쪽으로 돌리며 말했다.

"애가 있는 집은 마당에 장난감이 있으니까요. 애가 없는 집보다 더 생기가 넘치고요."

그는 더듬더듬 말했다.

"최근 새먼 씨와 대화를 하신 걸로 아는데요."

퍼너먼 형사는 두 번째로 초록색 집에 찾아갔을 때 그 말을 꺼냈다.

"그랬지요. 그게 뭐 잘못 됐나요?"

하비 씨가 물었다. 그는 가는 눈을 뜨고 형사를 보다가 말했다.

"우선 안경 좀 쓰고요. 요즘 제2 제정시대(나폴레옹 3세에 의해 수립된 제정 : 역주)의 인형 집을 작업 중이거든요."

"제2 제정시대라고요?"

퍼너먼 형사가 반문했다.

"이제 크리스마스 주문은 끝났으니까, 덜 바쁠 때 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지요."

하비 씨가 설명했다. 형사는 그를 따라 들어갔다. 테이블이 벽에 붙어 있었다. 인형 집의 벽에 붙이는 작은 판자 같은 것 수십 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퍼너먼 형사는 생각했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걸로 살인범이라고 볼 순 없어.

하비 씨가 안경을 끼더니 곧 말을 시작했다.

"그래요, 새먼 씨가 산책을 나왔다가, 내가 신부 천막을 짓는 걸 거들어 줬지요."

"신부 천막이요?"

"매년 내가 레아를 위해 하는 일입니다. 내 아내 말입니다. 사별했죠."

퍼너먼 형사는 이 사내의 사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기분이 들었다.

그가 말했다.

"그렇군요."

"그 여자 애가 당한 일에 대해서는 정말 안됐습니다. 새먼 씨에게도 그런 마음을 표현하려 했지요. 하지만 이런 때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경험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이 천막을 치시는군요?"

퍼너먼 형사가 물었다. 이웃 사람들에게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전에는 집 안에 천막을 쳤지만, 올해는 밖에 치려고 했지요. 우린 겨울에 결혼했거든요. 눈이 많이 쌓일 때까지는 밖에 둬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집 안 어디에 천막을 치셨습니까?"

"지하실에요. 보시고 싶다면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레아의 유품이 아직 거기에 그대로 있거든요."

하지만 퍼너먼 형사는 더 파고들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폐 많이 끼쳤습니다. 그냥 이웃 사람들을 상대로 두 번째 조사를 해 보고 싶어서요."

하비 씨가 물었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가 좀 나왔나요?"

렌 퍼너먼 형사는 이런 질문을 싫어했다.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물을 권리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마땅치 않았다.

"때로 실마리가 알맞은 때에 저절로 나타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마리가 드러나고 싶으면, 알아서 드러나는 거지요."

암호 같기도 하고, 공자가 제자들에게 해 주는 답 같기도 하지만, 이런 대답이 민간인들에게는 잘 먹혀들었다.

하비 씨가 물었다.

"엘리스네 아들이랑 얘기해 봤습니까?"

"그 가족이랑 얘기해 봤습니다."

"그 집 아들이 동네의 골칫거리라고 들었는데요."

"불량 소년 같더군요. 하지만 그 시간에 쇼핑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증인이 있나요?"

"네."

"그냥 혼자 해 본 생각입니다. 도움이 될까 해서."

하비 씨가 말했다.

퍼너먼 형사는 그가 진지하다고 느끼고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다.

"어떤 면으로는 분명 제정신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혐의를 둘 만한 구석은 없더군요."

"천막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디까?"

"아내 레아를 위해 세웠다던데요."

"스테드 부인이 집사람에게 그의 부인 이름이 소피였다고 말한 걸 기억하는데요."

아버지가 말했다.

형사는 수첩에서 확인했다.

"아닙니다. 레아라던데요. 제가 적어 놨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의심했다. 소피란 이름을 어디서 들었을까? 분명히 듣긴 했지만 오래 전의 일이었다. 동네 파티에서, 이야기 중에 아이들과 부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아기들과 모르는 사람을 소개받느라 다음 날이면 기억이 어슴푸레했다.

하비 씨가 그 파티에 오지 않았던 것은 분명했다. 그는 그런 모임에 참석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은 그를 미심쩍어 했지만, 아버지는 별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았었다. 아버지 자신도 억지로 노력해서 쾌활하게 대해야 하는 자리는 편치 않았으니까.

아버지는 공책에 '레아?' 라고 적었다. 그런 다음 '소피?' 라고도 적었다. 아버지는 자기도 모르게 죽은 사람의 명단을 만들기 시작했다.

크리스마스날, 우리 가족은 천국에 있었다면 한결 편안했을 것이다. 내 천국에서는 크리스마스는 그냥 무시했으니까. 흰옷을 입고 눈송이가 된 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외에는 조용했다.

그 크리스마스에, 새무얼 헤클러가 불쑥 우리 집에 찾아왔다. 그는 내 천국 사람들처럼 흰옷 차림은 아니었다. 형의 가죽 재킷과 몸에 맞지도 않는 작업복 차림이었다.

버클리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엄마는 일찌감치 버클리의 선물을 사 두길 잘했다고 안도했다. 린지는 장갑과 체리향 립글로스(입술이 반짝거리도록 바르는 화장품 : 역주)를 받았다. 아버지는 엄마가 몇 달 전에 우편으로 주문한 흰 손수건 다섯 장을 선물로 받았다. 버클리를 제외하면 모두 선물 따윈 원하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도 트리에 점등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 방의 창가에 밝힌 촛불만 타올랐다. 아버지는 어두워진 후에 초에 불을 켰지만, 엄마와 린지, 버클리는 4시 이후에는 집 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방 창가에 촛불이 켜진 것도 몰랐다. 나만 볼 뿐이었다.

"밖에 누가 왔어요! 가방을 갖고 있는데."

버클리가 소리쳤다.

엄마는 부엌에 에그노그(술에 우유와 설탕을 섞은 음료 : 역주)를 놔 두

고 거실로 나왔다. 린지는 명절이니 어쩔 수 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린지와 아버지는 열성도 없이 모노폴리 게임을 하는 중이었다.

앞쪽 현관에서는 엄마가 치맛자락에 손을 문질렀다. 엄마는 버클리를 앞세워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엄마가 말했다.

"손님이 노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스트릭 목사님일지 모르지."

아버지가 린지에게 말했다.

"수지 언니를 위해서도 아니면 좋겠는데."

린지가 용기를 내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내 이름이 나오자 멈칫했다. 린지가 두 배를 굴려서 마빈 가든으로 이동했다.

"20달러지만 나는 10달러로 할게."

아버지가 말했다.

"린지, 네 손님이다."

엄마가 소리쳤다.

아버지는 린지가 일어나서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우리 둘 다 지켜봤다. 그때 나는 아버지랑 앉아 있었다. 나는 게임판의 귀신이었다. 아버지는 상자에 담긴 낡은 구두 한 짝을 응시했다. 내가 그 구두를 들어올려서, 보드워크에서 발트해로 훌쩍 넘어가게 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나는 늘 발트해에 더 좋은 사람들이 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린지는 "그건 언니가 성도착자여서 그래."라고 말했고, 아버지는 "내가 속물을 키우지 않아서 자랑스럽다."라고 응수했다.

아버지가 나직이 중얼댔다.

"수지야, 철도구나. 넌 늘 철도를 갖는 걸 좋아했는데."

새무얼 헤클러는 이마에 브이자 형으로 난 머리를 강조하고, 위로 솟은 머리칼을 정돈하려고 머리를 뒤로 빗어 넘겼다. 덕분에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열세 살인 새무얼은 사춘기 뱀파이어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메리 크리스마스, 린지."

그가 내 동생에게 인사하며, 파란 종이로 싼 상자를 내밀었다.

나는 그 상황을 볼 수 있었다. 린지의 몸이 긴장하기 시작했다. 린지는 모든 사람을 멀리하려 애썼지만, 새무얼 헤클러는 좋아했다. 린지의 마음이 스르르 풀렸다. 언니가 죽긴 했어도 린지는 열세 살이었고, 새무얼은 귀여웠으며 크리스마스 날 찾아왔다.

"영재로 뽑혔다는 소식을 들었어. 나도 뽑혔어."

아무도 말이 없자, 새무얼이 린지에게 말했다.

그제야 엄마는 정신을 차리고, 안주인다운 태도를 보였다. 엄마가 어렵사리 말했다.

"좀 들어와서 앉겠니? 부엌에 에그노그가 있는데."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무얼 헤클러는 깍듯이 인사하고, 놀랍게도 린지에게 팔을 내밀었다. 나도 린지도 놀랐다.

"저건 뭐야?"

버클리가 따라 들어가며, 옷가방 같은 것을 손짓했다.

"알토야."

새무얼 헤클러가 대답했다.

"뭐?"

버클리가 되물었다.

그러자 린지가 말했다.

"새무얼은 알토 색소폰을 연주해."

"잘 못해."

새무얼이 말했다.

버클리는 색소폰이 뭐냐고 묻지 않았다. 린지가 어떤지 잘 알았으니까. 버클리에게 린지는 '잘난 체 대장'이었다. 내가 "버클리, 큰일 났다! 잘난 척 대장이 오시네!"라고 말하면서 배를 머리로 받으면, 버클리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버클리는 세 사람을 따라서 부엌으로 들어가다가 불쑥 물었다.

"큰누나는 어디 있어?"

하루에 한 번씩은 묻는 말이었다.

모두 조용했다. 새무얼은 린지를 바라보았다.

"버클리, 이리 와서 아빠랑 모노폴리 게임하자."

옆방에서 아버지가 불렀다.

버클리는 모노폴리 게임을 하자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었다. 평소에는 다들 너무 어리다고 끼워 주지 않았는데, 크리스마스여서 마법이 일어난 걸까. 버클리가 거실로 뛰어 들어가자, 아버지는 얼른 안아서 무릎에 앉혔다.

"이 구두 보이지?"

아버지가 물었다.

버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해 주는 말을 잘 들어 봐라, 알겠니?"

"수지 누나?"

버클리는 구두 얘기랑 나를 연결해서 물었다.

"그래, 수지 누나가 어디 있는지 얘기해 줄게."

나는 천국에서 울기 시작했다. 내가 달리 뭘 할 수 있을까?

"이 구두는 수지가 모노폴리할 때 갖고 하던 거란다. 아빠는 차나 바퀴를 갖고 했지. 린지는 다리미, 엄마는 대포를 좋아하고."

"저건 개지?"

"그래, 스카티라고 해."

"내 거 할래!"

"그러렴."

아버지가 말했다. 아버지는 참을성이 많았다. 사정을 설명할 방법을 찾아냈으니. 아버지는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아이의 작은 몸을 느끼며 말했다. 무릎에 닿는 버클리의 몸에서는 사람의 느낌이 묻어나고 아주 따스하고, 살아 있는 무게감이 느껴졌다. 아버지에게 위안을 주었다.

"지금부터 저 스카티는 네 거야. 수지 누나의 것은 뭐라고?"

"구두 한짝."

버클리가 대답했다.

"맞았어. 아빠는 자동차, 누나는 다리미, 엄마는 대포야."

남동생은 아주 열심히 집중했다.

"이제 그것들을 판에 놓도록 하자, 알겠니? 네가 먼저 해 보렴."

버클리는 여러 가지 모양을 판에 늘어놓기 시작했다.

"다른 것들은 우리 친구들이라고 하자."

"네이트 같은 친구요?"

"맞았어. 우리가 네 친구 네이트에게 모자를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판은 세상이야. 이제 아빠가 주사위를 굴리고 네게 말하면, 조각 중 하나를 치우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니?"

"그것은 더 이상 게임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지요?"

"맞았어."

"왜요?"

버클리가 물었다.

버클리가 올려다보자 아버지는 움찔했다.

"왜 그러냐고요?"

동생이 다시 물었다.

아버지는 '왜냐면 인생은 공평하지 않으니까.' 라거나 '왜냐면 그렇게 되기 마련이니까.' 라고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뭔가 그럴듯한 말을 해 주고 싶었다. 네 살배기에게 죽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싶었다. 아버지는 버클리의 등에 손을 얹었다.

"수지는 죽었단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

아버지는 죽음을 게임으로 설명할 수가 없었다.

버클리는 손을 뻗어 구두를 집었다. 대답이 맞았는지 알고 싶어서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넌 큰누나를 못 볼 거야. 우리 모두 그럴 거야."

아버지는 울었다. 버클리는 아버지의 눈을 들여다봤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버클리는 제 방 서랍장 위에 구두를 올려놨다. 그러다 어느 날 구두가 없어졌고,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았다.

엄마는 에그노그를 다 마시고 부엌에서 나와 식탁에 포크와 나이프를 차리기 시작했다. 나를 낳기 전에 혼수용품점에서 일하면서 배운 대로, 포크와 나이프와 스푼을 가지런히 정돈했다. 엄마는 담배를 피우고 싶었다. 그리고 살아 있는 자식들이 잠시 사라져 주기를 바랐다.

"선물을 열어 볼래?"

새무얼이 린지에게 말했다.

두 사람은 식기세척기와 냅킨류를 넣어 두는 서랍에 몸을 기대고 서 있었다. 오른쪽 방에는 아버지와 남동생이, 부엌 옆으로 붙어 있는 식당에서는 엄마가 웨지우드며 로얄 워스터, 레녹스 같은 그릇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린지는 생긋 웃으면서, 상자를 묶은 흰 리본을 풀었다.

"리본은 엄마가 매 주셨어."

새무얼 헤클러가 말했다.

린지가 파란 종이를 찢자 검은 벨벳 상자가 나왔다. 린지는 상자를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천국에서 나는 흥분했다. 예전에 바비 인형 놀이를 할 때, 우리는 바비와 남자 친구 켄을 열여섯 살에 결혼시켰다.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은 평생 한 번뿐이었다. 우리는 타협이라든가 다시 하는 사랑 같은 걸 몰랐다.

"열어 봐."

새무얼이 말했다.

"무서워."

"그러지 마."

새무얼이 린지의 팔을 잡았다. '와!' 그가 그럴 때 나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다. 린지는 부엌에서 귀여운 남자 애랑 만나고 있었다. 뱀파이어든 아니든! 이건 뉴스거리였다. 게시판에 나붙을 만한 얘깃거리였다. 난 갑자기 모든 것에 은밀히 관여하기 시작했다. 내가 살아 있었다면 린지는 절대로 이런 얘기를 내게 해 주지 않았으리라.

상자에 든 것은 보는 눈에 따라 당연할 수도 있고, 실망스러울 수도, 기적적일 수도 있었다. 새무얼이 열세 살 된 소년이니까 당연하고, 결혼 반지가 아니어서 실망스러웠다. 그는 린지에게 금으로 된 하

트의 절반을 주었다. 새무얼은 셔츠 안에서 하트의 나머지 반쪽을 꺼냈다. 가죽 줄에 매서 목걸이를 만들어 매고 있었다.

린지가 얼굴을 붉혔다. 천국에 있는 나도 얼굴이 빨개졌다.

나는 아버지가 거실에 있고, 엄마가 은 포크와 나이프를 헤아리고 있는 것을 잊었다. 린지가 새무얼 헤클러에게 다가갔다. 린지가 입맞췄다. 대단한 일이었다. 난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다.

6

죽기 2주일 전 나는 평소보다 늦게 집을 출발했고,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평소 스쿨버스가 서는 아스팔트 위가 비어 있었다.

징계 담당실에서 종이 울린 다음에 들어가는 사람을 모니터로 보고 이름을 적었다. 나는 수업 시간 중에 피터포드 선생님의 방에 불려가는 것이 싫었다. 그가 판자로 엉덩이를 때린다는 소문이 파다했으니까. 그는 공예 선생님에게 부탁해서, 판자에 구멍을 냈다고 한다. 구멍이 있으면, 내려칠 때 저항이 적어져서 더 통증이 심해진다나.

그전에는 판자로 맞을 만큼 늦거나 나쁜 짓을 저지른 적이 없었지만, 다른 애들처럼 나도 엉덩이를 맞는 장면을 훤히 그릴 수 있었다. 클라리사 말로는 '젖비린내 나는 약쟁이(마약을 하는 중학생을 부르는 말)' 들은 무대 뒷문을 이용한다고 했다. 수위인 클레오가 늘 그 문을 열어 놓았다. 클레오는 마약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했다.

그래서 그날, 나는 살글살금 무대 뒤편으로 들어갔다. 바닥에 각종 전선과 줄이 있어서 발이 걸리지 않게 조심했다. 임시 무대 근처에서 가방을 내려놓고 머리를 빗었다. 집에서 나올 때는 방울 달린 귀마개를 쓰고 있었지만, 오드와이어의 집 뒤에 도착하기 무섭게 아버지의 모직 모자로 바꿔 쓰곤 했다. 그 때문에 머리에 정전기가 일어서,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가서 머리를 정돈해야 했다.

"정말 예쁘다, 수지 새먼."

누구 목소리인지 금방 깨닫지 못했다. 주위를 둘러봤다.

"여기야."

고개를 드니, 레이 싱이 임시 무대 꼭대기에서 날 내려다보고 있었다. 레이가 "안녕." 하고 인사했다.

난 그가 나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레이는 작년에 영국에서 왔지만, 클라리사 말로는 인도 태생이라고 했다. 다른 나라 사람 얼굴로 또 다른 나라 사람처럼 말하고, 또 다른 나라로 옮겨 오다니, 나로서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런 점이 레이를 더 멋있게 만들었다. 게다가 그는 우리 반 아이들보다 팔백 배는 영리했고, 나한테 빠져 있었다. 그가 겉멋을 낸다고 생각했던 것, 가끔 집에서 입는 윗옷을 학교에 입고 오고, 실은 엄마 것인 외국 담배를 가지고 오는 것. 이 사실은 교양이 더 높은 증거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레이는 알았다. 그날 아침 그가 임시 무대에서 말을 걸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다.

내가 물었다.

"종이 울리지 않았니?"

"모틴 선생님이 조회거든."

그가 대답했다. 그 한 마디로 모든 게 설명됐다. 늘 숙취 상태인 모

턴 선생님은 조회 시간에 가장 심했다. 출석을 부르는 일이 없었다.

"그 위에서 뭐 해?"

"올라와서 봐."

레이의 머리와 어깨가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는 머뭇거렸다.

"어서 와, 수지."

이날은 내가 불량 학생 노릇을 한 날이었다. 적어도 불량 학생 흉내를 내긴 했다. 무대 밑바닥의 가로대를 딛고 난간 위로 손을 뻗었다.

"가방을 가져와."

레이가 충고했다.

나는 책가방을 챙겨서 다시 무대 위로 오르려 했다.

"내가 도와 줄게."

레이가 내 겨드랑이에 손을 끼었다. 겨울 파카를 입었지만 어쩐지 창피했다. 잠시 공중에 다리를 내리고 무대에 앉아 있었다.

"다리를 위로 올려. 그래야 아무도 우릴 못 보지."

난 레이가 시키는 대로 한 뒤 잠시 그를 바라봤다. 문득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내가 왜 거기 있는지도 모르는 바보.

"종일 여기 이렇게 있을 거니?"

"영어 시간이 끝날 때까지만."

"네가 영어 시간을 빼먹겠다고!"

그것은 레이가 은행을 털겠다는 말과 비슷했다.

"난 왕립 셰익스피어 극단이 공연한 셰익스피어 작품을 다 봤어. 그 아줌마한텐 더 배울 게 없다고."

레이가 말했다.

그때는 드위트 선생님이 안쓰러웠다. 불량 학생 노릇에 영어 선생

님을 '그 아줌마'라고 부르는 게 들어간다면, 난 불량 학생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난 『오델로』가 좋아."

내가 용기를 내서 말했다.

"아줌마는 겉만 번지르르한 쓸데없는 소리만 해. 무어인 판 '블랙 라이크 미' 같은 거라구."

레이는 영리했다. 그런데다 영국에서 온 인도인이라는 사실이 더해져, 그는 우리 동네의 화성인이 되었다.

"그 영화에 나오는 남자는 얼굴을 검게 분장한 게 무지 멍청해 보이던데."

내가 말했다.

"로렌스 올리비에 경 말이구나."

레이와 나는 조용히 있었다. 조회를 알리는 종소리가 그치고, 5분 후 1교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렸다. 우리가 1층 교실에서 진행되는 영어 수업에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었다. 종이 울린 후 살이 뜨거워지는 기분이었다. 레이의 시선이 내 몸에서 오래 머물렀다. 파란 파카를 지나 초록색 미니스커트, 초록색 타이즈, ……진짜 구두는 가방에 들어 있었고, 그때는 가짜 양가죽 부츠를 신고 있었다. 가짜 양털이 부츠 윗부분과 솔기 부분에 동물 내장처럼 붙어 있는 신발이었다. 남자와 이런 순간을 맞이할 줄 알았다면 준비를 했을 텐데. 들어올 때 딸기나 바나나 맛 립글로스도 덧바르고.

레이가 내게 몸을 기대는 느낌이 전해졌다. 그가 움직이자 임시 무대가 삐걱거렸다. 레이는 영국 출신이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의 입술이 더 가까워지자 무대가 기울었다. 현기증이 났다. 첫 키스의 파장 속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우리 둘 다 무슨 소리를 들었다. 몸이 얼

어붙었다.

레이와 나는 나란히 누워서, 조명등과 전선을 올려다보았다. 잠시 후 무대 문이 열리더니, 피터포드 선생님과 라이언 선생님이 들어왔다. 목소리로 그들임을 알았다. 또 한 사람이 같이 있었다.

피터포드 선생님이 말했다.

"이번에는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겠지만, 계속 그런 식이라면 어쩔 수 없을 거야. 라이언 선생님, 자료를 가져오셨나요?"

"네."

미술 담당인 라이언 선생님은 가톨릭계 학교에서 우리 학교로 전근 왔다. 그전에는 과거에 히피였던 선생님 둘이 미술 담당이었는데, 도자기 가마가 터지자 해고당했다. 전에 미술 시간에는 녹인 금속으로 실험을 하고, 찰흙으로 만드는 수업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매 시간마다 라이언 선생님이 수업 시작 전에 올려놓은 나무 조각상을 그리기만 했다.

"저는 과제를 하는 것뿐인데요."

루스 코너스였다. 나는 목소리로 알아봤고 레이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셋 다 드위트 선생님의 영어 수업을 들었다.

피터포드 선생님이 말했다.

"이건 과제가 아니었어."

레이가 내 손을 꼭 쥐었다. 우린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다. 루스가 그린 그림이 복사되어 도서관 안에 돌아다녔고, 결국 도서 목록 카드를 뒤지던 남학생 손에 들어가서 사서에게 빼앗긴 사건이 있었다.

라이언 선생님이 말했다.

"내 착각이 아니라면, 우리 인체 모델은 가슴이 없는데."

루스는 연필로 여자가 다리를 꼬고 기대 누운 장면을 그렸다. 미술 시간에 그리는 나무 조각상을 그린 것은 아니었다. 루스는 진짜 여자를 그렸고, 눈이 선명하지 않아서 곁눈질하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 우연인지 의도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림을 본 애들은 그 눈 표정을 몹시 거북해하거나 아주 마음에 들어 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

루스가 말했다.

"나무 조각상 모델은 코나 입이 없지만, 얼굴에 그려 넣으라고 선생님이 권하셨잖아요."

레이가 다시 내 손을 꽉 쥐었다.

피터포드 선생님이 말했다.

"그만하면 됐다. 넬슨이 복사를 하게 만든 것은 이 그림의 분위기 때문이야."

"그게 제 잘못인가요?"

"이런 그림이 없었다면 문제도 안 생겼겠지."

"그래서 그게 제 잘못인가요?"

"학교의 입장을 생각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덧붙이지 말고 라이언 선생님이 그리라는 것만 그리면 좋겠다 이거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시체도 그렸는걸요."

루스가 나직이 말했다.

"알아들었니?"

"네."

루스가 대답했다.

무대 문이 열렸다 닫혔고, 잠시 후 레이와 나는 루스 코너스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레이가 입 모양으로 '가 봐.' 라고 말하자, 나는 임시 무대 끝으로 가서 발을 아래로 내려 디딜 만한 곳을 찾았다.

그 주에 레이는 내 사물함 옆에서 내게 키스할 터였다. 그는 임시 무대에서 키스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우리가 딱 한 번 나눈 입맞춤은 우연이었다. 자동차 기름이 퍼져서 길바닥에 생기는 무지개 같은.

나는 루스에게 등을 돌린 채 임시 무대에서 내려갔다. 루스는 움직이지도 숨지도 않고, 몸을 돌리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애는 무대 뒷편 부근에 놓인 나무 상자에 앉아 있었다. 왼편으로 낡은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내가 다가가는 것을 보고도 루스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수지 새먼이구나."

루스는 확인이라도 하는 듯 중얼댔다. 내가 1교시 수업을 빼먹고, 강당의 무대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이나, 우리 반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여자 애가 훈육 주임에게 단단히 혼나는 것이나 좀체 없는 일이었다.

나는 귀마개를 손에 들고 루스 앞에 섰다.

"귀마개가 흉하다."

루스가 말했다. 나는 귀마개를 들고 쳐다보았다.

"알아, 엄마가 만들어 주셨어."

"아까 다 들었지?"

"내가 봐도 되니?"

루스가 손때를 많이 탄 복사한 그림을 폈다.

브라이언 넬슨은 파란 볼펜으로 여자의 다리가 겹치는 곳에 외설스런 구멍을 그려 놓았다. 난 움찔했고 루스는 날 지켜봤다. 난 그애의 눈에 뭔가 번쩍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루스는 몸을 숙이더니 배낭에서 검은 가죽 스케치북을 꺼냈다.

스케치북을 펼치니 아름다웠다. 주로 여자 그림이었지만 동물과 남자도 있었다. 난 그런 건 생전 처음 봤다. 페이지마다 루스의 그림이

넘쳐났다. 그때 루스가 얼마나 독특한 앤지 알았다. 또래가 재미있어 하는 여자 누드를 그려서가 아니라, 그애가 미술 선생님들보다 훨씬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루스는 아주 조용히 반항하는 부류였다. 정말로 무기력했다.

"진짜 잘 그린다, 루스."

"고마워."

루스가 대답했다.

나는 스케치북을 계속 넘겨보면서 흠뻑 빠졌다. 그림에서 배꼽 밑에 있는 것이 두려운 동시에 흥분됐다. 엄마가 '애기 만드는 기계'라고 말했던 그 부분이.

난 그게 없다고 린지에게 말했고, 열 살 무렵에는 6개월 동안 어른마다 붙잡고 나팔관을 묶겠다고 말했다.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게 끔찍한 일이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았다. 내 얘기를 듣자 우리 아버지는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 루스는 이상하면서도 특별한 아이 같았다. 그 순간 거기 그려진 그림들이 좋아서, 학교 규칙 따위는 잊었다. 종이 울리면 학생들이 알아서 움직여야 하는데도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경찰이 옥수수밭에 줄을 두르고, 현장 수색을 마치고 모두 철수한 후, 루스는 그곳으로 산책을 나갔다. 할머니가 쓰던 커다란 모직 숄을 두르고 아버지의 낡은 셔츠를 껴입었다. 곧 체육을 제외한 다른 과목 선생님들은 수업에 들어가지 않아도 행정실에 보고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 그들은 루스가 수업 시간에 안 들어와서 마음이 편했다. 루스가 워낙 튀어난 게 오히려 골칫거리였다. 루스가 앉아 있으면 선생님들은 집중을 해야 했고, 진도도 서둘러 나가야 했다.

루스는 아침마다 스쿨버스를 타지 않고 아버지에게 차를 얻어 타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아주 일찍 출근을 했다. 빨간 철제 도시락 가방을 들고. 루스가 어려서 바비 인형 놀이를 할 때 헛간으로 쓰던 박스였다. 이제 아버지는 거기에 버번 위스키를 넣어 가지고 다녔다. 그는 텅빈 주차장에서 딸을 내려 주기 전, 히터는 켜 둔 채로 트럭을 세웠다.

아버지는 늘 물었다.

"오늘도 잘 지낼 거지?"

루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잔 할까?"

그러면 루스는 고개도 끄덕이지 않고 도시락 가방을 내밀었다. 아버지는 가방을 열고 위스키를 꺼내 한 모금 쭉 들이킨 다음 루스에게 술병을 건넸다. 루스는 머리를 젖히고 술병에 혀를 조금 대서 입술을 적셨다. 아버지가 쳐다보면 목구멍으로 술을 조금 넘기기도 했다.

루스가 트럭에서 내렸다. 해가 뜨기 전이라 날씨가 맵게 추웠다. 그때 루스는 수업 시간에 배운 사실이 기억났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편이 더 따뜻하다는 것을. 그래서 잰걸음으로 옥수수밭으로 갔다. 걸으면서 자신에게 말을 걸었고, 가끔 내 생각을 했다. 축구장과 육상 트랙 사이에 놓인 철망에 기대 잠시 쉬면서, 세상이 깨어나는 광경을 지켜보기도 했다.

첫 몇 달 동안 우리는 그렇게 만났다. 옥수수밭 위로 해가 뜨면, 아버지가 풀어놓은 할리데이가 토끼를 쫓아서 마른 옥수숫대 사이를 누비기 시작했다. 토끼는 짧게 자른 달리기장의 풀밭을 좋아했고, 루스가 다가가면 횟가루로 선을 그린 부분에 꼬마 스포츠팀처럼 줄지어 있었다. 루스는 이런 광경이 좋았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루스는 사람

이 잠든 밤에 동물 인형이 움직인다고 믿는 아이였다. 지금도 아버지의 도시락 가방 안에서 모형 소와 양이 위스키와 훈제 소시지 위에서 풀을 뜯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린지가 내가 크리스마스 때 받은 장갑을 축구장과 옥수수밭이 만나는 자리에 놓고 간 후 어느 아침, 나는 토끼 떼가 장갑에 코를 묻고 킁킁대는 광경을 보았다. 그런데 할리데이의 눈에 띄기 전에 루스가 장갑을 집었다. 그애는 장갑을 뒤집어 털이 밖으로 나오게 해서 뺨에 댔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고마워."

나는 루스가 내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그런 아침의 루스가 점점 좋아졌다. 두 사람이 각각 하늘과 지상에 있으므로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아주 이상하게, 내가 천국으로 가면서 휙 지나칠 때 루스가 오한을 느꼈다. 서로를 발견한 두 괴짜의 만남.

레이도 나처럼 걷기를 좋아했다. 그는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주택 단지의 맨 끝에 살았다. 레이는 축구장을 혼자 걷는 루스 코너스를 봤다. 크리스마스 이후 레이는 머뭇대지 않고 학교에 곧장 오고 곧장 집으로 갔다. 그는 내 부모님만큼이나 범인이 빨리 잡히기를 바랐다. 그때까지는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가 없었다. 알리바이가 있기는 했지만.

그는 아버지가 대학에 출근하지 않는 날이면, 아버지의 보온병에 달콤한 홍차를 채웠다. 일찌감치 집에서 나와, 포환던지기 원에 앉아서 루스를 기다렸다.

루스가 축구장과 학교 사이에 놓인 철망 옆으로 걸어오면, 레이는

손바닥을 비비면서 하고 싶은 말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내게 키스하던 용기—목표를 세우고 1년에 걸쳐 준비해서 실행에 옮겼다.—가 아니라 열네 살이 되었고 몹시 외로운 데서 나오는 용기였다.

나는 루스가 혼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축구장으로 다가가는 것을 지켜봤다. 그애 아버지는 낡은 집을 허물다가, 딸의 취미에 어울리는 선물을 발견했다. 명시 전집이었다. 루스는 시집을 끼고 다녔다.

루스는 멀리서 레이가 일어서는 것을 봤다.

"안녕, 루스 코너스!"

레이가 소리치며 양팔을 저었다.

루스는 그를 쳐다봤다. 그의 이름이 생각났다. 레이 싱. 하지만 그 이상은 아는 게 없었다. 경찰이 그의 집에 다녀갔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루스는 아버지의 말을 믿었다. 아버지는 '애들이 한 짓이 아니다'라고 했다. 루스가 레이에게 다가갔다.

"차를 준비했거든. 여기 보온병에 담아 왔어."

레이가 말했다. 나는 천국에서 레이의 입장이 되어 괜스레 얼굴을 붉혔다. 레이는 『오델로』 이야기를 할 때는 똑똑했지만, 지금은 꼭 얼간이처럼 굴고 있었다.

루스가 말했다.

"난 됐어."

루스는 레이와 가까이 서 있었지만, 둘 사이에는 몇 걸음 거리가 있었다. 루스는 닳은 시집 표지를 손톱으로 꼭 눌렀다.

"너랑 수지가 무대 뒤에서 이야기하던 날, 나도 거기 있었어."

레이가 말했다. 그가 보온병을 내밀었다. 루스는 다가서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수지 새먼 말이야."

레이가 설명했다.

"누굴 말하는지 알아."

루스가 대꾸했다.

"추도식에 갈 거니?"

"추도식이 있는지 몰랐는데."

루스가 대답했다.

"난 못 갈 것 같아."

나는 그의 입술을 빤히 쳐다보았다. 추워서 평소보다 붉었다. 루스가 한 걸음 다가왔다.

"입술 보호제를 바를래?"

루스가 물었다.

레이는 장갑 낀 손으로 입술을 만졌다. 내가 키스했던 입술이 갈라져 있었다. 루스는 셔츠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입술보호제를 꺼냈다.

"난 여러 개 있어. 너 가져."

"잘됐는데. 스쿨버스가 도착할 때까지 나랑 앉아 있을래?"

레이가 말했다.

두 사람은 포환던지기를 하는 시멘트 바닥에 나란히 앉았다. 이것도 내가 살아 있었다면 보지 못했을 장면이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광경. 어느 때보다 레이가 매력적으로 보였다. 눈은 짙은 잿빛이었다. 천국에서 보니, 주저없이 그에게 마음이 쏠렸다.

이런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매일의 행사가 되었다. 레이의 아버지가 대학에 출근하는 날이면, 루스가 아버지의 버번 위스키를 가져왔다. 다른 때는 달콤한 차를 마셨다. 지독히 추웠지만, 둘에게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곳 노리스타운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루스가 갖고 다니는 시집에 있는 시를 낭송했다. 어떻게 하면 되고 싶은 것이 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레이는 의사가, 루스는 화가 겸 시인이 되고 싶었다. 그들은 우리 반의 여러 별종에 대해서도 품평회를 열었다. 환각제를 너무 많이 복용해서 어떻게 아직도 학교에 다니는지 다들 의아해하는 마이크 베일스. 루이지애나에서 이사 와서 레이만큼이나 이방인인 제레미아. 그리고 조용한 애들도 있었다. 포름알데히드(방부 소독제 : 역주)의 효과에 대해 열을 내며 설명하는 아티. 어찌나 수줍음을 타는지 청바지 위에 체육복 반바지를 입는 해리 올랜드. 또 비키 커츠는 엄마가 죽은 후 괜찮아진 것 같았지만, 교목 뒤에 떨어진 솔잎더미 위에서 자는 것을 루스가 본 적이 있었다. 둘은 이따금 내 이야기도 했다.

"정말 이상해. 수지랑은 유치원부터 지금까지 같이 다녔는데, 그날 강당 무대 뒤에서 처음으로 서로 쳐다봤다니까."

루스가 말했다.

"좋은 애였어."

레이가 말했다. 그는 사물함 앞에 우리 둘이 서 있을 때 입술이 스치던 일을 생각했다. 내가 눈을 감고 웃고는 도망치듯 뛰어가던 장면도…….

"범인이 잡힐까?"

"그렇겠지. 아니? 우리가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백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걸."

루스가 말했다.

"알아."

레이가 대답했다.

그들은 포환을 던지는 얇은 쇠 테두리에 걸터앉아서, 장갑 낀 손으

로 차를 들고 있었다. 이제 옥수수밭은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곳이 되었다. 축구장에서 공이 날아가면, 어떤 남자 애가 용기를 내서 들어가 공을 가져왔다. 그날 아침 죽은 옥수숫대 사이로 태양이 떠올랐지만, 따사로운 기운은 없었다.

"여기서 이걸 발견했어."

루스가 가죽 장갑을 가리켰다.

"그애 생각을 하니?"

레이가 물었다.

둘은 다시 조용해졌다.

"늘 생각해. 가끔은 수지가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 난 여기가 끔찍해."

루스가 말했다. 난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기분을 맛봤다.

"나도 그래. 하지만 난 다른 데 살아 봤잖아. 이곳은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일시적인 지옥일 뿐이야."

"너 설마……."

"수지는 천국에 있어. 천국을 믿는다면……."

"넌 안 믿니?"

"응, 난 안 믿어."

레이가 대답했다.

루스가 말했다.

"난 믿어. 날개 단 천사가 날아다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천국이 있다고 생각해."

"수지는 행복할까?"

"천국이잖아."

"하지만 그게 뭘 뜻하지?"

차가 식었고 이미 오래 전에 첫 종이 울렸다. 루스는 컵을 들여다보며 생긋 웃었다.

"아빠 말처럼, 수지가 이 빌어먹을 곳에서 빠져 나갔다는 뜻이지."

레이네 현관문을 두드린 아버지는 레이의 엄마 루아나 때문에 정신이 멍해졌다. 그녀가 환영을 했고 명랑한 것과는 너무 멀어서가 아니었다. 그 검은 머리카락과 잿빛 눈동자, 문을 열자마자 뒤로 물러서는 듯한 이상한 동작 때문이었다. 이 모든 것이 그를 압도했다.

경찰은 아버지에게 루아나 싱에 대해 아무렇게나 말했다. 그들에게는 냉정하고 겉으로만 겸손한 체하는 이상한 여자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 여자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다.

아버지가 이름을 말하자, 루아나가 말했다.

"들어와서 앉으시지요."

'새먼' 이란 말에 그녀는 문을 활짝 열었다. 아버지는 먼저 어두운 방부터 둘러보고 싶었다.

루아나가 집 앞쪽에 있는 거실로 안내하자, 아버지는 하마터면 균형을 잃을 뻔했다. 어지러운 거실 바닥에는 책등이 위로 올라오게 늘어놓은 책이 세 줄이나 됐다. 루아나 싱은 노란 사리(인도 여성들이 입는 민속 의상 : 역주)를 입고, 밑에 금색 바지 같은 것을 입고 있었다. 맨발이었다. 그녀는 사뿐사뿐 걷다가 소파 앞에서 멈춰 섰다.

"음료수라도 드시겠어요?"

루아나가 묻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뜨거운 거, 아니면 찬 걸로?"

"뜨거운 걸로 주십시오."

그녀가 모퉁이를 돌아 보이지 않는 방으로 들어가자, 아버지는 갈

색 천 소파에 앉았다. 맞은편의 창문에는 기다란 모슬린 커튼이 드리워져, 강렬한 햇살이 걸러져 들어왔다. 창 밑에는 책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문득 아버지는 굉장히 따스한 기분을 느꼈다. 그 아침 싱네 주소를 두 번이나 확인한 이유도 잊을 뻔했다.

잠시 후 아버지는 정말 고단하다는 생각을 했다. 엄마가 오래 전에 드라이클리닝을 맡긴 옷을 찾아다 주겠다고 약속한 일에 생각이 미쳤을 때, 레이의 어머니가 차 쟁반을 들고 와, 아버지 앞에 내려놓았다.

"가구가 별로 없어서요. 싱 박사가 평생 다닐 만한 곳을 아직 못 구했거든요."

"싱 박사께서는 교수신가요?"

아버지는 알면서도 물었다. 그는 이 아름다운 여인과 휑한 집에 대해서 편안함을 넘어설 정도로 알고 있었다.

"네."

부인이 차를 따랐다. 조용했다. 그녀가 찻잔을 아버지에게 내밀었다. 아버지가 잔을 받자, 그녀가 말했다.

"댁의 따님이 세상을 떠나던 날, 레이는 남편과 함께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그녀에게 와락 쓰러지고 싶었다.

"그 일 때문에 오셨겠지요."

루아나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레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레이는 지금 학교에 갔는데요. 아시잖아요."

그녀는 금색 바지로 가린 다리를 옆으로 가지런히 모았다. 칠하지 않은 발톱이 길고, 오랜 세월 춤을 춰서 발톱 표면이 울퉁불퉁했다.

"한 번 들러서, 아드님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아버지를 지켜보았다.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말은 짐을 진 것처럼 힘겹게 흘러나왔지만, 아버지는 레이 어머니의 굴곡진 발과 커튼을 지나 들어온 빛이 닿은 그녀의 오른쪽 뺨을 응시했다.

"저희 아이는 잘못한 일이 없고 댁의 따님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남학생들은 잘 반하잖아요."

남학생들이 반하는 것은 그녀에겐 늘 있는 일이었다. 자전거를 타고 신문을 배달하는 소년은 그녀가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요!"라는 외침을 듣고 문에 나와 주길 소망하곤 했다. 그녀가 나와서 손을 흔들어 주기를 바랐다. 루아나는 미소를 지을 필요도 없었다. 집 밖에서 좀체 웃는 법이 없었다.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은 눈과 무용수다운 태도, 아주 작은 움직임까지 생각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경찰은 범인을 찾으러 어두운 현관으로 주춤주춤 들어섰지만, 레이가 계단 끝에 나타나기도 전에 루아나 때문에 혼란스러웠다. 결국 그들은 차를 마시기로 하고 비단 방석 위에 앉았다. 그들은 루아나가 다른 미인들처럼 말이 많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비위를 맞추려 할수록 그녀는 점점 꼿꼿한 태도를 취했다. 결국 그들이 레이에게 질문하는 동안 그녀는 창가에 똑바로 서 있었다.

"레이 같은 좋은 소년이 수지를 좋아해 줘서 기쁩니다. 아드님에게 그 점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루아나는 이를 보이지 않고 미소지었다.

"레이가 연애 편지를 썼더군요."

아버지가 말했다.

"네."

"저도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지막 날 수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면……."

"네."

"하지만 아드님은 그렇게 했죠."

"네."

그들은 잠시 서로 바라보았다.

"부인 때문에 경찰이 미치려고 했을 만하군요."

아버지는 그녀에게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싱긋 웃어 보였다.

루아나가 말했다.

"경찰은 레이에게 죄를 씌우러 왔어요. 그런 마당이니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상관없었어요."

"레이에게 힘든 시간일 겁니다."

"아니요, 제가 그렇게 놔 두지 않을 거예요. 레이나 저희를 동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을 하려고 애썼다.

그녀가 손을 저으며 말했다.

"댁은 따님을 잃고 목적이 있어서 여기 오셨지요. 찾아오신 것까지는 양해하겠지만, 저희 삶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은 하지 마세요."

"화나시게 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는 또 한 번 손을 저었다.

"레이는 20분 후에 집에 올 겁니다. 제가 먼저 아이와 이야기를 해서 준비를 시킨 다음에, 제 아들과 따님 이야기를 나누시죠."

"제가 무슨 말을 잘못 했나요?"

"저는 저희 집에 가구가 많지 않은 게 좋아요. 어느 날인가 짐을 꾸려서 떠날 거란 생각을 하게 해 주니까요."

"여기 머무시면 좋을 텐데요."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예절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 나도 아버지에게 그런 교육을 받았다. 한편 아버지가 그녀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한 말이기도 했다. 딱히 냉정하다고만 할 수 없는 이 쌀쌀맞은 여인…… 돌덩이 같지만은 않은 이 바위 같은 여인…….

"정중하시지만 선생님은 저를 모르세요. 같이 레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도록 하죠."

아버지는 린지와 엄마가 말다툼을 벌이는 동안 집에서 나왔다. 엄마가 린지를 YMCA 수영장에 데려가려 하자 린지는 생각없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쏘아붙였다. 아버지는 엄마가 얼어붙더니, 침실로 올라가 문 뒤에서 우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조용히 재킷 주머니에 공책을 넣고, 뒷문 옆에 걸린 자동차 열쇠를 빼서 밖으로 나왔다.

두 달 동안 엄마와 아버지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한 사람이 집에 있으면 다른 사람은 밖으로 나갔다. 아버지는 자기 방에 있는 초록색 의자에서 잤고, 잠이 깨면 조심스럽게 침실로 가서 침대로 들어갔다. 엄마가 이불을 덮고 있으면, 이불도 안 덮고 웅크리고 누워 잤다. 조그만 기척이 있어도 벌떡 일어날 태세였다.

"누가 수지를 죽였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도 모르게 루아나 싱에게 말했다.

"경찰에 알리셨나요?"

"네."

"뭐라고 하던가요?"

"당장은 그 사람과 범죄를 연결할 고리가 제 의심밖에 없다더군요."

"아버지의 의심도……."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엄마의 육감만큼 강력하죠."

이번에는 그녀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그 사람은 이웃에 삽니다."

"요즘 뭐 하며 지내세요?"

"모든 실마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이 어떻게 들릴지 뻔히 알았다.

"그러면 제 아들은……."

"실마리가 되지요."

"그 사람이 몹시 두려우신가 봐요."

"그래도 뭔가 해야겠지요."

아버지가 대꾸했다.

"또 시작이네요. 새먼 씨는 저를 오해하고 계세요. 여기 오신 게 잘못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오실 만도 하지요. 새먼 씨는 부드럽고 따뜻한 뭔가를 찾고 싶어 하시지요. 조사를 하시다가 여기로 오게 되신 거예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제 걱정은 제 아들에게도 좋은 일일까 하는 것뿐입니다."

"해를 끼칠 의도는 없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지요?"

"조지 하비입니다."

퍼너먼 형사 말고 아버지가 그 이름을 발설한 사람은 레이의 엄마뿐이었다.

그녀는 가만히 서 있었다. 루아나는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첫 번째 창으로 다가가더니, 그 옆 창으로 가서 커튼을 젖혔다. 그녀는 학교가 끝날 무렵의 햇살을 좋아했다. 레이가 오는지 내다보는데, 아들

이 집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이제 레이가 들어올 거예요. 제가 가서 만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코트를 입고 부츠를 신어야겠는데요."

그녀가 말을 멈췄다가 이었다.

"새먼 씨, 저라도 똑같이 할 겁니다. 필요한 사람은 다 만나서 이야기할 거고, 그의 이름을 너무 많은 사람에게 알리지 않을 거예요. 확신이 생기면 조용히 길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그를 죽여 버릴 거예요."

아버지는 복도에서 그녀가 움직이는 기척을 들었다. 옷걸이에서 코트를 꺼내 입는 소리가 들렸다. 몇 분 후 문이 열렸다 닫혔다. 집 밖에서 찬바람이 들어왔고, 곧 그는 길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만나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두 사람 다 웃지 않았다. 그들은 머리를 숙였다. 입술이 움직였다. 레이는 내 아버지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 엄마와 내가 퍼너먼 형사가 다른 경찰관과 눈에 띄게 다르다고 생각한 것은 체구였다. 그는 자주 함께 오는 제복 차림의 거구들보다 체구가 작았다. 또 눈에 덜 띄는 특징도 있었다. 가끔 혼자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나, 나와 사건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농담을 하지 않고 심각한 태도로 대하는 것도 다른 점이었다. 하지만 퍼너먼 형사는 엄마와 이야기하면서 본모습을 내보였다. 그는 낙관주의자였다. 퍼너먼은 내 살인범이 잡힐 거라고 믿었다.

그가 엄마에게 말했다.

"오늘, 내일 잡히지 않을지 몰라도, 그 자는 언젠가는 걷잡을 수 없는 짓을 벌일 겁니다. 범인들은 그런 습성을 갖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레이 싱의 집에서 돌아올 때까지 엄마가 렌 퍼너먼 형사를 대접해야 했다. 거실의 테이블에는 엄마가 깔아 놓은 모조지 위에 버클리의 크레용이 흩어져 있었다. 버클리와 네이트가 그림을 그리다가 꾸벅꾸벅 졸았고, 결국 엄마는 하나씩 안아서 소파에 눕혔다. 둘은 소파의 양쪽 팔걸이를 베고 잤다.

퍼너먼 형사는 소리를 낮춰 얘기해야 되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엄마는 눈치챘다. 그는 엄마가 남자 아이 둘을 옮기는 걸 보면서도, 도와 주려고 일어나지 않았다. 다른 경찰 같으면 아이에 대해 말하고, 그녀를 산 아이든 죽은 아이든 아이들의 엄마로 한정해서 생각했을 테지만 퍼너먼은 그러지 않았다.

엄마가 말했다.

"남편은 형사님이랑 만나고 싶어 해요. 하지만 바쁘셔서 기다리시기 힘들겠지요?"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나는 엄마가 귀 뒤로 넘긴 머리칼 몇 올이 흘러내린 것을 봤다. 덕분에 엄마의 얼굴이 부드럽게 보였다. 난 형사도 그것을 알아차린 걸 눈치챘다.

"남편은 레이 싱의 집에 갔어요. 안쓰러운 아이죠."

엄마가 말하며, 흘러내린 머리를 귀 뒤로 넘겼다.

"레이를 심문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안타깝습니다."

퍼너먼 형사가 말했다.

"그래요. 어린 소년이 했을 만한 짓은……."

엄마는 말을 잇지 못했고, 퍼너먼 형사는 채근하지 않았다.

"알리바이가 확실하더군요."

엄마가 크레용을 집었다.

퍼너먼 형사는 엄마가 막대기 같은 사람과 개를 그리는 모습을 지켜봤다. 버클리와 네이트는 새근새근 자고 있었다. 내 동생은 뱃속의 태아처럼 잔뜩 웅크렸고, 잠시 후에는 엄지손가락을 입에 넣고 빨았다. 엄마는 버클리가 손을 빠는 습관을 고치도록 가족 모두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곤 했다. 그런데 지금 엄마는 그런 평화가 부러웠다.

긴 침묵이 흐른 후 퍼너먼 형사가 말했다. 그 사이 엄마는 오렌지색 크레용으로 라면 가닥 같은 선을 긋고, 파란색으로 전기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그림을 그렸다.

"부인을 뵈면 집사람이 떠오릅니다."

"부인도 그림을 못 그리나 봐요?"

"할 말이 없으면 말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이었죠."

몇 분이 더 흘렀다. 노란색 태양이 그려졌다. 갈색 집이 생기고 문밖에 꽃이 피어났다. 분홍색 꽃, 파란색 꽃, 보라색 꽃.

"옛날 일처럼 말하시네요."

두 사람 다 차고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형사가 말했다.

"결혼하고 곧 죽었습니다."

"아빠!"

버클리가 소리치며 벌떡 일어났다. 동생은 네이트도 옆에 있는 사람들도 까맣게 잊었다.

엄마가 퍼너먼 형사에게 말했다.

"미안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수지 때문에요. 진심입니다."

그가 말했다.

뒷문에서 아버지는 버클리와 네이트와 밝게 인사하며 "숨 좀 돌리고!"라고 외쳤다. 저녁에 아버지가 퇴근해서 우리가 달려 나가면, 늘

그렇게 외쳤다. 좀 과장해서 "숨 좀 돌리고!"라고 말해야 되더라도, 아들을 위해 활달한 기분을 내는 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과였다.

엄마가 퍼너먼 형사를 바라볼 때 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섰다. 나는 엄마에게 '싱크대로 달려가요!'라고 외치고 싶었다. '물 내려가는 구멍을 들여다보고 땅 속을 봐요.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난 여기 위에서 지켜보고 있고요.'

엄마에게 맨 먼저 내 사진을 달라고 한 사람은 퍼너먼 형사였다. 경찰이 내가 살아 있을 거라고 짐작할 때, 그는 다르게 생각했다. 내 사진은 그의 지갑에 들어 있었다. 죽은 아이들과 모르는 사람들 사진 틈에 그의 부인 사진이 있었다. 그는 사건이 해결되면 사진 뒤에 날짜를 적었다.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이면—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수사를 종결한 후에도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면—사진 뒷면은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내 사진 뒷면은 공백이었다. 그의 부인 사진도 마찬가지였다.

"렌, 잘 지냈어요?"

아버지가 인사했다. 할리데이가 아버지에게 쓰다듬어 달라고 펄쩍펄쩍 뛰었다.

"레이 싱을 만나려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렌 퍼너먼 형사가 말했다.

엄마가 버클리와 네이트에게 말했다.

"얘들아, 둘이 버클리의 방에 가서 놀지 그러니? 퍼너먼 형사님과 아빠가 얘기를 하셔야 되거든."

7

"보이지? 우리 큰누나야."

버클리가 계단을 올라가며 네이트에게 물었다. 할리데이가 뒤따라 왔다.

"아니."

네이트가 대답했다.

"누나는 오랫동안 어디 갔는데, 돌아올 거야. 시합하자!"

두 아이와 개는 곧 긴 계단을 뛰어서 올라갔다.

나는 버클리를 보고 싶어 할 수도 없었다. 동생이 거울이나 병마개에서 내 이미지를 볼까 봐 겁났다. 다른 가족처럼 나도 버클리를 보호하려고 애썼다.

"너무 어리잖아요."

프래니에게 말했더니, 그녀는 이렇게 물었다.

"상상 속의 친구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두 아이는 묘비 탁본 액자 밑에 몇 분간 앉아 있었다. 액자는 부모님 방 밖에 걸려 있었다. 런던에 있는 어떤 묘지의 묘비에서 뜬 탁본이었다. 엄마는 린지와 나에게 벽에 뭔가 걸고 싶었는데, 신혼 여행에서 만난 노부인이 묘비의 탁본 뜨는 법을 가르쳐 줬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내가 열 살쯤 됐을 때, 부모님은 묘비 탁본 전부를 지하실에 보관했다. 교외에 사는 여느 가정 같으면 아이들에게 자극을 주려고 원색의 기하학적인 그림을 걸 자리에, 부모님은 묘비 탁본을 걸었다. 하지만 우리 자매는 묘비 탁본을 좋아했고, 특히 그날 오후 버클리가 친구 네이트와 본 그 탁본을 맘에 들어 했다.

린지와 나는 그 밑에 누워 연극을 하곤 했다. 나는 기사가 되어 죽어 누워 있고, 할리데이는 충성스럽게 기사의 발치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린지는 죽은 기사의 아내 역을 맡았다. 아무리 엄숙하게 시작해도 늘 키득대며 끝이 났다. 린지는 죽은 기사에게, 자기도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얼어붙은 남자만 바라보며 평생 발목 붙들려 살 수는 없다고. 나는 노발대발하며 화를 냈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 못했다. 급기야 부인이 새 애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새 애인은 그녀가 가면 특별히 좋은 부위를 잘라 주는 푸줏간 뚱보이거나 말발굽을 만들어 주는 민첩한 대장장이였다. 부인은 '당신은 죽은 몸이에요, 기사님. 나도 살 궁리를 해야 해요.' 라고 말했다.

버클리가 말했다.

"어젯밤에 큰누나가 와서 뺨에 뽀뽀했어."

"아냐."

"맞아."

"정말?"

"그래."

네이트가 물었다.

"너네 엄마한테 말했어?"

버클리가 대답했다.

"그건 비밀이야. 수지 누나가 아직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가 아니라고 했어. 다른 것도 보고 싶니?"

"응."

네이트가 대답했다.

둘은 아이들 방이 있는 쪽으로 갔다. 할리데이는 묘비 탁본 밑에서 잠들었다.

"와서 봐."

버클리가 말했다.

둘은 내 방에 있었다. 전에 린지는 엄마 사진을 가져갔다. 다시 생각한 끝에 내가 좋아하는 배지도 챙겨 갔다.

"큰누나 방이구나."

네이트가 말했다.

버클리는 손가락을 입에 댔다. 엄마가 우리에게 조용히 하라고 할 때 하는 동작이었다. 버클리는 네이트가 입을 다물기를 바랐다. 버클리는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서, 친구에게 따라 하라는 몸짓을 했다. 둘은 할리데이처럼 내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거기 내 비밀 창고가 있었다.

침대의 박스 스프링 밑부분에 난 구멍에, 나는 남에게 보여 주기 싫은 물건을 넣어 두었다. 할리데이가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야 했다. 안 그러면 너석이 구멍을 파 보고 물건을 꺼낼 터였다. 아니나 다를까 내가 실종된 지 24시간 만에 일이 벌어졌다. 부모님은 내가 메모라도 해 놓았을까 해서 내 방을 뒤진 다음, 문을 열어 둔 채 방에서 나갔다. 할

리데이는 내가 침대 밑에 감춰 둔 감초사탕을 꺼냈다. 비밀 창고에는 오래 전부터 숨겨 둔 물건이 가득 들어 있고, 그 중에는 버클리와 네이트만 알아볼 만한 것이 있었다. 버클리가 아버지의 낡은 손수건을 풀자, 피 묻은 나무토막이 나왔다.

그 전해에 세 살이던 버클리는 나무토막을 삼켰다. 동생은 네이트와 뒷마당에서 콧구멍에 돌을 넣다가, 빨랫줄이 매진 참나무 밑에서 작은 가지를 발견했다. 버클리는 가지를 담배처럼 입에 물었다. 나는 침실 창 밖 지붕 위에서 동생을 보고 있었다. 거기서 클라리사가 빌려 준 매니큐어를 발톱에 바르면서 「세븐틴」 지를 읽고 있었다.

남동생을 돌보는 일은 늘 내게 맡겨졌다. 린지는 아직 어리다고 했다. 게다가 린지는 머리가 좋다는 이유로, 그 여름 오후에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했다. 130개짜리 색연필로 모눈종이에 파리 눈을 그리고 있었다.

밖은 여름이었지만 아주 덥지 않았고, 나는 집에 붙들려 있었으므로 몸단장이나 하기로 했다. 아침에 샤워하고 머리 감고, 몸에 김을 쏘였다. 그리고 지붕에 나가서 몸을 말리며 매니큐어를 칠했다.

매니큐어를 두 겹째 칠하는데, 파리가 매니큐어 병에 날아와 앉았다. 그 순간 네이트의 고함 소리가 났고, 나는 린지가 집 안에서 그리고 있는 파리의 눈을 쳐다보았다. 바람이 불어서, 무릎께까지 자른 청바지 밑단이 날렸다.

"누나! 수지 누나!"

네이트가 소리쳤다.

아래를 보니 버클리가 땅바닥에 있었다.

천국에서 할리와 구조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나는 이날의 사건을 말했다. 나는 가능한 일이라고 믿었고, 할리는 믿지 않았다.

다리를 휙 돌려 방으로 들어가서, 한 발로는 재봉틀 의자를 딛고 다른 발로는 다른 의자를 디뎌,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장애물 경주하는 달리기 선수처럼 뛰어서 복도로 나갔고, 계단 난간을 미끄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난간을 타지 못하게 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나는 린지를 불렀지만 곧 그애는 잊어버리고, 방충문을 지나 뒷마당으로 달려 나갔다. 참나무 밑에 앉아 있는 개도 뛰어넘었다.

버클리는 숨이 막혀서 몸을 흔들어 댔다. 나는 네이트와 버클리를 데리고 차고로 갔다. 아버지가 아끼는 무스탕 승용차가 거기 있었다. 나는 부모님이 운전하는 것을 지켜봤고, 엄마는 주차된 차를 후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적도 있었다. 버클리를 뒷좌석에 태우고, 안 쓰는 항아리에서 열쇠를 꺼내 왔다. 아버지가 자동차 열쇠를 거기 숨겨 놓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병원까지 계속 달렸다.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나중에 의사는 엄마에게 말했다.

"따님이 거기 없었다면, 아드님을 잃으셨을 겁니다."

린 할머니는 내가 동생을 구해서 복을 받아 장수할 거라고 예언했다. 늘 그렇듯 린 할머니의 예상은 빗나갔다.

"와."

네이트는 가지에 묻은 피가 검게 변한 것을 보고 감탄했다.

"그래."

버클리는 그때 일을 떠올리자 뱃속이 이상했다. 얼마나 아팠던가. 병원 침대에 누운 그를 에워싼 어른들의 표정이 얼마나 변했던가. 그들이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는 것은 그때 이후 딱 한 번이었다. 그

때는 모두 병원에 있었고, 부모님은 걱정스런 눈빛을 보이더니, 나중에는 안도하는 눈빛을 반짝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모님의 눈빛은 멍해졌고 다시는 예전의 눈빛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나는 천국에서 어지러웠다. 갈짓자로 걸어 전망대로 가서, 눈을 떴다. 어두웠고, 앞에는 못 보던 건물이 서 있었다.

어릴 때 『제임스와 큰 복숭아』를 읽은 적이 있었다. 건물은 그 이야기에 나오는 제임스의 숙모들 집과 비슷했다. 빅토리아식 건물은 크고 어두웠다. 집 옆에 좁은 골목이 있었다. 어둠이 눈에 익자, 골목에 여자들이 길게 줄지어 앉아서 내 쪽을 손짓하는 광경을 본 것 같았다. 하지만 한참 후에는 다른 광경이 보였다. 까마귀 떼가 잔가지를 주둥이에 물고 줄지어 앉아 있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서니, 까마귀 떼는 가지를 물고 나를 따라왔다.

'버클리가 진짜로 날 봤을까? 아니면 어린애들이 늘 하는 아름다운 거짓말일까?'

8

하비 씨는 석달 간 꿈에서 여러 건물을 봤다. 초가 지붕을 얹은 유고슬라비아의 수상 가옥이 물살에 휩쓸리는 꿈을 꾸었다. 하늘은 파랬다. 노르웨이의 피요르드 해안과 계곡에 있는 교회 건물도 봤다. 교회는 배 만드는 바이킹들이 손으로 조각한 나무로 지어져 있었다. 용과 그 지방 영웅들을 새긴 나무도 있었다. 하지만 가장 자주 꿈에서 본 건물은 '변용 교회(이스라엘의 다볼 산에 있는 교회 : 역주)' 였다. 그는 나를 죽인 날 밤과 그 이후에 계속 이 꿈을 꾸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꿈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다른 꿈을 꾸었다. 조용한 꿈이 아니었다. 여자들과 애들이 나오는 꿈이었다.

나는 세월을 거슬러 하비 씨가 그의 엄마 품에 안긴 광경을 보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유리 구슬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아버지는 모양과 크기, 깊이, 무게에 따라 구슬을 분류했다. 그의 아버지는 보석

전문가의 눈으로 구슬에 난 흠집을 자세히 점검했다. 하비 씨는 엄마의 목걸이로 눈을 돌렸다. 큼직한 타원형 호박을 은으로 감싼 목걸이였다. 호박 보석 안에는 파리가 들어 있었다.

그가 어릴 적에 아버지는 '건축가'란 말만 하고 할아버지가 뭘 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막에서 일한다고, 깨진 유리와 낡은 나무로 오두막을 짓는다는 말을 어떻게 하나? 하비 씨의 아버지는 그에게 좋은 건물을 만드는 게 뭔지, 어떻게 하면 튼튼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지 가르쳤다.

요동치는 꿈을 꾸며 하비 씨가 들여다본 것도 아버지의 낡은 스케치북이었다. 하비 씨의 아버지는 다른 곳과 다른 세계의 이미지에 몰두하곤 했다. 그 속에서 사랑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려고 애썼다. 그러면 그의 엄마와의 마지막 장면이 꿈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엄마는 길 한켠의 들판으로 달려갔다. 엄마는 흰옷을 입고 있었다. 흰 바지와 몸에 붙은 흰 셔츠 차림이었고, 아버지와 엄마는 더운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말다툼을 벌였다. 뉴멕시코의 트루스 아니면 콘스퀀스 변두리였다. 아버지는 엄마를 차 밖으로 몰아냈다. 하비 씨는 뒷좌석에 바위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다.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지금까지 본 것이 느린 장면으로 떠올랐다. 엄마는 멈추지 않고 달려갔고, 날씬하고 연약한 몸매가 사라져 버렸다. 아들인 하비 씨는 엄마가 목에서 빼서 손에 쥐어 주고 간 호박 목걸이를 꽉 쥐고 있었다. 아버지가 길을 응시하며 말했다.

"이제 엄마는 가 버렸단다. 다신 돌아오지 않을 거야."

9

내 추도식이 열리던 저녁, 할머니는 평소 스타일 그대로 나타났다. 할머니는 공항에서 리무진을 빌려서, 샴페인을 홀짝이며 운전하기를 좋아했다. 교회 바자회에서 중고품을 구입한 밍크 코트를 걸치고서. 할머니는 밍크를 '두툼하고 전설적인 동물'이라고 말했다. 우리 부모님이 할머니를 초대했다기보다는 할머니가 알아서 추도식에 참석했다고 해야 맞다. 1월 말 카든 교장이 추도식을 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자녀분들과 학생들 모두에게 좋을 겁니다."

교장은 그렇게 말하고, 우리 교회에서 행사가 열리도록 주선했다. 부모님은 그의 질문에 "네."라고만 대답했고, 꽃이나 추도사 같은 얘기에도 고개만 끄덕였다. 엄마는 전화로 추도식 얘기를 했을 때 할머니가 "나도 간다."고 말하자 당황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어머니."

할머니는 한참 잠자코 있더니 마침내 말했다.

"애비게일, 수지의 장례식이잖니."

린 할머니는 밍크 코트를 입고 동네를 돌아다녔다. 한 번은 화장을 짙게 하고 동네 파티에 참석해서 엄마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파티에 참석한 사람 모두를 알게 될 때까지 엄마에게 질문을 해 댔다. 할머니는 엄마와 왕래가 있든 없든, 그 부인 남편이 뭘 하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알아 냈다. 주민 호구 조사를 한 셈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할머니가 딸을 더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단단한 오산이고, 짝없이 추는 슬픈 춤 같은 것이긴 했지만.

할머니는 현관에 서 있는 부모님에게 다가서며 말했다.

"여보게, 우리 독한 술을 마셔야겠네!"

그때 할머니는 린지를 봤다. 린지는 살그머니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애는 정식으로 인사할 때까지 단 몇 분만이라도 시간을 벌고 싶었다.

"애들이 날 싫어하지."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할머니는 억지로 웃었다. 새하얀 이가 보였다.

"어머니. 린지는 차림을 가다듬고 인사드리려고 그랬을 거예요."

엄마가 말했다. 나는 그 상실감에 젖은 바다 같은 눈에 빠지고 싶었다.

"이 집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

할머니가 말했다.

"장모님, 지난 번에 오셨을 때랑은 다른 집이 됐어요. 제가 술을 갖다 드릴게요. 하지만 그 점을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나섰다.

"자네는 여전히 멋지군, 잭."

할머니가 말했다.

엄마가 할머니의 밍크 코트를 받아 걸었다. 할리데이가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 앉아 있을 때, 버클리가 위층에서 소리쳤다.

"할머니다!"

남동생은 네이트나 다른 사람에게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큰 차를 탄다고 뽐내곤 했다.

"멋있으세요, 어머니."

엄마가 말했다.

"흠……."

아버지가 저쪽으로 가자 할머니가 물었다.

"잭은 어떠냐?"

"모두 적응하고 있지만 힘드네요."

"잭이 아직도 의심스런 그 사내에 대해 얘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것 같아요."

"자칫하면 고소당한다."

할머니가 말했다.

"저이는 경찰 외에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걸요."

그들은 린지가 계단 위에서 듣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몰랐다.

"잭이 그래선 안 되는데.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그때 아버지가 복도 쪽으로 나오며 말했다.

"장모님, '세븐&세븐'으로 드실래요. 마티니를 드실래요?"

"자네는 뭘 마시려나?"

"사실 저는 요즘 술을 안 마시거든요."

아버지가 대답했다.

"그게 자네의 문제로군. 그럼 내가 알아서 하겠네. 술이 어디 있는지야 안 물어 봐도 아니까!"

밍크 코트를 벗은 할머니는 굉장히 날씬했다. 할머니는 열한 살이 된 나에게 '굶어서 빼야지. 굶어서 살을 빼야 된단다. 통통한 상태로 너무 오래 방치하면 안 돼. 젖살을 그대로 두면 커서도 흉해지니까.' 라고 말했다. 할머니와 엄마는 내가 벤제드린(각성제의 상표 : 역주)을 복용할 나이가 됐느냐를 놓고 언쟁을 벌인 적도 있었다. 할머니는 그 약을 '구세주' 라고 표현했다. "네 딸한테 내 구세주를 알려 주려는데 막을 셈이냐?" 라면서.

내가 살아 있을 때 할머니는 매사에 엉뚱했다. 하지만 그날 할머니가 빌린 리무진을 타고 도착해서 우리 집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요란하게 치장하고 들어선 할머니는 집에 빛을 다시 끌어들였다.

엄마는 내가 실종된 이후 처음으로 제대로 식탁을 차렸다. 식사 후 할머니가 말했다.

"내가 도와 줘야겠는걸."

엄마는 깜짝 놀랐다. 할머니는 설거지용 고무장갑을 끼고, 개수통에 세제를 잔뜩 풀어 그릇을 씻을 준비를 했다. 린지가 마른행주로 닦을 예정이었다. 엄마는 할머니가 아빠에게 술을 더 달라고 청하리라 짐작하던 참이었다.

"어머니, 고마워요."

"그런 소리 마라. 먼저 현관에 나가서 내 '마법 가방' 부터 가져와야겠는걸."

할머니가 말했다.

"안 돼요."

나는 엄마가 나직이 중얼대는 소리를 들었다.

"아, 그래요! 마법 가방!"

린지가 식사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부탁이에요, 어머니!"

린 할머니가 화장 가방을 가지고 나타나자, 엄마가 거부했다.

"됐다, 얘들아. 식탁을 싹 치우고 너희 엄마를 이리 모셔 오너라. 내가 사람을 싹 바꿔 놔야지."

"어머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설거지거리도 잔뜩 쌓였는걸요."

"애비게일."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머니가 당신을 취하게 할 순 있어도, 저 고문 도구로 날 괴롭히진 못해요."

"난 안 취했어."

아버지가 말했다.

"당신, 웃고 있잖아요."

엄마가 말했다.

"그럼 네 남편을 고소하렴. 버클리, 네 엄마 손을 잡아서 이리 끌고 오너라."

할머니가 참견했다.

동생은 시키는 대로 했다. 버클리는 엄마가 할머니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재미있었다.

"할머니?"

린지가 수줍게 할머니를 불렀다.

버클리에게 끌려온 엄마는, 할머니가 돌려 놓은 의자에 앉았다.

"왜 그러니?"

"저한테 화장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래요?"

"오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고말고!"

엄마가 앉자, 버클리가 무릎 위로 올라갔다.

"왜 그래요, 엄마?"

"당신 웃고 있어?"

아버지가 싱긋 웃으며 말했다.

그랬다. 엄마는 웃고 있었다. 소리내어 웃고 동시에 울고 있었다.

린 할머니가 말했다.

"수지는 착한 아이였지, 널 닮았어."

할머니는 말을 쉴 틈도 없이 이었다.

"이제 턱을 들고, 눈 밑의 그늘을 내게 보여 보렴."

버클리가 엄마의 무릎에서 내려와 다른 의자에 앉았다. 할머니가 말했다.

"린지, 이건 속눈썹을 올리는 데 쓴단다. 예전에 네 엄마에게 다 가르쳐 줬지."

"클라리사도 그런 걸 써요."

린지가 말했다.

할머니는 속눈썹 올리는 기구의 고무 패드 부분을 엄마의 속눈썹에 댔다. 속눈썹 올리는 법을 아는 엄마는 위를 쳐다봤다.

아버지가 물었다.

"클라리사랑 얘기해 봤니?"

"아뇨, 그건 아니고요. 그 언니는 브라이언 넬슨이랑 몰려다녀요.

둘이 수업에 빠져서 사흘간 정학을 당하기까지 한걸요."

"클라리사가 그럴 줄은 몰랐는데.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이는 아니지만, 문제아는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말했다.

"우연히 마주쳤는데, 클라리사에게서 마리화나 냄새가 났어요."

"넌 그런 건 손대지 말아야 한다."

할머니가 말했다. 할머니는 술을 마저 마시고, 잔을 식탁에 내려놓았다. 할머니가 린지에게 말했다.

"이걸 보렴. 속눈썹이 위로 올라가니까 엄마 눈이 확 살아났지?"

린지는 자기 속눈썹을 상상해 보려 했지만, 대신 키스하던 새무얼 헤클러의 숱 많은 속눈썹이 떠올랐다. 린지의 동공이 커졌다가 오므라들었다.

"놀랐는걸."

할머니가 말했다. 할머니는 한 손에 그 기구를 들고 다른 손은 허리에 올리고 있었다.

"뭐가요?"

"린지 새먼, 남자 친구가 생겼구만."

할머니가 공표하듯 말했다.

아버지가 빙그레 웃었다. 그는 갑자기 린 할머니가 좋아졌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아니에요."

린지가 말했다.

할머니가 뭐라고 말하려 할 때 엄마가 나직이 중얼댔다.

"맞아요."

할머니가 말했다.

"잘됐구나, 얘야. 남자 친구가 있어야 되고말고. 네 엄마 화장이 끝나면, 멋쟁이 린 할머니가 손질을 해 주마. 잭 자네는 아페리티프(식전에 마시는 술 : 역주) 한 잔 갖다 주게."

"아페테리프는……."

엄마의 말을 할머니가 끊었다.

"가르치려 들지 마라, 애비게일."

할머니는 취했다. 할머니는 린지를 어릿광대처럼 만들어 놓고는 '특급 모델'이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할머니 말에 따르면 멋지게 취했다. 가장 놀라운 일은, 엄마가 설거지거리를 개수통에 쌓아 둔 채 자러 갔다는 사실이었다.

다른 가족이 잠든 사이, 린지는 침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보았다. 볼연지와 립스틱 자국을 일부 지우고, 가늘게 정리한 눈썹을 매만졌다. 전에는 눈썹이 텁수룩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달라 보였고, 내가 보기에도 그랬다.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어른의 모습이었다. 화장 밑의 얼굴은 여느 때와 같았다. 최근에는 다들 린지가 나와 닮았다고 했다. 립펜슬(입술선을 그리는 화장품 : 역주)과 아이라이너(눈꺼풀과 속눈썹의 경계에 바르는 화장품 : 역주)를 바르니, 얼굴 윤곽이 뚜렷해졌다. 우리 집보다 색감이 풍부한 머나먼 곳에서 수입한 보석을 얼굴에 얹어 놓은 것 같았다. 우리 할머니 말이 맞았다. 화장이 파란 눈을 돋보이게 해 주었다. 눈썹을 정돈하니 얼굴 모양이 다르게 보였다. 볼터치는 광대뼈 밑의 움푹한 부분을 강조했다(할머니는 '움푹한 곳은 움푹해 보여야 제멋이지'라고 지적했다). 린지는 입술을 움직여 여러 가지 표정을 지어보았다. 입술을 쭉 내밀고, 입맞춤을 하고, 술 마신 사람처럼 활짝 웃어 보았다. 또 눈을 내리깔고, 착한 소녀처럼 기도하는 포

즈를 취하다가, 한쪽 눈을 뜨고 얼마나 착해 보이는지 쳐다보기도 했다. 린지는 침대에 누웠다. 화장한 얼굴이 뭉개지지 않게 똑바로 누워 잤다.

베델 어트메이어 부인은 우리 자매가 유일하게 본 죽은 사람이었다. 내가 여섯 살, 린지가 다섯 살이었을 때 부인은 아들이 사는 우리 동네로 왔다.

엄마는 부인의 뇌 일부가 손상을 입었다고 했다. 그래서 가끔 아들 집을 나와서,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 결국 부인은 우리 앞마당까지 와서, 층층나무 밑에 우두커니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길을 바라보곤 했다. 엄마는 부인을 부엌으로 모셔 와서, 함께 차를 마셨다. 부인이 진정하면 아들의 집에 전화해서 그녀가 안전하다고 알려 주었다. 집에 아무도 없으면 부인은 우리 집 부엌에 앉아서, 몇 시간이고 식탁에 놓인 꽃을 바라보곤 했다. 우리가 학교에서 집으로 가보면 부인이 부엌에 있곤 했다. 그냥 앉아 있기만 했다. 그녀는 우리에게 미소를 지었다. 가끔 린지를 '나탈리'라고 부르면서 손을 뻗어 머리를 만지기도 했다.

어트메이어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그 아들은 엄마에게 린지와 나를 장례식에 데려오라고 부탁했다. 그는 초대장에 '어머니께서 댁의 따님들을 특별히 좋아하신 것 같았습니다.'라고 적었다.

"엄마, 그 부인은 내 이름도 몰랐는걸요."

엄마가 재킷의 단추를 채워 주자 린지가 징징댔다. 단추가 많은 이 옷은 린 할머니의 선물이었다. 엄마는 이 옷을 '어머니답게 비실용적인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너한테는 이름을 부르기라도 했지, 난 부르지도 않았어."

내가 말했다.

부활절이 지나서, 그 주에는 봄볕이 따뜻했다. 끝까지 남아 있던 겨울 눈이 땅 밑으로 스며들었고, 교회 묘지의 묘비 바닥에 눈이 조금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옆으로 미나리아재비의 싹이 돋고 있었다.

어트메이어 부인이 다니던 교회는 화려했다. 아버지는 그곳으로 가는 차에서 '상류 가톨릭'이라고 말했다. 린지와 내겐 이런 일이 우스웠다. 아버지는 장례식에 가기 싫었지만, 엄마가 버클리를 임신해서 운전을 하지 못했다. 엄마는 임신 말기였기 때문에 운전대 앞에 앉을 수가 없었다. 엄마는 늘 몸이 불편했고, 우리는 힘든 심부름이 떨어질까 봐 엄마 근처엔 얼씬도 안 했다.

하지만 임신한 덕분에 엄마는 시신을 보지 않았다. 린지와 나는 시신을 본 후 몇 주 동안 그 이야기만 했다. 그후로도 나는 계속 그 꿈을 꾸었다. 아버지와 엄마는 우리가 시신을 보지 않기를 바랐지만, 어트메이어 부인의 아들이 채근했다.

"어머니가 나탈리라고 부르던 사람이 누구지?"

그가 물었다. 우린 그를 바라봤다. 나는 린지를 가리켰다.

"네가 가서 작별 인사를 해 드리면 좋겠구나."

그가 말했다. 그에게는 엄마가 가끔 뿌리는 향수보다도 달콤한 향수 냄새가 풍겼다. 나는 코가 매캐한데다 소외감까지 느껴져 울음이 나왔다.

"너도 같이 가도 돼."

그가 내게 말하면서 손을 내밀었고, 우리는 그를 따라 관이 안치된 곳으로 갔다.

거기 누운 사람은 어트메이어 부인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트메이어 부인이기도 했다. 나는 그녀가 손가락에 낀 반짝

이는 금반지만 쳐다보려고 노력했다.

부인의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 나탈리라고 부르시던 꼬마 아가씨를 데려왔어요."

나중에 얘기해 보니, 린지와 나는 어트메이어 부인이 말을 걸 거라고 예상했고, 만일 그러면 서로의 손을 잡고 냅다 달아날 작정을 하고 있었다.

힘겨운 1, 2초가 지났고, 인사는 끝났다. 우린 다시 엄마, 아버지에게 갔다.

나는 천국에서 베델 어트메이어 부인을 봤을 때 놀라지 않았다. 부인이 금발의 소녀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할리와 함께 봤을 때도 충격받지 않았다. 부인은 소녀를 딸 나탈리라고 소개했다.

추도식 아침, 린지는 최대한 오래 방에 머물렀다. 화장기가 남은 얼굴을 엄마에게 보이기 싫었다. 화장을 지울 시간이 없을 때에야 엄마 앞에 나타날 속셈이었다. 린지는 내 옷장에서 옷을 꺼내 입어도 괜찮을 거라고 중얼거렸다. 나도 기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지켜보기는 좀 뭣했다.

린지는 내 방 문을 열었다. 2월쯤 내 방을 드나드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다. 엄마, 아버지, 버클리, 린지…… 다들 내 방에 들어갔다고는 털어놓지 않았다. 도로 가져다 놓을 마음 없이 물건을 가져갔다는 말도 안 했다. 다른 가족이 내 방으로 날 만나러 왔다는 것은 다들 몰랐다. 손이 탄 흔적이 있으면 할리데이 탓으로 돌렸다. 할리데이가 손댈 수 없는 곳이어도 여전히 할리데이 탓을 했다.

린지는 새무얼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었다. 내 옷장을 열고 옷을 쭉 살폈다. 나는 정돈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엄마가 청소하라고 하

면, 바닥이나 침대에 있는 물건을 몽땅 옷장에 쑤셔넣기 일쑤였다.

린지는 새 옷을 입고 싶어 했지만, 늘 내가 입던 옷을 물려 입어야 했다.

린지는 어두운 옷장에 대고 속삭이듯 중얼댔다.

"이런."

동생은 이제 모두 제 옷이 됐다고 생각하니 죄책감과 기쁨이 한꺼번에 느껴졌다.

"여보세요? 똑똑."

린 할머니였다.

린지가 화들짝 놀랐다.

"방해해서 미안하구나. 네가 여기 들어오는 소리가 난 것 같아서."

할머니가 말했다.

할머니는 엄마가 '재키 케네디 드레스'라고 말하는 옷을 입고 서 있었다. 엄마는 우리 집 여자들과는 달리 왜 할머니는 엉덩이가 납작한지 이해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일자형 원피스를 날씬하게 입을 수 있었다. 예순두 살의 나이에도 그런 차림이 완벽하게 어울렸다.

린지가 물었다.

"여긴 웬일이세요?"

"지퍼 좀 올려 주려무나."

할머니가 몸을 돌렸다. 린지는 엄마에게선 한 번도 못 보던 것을 봤다. 할머니는 검정색 브래지어와 캐미솔(소매 없는 속옷 : 역주) 상의를 입고 있었다. 린지는 할머니에게 한두 걸음 다가가서, 지퍼 외에는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지퍼를 올렸다.

린 할머니가 물었다.

"거기 있는 고리 좀 걸어 주겠니? 할 수 있겠니?"

할머니 목덜미에서 분 냄새와 샤넬 No. 5 향이 풍겼다.

"이래서 남자가 있어야 된다니까. 혼자서 못 하는 일이지."

린지는 키가 할머니만 했고 계속 자라는 중이었다. 그애는 원피스의 고리를 걸다가, 금발로 염색한 머리칼 밑으로 잿빛 머리칼을 보았다. 등과 목덜미를 따라서 잿빛 머리가 나 있었다. 린지는 원피스의 고리를 채우고 가만히 서 있었다.

"언니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나요."

린지가 말했다.

"뭐라고?"

할머니가 몸을 돌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요. 언니의 목덜미를 본 적이 있었는지."

"얘야. 이리 오렴."

할머니가 팔을 벌렸지만, 린지는 옷장에 몸을 밀어넣었다.

"예쁘게 보여야 해요."

"넌 예뻐."

할머니가 말했다.

린지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린 할머니는 공연한 칭찬은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 할머니가 칭찬을 하면, 기분이 아주 좋았다.

"여기서 멋진 옷을 찾아보자꾸나."

할머니가 옷장으로 다가갔다. 린 할머니처럼 옷걸이에 걸린 옷을 잘 뒤져 골라내는 사람은 없었다. 드문 일이긴 해도 학기가 시작할 무렵에 우리 집에 오면, 할머니는 우리 둘을 데리고 나갔다. 할머니가 민첩한 손놀림으로 옷걸이에 걸린 많은 옷을 넘기는 광경에 우린 감탄했다. 할머니는 불쑥 잠시 주저하다가 원피스나 셔츠를 꺼내서, 우리 몸에 대 보곤 했다. 할머니는 "이거 어떠니?"라고 물었다. 언제나

완벽했다.

할머니가 내 옷을 뒤지다가, 괜찮아 보이는 것을 꺼내 린지의 몸에 대 보며 말했다.

"네 엄마 꼴이 형편없구나, 린지. 이런 모습은 처음 봤어."

"할머니."

"쉿! 생각 중이다."

할머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원피스를 들었다. 교회에 입고 가는 옷이었다. 피터팬 스타일의 칼라가 달린 검은 모직 원피스였다. 이 옷이 맘에 드는 이유는 스커트가 길어서, 교회 의자에 앉을 때 책상 다리를 해도 치맛단을 내리면 바닥에 끌리기 때문이었다.

할머니가 중얼댔다.

"이런 부대 자루 같은 건 어디서 났을까? 네 아버지도 엉망이긴 하다만, 이걸 입은 걸 보면 화낼 거야."

"엄마랑 어떤 사람에 대해 얘기한 거예요?"

할머니는 몸이 굳었다.

"어떤 사람이라니?"

"할머니가 엄마한테, 아빠가 아직도 그 사람 짓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잖아요. 누구예요?"

"좋았어!"

할머니가 짙은 청색 미니 원피스를 꺼냈다. 린지가 처음 보는 옷이었다. 클라리사의 원피스였다.

"너무 짧아요."

린지가 말했다.

"네 엄마한테 놀랐구나. 딸한테 이렇게 멋진 옷을 사 주다니!"

할머니가 말했다.

아버지가 복도에서 모두 10분 내에 내려오라고 소리쳤다.

할머니는 정신없이 준비했다. 린지가 청색 원피스를 머리 위로 입는 것을 도와 준 다음, 린지의 방으로 가서 구두를 골랐다. 할머니는 복도의 전등 밑에 서서, 린지의 화장을 고쳐 주었다. 번진 아이라이너와 마스카라 자국을 손본 다음, 콤팩트 분을 분첩에 발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할머니가 아래층으로 내려왔고, 엄마가 린지의 치마가 너무 짧다고 얘기하면서 할머니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을 때에야 린지와 나는 깨달았다. 할머니가 화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차가 교회에 가까워지자, 할머니와 린지 사이에 앉아 있던 버클리가 할머니를 빤히 보면서 뭐 하는 거냐고 물었다.

"볼연지를 칠할 시간이 없을 때 이렇게 하면 생기 있어 보이거든."

할머니가 말했다.

버클리는 할머니를 따라서 제 뺨을 살짝 꼬집었다.

새무얼 헤클러는 교회 문으로 이어진 통로의 돌기둥 옆에 서 있었다. 검은 옷차림이었고, 옆에는 가죽 재킷을 입은 그의 형 할이 있었다. 크리스마스날 새무얼이 입었던 그 재킷이었다.

할은 새무얼보다 피부가 더 검을 뿐 똑같이 닮은 모습이었다. 시골길에서 오토바이를 타느라 피부가 검게 그을렸다. 우리 가족이 다가가자 할은 재빨리 자리를 비켜 주었다.

"새무얼이겠구만. 난 마귀 할멈이라우."

할머니가 말했다.

"들어갈까? 만나서 반갑다, 새무얼."

아버지가 말했다.

린지와 새무얼이 앞장서고, 할머니는 뒤에서 엄마와 나란히 걸었

다. 연합 전선 같았다.

퍼너먼 형사가 양복을 입어 거북한 표정으로 문간에 서 있었다. 그는 우리 부모님에게 목례를 하더니, 엄마에게 눈길이 머물렀다. 아버지가 물었다.

"우리랑 같이 들어갈래요?"

"감사합니다만 저는 그냥 부근에 있고 싶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가족은 복잡한 교회 현관홀로 들어갔다. 나는 아버지의 등에 올라타 목을 감싸안고 귀에 대고 속삭이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아버지의 모든 틈새 속에 들어가 있었다.

새벽에 아버지는 숙취를 느끼며 잠에서 깼다. 몸을 돌리니, 엄마가 얕은 숨을 쉬며 잠들어 있었다. 사랑스런 아내…… 아버지는 엄마의 뺨에 손을 대고 싶었다. 머리칼을 뒤로 넘기고 입맞추고 싶었지만, 엄마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내가 죽은 후 아버지는 잠에서 깰 때마다 하루를 어떻게 지낼지 난감했다. 하지만 추도식이 있는 날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적어도 정직할 수 있으니까. 나의 부재를 인정하는 날이었으니까. 오늘은 정상적인 사람인 체할 필요가 없으리라. '정상'이 뭔지 모르지만. 오늘 아버지는 슬픔을 내색하며 걸어다닐 수 있었다. 엄마도 마찬가지였고. 하지만 엄마가 일어나면 하루 내내 낯선 모습만 보게 되리란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내 사망 소식이 알려지기 전에 그가 알았던 아내의 모습, 여인의 모습은 보지 못할 터였다. 거의 두 달 만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내 죽음은 이제 새로운 '소식'이 아니었다. 가족만 빼고. 아, 루스도 제외하고.

루스는 아버지와 함께 추도식에 참석했다. 그들은 독립 전쟁 동안

사용했던(당시 이 교회는 병원으로 쓰였다.) 성찬배가 전시된 유리 진열장 옆에 서 있었다. 드위트 선생님 내외가 루스 부녀와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 드위트 선생님의 집 책상에는 루스의 시가 있었다. 그녀는 월요일 이 시를 들고 학생 지도 카운슬러를 찾아갈 작정이었다. 그것은 나에 관한 시였다.

루스의 아버지가 말했다.

"집사람은 추도식이 학생들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카든 교장 선생님의 견해에 찬성하는 눈치입니다."

드위트 코치가 물었다.

"아버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저는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고 유가족을 내버려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루스가 오고 싶어 해서 함께 왔습니다."

루스는 우리 가족이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린지의 새로운 표정을 보고 경악했다. 루스는 화장이라는 걸 싫어했다. 화장이 여성의 품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했다. 새무얼 헤클러는 린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책에서 읽은 단어가 루스의 머리에 휙 떠올랐다. 종속. 하지만 그때 루스가 창 밖으로 할 헤클러를 바라보는 것을 나는 알아차렸다. 그는 교회 묘지 앞줄의 오래된 묘 앞에 서서, 담배 꽁초를 빨고 있었다.

"루스, 왜 그러니?"

그애 아버지가 물었다.

루스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를 쳐다봤다.

"왜 그러냐니 뭐가요?"

"방금 허공을 멍하니 쳐다봤잖아."

"묘지가 보기 좋아서요."

"이런. 우리 천사 아가씨……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기 전에 어서 들어가서 앉자."

클라리사가 브라이언 넬슨과 왔다. 아버지 양복을 빌려 입은 브라이언은 겁먹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클라리사가 우리 가족에게 다가갔고, 교장 선생님과 보트 선생님은 클라리사를 보고 자리를 비켜 주었다.

그애는 먼저 우리 아버지와 악수를 했다.

"잘 있었니, 클라리사? 별일 없지?"

"잘 지내요. 두 분도 안녕하시지요?"

"우리도 잘 지낸단다."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가 물었다.

"우리랑 가족석에 앉을래?"

"저기……."

클라리사는 손을 내려다보더니 말을 이었다.

"남자 친구랑 왔어요."

멍한 상태에 빠져 있던 엄마는 클라리사를 빤히 쳐다봤다. 클라리사는 살아 있고 나는 죽었다……. 클라리사도 엄마의 시선을 느끼자 자리를 피하고 싶어졌다. 그때 그 원피스가 그애의 눈에 들어왔다.

"얘."

클라리사가 린지에게 손을 뻗었다.

"왜 그러니, 클라리사?"

엄마가 끼어들었다.

"저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클라리사는 다시 원피스를 쳐다보며, 지금은 돌려 달라고 말할 때가 아님을 알아차렸다.

"여보?"

아버지가 엄마의 감정을 알아차렸다.

엄마 뒤에 서 있던 할머니가 클라리사에게 눈을 찡긋했다.

"린지가 예뻐 보여서요."

클라리사의 말에 린지가 얼굴을 붉혔다.

홀에 있던 사람들이 예배실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제의 차림의 스트릭 목사님이 부모님에게 다가왔다.

클라리사는 물러나서 브라이언 넬슨을 찾으러 갔다. 그녀는 브라이언을 발견하자, 그를 데리고 묘지로 나갔다.

레이 싱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는 나름의 방식으로 나와 작별했다. 지난 가을 스튜디오에서 찍은 내 사진을 보는 것으로.

레이는 사진 속의 눈을 들여다보다가, 전교생이 뜨거운 조명 아래 포즈를 취했던 배경막을 보았다. 죽음이란 무엇일까. 레이는 궁금했다. 죽음은 상실을 뜻할까. 꼼짝 않는 것…… 사라지는 것을 뜻할까. 그는 누구도 사진 속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내 사진을 응시하다가 깨달은 게 있었다. 그게 내가 아니라는 사실. 나는 주변의 공기 속에 있었다. 이제 그가 루스와 함께 지내는 추운 아침 속에 내가 있었다. 그가 공부하다가 혼자 보내는 조용한 시간 속에 내가 있었다. 나는 그가 키스하고 싶었던 여자 애였다. 레이는 나를 놓아주고 싶었다. 내 사진을 불태우거나 버리고 싶진 않았지만, 이제 사진을 보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레이가 사진을 두툼한 인도 시집에 넣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레이와 그의 어머니는 그 책에 꽃잎을 끼워 말렸다. 시간이 흐르면 꽃잎은 바스러졌다.

추도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나에 대해 좋은 말을 했다. 스트릭 목사

님. 카든 교장 선생님. 드위트 선생님. 하지만 아버지와 엄마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새무얼이 손을 꼭 쥐었지만, 린지는 그가 곁에 있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했다. 린지는 눈도 깜빡거리지 않았다. 버클리는, 그해에 결혼식에 참석한 네이트에게 빌린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내 동생은 몸을 비틀며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날 가장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은 린 할머니였다.

모두 일어서서 마지막 찬송을 부를 때, 할머니는 린지에게 몸을 숙이고 속삭였다.

"문간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린지가 고개를 돌렸다.

퍼너먼 형사가 문 안쪽에 서서 찬송가를 불렀고, 바로 뒤에 이웃에 사는 남자가 서 있었다. 주름진 면바지에 면셔츠를 입은 그는 다른 사람보다 캐주얼한 차림이었다. 린지와 그의 시선이 마주쳤다. 린지는 눈길을 돌렸다.

린지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와중에 조지 하비는 교회 뒤의 묘지로 사라졌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독립 전쟁 참전 용사들의 묘비 사이로 사라져 버렸다.

10

매년 주 전체를 대상으로 열리는 영재 심포지엄에는 중1에서 3학년까지의 영재들이 모여 4주간 합숙했다. 내가 늘 짐작했던 것처럼, 그들은 나무 주위를 서성대면서 서로 두뇌를 뽐냈다. 거기 모인 영재들은 모닥불을 피워 놓고 포크송 대신 오라토리오를 불렀다. 여학생 샤워실에서는 자크 당브와즈(뉴욕 발레단의 유명한 무용수 : 역주)의 몸매나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하버드 대학에 재직하는 저명한 경제학자 : 역주)의 전두엽에 대해 토론이 오갔다.

하지만 영재들도 여러 종류로 나뉘었다. 과학 천재와 수학 천재가 있었다. 그들은 사회성은 떨어졌지만, 영재 중에서도 최상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역사파도 있었다. 그들은 보통 사람이라면 들어 본 적 있을 뿐인 역사적 인물의 탄생일과 사망일을 줄줄 꿰었다. 그들은 암호 같기도 하고 아무 의미도 없을 듯한 연대를 입에 달고 살았다. 그들 곁을 지날 때 '1769년 출생, 1821년 사망.' '1770년 출생, 1831년

사망.' 이라는 말을 들은 린지는 '나폴레옹. 헤겔.' 이 답이라고 속으로 중얼댔다.

또 난해한 지식파도 있었다. 영재 중에서도 이들은 질투의 대상이 되었다. 엔진을 분해해서 재조립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 설명서나 지침 따윈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론보다는 실질적인 면에서 사물을 이해했다. 그들은 점수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새무얼은 지식파였다. 그의 영웅은 리처드 파인만(소립자 간 등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도표인 파인만 도표를 만든 물리학자 : 역주)과 형인 할이었다. 할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지금은 오토바이 가게를 운영했다. '지옥의 천사' 파부터 은퇴자 주택 단지 부근을 스쿠터로 도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손님에게 봉사했다. 할은 담배를 피웠고, 부모님 집 차고 위의 방에서 살았다. 그리고 가게 뒤에서 다양한 연애를 즐겼다.

사람들이 언제 철들 거냐고 물으면 할은 '철 안 들래요.' 라고 대답했다. 형의 말투에 영향을 받은 새무얼은 선생님들이 뭐가 되고 싶냐고 물으면 '모르겠어요. 겨우 열네 살인걸요.' 라고 대답하곤 했다.

이제 열다섯 살이 다 된 루스 코너스는 뭐가 되고 싶은지 알았다. 그녀는 집 뒤에 있는 연장 창고에 틀어박히곤 했다. 알루미늄으로 만든 창고에는 아버지가 집을 허물 때 손에 넣은 문고리와 철물이 가득 있었다. 루스는 어둠 속에 앉아서 머리가 아플 때까지 생각을 모았다. 그러다가 집으로 달려 들어가곤 했다.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는 거실을 지나서, 위층 그녀의 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방에 들어서기 무섭게 시가 줄줄 흘러나왔다. '수지 되기', '죽음 이후', '조각난 채로', '이제 그녀 곁에' 를 비롯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너무 자랑스러워서 심포지엄에 가져간 시로, 하도 접었다 폈다 해서 종이가 찢어질 정도

였다. — '무덤의 입술' 까지 그렇게 탄생했다.

루스는 승용차 편으로 따로 심포지엄에 갔다. 단체 버스가 출발하는 날 새벽 루스는 갑자기 위염 증세를 일으켰다. 루스는 채식만을 고집했고, 전날 밤에는 저녁 식사로 양배추 한 통을 다 먹었다. 루스의 엄마는 내가 죽은 후 루스가 채식주의자가 된 것이 마땅치 않아서, 따로 음식을 준비해 주지 않았다.

"이건 수지가 아니란 말이다!"

그녀는 그렇게 쏘아붙이며 두툼한 안심 스테이크를 딸의 접시에 놔주곤 했다.

아버지가 새벽 3시에 루스를 병원에 데려갔고, 아침에 집에 들러서 가방을 싣고 심포지엄 캠프로 태워다 주었다. 루스의 어머니는 가방을 챙겨서 집 앞 차도 끝에 놓아 두었다.

차가 캠프장에 서자, 루스는 이름표를 받으려고 줄지어 서 있는 아이들을 훑어봤다. 지식파 남학생 사이에 린지가 홍일점으로 끼어 있었다. 린지는 이름표에 성을 쓰지 않고, 그 자리에 물고기를 그렸다. 속이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내 살인 사건을 모르거나 린지를 나와 연관짓지 않을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다.

린지는 봄철 내내 반쪽짜리 하트 목걸이를 걸었고, 새무얼도 나머지 반쪽을 걸고 다녔다. 그들은 서로에게 애정을 느끼는 것이 부끄러웠다. 학교 복도에서 손을 잡지도 않았고, 쪽지를 주고받지도 않았다. 그저 점심 시간에 나란히 앉았고, 새무얼이 린지를 집까지 바래다주는 정도였다. 린지의 열네 살 생일에 그는 컵케이크에 초를 하나 꽂아 가져왔다. 그 정도일 뿐 둘은 또래 동성 친구들과 어울렸다.

다음 날 아침 루스는 일찍 일어났다. 루스도 린지처럼 영재 캠프에

서 '떠돌이' 였다. 어느 한 그룹에 끼지 않았다. 루스는 산행에 나서서 식물과 꽃을 채집하고 이름을 짓는 일을 거들었다. 과학 천재들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꽃과 식물의 이름을 직접 지었다. 일기장에 잎사귀나 꽃잎을 그린 다음, 짐작되는 성별을 표시했다. 잎이 단순한 식물에는 '짐', 솜털이 있는 꽃에는 '파샤' 같은 이름을 지어 주었다.

린지가 식당에 들어갈 즈음, 루스는 달걀과 소시지 요리를 더 먹으려고 줄을 서 있었다. 집에서는 육식을 안 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으니 지켜야 했지만, 캠프에서야 그런 결심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루스는 내가 죽기 전에도 린지랑 대화해 본 적이 없었고, 그런 핑계로 학교에서도 말을 걸지 않았다. 하지만 린지가 새무얼과 나란히 집에 가는 걸 봤고, 둘이 있을 때 미소짓는 것도 보았다. 루스는 린지가 팬케이크만 달라고 할 뿐 다른 음식은 사양하는 것도 지켜보았다. 루스는 지금껏 내 여동생이 된 상상을 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된 상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린지가 아무 생각 없이 뒤에 와 서자, 루스가 말을 걸었다. 루스는 린지의 이름표를 고개로 가리켰다.

"그 물고기는 뭘 뜻하는데? 신앙심이 깊은가 봐?"

"물고기의 방향을 봐."

린지는 아침 식단에 바닐라 푸딩이 들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대꾸했다. 팬케이크랑 잘 어울릴 텐데.

"루스 코너스야. 시를 써."

루스가 자기 소개를 했다.

"린지야."

린지가 말했다.

"새먼 맞지?"

"제발 그 얘긴 그만둬."

린지가 그 말을 하는 순간, 루스는 내가 된 기분이 어떤지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사람들은 린지를 보면서 나랑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니까.

매사 남다른 영재들끼리도 며칠 지나니 짝이 생겼다. 보통은 남학생끼리, 여학생끼리 어울렸다. 열네 살에 깊은 남녀 관계가 시작된 경우는 없으니까. 하지만 그해는 예외가 있었다. 린지와 새무얼.

"키-스-해!"

둘이 어딜 가나 모두 그렇게 외쳐 댔다. 보호자도 없고 더운 여름이어서, 둘 사이에는 뭔가가 잡초처럼 쑥쑥 자랐다. 욕망이…… 나는 욕망을 그렇게 느껴 본 적이 없었고, 아는 사람이 그렇게 뜨거워지는 걸 본 적도 없었다. 우리 집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

두 사람은 신중했고 규칙을 지켰다. '지도 교사가 남학생 숙소 옆 덤불숲을 손전등으로 비췄더니 새먼과 헤클러가 거기 있더라'는 식의 일은 없었다. 둘은 식당 뒤편에서 만나거나, 어떤 나무 밑에서 만나 나무 높이 이름을 새겼다. 둘은 키스했다. 더 나가기를 원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새무얼은 그것을 특별하게 하고 싶었다. 그것이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린지는 그냥 그것을 치르고 싶었다. 어른이 되려면 거쳐야 되는 통과의례라고 생각했다. 그것을 거치면 다른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린지는 섹스를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가는 것처럼 여겼다. 사라졌는데 눈 깜짝할 새에 다른 혹성에 가 있게 되는 것 정도로 받아들였다.

루스는 일기에 '둘은 그걸 할 거야.'라고 적었다. 나는 루스가 모든

걸 적는 데 기대를 걸었다. 루스는 주차장에서 내가 옆을 지나간 일이며, 그날 밤 내가 몸을 스친 일을 일기에 썼다. 그때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내 꿈을 꾼 일도. 어떤 영혼이 다른 사람의 제2의 살갗 같은 게, 보호막 같은 게 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 적었다. 자기가 잘만 하면, 우리 둘 다 해방될 수 있다는 대목도 있었다. 루스가 생각을 적어 내려갈 때 나는 그녀의 어깨 너머로 쳐다보면서, 언젠가 루스를 믿어 줄 사람이 있을까 궁금해졌다.

루스는 나를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연관지어 상상할 때 더 기분이 좋았다. 누군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싶었다. 루스는 꿈에서 옥수수밭을 봤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봤다. 그 세계에서 발판을 찾을 수 있으리라.

나는 루스가 어렸을 때의 어느 날을 볼 수 있었다. 루스는 목욕탕 바닥에 앉아, 십대인 사촌 언니가 목욕하려고 옷을 벗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사촌 언니는 아이를 보는 일을 떠맡은 참이었다. 루스는 언니의 피부와 머리를 만지고 싶었다. 언니가 안아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세 살 무렵의 이런 갈망이 여덟 살 무렵에 다시 나타난 걸까? 루스가 여선생님이나 사촌 언니에게 느끼는 감정은 보통 여자 애와는 뭔가 달랐다. 그것은 다른 여자 애들이 동성에게 기분 좋을 정도로 쏟는 관심을 넘어서는 욕망이었다. 갈망은 초록색에서 노란색으로, 크로커스 같은 욕정으로 꽃피었다. 보드라운 꽃잎이 묘한 사춘기를 열었다. 루스는 일기에 적곤 했다. 여자와 섹스를 하고 싶은 건 아니라고. 다만 여자들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고 싶다고. 숨고 싶다고.

영재 심포지엄의 마지막 주에는 늘 마지막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마련이었다. 마지막 밤, 여러 학교가 경쟁을 벌였다. 마지막 토요일 아

침 식사 전까지는 프로젝트 주제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참가자들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해마다 더 멋진 쥐덫 만들기 대회가 열렸으니까. 이미 발표된 쥐덫을 만들고 싶은 팀은 없었다.

새무얼은 치열 교정기를 낀 아이들을 찾아다녔다. 치열 교정할 때 쓰는 작은 고무 밴드가 필요했다. 그가 생각하는 쥐덫의 손잡이를 단단하게 하는 데 쓸 심산이었다. 린지는 주방장에게 안 쓴 은박지를 얻었다. 그들은 빛을 반사해서 쥐를 혼란하게 만드는 쥐덫을 만들려고 했다.

"쥐가 은박지에 비친 자기 모습을 좋아하면 어쩌지?"

린지가 새무얼에게 물었다.

"쥐는 그렇게 또렷이 보지 못해."

새무얼이 대답했다. 그는 쓰레기 봉투를 묶는 종이끈에 박힌 철사를 빼내려고 종이를 벗겼다. 캠프 주변에서 평범한 물건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그 물건을 이용해서 최고의 쥐덫을 만들지 고민 중이라고 보면 틀림없었다.

어느 오후 린지가 말했다.

"쥐가 굉장히 귀엽네."

전날 밤 린지는 들판에 나가서 끈을 이용해 쥐 몇 마리를 잡아, 빈 토끼장에 넣어 두었다.

새무얼이 쥐를 찬찬히 보면서 말했다.

"난 수의사가 되도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몸을 칼로 베는 게 싫어서 곤란할 것 같아."

"꼭 쥐를 죽여야 하나? 쥐덫 만들기 대회지, '쥐 죽이기 캠프'는 아니잖아."

린지가 말했다.

"아티는 발사나무로 작은 관까지 만들고 있다니까."

새무얼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구역질 나."

"아티답지."

"아티가 수지 언니한테 반했던 것 같아."

린지가 말했다.

"나도 알아."

"아티가 언니 얘기를 하니?"

린지가 가늘고 긴 막대기로 토끼장 철망을 쑤셨다.

"실은 너에 대해 묻던데."

새무얼이 대답했다.

"아티한테 뭐라 그랬는데?"

"괜찮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쥐들이 막대기를 피해 구석으로 달아나더니, 달아나고 싶어서 서로의 몸을 타고 올랐다. 새무얼이 말했다.

"쥐덫에 보라색 벨벳 소파를 만들어 넣자. 쥐가 소파에 앉을 때, 줄을 당겨 문이 닫히게 하고 치즈덩어리가 떨어지게 하는 거야. '야생 설치류의 왕국'이라는 제목을 붙여도 좋겠지."

새무얼은 어른들처럼 린지를 몰아 대지 않았다. 대신 쥐가 앉을 소파를 씌울 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뿐이었다.

그해 여름, 전망대에서 지상을 내려다보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천국의 들판을 거닐면서도 지상을 볼 수 있었으니까. 저녁이 오면 창과 포환을 던지던 사람들이 다른 천국으로 갔다. 그곳은 나 같은 애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천국이었다. 다른 천국들은 무서울까? 살아서

성장하는 또래들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보다 더 무서울까? 아니면 내가 꿈꾸는 그런 것일까?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에 칠면조 구이가 들어오고…… 성깔 있지만 솜씨 좋은 친척이 칠면조를 자르는 그런 것?

너무 멀리 걸어갔다는 생각이 들어 소리내서 궁금한 것을 말하면, 들판은 변하곤 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옥수수밭이 보이고, 낮은 콧노래 소리와 내게 경고하는 신음 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머리가 울리고, 하늘은 어두워지고 다시 밤이 찾아왔다. 영원히 지속되는 어제를 다시 살았다. 내 영혼이 단단해지고 점점 무거워졌다. 내 무덤 입구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가 봤지만, 아직 들여다보지는 못했다.

'천국'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이게 천국이라면, 진짜 천국이라면 조부모가 살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제일 좋아했던 친할아버지가 나를 안아 올리고 같이 춤출 텐데. 기억 따윈 없이 환희만 느껴질 텐데. 옥수수밭과 무덤 따위는 없이.

프래니가 내게 말했다.

"너도 그런 천국을 가질 수 있어. 그런 사람이 많단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내가 물었다.

"생각처럼 쉽지는 않지. 어떤 대답을 바라는 것을 멈춰야 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네가 살해됐는지 묻지 않으면, 넌 자유로워질 수 있어. 네가 없는 자리에 남겨진 진공 상태를 살피고 다니는 짓을 그만두면, 지상에 남은 사람 모두의 감정을 궁금해하지 않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어."

내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날 밤 루스가 린지의 숙소로 살며시 들어갔다.

루스는 내 동생에게 속삭였다.

"그애 꿈을 꿨어."

린지는 졸려서 눈을 끔뻑였다.

"수지 언니?"

린지가 물었다.

"식당에서 있었던 일은 미안해."

루스가 말했다.

린지는 3층 침대의 맨밑에 누워 있었다. 위층에서 자는 아이가 몸을 뒤척였다.

루스가 물었다.

"네 옆에 들어가도 되겠니?"

린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루스는 좁은 침대로 파고들었다.

"무슨 꿈을 꿨는데?"

린지가 속삭이듯 물었다.

루스는 린지가 코와 입술, 이마선이 보이도록 고개를 돌리고 대답했다.

"내가 옥수수밭의 땅속에 있는데, 수지가 내게 다가왔어. 수지가 내 위를 지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소리쳐 불렀지만, 내 입에 흙이 가득 들어 있었다. 내가 아무리 소리 지르려고 해도 수지는 듣지 못했어. 그때 잠에서 깼지."

"난 언니 꿈은 안 꾸는데. 쥐 떼가 내 머리 끝을 갉아먹는 악몽은 꾸

지만."

린지가 말했다.

루스는 내 동생 옆에 누워서 느끼는 아늑함이 좋았다. 몸이 닿아 따뜻했다.

"새무얼을 사랑하니?"

"응."

"수지가 그립니?"

린지는 주위가 어두워서, 루스가 고개를 돌리고 있어서, 루스가 거의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아무도 짐작하지 못할 만큼."

캠프를 주관하는 데본 중학교 교장이 집안일로 호출당하자, 체스터스프링스 학교 교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결국 하룻밤 사이에 그해의 프로젝트 과제가 바뀌었다. 교감은 쥐덫이 아닌 다른 과제를 제시하고 싶었다.

서둘러 제작한 포스터에는 '들키지 않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완벽한 살인을 저지르는 방법은?' 라고 쓰여 있었다.

심포지엄에 참가한 아이들은 이 과제를 좋아했다. 음악과 시, 역사, 미술 부문 영재들은 팀을 짜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들은 아침 식사 때 베이컨과 달걀을 입에 넣으면서, 과거의 미해결 살인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 치명상을 입히는 데 사용된 도구에 대한 생각도 나누었다. 그들은 살해 대상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7시 15분, 내 여동생이 식당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흥겨운 분위기였다.

아티는 린지가 줄을 서는 것을 봤다. 린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흥분된 분위기만 어렴풋이 느꼈다. 그래서 쥐덫 대회가 발표됐나 보

다고 짐작했다.

아티는 린지에게서 눈을 떼지 않다가, 배식대 위에 붙은 프로젝트 포스터를 보았다. 포스터는 식기대 위에 붙어 있었다. 식탁에서는 누군가 '살인왕 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티는 쟁반을 갖다 두려고 일어섰다.

아티는 린지에게 다가가서 헛기침을 했다. 난 이 어리숙한 애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다.

'린지를 잘 붙잡아 줘.'

내 기도가 지상으로 내려갔다.

아티가 말을 걸었다.

"린지."

린지가 그를 쳐다봤다.

"왜?"

배식대에서 주방장이 달걀을 국자에 담아서 린지의 접시에 담고 있었다.

"난 아티라고 해. 네 언니랑 같은 학년이야."

"난 관은 필요 없는데."

린지가 오렌지 주스와 사과 주스가 있는 곳으로 쟁반을 옮기면서 대꾸했다.

"뭐라고?"

"새무얼이 그러는데, 발사나무로 쥐의 관을 만들고 있다면서? 난 관은 필요 없어."

"대회 과제가 바뀌었어."

아티가 말했다.

그날 아침 린지는 클라리사의 원피스를 뜯어서 쥐의 소파를 만들

결심을 하고 있었다.

"뭘로?"

"밖으로 나갈까?"

아티는 린지 앞을 막아섰다. 그가 불쑥 말했다.

"린지, 과제는 살인에 대한 거야."

린지가 그를 빤히 쳐다봤다.

린지는 쟁반을 들고 있었다. 린지와 아티의 눈길이 얽혔다.

"네가 포스터를 보기 전에 알려 주고 싶었어."

아티가 말했다.

새무얼이 식당으로 쓰는 천막으로 뛰어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린지는 힘 없이 새무얼을 바라보았다.

"올해의 대회 과제는 완벽한 살인을 저지르는 방법이야."

새무얼이 말했다.

새무얼과 나는 린지가 동요하는 기미를 알아차렸다. 그애의 마음이 흔들렸다. 린지는 마음을 잘 다독거렸다. 그녀는 마음의 상처를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잘 감추고 지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포함해서 온 세상으로부터 문을 닫을 수 있었다.

"난 괜찮아."

린지가 말했다. 하지만 새무얼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새무얼과 아티는 식당을 나서는 린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아티가 힘없이 말했다.

"난 미리 알려 주려 했을 뿐인데."

그는 식탁으로 돌아갔다. 아티는 주사기를 차례로 그렸다. 주사기 안에 든 액체를 칠할 때 펜을 너무 눌러서 잉크가 새어나왔다. 그는

바늘에서 주사약이 세 방울 떨어지는 그림을 그렸다.

천국만큼이나 지상도 쓸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루스가 말했다.

"보통 칼로 찌르고 토막 내고,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지. 그건 별로야."

"동의해."

아티가 말했다.

새무얼은 얘기나 하자며 린지를 데리고 가 버렸다. 아티는 실외에 있는 테이블에 큼직한 공책을 펼쳐 놓고 앉은 루스를 보고 다가온 참이었다.

루스가 말했다.

"하지만 죽일 만한 그럴듯한 이유가 없어."

"누구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아티가 물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서, 발을 테이블 다리에 올렸다. 루스는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에 포개고 앉아서, 쉬지 않고 발을 움직였다.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데?"

루스가 물었다.

"아빠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어. 아빠는 누나랑 나를 거실로 부르시더니, 앉으라고 하셨어."

"쳇. 그래 뭐라고 하시든?"

"먼저 세상에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라고 하셨어. 그러자 누나가 '베트남 전쟁도 그렇죠.' 하고 대답했지. 아빠는 거기에 대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아빠와 누나는 그 얘기만 나오면 늘 언쟁을

벌이거든. 아빠는 '아니야.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도 무서운 일이 일어난단다.' 라고 말씀하셨어. 누나는 자기 친구가 무슨 일을 당했다고 짐작했지."

루스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걸 알아차렸다.

"그때 아빠가 울적한 표정으로, 어린 아이가 살해됐다고 하셨어. 내가 누가 죽었냐고 물었지. 아빠가 '어린 아이' 라고 하시기에 정말 아이를 상상했어. 우리 또래가 아니라."

제법 굵은 빗방울이 테이블 위를 적시기 시작했다.

아티가 물었다.

"안으로 들어갈까?"

"애들이 모두 안으로 들어갈걸."

루스가 말했다.

"그럴 거야."

"그냥 비를 맞자."

그들은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서 비를 맞았다. 머리 위의 나뭇잎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루스가 말했다.

"난 그애가 죽은 걸 알았어. 본능으로 알았지만, 아빠가 보시는 신문에서 읽고 확실히 알았지. 처음에 기사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 그냥 '14세 여학생' 이라고만 나왔지. 그 주 내내 수지랑 그애 여동생이 학교에 안 나왔으니 달리 누구겠어?"

"린지에게는 누가 얘기했을까?"

아티가 말했다. 비가 많이 내렸다. 아티가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서 소리쳤다.

"흠뻑 젖겠는걸."

그때 비가 멈췄다. 지나가는 비라서 갑자기 내렸다가 뚝 그쳤다. 나뭇가지 사이로 햇살이 비치자, 루스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수지가 듣고 있을 거야."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았다.

영재 캠프에서는 내 동생이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누군가 말했다.

"칼에 찔린다는 상상을 해 봐."

"됐어, 사양할래."

"멋질 것 같아."

"잘 생각해 보라고. 그애는 유명해졌잖아."

"유명해지는 방법이라고? 나 같으면 차라리 노벨상을 타겠다."

"그애가 뭐가 되고 싶었는지 누구 아는 사람?"

"린지에게 물어 보지 그래."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사람 중 죽은 사람 얘기를 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큰아빠, 이모. 부모가 세상을 떠났거나, 형제 자매가 어려서 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었다. 심장병, 백혈병, 이름을 말하기도 어려운 병으로……. 그러나 살해된 사람과 직접 아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이제 모두 나를 알게 되었다.

린지는 고물이 되어 물에 뜨지 않는 거룻배 밑바닥에 누웠다. 새무얼 헤클러가 옆에 누워 린지를 안았다.

"나는 괜찮아. 아티가 날 도와 주려고 그랬을 거야."

린지가 말했다.

"프로젝트는 안 해도 돼, 린지. 우리 그냥 여기 누워서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리자."

새무얼은 바닥에 등이 배겼다. 그는 여름비에 젖지 않게 린지를 꼭 끌어안았다. 배 밑의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의 숨결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자, 새무얼은 참을 수가 없었다. 그의 남성이 딱딱해졌다.

린지가 그곳으로 손을 뻗었다.

"미안해……."

새무얼이 말했다.

"난 준비됐어."

내 동생이 말했다.

열네 살의 나이에 그애는 내게서 멀어져, 내가 가 보지 못한 곳으로 들어갔다. 내 섹스의 방에는 공포와 피가 흥건했지만, 린지의 방에는 창문이 있었다.

'완벽한 살인을 저지르는 방법'은 천국에서는 오래된 게임이었다. 난 언제나 고드름을 살해 도구로 삼았다. 녹아 버리는 무기니까.

11

아버지가 새벽 4시에 일어났을 때 집은 조용했다. 엄마는 아버지 곁에서 가볍게 코를 골고 있었다. 린지가 영재 캠프에 가서 집에 혼자 남은 버클리는, 이불을 둘둘 말고 업어 가도 모르게 잤다. 나랑 비슷했다. 나는 살아 있을 때 린지와 둘이서, 버클리가 깨는지 보려고 옆에서 손뼉을 치고 책을 떨어뜨리는 장난을 했다. 심지어 냄비 뚜껑 두 개를 마주 치기도 했다.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기 전에 버클리를 살폈다. 아이의 코에 손가락을 대고 숨을 쉬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조깅복을 입고 바닥이 얇은 운동화를 신었다. 마지막으로 할리데이의 목에 끈을 맸다.

아직 이른 새벽이라 입김이 하얗게 공중에 퍼졌다. 이런 시간이면 겨울 기분을 낼 수 있었다. 그 사이 계절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새벽에 개를 산책시키는 일은 하비 씨의 집 앞을 지날 수 있는 좋은 핑곗거리였다. 아버지는 그 집 앞에서 약간 걸음을 늦췄다. 나를 빼면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터였다. 하비 씨가 깨어 있다면 그는 눈치채겠지만. 아버지는 하비 씨를 잘 감시하면, 오랫동안 감시하면 필요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초록색 지붕 집과 커다란 흰 돌이 양쪽에 놓인 차도에서 증거를 발견할 거라고 믿었다.

1974년 여름이 되도록 내 사건 수사는 진전이 없었다. 시체도, 범인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루아나 싱을 생각했다. 그녀는 '나 같으면 확신이 선다면 조용히 방법을 찾아서 그를 죽일 것'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엄마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하면 엄마가 겁이 나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테니까. 아버지는 그 '다른 사람'이 렌 형사일 거라고 짐작했다.

루아나 싱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렌 형사가 기다리고 있던 날 이후, 아버지는 엄마가 경찰에 많이 의지한다고 느꼈다. 아버지가 경찰의 주장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거나 경찰이 생각하지 못하는 추론을 말하면 엄마는 곧 아버지의 이론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하곤 했다. "렌 말로는 그런 건 의미가 없다던데요."라거나 "난 경찰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힐 거라고 믿어요."라고 받아쳤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경찰을 신뢰하는지 아버지는 의아했다. 왜 육감은 믿지 않을까? 범인은 하비 씨였고 아버지는 그걸 알았다. 한데 루아나 싱은 '나 같으면 확신이 선다면'이라고 말했다. 아버지가 영혼 깊이 알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 못했다.

나는 그 집에서 나고 자랐다. 하비 씨의 집처럼 상자 모양의 집이었기 때문에, 다른 집이 부러웠다. 나는 튀어나온 창문, 둥근 천장, 발코

니, 천장이 비스듬한 다락방 침실을 꿈꾸었다. 마당에 사람보다 크고 튼튼한 나무와 비스듬한 계단 밑 공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좋았다. 빼곡한 생울타리 안에 죽은 가지가 있어 거기 들어가 앉아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천국에는 베란다와 나선형 계단, 고풍스런 창살이 있는 창문, 한 시간마다 울리는 종이 달린 종탑이 있었다.

나는 하비 씨 집의 층별 도면을 다 외웠다. 내 시신은 싸늘해질 때까지 그의 집 차고 바닥에 있었다. 하비 씨는 내 피를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다. 그의 옷과 살에 피가 묻어 있었다. 나는 목욕탕도 알았다. 우리 집에서는 엄마가 버클리를 낳으면서 분홍색 벽에 전함을 스텐실해서 목욕탕을 꾸몄다. 하비 씨 집의 목욕탕과 부엌은 깔끔했다. 그는 불을 넣지 않았다. 우리 집 위층에는 버클리, 린지, 내 침실이 있었지만, 하비 씨의 집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창가에 의자를 놓고, 가끔 거기 앉아서 학교를 내다봤다. 운동장에서 밴드부가 연습하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1층 뒤쪽이나 아래층 부엌에서 인형 집을 만들며 주로 시간을 보냈다. 그렇지 않으면 거실에서 라디오를 듣거나, 욕망이 생기면 토굴이나 천막 같은 엉뚱한 것을 스케치하기도 했다.

몇 달간 아무도 그를 성가시게 하지 않았다. 그 여름까지 가끔 집 앞에서 경찰 순찰차를 봤을 뿐이었다. 하비 씨는 영리한 사람이었으므로 평소처럼 행동했다. 차고나 우편함에 가던 길이면 그대로 걸어갔다.

하비 씨는 자명종 몇 개를 준비했다. 하나는 블라인드를 올릴 시간, 하나는 블라인드를 내릴 시간에 종이 울리게 맞췄다. 자명종이 울리면 집 안에 불을 켜고 껐다. 가끔 아이가 와서 학교 자선 행사라며 초콜릿을 팔아 달라거나 신문 구독을 권하면, 그는 다정하면서도 형식적으로 대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는 줄곧 물건을 헤아리는 데서 위로를 얻었다. 소박한 물건들이었다. 결혼 반지, 봉투에 든 편지, 구두 뒤축, 안경, 만화 캐릭터 모양의 지우개, 작은 향수병, 플라스틱 팔찌, 내 팔찌에서 떼어 낸 돌판, 그의 어머니가 주고 떠난 호박 목걸이. 그는 신문 배달 소년이나 이웃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 밤 시간이면, 그 물건들을 꺼내 보곤 했다. 그리고 가톨릭 신자가 묵주 기도를 하듯, 물건을 하나하나 헤아렸다. 주인 이름을 잊어버린 물건도 있었다. 나는 죄다 알았지만. 구두 뒤축은 클레어라는 소녀의 것이었다. 클레어는 뉴저지 주 너틀리에 살았는데, 하비는 아이를 달래서 승합차에 타게 했다. 클레어는 나보다 어렸다(나라면 그 승합차에 안 탔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다. 내가 그의 토굴에 간 것은 무너지지 않는 토굴에 호기심이 있어서였다). 하비 씨는 클레어를 놔 주기 전에 구두를 벗겼다. 다른 짓은 하지 않고 구두만 벗겼다. 그는 클레어를 승합차에 태우고 구두를 벗게 했다. 클레어가 울기 시작하자, 그 소리 때문에 미칠 것 같았다. 하비 씨는 아이에게 조용히 하고 그만 떠나라고 부탁했다. 맨발로 승합차에서 내려서 그냥 가라고. 구두는 그가 갖고 있겠다고. 하지만 클레어는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울어 댔다. 하비 씨가 편지칼로 구두 뒤축을 떼어 내는데, 누군가 승합차의 뒷문을 두드렸다. 그는 남자들과 여자가 경찰을 부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하비 씨가 문을 열었다.

남자 한 명이 말했다.

"도대체 그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요?"

클레어가 소리를 지르면서 차에서 내리자, 옆에 있던 남자가 안았다.

"구두를 손봐 주고 있는데요."

소녀는 히스테리컬했다. 하비는 침착했고. 하지만 클레어는 알고

있었다. 그의 시선에 담긴 말하지 않은 뭔가를. 그때 나도 그걸 알았는데.

남자들과 여자는 당황했고, 클레어와 내가 아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하비 씨는 구두를 한 남자에게 주고, 잘 가라고 인사했다. 구두 뒤축은 하비 씨가 챙겼다. 그는 작은 가죽 뒤축을 손에 쥐고 엄지와 검지로 쓱쓱 문지르기를 좋아했다. 부적으로는 안성맞춤이었다.

나는 우리 집에서 가장 어두운 곳을 알았다. 그곳에 들어가서 한동안 머문 적도 있었다. 클라리사에게는 하루 종일이었다고 말했지만, 실은 45분 동안이었다. 지하실 천장 밑의 좁은 공간. 우리 집 지하실 안에는 파이프가 여러 개 박혀 있었다. 손전등을 비추니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끼어 있었다. 바로 거기였다. 벌레는 없었다. 엄마가 벌레 퇴치하는 사람을 불러서 미리 약을 뿌린 덕분이었다.

자명종이 울려 블라인드를 내릴 시간임을 알렸고, 그 다음 자명종은 전등을 끌 시간임을 알려 주었다. 교외 주택가가 잠든 시간이 되면 하비 씨는 지하실에 내려가곤 했다. 지하실에는 빛이 새나갈 곳이 없어서, 이웃 사람들이 수상쩍어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나를 살해한 즈음, 하비 씨는 지하실에 내려가는 게 지겨웠지만, 그래도 지하실 벽에 있는 구멍 앞에 놓인 안락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좋았다. 벽 가운데에서 시작해 부엌 바닥까지 구멍이 패어 있었다. 하비 씨는 가끔 거기 앉아 졸았고, 아버지가 새벽 4시 40분에 그 집 앞을 지나던 날도 거기서 자고 있었다.

조 엘리스는 고약한 장난꾸러기였다. 조가 수영장에서 물 속에 있는 린지와 나를 꼬집는 바람에, 우리는 수영장에서 하는 파티에 가지 못했다. 그는 집에서 키우는 개를 끌고 다녔다. 작은 개였는데 아주

빨리 달리지는 못했지만 조 엘리스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개를 때리거나 꼬리를 아프게 잡아당기며 괴롭혔다. 그러던 어느 날 개가 없어졌다. 조가 본 적이 있는 고양이도 자취를 감췄다. 그리고 동네에서 동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어두운 지하실을 응시하는 하비 씨의 시선을 쫓다가, 사라진 지 1년이 넘은 동물들을 발견했다. 동네에선 엘리스네 아들이 군사학교에 들어간 뒤로 동물들이 없어지는 일이 멈췄다고 했다. 이제 아침나절에 애완동물을 풀어 놔도 저녁 때면 집으로 찾아들었다. 엘리스의 짓이라는 증거였다. 누구도 초록색 지붕 집에 사는 남자의 취향을 상상하지 못했다. 그자가 고양이와 개의 시체에 생석회를 뿌려서 곧 뼈만 남게 만든다는 걸 아무도 몰랐다. 뼈의 수를 헤아리고, 봉인된 편지와 결혼 반지, 향수병 따위를 멀리하면서, 그는 가장 원하는 일을 멀리하려 애썼다. 가을에 어두운 위층에 앉아 학교 쪽에서 들려오는 치어 리더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얼굴을 상상하는 것이 그가 가장 원하는 일이었다. 또 두 집 아랫집에 아이들을 내려놓는 중학교 스쿨버스를 보는 것도 좋았다. 린지를 오래 쳐다본 적도 있었다. 린지는 남자 축구팀에 홍일점으로 끼어서 저녁 무렵에 동네 주위를 달렸다.

그가 매번 자신을 막아 보려 했다는 것을 나는 나중에야 깨달을 수 있었다. 동물들을 죽인 것은, 미천한 생명을 죽임으로써 아이를 죽이지 않으려는 하비 씨 나름의 노력이었다.

8월 렌 형사는 본인과 아버지를 위해서 경계선을 분명히 긋고 싶었다. 아버지가 경찰서에 너무 자주 전화하는 바람에, 경찰관들은 짜증을 냈다. 그것은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경찰 전체가 아버지에게 반감을 갖게 될 수도 있었다.

7월 첫 주에 렌 형사가 선을 긋는 계기가 되는 일이 있었다. 아버지는 경찰서 교환원에게, 아침 산책을 하는데 개가 하비 씨의 집 앞에 멈춰 서서 계속 으르렁댔다는 이야기를 자세히 했다. 아버지가 아무리 애써도 개는 그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고, 짖는 것을 멈추지도 않았다는 얘기였다. 그 통화 내용은 경찰서 내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 '또 시작이네…….' 하고.

렌 형사는 우리 집 현관 입구의 계단에 서서 담배를 마저 피웠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전날의 습기가 축축하게 남아 있었다. 그 주 내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릴 거라는 예보가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습도만 높을 뿐이었다. 온몸에 땀이 났다. 렌 형사가 우리 집을 편안하게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었다.

안에서 콧노래 소리가 들렸다. 여자 목소리였다. 그는 담배 꽁초를 시멘트 바닥에 비벼 끄고, 현관에 달린 고리쇠를 잡았다. 고리쇠를 두드리기도 전에 문이 열렸다.

린지가 말했다.

"담배 냄새를 맡았거든요."

"네가 콧노래를 불렀니?"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나빠요."

"아버지는 집에 계시니?"

린지는 그가 들어오도록 비켜 섰다.

"아빠! 렌 형사님이 오셨어요!"

린지가 집 안에 대고 소리쳤다.

렌 형사가 물었다.

"집을 떠나 있었다면서?"

"방금 돌아왔어요."

린지는 새무얼의 운동복 셔츠와 이상한 땀복 바지를 입고 있었다. 엄마는 내 동생이 죄다 남의 옷을 입고 집에 왔다고 혼냈다.

"부모님이 보고 싶어 하셨겠다."

"안 그럴걸요. 내가 성가시게 안 해서 좋으셨을 텐데요."

린지가 말했다.

렌 형사는 그 말이 맞다는 걸 알았다. 지난번에 집에 왔을 때 엄마가 평소보다 차분한 기색이 역력했으니까.

린지가 말했다.

"버클리가 침대 밑에 경찰 본부를 만들고, 형사님을 서장님으로 정했대요."

"승진이구나."

두 사람은 아버지가 2층 복도를 걸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곧 버클리가 조르는 소리도 들렸다. 뭘 조르는지 몰라도 아버지가 마침내 들어 줬다는 걸 린지는 알아차렸다.

아버지와 남동생이 환한 얼굴로 계단을 내려왔다.

"렌 형사."

아버지가 그와 악수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잭. 오늘 아침은 기분이 어때, 버클리?"

아버지는 버클리의 손을 잡아 렌 형사 앞에 세웠다. 렌은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고 내 동생을 보았다.

그가 말했다.

"날 경찰서장으로 정했다면서?"

"네!"

"난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렌 형사님은 누구보다도 자격이 있어요."

아버지가 흔쾌히 말했다. 아버지는 렌 퍼너먼 형사가 집에 오는 걸 좋아했다. 렌 형사의 방문은 아버지가 누군가와 교감하고 있다는 것, 뒤를 받쳐 주는 집단이 있다는 증거였다.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

"얘들아, 아버지랑 얘기를 해야겠구나."

린지가 콘플레이크를 주겠다면서 버클리를 부엌으로 데려갔다. 린지는 자기도 모르게 새무얼이 보여 줬던 술을 생각했다. 설탕과 진의 밑바닥에 마라스키노 술에 절인 체리를 담근 술이었다. 새무얼과 린지는 설탕과 진이 묻은 체리를 쭉쭉 빨았다. 결국 입술이 빨개지고 머리가 아팠다.

"집사람을 부를까요? 커피라도 드릴까요?"

"잭, 무슨 소식을 갖고 온 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앉을까요?"

렌 형사가 말했다.

나는 아버지와 렌 형사가 거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거실은 아무도 살지 않는 곳처럼 썰렁했다. 렌이 의자 끝에 앉아서, 아버지가 앉기를 기다렸다.

렌 형사가 말했다.

"잘 들으세요, 잭. 조지 하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졌다.

"아무 소식도 없다면서요."

"없습니다. 경찰서와 저 자신을 위해서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조지 하비에 대해 전화하는 걸 그만두셔야겠습니다."

"하지만……"

"그만둬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들춰 봐도 그를 수지의 죽음과 연결

시킬 만한 게 없습니다. 개가 울부짖는 것과 신부용 천막을 치는 것은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자의 짓이라는 걸 난 알아요."

아버지가 말했다.

"그 사람이 별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제가 아는 한 그는 살인범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렌 퍼너먼 형사가 설명을 했지만, 아버지의 귀에는 루아나 싱이 한 말만 들렸다. 하비 씨의 집 밖에 서 있을 때 기 같은 게 번졌던 기억. 하비 씨의 냉정함. 하비 씨는 알 수 없는 인물이었고,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그뿐이었다. 렌이 부인할수록 아버지는 더욱 확신했다.

아버지가 담담하게 말했다.

"하비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겠다는 거군요."

린지는 문간에 있었다. 렌과 제복 차림의 경찰관이 내 귀마개를 갖고 온 날에도 거기 서 있었다. 린지도 똑같은 귀마개를 갖고 있었다. 그날 내 동생은 조용히 제 귀마개를 인형 상자에 넣어 옷장 밑바닥에 처박았다. 엄마가 귀마개에 달린 방울 소리를 듣지 않게 하고 싶었다.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끌어안는 가슴을 가진 분이었다. 우리를 필사적으로 꼭 끌어안았다. 아버지의 심장 문이 열렸다 닫히면서 악기를 연주했고, 그 정적과 손놀림……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면서 놀랍게도 소리와 가락, 따스함을 자아냈다. 린지가 서 있던 자리에서 앞으로 나갔다.

"린지구나."

렌 형사가 말했다.

"퍼너먼 형사님."

"방금 네 아버지께……."

"포기한다고 하셨죠."

"그 사람에게 혐의를 둘 만한 이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마무리된 건가요?"

린지가 물었다. 그애는 갑자기 아버지의 아내 노릇을 했다. 책임감 있는 큰딸이 흔히 그렇듯이.

"저희가 모든 가능성을 조사했다는 점을 가족 모두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린지는 엄마의 인기척을 들었고, 나는 엄마를 봤다. 엄마가 계단을 내려왔다. 버클리가 부엌에서 달려 나와서, 아버지의 다리에 힘껏 매달렸다.

엄마는 렌 형사를 보자, 타월 가운의 앞섶을 단단히 여몄다.

"렌, 잭이 커피를 대접했나요?"

아버지는 아내와 렌 퍼너먼을 바라보았다.

"경찰이 종쳤대요."

린지가 말하면서 버클리의 어깨를 잡아서 자기 쪽으로 당겼다.

"쫑쳐?"

버클리가 물었다. 그애는 늘 발음을 세게 했다.

"뭐라고?"

"퍼너먼 형사님이 아버지에게 범인 추적을 중단했다는 말을 하러 오셨다고요."

"린지, 난 그런 말은 안 했는데."

렌 형사가 말했다.

"어쨌든지요."

린지는 영재 캠프가 계속되는 곳으로 가고 싶었다. 새무얼과 둘이

서 지배하는 세계로. 아티도 끼워 줄 수 있었다. 아티는 고드름을 범행 도구로 써서 '완전 범죄 대회'에서 우승했다.

"아버지, 이리 오세요."

린지가 말했다. 아버지는 천천히 생각을 모으고 있었다. 조지 하비와는 관계없는 일이었다. 나와도 관계없는 일이었다.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은 엄마의 눈빛이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서재에서 홀로 밤을 지샜다. 그런 일이 점점 많아졌다. 아버지를 둘러싼 세상이 무너져 내리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내 죽음이 몰아친 이후 정말이지 모든 게 예상 밖이었다. 아버지는 공책에 '폭발하는 화산 속에 서 있는 기분이다. 애비게일은 하비에 대해 렌 퍼너먼이 옳다고 생각한다.' 라고 적었다.

글을 적을 때 창가에 밝힌 촛불이 흔들렸다. 책상에 램프가 있는데도, 촛불이 깜박이는 게 신경에 거슬렸다. 아버지는 대학 시절 이후 간직해 온 낡은 나무 의자에 등을 기대고, 의자가 삐걱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가 위로가 됐다. 회사에서는 장부 기재마저 제대로 못했다. 매일 무의미한 숫자와 씨름해야 했다. 자주 실수를 저질렀고, 그게 두려웠다. 내가 실종된 직후의 나날보다 더 겁이 났다. 남은 두 아이를 부양하지 못하게 될까 봐.

아버지는 일어나서 머리 위로 팔을 쭉 뻗었다. 가정의가 권한 체조에 집중하려고 애썼다. 나는 아버지의 몸이 어렵지만 놀랍게 굽혀지는 것을 봤다. 처음 보는 면모였다. 아버지는 사업가가 아니라 무용수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루아나 싱과 브로드웨이에서 춤을 출 수도 있었으련만.

아버지는 책상 위에 놓인 램프를 끄고, 촛불만 남겨 두었다.

아버지는 낮은 초록색 안락 의자에 앉아 있는 게 가장 편했다. 나는 아버지가 거기서 잠든 광경을 자주 봤다. 방은 지하 납골당 같고, 의자는 자궁 같았다. 나는 아버지를 지키고 서 있었고, 아버지는 창가에 켜 놓은 촛불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궁리했다. 엄마의 몸에 손을 대려 해도 엄마는 몸을 빼면서 침대 끝에 누웠다는 생각도 했다. 그런 엄마가 형사 앞에서는 화색이 도는 것 같다는 생각도…….

아버지는 촛불 뒤에 생기는 유령 같은 빛에 익숙해졌다. 창에 반사되는 떨림에도. 아버지는 그 두 가지를—붉은 불꽃과 유령—응시하면서, 졸기 시작했다. 졸면서 생각과 번민과 그날 있었던 일 속으로 빠졌다.

멀리서 만년필 모양의 손전등 불빛이 비치는 것 같았다. 흰 빛줄기가 천천히 잔디밭 위를 지나더니 중학교 쪽으로 옮겨 갔다. 아버지는 그걸 보았다. 지금은 자정이 지난 시간이었고, 보름달이 아니어서 나무와 집의 실루엣이 분명히 보이지 않았다. 스테드 씨가 늦은 밤에 페달에 불이 들어오는 자전거를 타긴 했지만, 이웃집 잔디밭을 마구 밟고 지나갈 사람은 아니었다. 또 스테드 씨가 자전거를 타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아버지는 초록색 의자에서 몸을 당겨 앉으며, 손전등 불빛이 옥수수밭 방향으로 옮겨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쁜 자식. 살인범이야."

아버지는 중얼거렸다.

서재에 있는 옷장에서 사냥용 재킷을 꺼내 서둘러 입었다. 십 년 전 비운의 사냥 여행을 한 이후 입지 않았던 옷이었다. 아버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현관 옷장에서 야구 방망이를 꺼냈다. 린지가 축구를 좋아하기 전에 사 준 방망이였다.

먼저 현관 바깥의 전등을 껐다. 경찰에서는 여덟 달 전에 내가 살아서 발견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가족은 나를 위해 밤새도록 현관등을 켜 두었다. 아버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면서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손잡이를 돌리고 어두운 현관 밖으로 나섰다. 문을 닫고, 앞마당에 야구 방망이를 들고 서 있으려니 '조용한 방법을 찾으라'는 말이 떠올랐다.

앞마당을 빠져 나가 길을 건넜고, 오드와이어네 마당으로 접어들었다. 처음 불빛을 본 곳이 거기였다. 어두운 그 집 수영장과 녹슨 그네 옆을 지났다. 가슴이 뛰었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조지 하비가 그의 딸을 죽였다는 사실밖에.

아버지가 축구장에 도착했다. 오른쪽에 옥수수밭이 있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기억으로 알고 있었다. 경찰이 줄을 치고 샅샅이 수색했던 지역이었다. 아버지는 거기서 작은 불빛을 보았다. 야구 방망이를 단단히 쥐었다. 한순간 자신이 그런 일을 하려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는 무슨 일을 하려는지 잘 알고 있었다.

바람이 도와 주었다. 옥수수밭에 바람이 불어와 바짓자락이 펄럭이자, 아버지는 앞으로 밀려갔다. 모든 게 쓰러졌다. 옥수수 사이에 서 있게 되자, 불빛에만 초점이 모아졌다. 바람이 그가 있는 것을 감춰 주었다. 아버지의 발소리는 바람에 옥수숫대가 휩쓸리는 소리에 묻혀 버렸다.

가당치 않은 것들이 아버지의 머릿속에 흘러들었다. 도로 위에서 아이들이 롤러스케이트를 탈 때 나는 소리, 할아버지의 파이프 담배 냄새, 엄마가 아버지와 처음 만났을 때 짓던 미소, 빛같이 환한 미소

가 아버지의 혼란스런 마음을 뚫고 들어왔다. 그때 손전등 불빛이 꺼졌고, 사방이 어두워졌다.

아버지는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서서 말했다.

"네가 여기 있는 걸 알아."

나는 옥수수밭으로 들어가서 불을 밝히려고 애썼다. 우박과 꽃의 폭풍우를 보냈지만, 무엇도 아버지에게 경고가 되지 못했다. 나는 천국으로 쫓겨났다.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난 그것 때문에 여기 왔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슴이 들먹거렸고, 피가 콸콸 흐르다가 꽉 조였다. 호흡과 불꽃과 허파가 조였다 풀리면서 아드레날린이 솟구쳤다. 아버지의 마음에 엄마의 미소가 사라지고, 내 미소가 들어섰다.

"깨어 있는 사람은 없다. 그 짓을 끝내 주려고 내가 여기 왔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는 훌쩍이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학교 강당에서 비추는 것 같은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싶었다. 비출 곳을 제대로 못 비추기도 하지만…… 그애가 쭈그리고 앉아서 훌쩍이고 있었다. 파란 아이섀도를 바르고, '베이커' 상점에서 산 웨스턴 스타일 부츠를 신었지만, 무서워서 오줌을 쌌다. 아직 어렸다.

그애는 우리 아버지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했다. 증오심 넘치는 소리였으니까.

클라리사는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브라이언? 브라이언?"

클라리사의 그 말은 방패 같은 소망이었다.

아버지는 들고 있던 방망이를 스르르 놓았다. 방망이가 바닥에 떨

어졌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요?"

브라이언 넬슨은 바람 소리를 들으며 형의 고물 차를 학교 주차장에 세웠다. 맨날 지각이고, 수업 시간과 식탁에서는 졸았지만, 「플레이보이」를 보거나 귀여운 여자 애 옆을 지날 때, 옥수수밭에서 기다리는 여자 애가 있는 밤에는 졸리지 않았다. 그는 느긋하게 걸었다. 그의 계획을 도와 줄 바람이 휘휘 불었다.

그는 어머니가 싱크대 서랍에 챙겨 둔 비상용 손전등을 들고 옥수수밭으로 갔다.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렸다. 그가 나중에 그 소리를 클라리사의 도와 달라는 비명이었다고 말할 터였다.

아버지의 가슴에 돌덩어리가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무거운 가슴으로 더듬더듬 훌쩍이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갔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장갑을 뜨개질하는 중이었고…….

'수지는 겨울에 옥수수밭이 춥다며 장갑을 달라고 부탁했지. 클라리사! 수지의 멍청한 친구. 화장하고 잼을 바른 빵을 먹고, 남국에서 피부가 그을린 아이.'

아버지는 아무 생각 없이 클라리사에게 달려들어 어둠 속에 쓰러뜨렸다. 클라리사의 비명 소리가 아버지의 귀에 꽂히더니 빈 공간으로 쏟아져 들어와 날뛰었다.

"수지!"

아버지도 비명을 질렀다.

브라이언은 내 이름을 듣고 달려왔다. 전속력으로 뛰었다. 옥수수밭에 불빛을 비추었을 때, 한순간 하비 씨가 거기 있었다. 하지만 그를 본 것은 나뿐이었다. 브라이언이 옥수숫대 사이를 파고들자, 불빛은

하비 씨의 등을 비추었다. 브라이언은 훌쩍이는 소리를 다시 들었다.

그때 불빛이 목표물을 비추었다. 브라이언은 아버지를 클라리사에게서 떼어 내고, 아버지를 때렸다. 커다란 손전등으로 머리, 배, 얼굴을 내리쳤다. 아버지는 비명을 지르고 신음했다.

그 순간, 브라이언은 야구 방망이를 봤다.

나는 꼼짝 않는 천국의 경계를 자꾸만 밀어냈다. 손을 뻗어 아버지를 들어올려서 내게로 데려오고 싶었다.

클라리사는 뛰었고 브라이언은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다. 아버지는 브라이언과 눈을 마주쳤지만, 숨을 쉬지 못했다.

"나쁜 자식!"

브라이언이 비난을 퍼부었다.

나는 흙바닥에서 나는 웅얼대는 소리를 들었다. 내 이름을 들었다. 아버지의 얼굴에 흐르는 피를 맛보는 기분이었다. 나는 손을 뻗어 터진 입술을 매만지고, 내 무덤에서 아버지와 나란히 눕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천국에서 등을 돌려야 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내 완벽한 세계에 갇혀서. 혀에 닿는 피맛은 썼다. 시큼하고. 나는 아버지가 밤을 새워 지켜 주고, 굳은 사랑을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아버지가 나를 그만 놔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한 가지 배려를 받았다. 아버지의 서재로 갔다. 의자에 아버지의 체온이 남아 있었다. 홀로 깜박이는 촛불을 껐다.

12

아버지 곁에 서서 잠든 모습을 지켜보았다. 밤 사이 경찰은 정황을 파악했다. 새먼 씨가 슬픔으로 제정신을 잃고, 복수를 하러 옥수수밭으로 갔다. 그들이 파악하는 아버지와 맞아떨어졌다. 아버지는 경찰에 계속 전화를 했고, 그 이웃 남자한테 집착했다. 그날 퍼너먼 형사가 집에 찾아가서, 우리 부모님에게 내 살인 사건 수사에 균열이 생겼음을 알렸다. 수사할 단서가 없는데다,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다.

의사는 아버지의 무릎뼈를 봉합하는 수술을 해야 했다. 아버지는 부분적으로 관절을 쓰지 못하게 될 터였다. 나는 수술을 지켜보면서, 재봉틀질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 아버지가 더 능력 있는 손에 맡겨져 내게 보내졌다면 좋았을 텐데. 집에서 난 손이 둔했다. 매사를 엉망으로 만들기 일쑤였다.

외과의는 인내심이 있었다. 그가 손을 씻고 소독할 때 간호사가 귀

띔해 주었다. 그도 신문에서 내 사건 관련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났다. 의사는 아버지와 동년배였고, 자식이 있었다. 그는 수술용 장갑을 끼면서 몸을 떨었다. 그와 이 환자는 얼마나 비슷한가. 얼마나 다른가.

어두컴컴한 병실에는 침대 머리맡에 일자형 형광등이 켜져 있었다. 새벽이 될 때까지 병실의 불빛은 그것뿐이었다. 새벽에 린지가 병실에 도착했다.

엄마와 린지, 버클리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에 깨어, 어두운 부엌으로 내려왔다. 엄마가 린지에게 말했다.

"가서 아빠를 깨우렴. 이런 난리 속에서도 자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린지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모두 알았다. 6개월 동안 초록색 의자는 아버지의 침대 노릇을 했으니까.

"아빠는 여기 안 계세요! 아빠가 없어졌어요. 엄마! 엄마! 아빠가 안 계세요!"

린지가 소리쳤다. 그애가 이렇게 겁에 질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빌어먹을!"

엄마가 말했다.

"엄마?"

버클리는 엄마의 욕설에 놀랐다.

린지가 부엌으로 뛰어 들어왔다. 엄마는 스토브 앞에 있었다. 차를 만드는 엄마의 등에는 신경이 수수께끼처럼 얽혀 곤두섰다.

린지가 말했다.

"엄마? 조치를 취해야죠."

"넌 모르겠니?"

엄마는 홍차가 든 상자를 든 채 물었다.

"뭘요?"

엄마는 홍차 상자를 내려놓고, 스토브에 불을 켠 후 몸을 돌렸다. 그때 엄마는 뭔가 알아차렸다. 버클리는 린지에게 달라붙어 엄지손가락을 빨고 있었다.

"아빠는 그자를 쫓아서 나갔다가, 일을 당한 거야."

"우리가 나가 봐야 해요, 엄마. 가서 아빠를 도와야 된다고요."

린지가 말했다.

"아니."

"엄마, 우리가 아빠를 도와 드려야 돼요."

"버클리, 손가락 좀 그만 빨아라."

버클리가 울음을 터뜨리자 린지가 꼭 안아 주었다. 린지는 엄마를 쳐다봤다.

"제가 나가서 아빠를 찾아볼래요."

"그런 짓은 하면 안 돼. 아빠는 때가 되면 집에 오실 거야. 우린 이번 일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을 거야."

"엄마, 아빠가 다치시면 어떡해요?"

린지가 물었다.

버클리는 울음을 그치고 린지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봤다. 그도 다친다는 게 뭔지, 집에 누가 없는지 알고 있었다.

엄마가 린지에게 의미 있는 눈길을 던졌다.

"그만 이야기하자. 네 방에 올라가서 기다리든지 여기서 엄마랑 기다리든지 알아서 하렴."

린지는 어리벙벙했다. 엄마를 노려보다가 뭘 하고 싶은지 깨달았

다. 달아나고 싶었다. 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는 옥수수밭으로 뛰어가고 싶었다. 문득 우리 가족의 마음이 그곳으로 옮겨 갔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버클리가 달라붙어 있었다.

린지가 말했다.

"버클리, 위층으로 올라가자. 누나 침대에서 자도 돼."

버클리는 상황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특별 대접을 받으면 꼭 나중에 무서운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경찰에서 전화가 오자, 엄마는 현관에 있는 옷장으로 달려갔다.

"우리 야구 방망이로 맞았다는구나!"

엄마가 코트와 열쇠, 립스틱을 챙기면서 말했다. 린지는 어느 때보다도 쓸쓸했지만, 책임감도 느꼈다. 버클리를 혼자 둘 수 없는데다가, 운전도 할 줄 몰랐다. 게다가 아주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됐다. 가장 남편 편에 서야 되는 사람이 아내가 아니던가?

하지만 린지는 네이트의 엄마와 통화하게 되자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웠다. 옥수수밭이 소란스러워서 이웃 사람 모두 잠에서 깼다. 린지는 새무얼에게 전화했다. 한 시간 내에 네이트의 엄마가 버클리를 데려가려고 왔고, 할 헤클러는 오토바이를 타고 우리 집으로 왔다. 새무얼의 멋쟁이 형 오토바이를 타게 됐으니—오토바이에 타는 것도 처음이었다.—흥분할 일이지만, 지금 린지의 머릿속에는 온통 아버지 생각뿐이었다.

린지가 병실에 들어갔을 때 엄마는 곁에 없었다. 아버지랑 나만 있었다. 린지는 침대 옆에 서서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아빠? 괜찮으세요?"

병실 문이 열렸다. 키가 크고 잘생긴 할 헤클러였다.

"린지, 집에 돌아갈 때 태워 줘야 될지 모르니까 면회 대기실에서 기다릴게."

그가 말했다.

할은 린지가 몸을 돌릴 때 눈물 자국을 봤다.

"고마워요, 할. 혹시 엄마를 보면……."

"네가 왔다고 말할게."

린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동생은 내 눈앞에서 성장하고 있었다. 나는 그애가 속삭이는 말을 들었다. 버클리가 태어나기 전, 아버지가 우리 둘에게 불러 준 노래 가사였다.

돌과 뼈,
눈과 서리,
씨앗과 콩, 올챙이.
오솔길과 잔가지, 입맞춤.
우리 아빠가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우린 알지!
아빠의 두 개구리.
둘은 어디 있는지 잘 알아요!

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길 바랐지만, 아버지는 약 기운과 악몽, 흔들리는 꿈속에서 헤엄치고 있었다. 한동안 마취약이 의식의 네 귀퉁이에 무거운 납을 눌러 놓았다. 초를 바른 단단한 껍질처럼 아버지를 복된 시간 속에 가둬 두었다. 죽은 딸도 없고, 무릎도 다치지 않은 곳으로. 착한 딸이 노래를 읊조리지도 않는 곳으로.

프래니는 내게 말했다.

"죽은 자가 산 자와 관계를 마치면, 산 자는 다른 것으로 계속 나갈

수 있지."

"죽은 자는 어떻게 되는데요? 우린 어디로 가나요?"

내가 물었다. 그러나 프래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렌 퍼너먼은 연락을 받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왔다. 소식을 전한 사람은 애비게일 새먼이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수술 중이었고, 엄마는 간호사실 부근에서 왔다갔다했다. 엄마는 얇은 여름 잠옷 위에 레인코트만 걸치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발레 슈즈같이 생긴 신발을 신고 있었다. 엄마는 머리를 뒤로 넘기지도 않았고, 주머니나 지갑 속에 머리를 묶을 고무줄도 없었다. 어둡고 안개 낀 병원 주차장에서, 엄마는 멈춰 서서 얼굴을 살피고 숙달된 솜씨로 립스틱을 발랐다.

흰 복도 끝에 렌 퍼너먼이 나타나자, 엄마는 긴장을 풀었다.

"애비게일."

그가 가까이 다가왔다.

"아, 렌."

엄마는 무슨 말을 할까 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엄마에게 필요한 한숨과도 같았다. 다음에는 굳이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렌과 엄마가 손을 잡자, 간호사들은 고개를 돌렸다. 이런 상황에서 아는 사람이 만나면 얼마든지 손을 잡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해도 이 여자에게 이 남자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간호사들은 눈치챘다.

"대기실에서 이야기하시죠."

렌이 엄마를 복도로 이끌었다.

나란히 걸으면서 엄마는 아버지가 수술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렌

형사는 옥수수밭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잭은 그 소녀를 조지 하비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지요."

"그이가 클라리사를 조지 하비로 생각했다고요?"

문병객 대기실 바로 밖에서 엄마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반문했다.

"밖은 어두웠어요, 애비게일. 잭은 소녀의 손전등만 봤을 겁니다. 오늘 제가 찾아간 게 아무 도움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잭은 하비가 관련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클라리사는 괜찮은가요?"

"찰과상을 치료받고 집으로 보내졌어요. 히스테리컬하더군요. 울고불고 야단이었어요. 그 소녀가 수지의 친구였다는 게 기막힌 우연입니다."

할은 대기실 구석에 있었다. 그는 린지에게 씌우려고 가져온 헬멧에 발을 올리고 앉아 있었다. 그는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자 몸을 뒤척였다.

우리 엄마와 형사였다. 그는 등을 더 기대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로 얼굴을 가렸다. 엄마가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엄마는 새무얼이 입고 왔던 재킷을 알아보고 '새무얼이 왔나 보네.' 하고 생각하다가 곧 '그 형이로군.' 이라고 속으로 중얼댔다.

"앉으시죠."

렌이 대기실 한켠에 있는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차라리 계속 걷고 싶어요. 의사 말로는 최소한 한 시간은 걸려야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 거래요."

"어디로 가실까요?"

"담배 있어요?"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렌이 겸연쩍은 듯 웃었다. 그는 엄마의 눈을 쳐다봤다. 하지만 엄마는 그를 응시하지 않았다. 딴 생각을 하는 눈치였다. 렌은 손을 뻗어 눈길을 여기, 이 자리로 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에게로.

"그럼 출구를 찾아보죠."

두 사람은 좁은 콘크리트 발코니로 나가는 문을 찾았다. 아버지 병실 옆에 문이 있었다. 보일러실에 딸린 발코니여서 좁고 썰렁했지만, 소화전 소리와 뜨거운 김 때문에 두 사람이 멀리 와서 캡슐 안에 있는 느낌을 주었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면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문득 아무 준비 없이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기라도 한 것처럼. 다급한 일은 벌써 마무리된 곳으로.

엄마가 물었다.

"부인은 어떻게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엄마의 머리가 얼굴을 거의 가리자, 클라리사가 가장 남을 의식할 때가 떠올랐다. 같이 쇼핑몰에 갔을 때, 주변에 남자 애들이 있으면 클라리사는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 너무 많이 키득대고, 남자들이 어디를 보는지 보려고 흘끔댔다. 하지만 내 눈은 엄마의 붉은 입에 쏠렸다. 엄마는 담배를 쭉 빨고 입에서 빼낸 다음 연기를 뿜었다. 이런 엄마를 꼭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사진 속에서. 엄마의 이런 모습 속에 우리는 없었다.

"왜 목숨을 끊었어요?"

"따님의 살해 사건 같은 일을 생각하지 않을 때면 저도 늘 그 질문을 합니다."

엄마의 얼굴에 이상한 미소가 번졌다.

"다시 말해 봐요."

"뭐를요?"

렌은 엄마의 미소를 보자, 손을 뻗어 입술을 만지고 싶어졌다.

엄마가 말했다.

"내 딸의 살해 사건."

"애비게일, 괜찮아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웃 사람들은 입도 안 떼죠. 사람들은 '무서운 비극'이라는 식으로 표현해요. 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분명히 말해 주면 좋겠어요. 소리내서 말하면 좋겠다고요. 난 준비가 됐어요. 예전에는 들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됐지만."

엄마가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양손으로 렌의 얼굴을 감쌌다.

"말해 봐요."

엄마가 말했다.

"따님의 살해 사건이요."

"고마워요."

나는 붉은 입술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넘는 것을 봤다. 엄마와 다른 세계를 구분하는 선을. 엄마는 렌을 끌어당겨서 입술에 키스했다. 그는 처음에는 머뭇거리는 듯했다. 몸이 긴장하며 '안 돼.'라고 말했지만, '안 돼.'는 희미해지다가 소화전 돌아가는 소리에 빨려 들어갔다. 엄마가 손을 뻗어 레인코트의 단추를 풀었다. 렌이 엄마가 입은 얇은 여름 잠옷에 손을 가져갔다.

엄마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남자들은 거절하지 못했다. 어릴 때 나는 엄마가 남자들의 눈을 끄는 걸 알아차렸다. 우리가 식품점에 가면, 남자 점원들이 물건을 갖다 주고 주차까지 도와 주었다. 루아나 싱처럼 엄마는 인근에서 미인으로 꼽혔다. 엄마를 만나면 남자들은 자기

도 모르게 웃었다. 엄마가 질문을 하면, 남자들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하지만 엄마를 웃게 하는 사람은 오직 아버지뿐이었다. 아버지는 엄마가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게 했다.

우리가 어릴 때, 아버지는 자투리 시간에 일하고 점심도 거르고 해서, 목요일마다 일찍 퇴근했다. 하지만 다른 집은 주말이 가족의 날인데 반해, 우리 집은 '엄마와 아빠의 날'이었다. 우리는 주말을 착한 딸이 되는 날로 여겼다.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놀아야 했다. 당시에는 그 방이 썰렁했다.

엄마는 오후 두 시쯤 우리를 준비시켰다.

마치 '나가서 놀아라.' 라고 말할 때처럼 '목욕 시간!' 이라고 노래하듯 외쳤다. 처음에는 노는 분위기였다. 엄마, 린지, 나는 목욕 가운을 걸치고 자기 방에서 나왔다. 우린, 집안의 세 여자는 복도에서 만났고, 엄마는 우리 손을 잡고 분홍색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그 무렵 엄마는 우리에게 신화를 들려 주었다. 엄마는 학교에서 신화를 공부했다. 특히 페르세포네(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옥의 여왕 : 역주)와 제우스 신을 좋아했다. 엄마는 북구의 신들에 대한 그림책을 사주었는데, 우리는 그 책을 보고 악몽을 꿨다. 엄마는 영문학으로 석사 학위를 땄고—거기까지 공부하려고 외할머니와 투쟁을 했다.—우리가 둘이만 있어도 될 만큼 자라자 학교에 취직할지 고민했다.

그런 목욕 시간은 기억이 희미하다. 신들의 이야기가 그렇듯이. 하지만 엄마가 생각에 빠져 있던 것만은 또렷이 기억난다. 나는 엄마를 보며, 엄마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다. 맏딸인 나는, 내가 엄마가 꿈을 이루지 못하고 포기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린지부터 욕조에서 나오게 해서 물기를 닦아 주었다. 그럴 때면 린지가 늘어놓는 오리 이야기며, 다쳐서 상처가 난 이야기를 잘

들어 주었다. 그런 다음 나를 욕조 밖으로 불렀다. 나는 조용히 하려고 했지만, 따뜻한 물에 취해서 우리는 중요한 일을 몽땅 엄마에게 털어놓았다. 우리를 놀리는 남자 애들 이야기며 같은 동네에 사는 다른 집에 강아지가 생겼는데 왜 우리는 키우면 안 되느냐는 이야기며. 엄마는 우리 이야기를 적어 두기라도 하려는 듯이 진지하게 들었다.

엄마가 말했다.

"자, 먼저 할 일부터 해야지. 그러니 둘이 낮잠을 자야 되겠지."

엄마는 나와 린지를 침대에 눕혔다. 나는 침대 옆에 서 있고, 엄마는 동생의 이마에 뽀뽀하고 머리를 뒤로 넘겨 주었다. 거기서 경쟁이 시작된 것 같다. 누가 더 뽀뽀를 많이 받는지. 목욕이 끝난 후 엄마랑 더 오래 있는지.

다행히 승리는 언제나 내 차지였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엄마가 외로워졌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아버지랑 그 집으로 이사한 후부터. 나는 맏딸이었으므로, 엄마의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난 너무 어려서 엄마가 진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다. 하지만 엄마 말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에 떨어지는 것이 좋았다. 내 천국의 좋은 점은, 그런 순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순간을 되살려서, 엄마랑 같이 있을 수 있었다. 내가 살아 있다면 절대로 못했을 일이다. 지상과 천국의 경계에 손을 뻗어, 외로운 새댁인 엄마의 손을 잡아 본다.

네 살 난 딸에게 엄마는 트로이의 헬렌 왕비를 가리켜 모든 걸 망친 건방진 여자라고 말했다. 마거릿 생거(미국에서 피임의 권리를 주장한 여성 해방 운동가 : 역주)를 보고는 "외모를 비판받았지. 꼭 생쥐처럼 생겨서 그 여자가 오래 버틸 거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단다, 수지."라고 말했다. 또 글리아 스타이넘(미국의 유명한 여성 운동가 : 역주)에

대해서는 "끔찍해. 손톱이나 손질하지."라고 비평했다.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는 "달라붙는 바지나 입는 멍청이들. 융통성 없는 남편한테 짓눌리고, 촌스럽고, 다른 사람을 헐뜯기나 하지."라고 말했다.

어느 목요일, 엄마가 내게 물었다.

"페르세포네가 누군지 아니?"

난 몰랐다. 난 엄마가 나를 내 방에 데려갈 즈음에는 조용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목욕탕에서 수건으로 몸을 닦을 때가 린지와 나의 시간이었다. 그때는 무슨 말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 방에 들어오면, 그때는 엄마의 시간이었다.

엄마는 수건을 빼서 침대에 걸쳤다.

"우리 이웃인 타킹 부인을 페르세포네라고 상상해 봐."

엄마가 말했다. 엄마는 서랍을 열어 내 팬티를 꺼냈다. 날 너무 밀어붙이지 않으려고 늘 옷을 하나씩 건네 주었다. 엄마는 내 욕구를 일찌감치 파악했다. 만일 끈을 묶어야 된다는 걸 알면, 양말부터 신지 못할 아이가 바로 나였으니까.

"타킹 부인은 길고 흰 가운을 입었어. 어깨에 이불보를 두른 것처럼 말이지. 비단같이 반들거리거나 가벼운 천으로 만든 가운이야. 그리고 금으로 만든 샌들을 신고, 불꽃이 타오르는 횃불들이 그 여자의 주변을 밝히고 있어……."

엄마는 서랍을 열고 내 런닝셔츠를 꺼내서, 직접 입혀 주었다. 엄마가 나서서 옷을 입히면, 난 그 기회를 이용해서 다시 아기 노릇을 했다. 나는 다 컸다고 주장한 적이 없었다.

엄마가 뻣뻣한 이불을 들추면, 나는 벽에 달라붙어 누웠다. 그러면 엄마는 늘 손목시계를 보면서 "잠깐만이야."라면서 구두를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오곤 했다.

우린 둘 다 무엇에 빠져들었다. 엄마는 자기 이야기에, 나는 엄마의 이야기에.

엄마는 페르세포네의 어머니 데메테르(농업, 결혼, 사회 질서의 여신 : 역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아니면 큐피드(사랑의 신 : 역주)와 프시케(큐피드가 사랑한 아름다운 소녀 : 역주)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잠들 때까지 엄마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가끔 나는 옆방에서 들리는 부모님의 웃음소리나 사랑을 나누는 소리에 설핏 깨어 누워서 귀담아 들었다. 나는 아버지가 읽어 준 이야기를 상상했다. 배에 탄 체하는 게 좋았다. 모두 바다에 있고, 뱃전에 파도가 밀려와 부서지고…… 웃음소리, 신음 소리는 나를 다시 잠 속으로 빠져들게 했다.

그러다가 내가 열 살, 린지가 아홉 살 때 엄마의 탈출은 끝났다. 잠깐 바깥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끝나 버렸다. 엄마는 생리를 거르자, 차를 몰고 병원에 갔다. 엄마가 미소지으며 우리에게 감탄하는 밑에 균열이 있었다. 엄마의 내면 깊숙이 균열이 생겼다. 하지만 나는 원치 않았고 또 어렸으므로, 거기까지 따라가지 않기로 했다. 엄마의 미소를 상장처럼 붙잡고, 경이로운 곳으로 들어갔다. 아기 남동생이나 여동생의 누나와 언니인 그곳으로.

주의했다면 진작 알아차렸을 것을. 부모님 방의 침대 옆 탁자에 쌓인 책의 종류가 바뀌었음을 지금에야 알겠다. 인근 대학 안내 책자나 신화 백과사전, 제임스나 엘리엇, 디킨슨 같은 작가의 소설이 닥터 스폭의 책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는 정원 가꾸기 책과 요리책이 나타나더니, 급기야 나는 죽기 두 달 전 엄마의 생일에 '베터 홈 & 가든'에서 나온 책을 딱 맞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엄마는 세 번째 임신했음을 알자, 엄마의 더 신비로운 부분은 봉인해 버렸다. 오랫동

안 벽 속에 갇혀 있던 그 부분, 엄마의 욕구는 줄지 않고 점점 자라서 렌을 만났을 때 터지고 말았다. 탐욕은 엄마에게 부딪치고, 엄마를 파멸시키고, 엄마를 차지했다. 엄마의 몸은 조각 날 터였다.

나로서는 목격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지켜봤다.

그들의 첫 포옹은 다급하고, 더듬거렸고, 열정적이었다.

"애비게일,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요."

렌은 두 손으로 엄마의 허리를 잡았다. 둘 사이에는 얇은 잠옷 자락만 있었다.

"생각하는 건 지겨워요."

엄마가 말했다. 옆에 환풍기가 있어서, 엄마의 머리칼이 머리 위로 솟았다. 렌은 눈을 깜빡이며 엄마를 쳐다봤다. 굉장하고, 위험하고, 격렬했다.

"당신 남편이……."

그가 말했다.

"키스해 줘요, 제발."

나는 엄마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다. 우리 엄마는 시간을 넘어 나에게서 달아나고 있었다. 난 엄마를 붙들지 못했다.

렌은 엄마의 이마에 힘껏 입맞추며 눈을 감았다. 엄마는 그의 손을 잡아 자기 가슴에 댔다. 엄마가 그의 귀에 대고 소곤거렸다. 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다. 엄마의 분노, 엄마의 상실감, 엄마의 절망감. 그 지붕 밑에서 인생 전체가 무너져, 엄마의 존재를 꽉 막아버렸다. 엄마는 죽은 딸을 떨치기 위해 렌이 필요했다.

그는 엄마를 벽에 밀어붙였고, 둘은 키스했다. 엄마는 그의 키스가 새 삶이 될 수 있다는 듯이 그에게 매달렸다.

학교에서 집에 갈 때, 나는 가끔 우리 집 끝에 서서 엄마가 잔디 깎는 기계에 올라타고, 소나무 사이를 누비는 광경을 봤다. 그때마다 엄마가 아침에 차를 준비하면서 휘파람을 불었던 일이며, 아버지가 목요일이면 집에 달려왔던 일이 기억났다. 아버지는 엄마에게 금잔화를 주었고, 엄마는 기쁨에 얼굴이 환해졌는데……. 그들은 깊이 사랑했다. 둘만 충만한 사랑을 나눴다. 엄마는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자식들과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와 가까워진 사람은 아버지였고, 멀어진 사람은 엄마였다.

린지는 침상 옆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잠들었다. 옷이 수세미가 된 엄마는 대기실의 할 헤클러 옆을 지나갔고, 잠시 후 렌 형사가 지나갔다. 할은 사정을 훤히 알았다. 그는 헬멧을 들고 복도로 나갔다.

엄마가 잠시 화장실에 들렀다가 아버지 병실로 향할 때, 할이 말했다.

"따님이 안에 있는데요."

할이 소리치자, 엄마가 몸을 돌렸다.

"할 헤클러입니다. 새무얼의 형이지요. 추도식에 갔었습니다."

"아, 그래요. 미안해요. 알아보지 못했군요."

"그럴 만도 하죠."

할이 말했다. 그리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린지가 전화해서 한 시간 전에 제가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아."

"버클리는 이웃집에 있고요."

할이 말했다.

"아."

엄마가 그를 빤히 쳐다봤다. 눈빛으로 볼 때 엄마는 현실의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할의 얼굴을 보자 곧 현실로 돌아왔다.

"괜찮으십니까?"

"좀 당황해서요. ……이해가 되죠?"

"물론입니다. 따님이 남편분과 같이 병실에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저는 대기실에 있지요."

"고마워요."

엄마는 할이 몸을 돌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엄마는 가만히 서서, 그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부츠 뒷굽이 비닐 바닥에 닿아 소리가 울렸다.

엄마는 몸을 흔들며 정신을 차렸다. 잠시 후에야 할이 인사를 한 목적이 그 때문이었음을 깨달았다.

방 안은 어두웠다. 병상 뒤에 있는 형광등 불빛이 너무 흐려서, 방 안에 있는 것이 덩어리로만 보였다. 린지는 침대 옆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아 있었다. 한 손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 머리를 베고 있었다. 아버지는 똑바로 누워 있었다. 그 병실에는 우리 넷이 있었다.

엄마가 린지와 나를 침대에 눕히고, 우리 아버지이자 남편과 사랑을 나누러 가던 날과는 너무나 달라진 모습으로 거기 그렇게 있었다. 이제 어머니는 그 편린을 보았다. 내 동생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어 한 조각이 되었다. 엄마는 그게 반가웠다.

나는 자라면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감정과 숨바꼭질했다. 엄마의 관심과 인정을 받으려 노력했다. 아버지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제는 숨바꼭질을 할 필요가 없었다. 엄마가 어두운 방에 서서 린지와 아버지를 지켜볼 때, 나는 천국이 의미하는 것 중 하나를 알았

다. 내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 내 마음속에서는 내 가족이 갈라지지 않을 터였다.

밤늦게 병원과 양로원 위에서 영혼들이 빨리 날아갔다. 할리와 나는 잠이 안 오는 밤에는 그 광경을 지켜봤다. 이런 죽음들을 멀리 어딘가에서 안무를 하는 것 같았다. 우리 천국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과는 다른 곳이 있다는 의혹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프래니가 우리랑 같이 보려고 왔다.

"이건 내 은밀한 즐거움이야. 세월이 흘렀는데도, 무리지어 떠돌고 빙빙 도는 영혼들을 보는 게 좋단 말이야. 모두 공기 안에서 한꺼번에 아우성을 치거든."

프래니가 털어놓았다.

"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난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다.

"자세히 보라고. 입 다물고."

프래니가 말했다.

하지만 보기 전에 느낌이 먼저 왔다. 내 팔을 따라서 작고 따뜻한 불꽃이 보였다. 거기서 죽은 영혼들이 육신을 벗어 던지면서 비명을 지르며 빙빙 돌았다.

프래니가 말했다.

"눈송이 같아. 다들 다르지만, 우리가 선 곳에서 보면 다 똑같아 보이거든."

13

1974년 가을, 다시 중학교로 돌아간 린지는 살해된 아이의 동생일뿐 아니라, '정신병자', '맛간 사람', '도라이'의 딸이었다. 아버지가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이 더 속상했다. 사실이 아니니까.

새 학년이 시작된 첫주에 전교생의 사물함 부근에서 소문이 시작되어 꼬리를 물고 퍼져 나갔다. 이제 소문에는 브라이언 넬슨과 클라리사 얘기까지 끼어들었지만, 다행히 그들은 그해에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페어팩스 고등학교에서도 둘은 붙어 다니면서, 그때 겪은 사건과 우리 아버지의 상태를 이용해서 자신들을 멋지게 꾸몄다. 그날 밤 옥수수밭에서 일어난 일을 학교 전체에 떠들고 다녔다.

레이와 루스는 바깥이 내다보이는 유리벽 안쪽을 걸었다. 불량 학생들이 모이기 마련인 후미진 곳에서 브라이언이 떠들어 대고 있었다. 초조한 허수아비같이 걷던 그는 그해에 남자답게 걷게 되었다. 클

라리사는 두려움과 욕정을 동시에 느끼며, 빗장을 풀었고 브라이언과 잠자리를 함께했다. 아슬아슬하긴 해도 내가 아는 사람들은 모두 자라고 있었다.

그해에 버클리는 유치원에 들어갔고, 곧 담임인 코클 선생님에게 빠져 버렸다. 그녀가 화장실에 데려가거나 과제를 설명할 때마다 손을 다정하게 잡아 주자, 버클리는 홀딱 반하고 말았다. 코클 선생이 과자를 하나 더 주거나 푹신한 방석에 앉게 해 주었으므로 한편으로는 좋았지만 친구들이랑 떨어져서 외톨이가 되기도 했다. 내가 죽은 것 때문에 동생은 또래 사이에서 남다른 사람이 되었다. 눈에 띄지 않게 지냈을 아이인데.

새무얼은 린지와 나란히 걸어 집에 바래다 준 다음, 도로로 나가서 형의 오토바이 가게까지 히치하이킹을 했다. 그를 알아보는 형 친구가 많아서, 다양한 오토바이와 트럭을 얻어 탈 수 있었다. 그들이 가게로 가면, 할은 오토바이나 트럭을 손봐 주곤 했다.

그는 한동안 우리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가족 외에는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다. 10월, 아버지는 일어나서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병원에서는 오른쪽 다리는 항상 뻣뻣하겠지만, 다리를 폈다 굽혔다 하면 그다지 불편하지는 않을 거라고 했다. 수술한 다음 날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는 "달리기는 못하지만 다른 건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아버지가 깨어나던 그날 아침, 린지가 곁에 있고, 엄마는 창에 서서 주차장을 내다보고 있었다.

담임 선생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다가 집에 돌아온 버클리는 아버지의 빈 가슴을 파고들었다. '가짜 무릎'에 대해 끝없이 물어도 아버지

는 따뜻하게 대했다.

"무릎은 외계에서 왔단다. 달 조각을 가져와 조각해서 이런 데 쓰는 거야."

아버지가 말했다.

"와, 네이트는 언제 볼 수 있어요?"

"곧, 이제 곧 볼 수 있지."

아버지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힘없는 미소를 지었다.

버클리는 이런 대화에 감동받아서, 쪼르르 엄마에게 달려가서 말하곤 했다.

"아빠의 무릎이 달 조각으로 만들어졌대요. 선생님이 내가 색칠을 잘 한댔어요."

그러면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할 일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당근과 샐러리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랐다. 보온병과 점심 주머니를 씻었다. 린지가 다 커서 그런 주머니는 못 들고 다니겠다고 말하자, 엄마는 안에 왁스를 먹인 주머니를 찾아 내고 내심 반가워했다. 국물이 흘러서 딸의 옷에 얼룩이 생기는 일은 없을 터였다. 엄마는 세탁했다. 잘 접고, 필요하면 다림질을 해서 옷걸이에 반듯이 걸어 두었다. 집 안 바닥이나 차에 팽개쳐진 것이나, 젖은 수건과 뒤엉켜서 침대에서 뒹구는 것도 집어서 처리했다. 매일 아침 침대를 정리하고 베개를 털고, 인형을 똑바로 세웠다. 블라인드를 올려서 햇빛이 들어오게 했다.

버클리가 놀아 달라고 하면 정돈하는 대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몇 분간 버클리에게 집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생각은 집과 가정에서 벗어나 렌에게로 달려갔다.

11월, 아버지는 '짝다리'라고 부르던 걸음걸이에 완전히 익숙해졌다. 버클리가 조르면, 한 발로 콩콩 뛰어 아들을 웃게 만들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나 아내에게 얼마나 이상하게 보일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버클리를 빼고 모두들 어떤 때인지 알고 있었다. 내가 죽은 지 1주기가 되었다.

버클리와 아버지는 화창한 가을 오후 내내 뒷마당에서 지냈다. 철망으로 담장을 두른 그곳에서 할리데이도 같이 뛰어놀았다. 아버지는 낡은 철제 의자에 앉아,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곤 했다. 린 할머니가 메릴랜드에 있는 골동품점에서 찾아 낸 화려한 신발 매트에 다리를 올리고 있었다.

버클리가 소 모양의 장난감을 던지면 할리데이가 뛰어가서 물어 왔다. 아버지는 다섯 살 된 아들의 유연한 몸을 보며 즐거워했다. 할리데이가 달려들어서 긴 혀로 얼굴을 핥으면, 버클리가 즐거워서 소리를 질러 대는 것도 보기 좋았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은 지울 수가 없었다. 이 아이, 이 나무랄 데 없는 아이도 빼앗길지 모른다는 생각.

아버지가 회사에서 병가를 연장받아 집에서 지내게 된 것은, 아파서 뿐만 아니라 여러 이유가 있었다. 상관은 아버지와 있을 때는 다르게 행동했다. 동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아버지 책상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말했다. 아버지와 있을 때 긴장을 풀면, 아버지가 당한 일을 똑같이 당하기라도 할 것처럼. 자식이 죽는 게 전염병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버지가 어떻게 맡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무도 이해 못했다. 동시에 그들은 아버지가 슬픔을 털어내서, 어딘가에 꼭꼭 싸매 두기를 바랐다. 다시는 열지 않을 서랍에 차곡차곡 넣어 두기를 바랐다. 아버지는 회사에 정기적으로 전화를 했고, 상관은 한 주일 더 쉬라고 쉽게 허락했다. 필요하면 한 달이라도 쉬라고. 아버지는 평

소 시간을 잘 지켜 일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은 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비 씨와는 거리를 두고, 생각하는 것조차 억제했다. 메모장에 글을 쓸 때만 그 이름을 꺼낼 뿐이었다. 아버지는 메모장을 서재에 잘 숨겨 두었고, 엄마는 놀랍게도 서재 청소를 안 하겠다고 순순히 동의했다. 아버지는 메모장에서 내게 사과했다.

'나도 휴식이 필요하구나, 얘야. 이자를 어떻게 추적할지 방법을 알아 내야 해. 네가 이해해 주기 바란다.'

하지만 아버지는 추수 감사절 직후인 12월 2일에 출근했다. 내가 실종된 지 1년이 될 즈음에는 직장에 다니고 싶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생각을 여러 군데로 분산할 수 있는 곳에서 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했다. 또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엄마랑 떨어져 지내야 했고.

아내에게 어떻게 돌아갈까. 어떻게 다시 그녀에게 닿을까. 엄마는 점점 몸을 빼고 있었다. 엄마는 온 힘을 다해 집에서 멀어지려 했고, 아버지는 온 힘을 집안에 쏟으려 했다. 아버지는 힘을 모아서, 하비 씨를 추적할 전략을 세웠다. 비난을 하기는 쉽지만, 입증하기는 어려웠다.

린 할머니가 추수 감사절에 온다고 하자, 린지는 할머니가 편지로 알려 준 미용술에 매달렸다. 처음에 눈에 오이를 올려놓을 때(부기를 빼려고)나 얼굴에 오트밀을 바를 때(모공을 청소하고 과도한 지방을 흡수하려고), 계란 노른자를 머리에 바를 때(윤기를 내려고)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식품을 이용해서 미모를 가꾸는 것을 보자 엄마도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다가 엄마도 미모를 가꾸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잠깐뿐이었다. 곧 렌에게로 생각이 옮겨 갔으니까.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와 같이 있는 것이 가장 빨리 잊을 수 있는 길이었다.

할머니가 오기 2주일 전, 버클리와 아버지는 할리데이를 데리고 마당에서 놀았다. 버클리와 할리데이는 여기저기 있는 낙엽 태운 잿더미 사이를 뛰어다녔고, 점점 흥분했다.

아버지가 타일렀다.

"조심해라, 버클리. 그러다 할리데이에게 물리겠다."

그럴 만도 했다.

아버지는 다른 놀이를 해 보자고 말했다.

"아빠가 널 업을 수 있는지 알아 볼까? 곧 너무 커서 업어 주지 못할 텐데."

조용한 마당에서 아버지가 넘어져도, 그를 사랑하는 버클리와 개만 볼 터였다. 그들은 둘 다 원하는 바를—정상적인 아버지와 아들로 돌아가는 것—시험해 보기로 했다. 버클리가 의자 위로 올라갔다.

아버지가 몸을 숙이며 말했다.

"이제 내 등에 올라타서, 어깨를 꽉 잡아."

아버지는 버클리를 업고 일어설 힘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나는 천국에서 행운을 빌며 숨을 멈추고 지켜봤다. 옥수수밭에서도 그랬지만, 예전의 일상 생활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순간 아버지는 내게 영웅이었다.

"이제 머리를 숙여."

아버지가 말했다. 둘은 아래층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올라갔다. 아버지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얼굴을 찌푸리며 중심을 잡느라 애썼다. 할리데이가 앞서서 계단을 올랐고, 버클리는 등에 업혀서 즐거워했다. 아버지가 힘을 시험하는 데 자기가 한 몫 해서 기분이 좋았다.

두 사람과 할리데이가 위층 욕실 문을 확 열자, 안에 린지가 있었다. 린지는 불평을 터뜨렸다.

"아-빠!"

아버지가 허리를 똑바로 폈다. 버클리는 손을 뻗어 전구를 만졌다.

"뭐 하는 거냐?"

아버지가 물었다.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린지는 흰 수건(엄마가 세탁해서, 빨랫줄에 걸어 말린 다음, 개켜서 바구니에 담아 장에 갖다 둔 수건……)으로 머리를 감싼 채 변기 뚜껑에 앉아 있었다. 면도 크림을 잔뜩 바른 왼쪽 다리를 욕조 끝에 걸치고. 손에는 아버지의 면도기를 들고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신경질 내지 마라."

"죄송해요. 사생활을 보장받고 싶은 것뿐이에요."

린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버지는 버클리를 머리 위로 올리며 말했다.

"세면대에 앉거라."

평소에는 금지된 일이어서 버클리는 신이 났다. 그애는 흙투성이 발로 타일을 더럽혔다.

"이제 내려와."

버클리가 바닥에 내려오자, 할리데이가 달려들었다.

아버지가 린지에게 말했다.

"아직 어린 나이인데 다리 면도를 하는구나."

"외할머니는 열한 살에 면도하기 시작하셨대요."

"버클리, 개를 데리고 네 방에 가 있을래? 내가 곧 따라갈게."

"네, 아빠."

버클리는 아직 어려서, 아버지가 힘들어도 조금만 요령을 부리면

어깨에 태울 수 있었다. 그렇게 정상적인 부자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린지에게는 두 배의 아픔이 느껴졌다. 나는 욕조에서 놀던 꼬마였고, 지금 내 동생처럼 해 보지 못하고 영원히 거기서 멈춰 버린 딸이었다.

버클리가 나가자 아버지는 린지에게 관심을 돌렸다. 두 딸에 대한 사랑을 딸 하나에게 모두 쏟고 싶었다.

"조심해서 면도기를 쓰고 있니?"

"방금 시작했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아빠."

"내가 쓰던 면도날을 그대로 쓰는 거냐?"

"네."

"내 수염 때문에 면도날이 무딜 텐데. 내가 가서 새 걸 가져오마."

"고마워요."

린지가 아버지의 상냥한 딸로 되돌아와서 말했다.

아버지는 욕실에서 나가 복도를 걸었다. 아직 엄마랑 같이 쓰는 침실로 들어갔다. 둘이 같은 방에서 자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는 장을 열고 새 면도날을 꺼내려는데, 가슴에 눈물이 맺히는 걸 느꼈다. 무시하고 하던 일에만 신경을 쏟았다. 그때 한 가지 퍼뜩 떠오른 생각. '애비게일도 면도를 할 거야.'

아버지는 면도날을 가져와서, 린지에게 면도날을 바꾸는 방법과 면도를 잘 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발목이랑 무릎 부분은 조심하렴. 네 엄마 말로는 거기가 가장 베이기 쉽다더구나."

"같이 계시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제 꼴이 엉망이 될걸요."

린지는 아버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싶었다. 린지가 말했다.

"죄송해요. 이리 오세요. 제가 저기 앉을게요. 아빠가 여기 앉으세요."

린지가 일어나서 욕조에 걸터앉았다. 그애는 수돗물을 틀었고, 아버지가 변기 뚜껑에 앉았다.

아버지가 말했다.

"괜찮아. 우리가 네 언니 이야기를 안 한 지 한참 됐구나."

"얘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어디나 언니가 있는데요."

"네 동생은 괜찮아 보인다만."

"아빠한테 착 달라붙었죠."

"그래."

아버지는 그게 좋았다. 아들과 잘 어울리는 게.

"아야!"

린지의 다리에 흰 면도 크림 위로 핏방울이 맺혔다. 그애가 중얼거렸다.

"완전히 엉망이네."

"엄지손가락으로 벤 자국을 꼭 눌러라. 그래야 피가 멎지. 무릎 위까지만 면도하면 될 거야. 바닷가에 가지 않으면 엄마는 거기까지만 하거든."

아버지가 말했다.

린지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말했다.

"두 분은 바닷가에 안 가시잖아요."

"예전에는 갔었지."

부모님은 대학생일 때 여름 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났다. 아버지가 담배 냄새 때문에 직원 휴게실에 악취가 진동한다고 쏘아붙

이자, 엄마는 싱긋 웃으면서 담배를 꺼냈다고 했다. 당시 엄마는 팔 말 담배를 피웠다. 아버지는 두 손 들었다고 말하고 담배 냄새가 온몸에서 진동할 때까지 엄마 곁에 앉아 있었다.

린지가 말했다.

"누구를 닮을까 정하려는 중이에요. 외할머니를 닮을까, 엄마를 닮을까."

"난 항상 너와 언니가 엄마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말했다.

"아빠?"

"응."

"아직도 하비 씨가 그 사건이랑 관계가 있다고 믿으세요?"

막대기와 막대기가 부딪쳐 불꽃이 튀는 것 같았다. 마찰이 일어났다.

"내 마음에는 의심이 없단다, 린지. 전혀 없어."

"한데 왜 렌 형사는 하비 씨를 체포하지 않죠?"

린지는 면도기를 천천히 밀어올려 한쪽 다리를 마쳤다. 그 아이는 머뭇거리며 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렸다.

"설명하기 쉬우면 좋을 텐데."

아버지의 입에서 말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요즘은 누구에게도 의심되는 바를 말한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설명했다.

"그날 그 집 뒷마당에서 하비 씨를 만난 날, 함께 천막을 세웠지……. 하비 씨는 부인을 위해 짓는 거라고 했어. 난 그의 부인 이름을 '소피'로 알고 있는데, 렌 형사는 '레아'라고 들었다더구나. 그가 하는 짓들을 보면서 확신이 생기더구나."

"다들 하비 씨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맞아. 나도 알아. 하지만 다들 그자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 그가 이상한 게 양성 질환 때문인지 아닌지 다들 몰라."

"양성이라니요?"

"해가 없다는 뜻이야."

"할리데이가 하비 씨를 싫어해요."

린지가 생각을 말했다.

"맞아. 할리데이가 그렇게 심하게 짖는 건 처음 봤어. 그날 아침에 등의 털이 솟더구나."

"하지만 경찰은 아빠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찰은 증거가 없다는 말만 하지. 증거가 없고……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다만…… 시체도 없으니, 더 수사할 내용이 없다고 하지. 체포할 근거가 없다고."

"뭐가 근거가 되는데요?"

"그자와 수지를 연결지을 만한 거겠지. 누군가 그자가 옥수수밭이나 학교 부근에서 어슬렁대는 걸 봤다든가. 그런 걸 게다."

"아니면 그가 언니의 물건을 갖고 있다든가요?"

아버지와 린지는 대화에 열중했다. 린지는 다리에 크림만 발라 놓고 면도는 하지 못하고 있었다. 두 개의 막대기가 불꽃을 일으킬 때, 하비 씨의 집 어딘가에 내 시체가 있다는 느낌이 전해졌으니까. 지하실이나 1층, 2층, 다락에 있을 내 시체……. 무시무시한 생각을 피하려고—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처럼 확실한 증거는 없겠지만—그들은 그날 내 옷차림과 소지품을 떠올렸다. 캐릭터 지우개, 가방 안에 달아 놓은 데이빗 캐시디 배지, 가방 바깥에 매단 데이빗 보위 배지. 가장 적당하고, 가장 오싹한 증거는 토막 난 시체며, 썩어가는 내 눈 같은 것일 텐데도, 아버지와 동생은 소지품과 장신구 같은 부차적인 것만

이야기했다.

내 눈…… 린 할머니가 준 화장품이 도움이 되긴 했지만, 다들 린지의 눈을 보면 날 떠올리는 고민은 해결되지 않았다. 옆에 앉은 아이가 보는 거울을 힐끗 쳐다볼 때나, 무심코 상점 진열장을 쳐다볼 때 자기 눈을 보면 린지는 얼른 시선을 돌렸다. 아버지랑 같이 있을 때면 유독 마음이 아팠다. 조지 하비, 내가 입은 옷, 내 책가방, 내 시신, 나와 같은 화제로 대화할 때는 아버지는 린지를 린지로 봤다. 그럴 때의 아버지는 두 딸을 비극적으로 뒤섞어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린지도 알았다.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린지가 물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위험한 발상임을 인식했다. 아버지가 머뭇거리며, 그건 불법 행위라고, 아니 그럴 생각은 없다고 했지만 린지는 거짓말임을 알았다.

"면도나 마치렴."

아버지가 말했다.

린지도 그러겠다며 몸을 돌렸다. 아버지에게 들은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다.

추수 감사절 전 월요일에 외할머니가 도착했다. 할머니는 레이저 광선 같은 눈썰미로 린지의 흠을 잡아냈고, 딸의 미소와 차분한 몸가짐 뒤에 뭔가 있다는 것도 파악했다. 렌 퍼너먼 형사나 수사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엄마가 묘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할머니는 알아차렸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엄마는 설거지를 돕겠다는 아버지의 제의를 거절했다. 그때 할머니의 레이저 광선 같은 눈썰미는 확신했다.

"애비게일, 내가 설거지를 돕겠다. 모녀가 하자꾸나."

할머니의 선언에 가족 모두 놀랐다. 린지는 안도했지만.

"네?"

엄마는 린지를 일찌감치 올려보내고 나머지 저녁 시간을 혼자 부엌에서 보내야겠다는 계산을 하던 참이었다. TV 소리가 줄어들면, 엄마는 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창 밖을 내다보며 천천히 그릇을 씻으면, 어둠이 내려 유리창에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며.

할머니는 낙타색 A라인 원피스 위에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다.

"바로 어제 손톱 손질을 했으니까, 내가 마른 행주질을 하마."

"어머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있어서 그런다. 내 말대로 하자꾸나, 얘야."

'얘야'란 억양이 사뭇 엄격하고 퉁명스러웠다.

버클리는 아버지 손을 잡고, TV가 있는 옆방으로 갔다. 그들은 자리를 잡고 앉았고, 잠시 쉴 틈이 생긴 린지는 새무얼이랑 통화하러 위층으로 올라갔다.

보기엔 이상한 광경이었다. 평범하지 않았다. 앞치마를 두르고, 투우사처럼 행주를 들어올리고 닦을 그릇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할머니.

그들은 말없이 설거지를 했다. 그 침묵 속에서 엄마의 손에 수돗물이 닿아 물 튀는 소리와 그릇 부딪치는 소리, 나이프와 포크 부딪치는 소리만 들렸다. 그렇기 때문에 부엌에 참기 힘든 긴장감이 흘렀다. 내게는 옆방에서 나는 운동 경기 소리가 낯설었다. 아버지는 풋볼을 보지 않았다. 유일하게 야구 경기만 시청했다. 외할머니는 설거지를 하는 법이 없었다. 냉동 음식과 배달 음식만 먹는 사람이었다.

마침내 할머니가 말문을 열었다.

"이런, 세상에. 이것 좀 받아라. 진정한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릇을 떨어뜨릴 것 같구나. 산책이나 하자."

"어머니, 지금은……."

"지금은 산책을 할 때야."

"설거지를 마치고요."

할머니가 말했다.

"잘 들으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 아닌지, 뭐가 널 행복하게 하는지 난 알아. 온당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척 보면 안단 뜻이다."

엄마의 얼굴이 부드럽고 유순해졌다. 개수통의 물에 떠 있는 엄마의 상(像) 만큼이나 부드럽고 유순했다.

"뭐라고요?"

"의심스러운 일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 않구나."

나는 '외할머니, 짱!'이라고 생각했다. 할머니가 그렇게 초조해하는 것은 처음 보았다.

두 사람만 집을 벗어나는 것은 어렵지 않을 터였다. 아버지는 무릎을 다친 후로 산책에 끼지 못한데다가, 요즘은 어딜 가든 버클리가 따라다녔다.

엄마는 말이 없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았으므로. 잠시 후, 두 사람은 차고에 가서 앞치마를 벗어 머스탱 승용차 지붕에 두었다. 엄마가 허리를 굽혀서 차고 문을 들어올렸다.

아직 초저녁이라서, 산책을 시작할 때는 환한 기운이 있었다. 엄마가 말했다.

"할리데이를 데려가도 좋은데요."

"둘이서만 가도록 하자. 가장 무시무시한 한 쌍이 우리잖니."

외할머니와 엄마는 가까웠던 적이 없었다. 두 사람 모두 이 사실을 알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별로 안 좋아하면서도 동네에 애가 둘뿐이어서 그럭저럭 지내는 아이들처럼 지냈다. 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있는 힘껏 달리도록 내버려 두던 할머니가 갑자기 딸을 붙든 셈이었다.

오드와이어네 집을 지나 타킹네 집으로 다가갈 때, 할머니가 용건을 말했다.

"내 기질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살았지. 네 아버지는 뉴햄프셔에서 오랫동안 바람을 피웠단다. 그 여자의 머리글자가 F였는데, 어떤 이름인지는 몰라. 오랜 세월 동안 F로 시작되는 이름을 수없이 떠올려 봤지."

"어머니?"

할머니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계속 걸었다. 서늘한 가을 공기가 도움이 됐다. 할머니는 맑은 공기를 쭉 들이마셨다.

"너도 그런 사실을 알았니?"

"아뇨."

"네게 말한 적이 없을 거야. 네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 이제는 알 필요가 있지. 안 그래?"

"이 얘기를 제게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들은 커브길에 이르렀다. 그 길로 계속 가면 단지를 빙 돌아 하비 씨의 집을 지나게 됐다. 엄마가 굳어졌다.

"불쌍하고 가여운 것. 손을 주렴."

할머니가 말했다.

어색했다. 엄마가 어릴 때 키가 큰 아버지에게 뽀뽀를 받은 것은 손으로 헤아릴 수 있을 정도였다. 까칠한 수염에서는 향수 냄새가 풍겼다. 엄마는 오랜 세월 그 향이 어떤 향인지 찾아봤지만 결국 알아 내

지 못했다. 할머니가 엄마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다른 쪽 길로 걸음을 옮겼다.

점점 이사 들어오는 집이 많아지는 구역이었다. 엄마는 그런 집들을 '연결고리 집'이라고 불렀던 기억이 났다. 그 집들이 줄지어 있는 길이 우리 주택 단지로 이어졌다. 단지를 아주 오래 전부터 있던 도로와 연결시켜 준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었다. '밸리 포지', '조지 워싱턴', '남북 전쟁'과 관련이 있을 정도로 오래된 도로였다.

"수지의 죽음으로 네 아버지를 마주 보게 됐다. 그의 죽음을 애도해 본 적이 없었는데."

할머니가 말했다.

"알아요."

"그래서 날 미워했니?"

엄마는 가만히 있다가 대답했다.

"네."

할머니는 엄마의 손등을 토닥였다.

"그래, 봐라. 이게 덤이라니까."

"덤이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얻게 되는 좋은 거지. 너랑 나, 우리 사이에 진실이 덤으로 생긴 거잖니."

그들은 1에이커나 되는 넓은 땅을 지났다. 20년 전에 심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장대처럼 높지는 않아도, 처음 그 나무를 심고 장화발로 흙을 꾹꾹 눌러 준 사람들보다 두 배는 큰 키였다.

엄마가 외할머니에게 물었다.

"제가 늘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산책하는 거 아니냐, 애비게일."

할머니가 말했다.

엄마는 앞을 응시하면서도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다. 외로웠던 어린 시절을 생각했다. 엄마는 두 딸이 종이컵으로 만든 전화기로 비밀을 소곤대다가 다른 방으로 쏙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 기분이 어떤지 몰랐다. 엄마가 자랄 때 집에는 부모님뿐이었고, 그나마 아버지는 떠나 버렸다.

엄마는 나무 꼭대기를 올려다봤다. 단지 부근 몇 마일 안에서 가장 높은 곳이었다. 할머니와 엄마는 높은 언덕에 서 있었다. 그 부근은 택지로 개발되지 않았고, 아직도 농부 몇 명이 살고 있었다.

엄마가 말했다.

"제 감정을 정확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도."

우리 단지가 시작되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해가 언덕 아래로 떨어졌다. 잠시 앞만 바라보았다. 엄마는 길 끄트머리에 있는 웅덩이를 쳐다봤다.

엄마가 말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다 끝난 일이에요."

할머니는 그 '끝난 일'이 뭔지 확실히 몰랐지만, 몰아세우지 않았다.

"우리 돌아갈까?"

할머니가 말했다.

"어쩌죠?"

"집으로 가자꾸나, 애비게일. 집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은 몸을 돌려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같은 구조의 주택이 줄지어 있었다. 할머니는 이런 주택 단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당신 자식이 이런 곳에서 살다니.

엄마가 말했다.

"커브길에 도착하면, 그 집 앞을 지나가 보고 싶은데요."

"그 사람 집?"

"네."

엄마가 몸을 돌리자 할머니도 몸을 돌렸다.

"그 남자를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나랑 약속해 주겠니?"

할머니가 물었다.

"누구요?"

"너랑 관계하는 남자. 지금껏 내가 그 얘기를 했잖니."

"관계하는 사람 없어요."

엄마가 말했다. 엄마의 마음은 새처럼 이 집 지붕에서 저 집 지붕으로 날아갔다. 엄마가 고개를 돌리며 할머니를 불렀다.

"어머니."

"왜?"

"한동안 어디 가 있고 싶으면, 아버지의 통나무집에 가 있어도 되겠어요?"

"지금까지 내 허락을 받고 살았니?"

두 사람은 어떤 냄새를 맡았다. 엄마는 다시 초조해지면서 정신이 흐릿해졌다.

"누가 담배를 피우나 봐요."

할머니는 딸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늘 합리적이고 꼼꼼한 딸이었는데, 그런 면모가 사라져 버렸다. 경솔하고 정신이 산란했다. 할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엄마가 말했다.

"외국산 담배군요. 한번 가 봐요!"

할머니는 어둠침침한 주변을 바라봤다. 엄마는 담배 냄새를 따라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난 돌아갈 테다."

할머니가 말했다.

하지만 엄마는 계속 걸었다.

곧 담배 연기가 나는 곳을 알아 냈다. 루아나 싱이 뒷마당의 전나무 뒤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엄마가 인사했다.

놀랄 거라는 내 예상과는 달리, 루아나 싱은 담담했다. 훈련된 차분한 태도였다. 그녀는 아주 놀랄 일을 당해도 차분히 호흡할 수 있었다. 경찰이 와서 아들이 살해 용의자라고 말하든, 남편이 파티를 학회 모임처럼 이끌어가든 침착하게 대처했다. 그녀는 레이에게 위층으로 올라가도 좋다고 말한 다음, 뒷문으로 조용히 나왔다. 그녀가 없어도 아무도 모를 터였다.

"새먼 부인이시군요. 만나서 반가워요."

루아나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담배 연기가 공중으로 올라가면서 따스한 기운이 번졌다. 엄마는 루아나 싱이 내민 손을 잡았다.

"파티 중이신가 봐요?"

엄마가 물었다.

"남편이 파티를 열고 있어요. 저는 안주인일 뿐이고요."

엄마가 미소지었다.

루아나 싱이 말했다.

"우리는 묘한 곳에 살고 있죠?"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길 어딘가에 외

할머니가 있었지만, 이 순간 엄마는 조용한 섬에 있는 기분이었다. 루아나처럼.

"담배 더 있으세요?"

"물론이죠, 새먼 부인."

루아나는 길고 검은 스웨터 주머니를 뒤져서 담뱃갑과 라이터를 꺼냈다.

"던힐인데,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엄마는 담배에 불을 붙인 다음, 담뱃갑과 라이터를 돌려 주었다.

"애비게일이에요. 애비게일이라고 불러 주세요."

엄마가 연기를 내뿜고 말했다.

위층 방에 불을 끄고 앉아 있던 레이는 엄마의 담배 냄새를 맡았다. 그가 가끔 담배를 훔쳐도 그의 엄마는 나무라지 않았다. 또 그는 엄마가 담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않았다. 레이는 아래층에서 나는 말소리를 들었다. 아버지와 동료 교수들이 6개 국어로 웃고 떠들며, 다가올 미국 명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엄마가 뒷마당에서 우리 엄마랑 같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창틀에 앉아서 담배 냄새를 맡는 그를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몰랐다. 레이는 창가에서 내려와, 침대 옆의 스탠드를 켰다. 책을 읽고 싶었다. 맥브라이드 선생님은 마음에 드는 시를 적어 오라고 했다. '노턴 앤솔로지(중요한 영문학 작품을 모아 놓은 책 : 역주)'에서 시를 찾아 읽는데, 자꾸만 예전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임시 무대에서 내게 키스했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린 할머니는 엄마랑 걷던 방향으로 계속 걸어갔다. 거기 그 집이 있었다. 그들이 잊으려고 해도 자꾸만 의식되는 그 집이. 할머니는 '잭이 옳다' 고 생각했다. 어둠 속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그 집에서 악한

기운이 퍼졌다. 할머니는 몸을 떨었다.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하비 씨의 꽃밭에 모여 있는 하루살이 떼가 눈에 들어왔다. 문득 딸에게 연민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애비게일은 폭발 지점 한가운데서 살고 있었다. 그 와중에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할 터였다. 할머니는 다음 날 아침에 통나무집 열쇠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려 했다.

그날 밤, 엄마는 멋진 꿈을 꾸었다. 가 본 적이 없는 인도에 있는 꿈이었다. 주황색 원추형의 도로 표지판과 금색 다리를 가진 예쁜 군청색 벌레가 있었다. 젊은 아가씨가 거리로 이끌려 나왔다. 그녀는 흰 이불보를 몸에 감고 화장용 장작이 쌓인 곳으로 끌려왔다. 그녀가 장작더미 위로 올라갔다. 아가씨를 태우고 있는 활활 타는 불길이 엄마를 깊은 꿈속으로 이끌었다. 아가씨는 산 채로 태워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몸은 깨끗하고 온전했다.

14

린지는 1주일간 나를 살해한 범인의 집 주변을 살폈다. 그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짓을 내 동생이 똑같이 했다.

린지는 1년 내내 남자 축구팀과 훈련하기로 했다. 드위트 코치와 새무얼이 채근한 대로, 남자 고교생 축구 리그에 뛸 자격을 얻기 위해 준비하기로 했다. 그래서 새무얼은 지지를 보여 주기 위해 린지와 나란히 훈련을 받았다. 그는 무슨 자격을 따려는 희망은 없고, '가장 빠른 사람'이 되고 싶을 뿐이라고 했다.

공을 차고 수비하고, 공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능력밖의 일이었지만, 그래도 새무얼은 뛸 수는 있었다. 동네 주변을 달릴 때마다 린지는 하비 씨의 집 쪽을 쳐다봤고, 새무얼은 앞에서 속도를 조절하며 달리면서도 아무 눈치도 못 챘다.

하비 씨는 집 안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는 린지가 쳐다보는 것을 알고는 놈이 근질거리기 시작했다. 이제 1년이 지났지만, 새먼

일가는 계속 주위를 얼쩡댔다.

다른 고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여자 애의 가족이 그를 의심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의심을 사지 않았다. 그는 완벽한 태도로 경찰을 대했다. 순진한 체하면서 아부하는 태도로 수사 상황을 묻거나, 도움이라도 될 것처럼 엉터리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다. 퍼너먼 형사에게 엘리스네 아들 이야기를 꺼낸 것도 멋지게 먹혔다. 또 아내와 사별했다는 거짓말도 늘 도움이 됐다. 그는 최근에 쾌감을 느끼며 살해한 희생자 중에서 죽은 부인의 이미지를 본땄고, 어머니의 모습에서 현실감 있는 모습으로 만들었다.

하비 씨는 매일 오후 한두 시간쯤 외출했다. 필요한 재료를 산 다음 '밸리 포지 공원'으로 차를 몰아서, 포장 도로와 비포장 숲길을 걸었다. 조지 워싱턴의 통나무집이나 워싱턴 기념 교회를 지날 때면 불쑥 현장학습 나온 학생들에게 둘러싸이곤 했다. 통나무 기둥에서 워싱턴의 가발 머리칼이라도 나올 것처럼 열심히 역사에 몰두하는 아이들을 볼 때면 기분이 붕붕 떠올랐다.

가끔 인솔 교사나 가이드가 거기 서 있는 하비 씨를 의아하게 쳐다보곤 했다. 그들은 그를 친절하게 대하긴 해도 어색하게 여겨서, 의심스런 눈초리를 던지곤 했다. 하비 씨는 둘러댈 말이 무수히 많았다. '예전에 제 자식들을 여기 데려오곤 했는데요.' 라거나 '바로 여기서 아내를 만났지요.' 등등. 그는 상상의 가족과 연결해서 말을 지어낼 줄 알았고, 그러면 인솔 교사나 가이드는 미소를 지었다. 한 번은 매력적이고 체구가 큰 여교사가 그에게 말을 걸려고 애썼다. 가이드는 어린이들에게 1776년의 겨울과 '구름 전투'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그는 홀아비가 된 사연을 써먹으면서, 소피 시케티라는 여인을 죽은 아내이자 진정한 사랑으로 꾸며 댔다. 그 이야기가 여교사에게는

맛좋은 음식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키우는 고양이와 남동생, 사랑하는 남동생의 세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하비 씨는 그의 집 지하실에서 죽은 채 의자에 앉은 그녀를 그렸다.

그후로 교사가 의심스런 눈길을 던지면, 하비 씨는 수줍게 뒤로 물러나서 얼른 공원의 다른 곳으로 가 버렸다. 그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어머니들이 잰걸음으로 오솔길을 걷는 광경을 지켜봤다. 수업을 빼먹은 십대들이 풀이 무성한 곳이나 한적한 길에서 부둥켜안고 있는 광경도 유심히 지켜봤다. 공원에서 가장 큰 고비는 작은 숲이었다. 그는 가끔 그 숲 옆에 주차했다. 차에 앉아서, 옆에 주차시키고 차에서 내리는 외로운 사내들을 지켜보곤 했다. 점심 시간을 이용해 숲에 온 양복 차림의 사내나 면셔츠와 청바지 차림의 사내가 빠른 걸음으로 숲으로 들어갔다. 가끔 그들은 하비 씨 쪽을 돌아봤다. 의아한 눈길로. 가까이서 봤다면, 그들은 자동차 앞유리를 통해 하비 씨의 손에 죽은 사람들이 본 것을 봤으리라. 거칠고 바닥 모를 그의 욕망을.

1974년 12월 26일. 린지는 하비 씨가 집을 떠나는 것을 보자, 달리기를 하는 남학생들 사이에서 머뭇거리기 시작했다. 나중에 린지는 생리 기간이어서 그렇다며 먼저 가라고 둘러댔다. 남학생들은 이것이 드위트 코치의 무모한 계획—여자 애가 지역대회에 나가다니!—이 먹히지 않을 증거라며 흐뭇해했다.

나는 여동생을 지켜보며 감탄했다. 린지는 한꺼번에 모든 것이 되어 버렸다. 여자, 스파이, 운동선수, 왕따, 고독한 사람.

린지는 생리통을 앓는 것처럼 옆구리를 쥐고 걷다가, 남자 애들이 뒤를 돌아보면 손을 흔들었다. 남자 애들이 코너를 돌아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 손으로 허리를 잡고 걸음을 옮겼다. 하비 씨네 집 가장자

리에는 큰 소나무들이 있었다. 몇 년간 손질하지 않아서 나무들이 빽빽했다. 린지는 나무 밑에 앉아서, 이웃이 내다볼 경우를 대비해서 몹시 피곤한 체했다. 그러다가 적당한 때가 되자, 몸을 공처럼 동그랗게 해서 두 그루의 소나무 사이로 굴러갔다. 그러고는 기다렸다. 남학생들이 한 바퀴 더 돌아야 했다. 그들이 하비 씨네 집 앞을 지나 빈 공터로 들어가서 다시 고등학교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 린지 혼자 남았다. 아버지가 딸이 언제 집에 오려나 기다리기 시작할 시간까지 45분의 여유가 있었다. 린지가 남학생 축구부와 훈련을 받으면, 새무얼이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되어 있었다. 5시까지는 귀가했다.

온종일 하늘에 구름이 짙게 깔렸고, 늦가을 추위에 팔다리에 소름이 돋았다. 달리기를 할 때면 몸이 더웠지만, 필드 하키팀과 같이 쓰는 탈의실에 들어가면 몸이 떨리기 시작해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해야 괜찮아졌다. 하지만 하비 씨네 잔디밭에 앉아 있을 때 소름이 돋은 것은 추위뿐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다.

남학생들이 학교로 들어가자, 린지는 집 옆쪽으로 난 지하실 창으로 다가갔다. 만일 들키면 둘러댈 구실을 벌써 생각해 두었다. 소나무 사이로 새끼 고양이가 들어가서 쫓아가는 중이라고 할 작정이었다. 회색 고양인데 발이 빨라서 하비 씨의 집으로 들어왔고, 아무 생각 없이 고양이를 쫓아왔을 뿐이라고.

린지는 지하실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어두웠다. 창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다. 창문을 열려면 유리를 깨야 했다. 가슴이 뛰었고, 소리가 날까 봐 걱정스러웠지만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었다. 린지는 집에 있는 아버지를 생각했다. 아버지의 의자 곁에 놓인 시계가 마음에 걸렸다. 운동복 셔츠를 벗어서 발에 감쌌다. 주저앉아서, 몸통을 팔로 감싸안고 발로 유리를 찼다. 한 번, 두 번, 세 번.

유리가 깨졌다. 요란한 소리는 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벽에서 발을 디딜 만한 곳을 찾다가, 유리 조각이 떨어진 콘크리트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실내는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다. 우리 집 지하실과는 달랐다. 우리 지하실에는 부활절 초콜릿 상자며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품 같은 것들이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선반에 정리되어 있지 않고 바닥에 널려 있었다.

밖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자, 린지는 목덜미에 부는 바람이 유리 조각 틈에서 나와 다른 부분으로 가 보라고 밀어 대는 것처럼 느꼈다. 안락의자와 그 옆에 놓인 작은 테이블이 눈에 들어왔다. 린지는 반짝이는 숫자판이 있는 자명종 시계를 보았다. 나는 린지가 동물 뼈가 있는 공간으로 눈을 돌리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모눈종이에 파리 눈을 그리고, 그 학기 생물 시간에 점수를 잘 얻은 린지라도, 그 뼈를 보고 내 뼈라고 상상할 게 분명했다. 그래서 린지가 동물뼈 근처에 안 가는 게 오히려 다행스러웠다.

나는 모습을 드러내거나 속삭이거나, 밀거나 채근할 능력이 없었지만 린지는 뭔가를 느꼈다. 차고 습한 지하실의 공기가 이상했고, 몸이 움씰했다. 린지는 열린 창문으로부터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서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차분하게 실마리를 찾는 데 몰두해야 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앞에서 뛰던 새무얼이 떠올랐다. 그는 마지막 한 바퀴를 돌면서 린지를 찾을 터였다. 린지가 학교 밖에 있으리라 짐작하고 학교로 달려갈 테고, 거기 없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샤워 중이라고 짐작하고 그도 샤워를 할 터였다. 그리고 기다리겠지. 얼마나 기다릴까? 린지의 시선이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쏠렸다. 내 동생은 새무얼이 따라와

서, 외로움을 덜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새무얼에게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지금 그애가 하는 짓은 한계를 넘어선 범죄 행위라는 것을 잘 알기에.

만일 린지가 나중에 생각해 보면, 신선한 공기가 필요해서 계단을 올랐다고 말할 터였다. 운동화 끝에 묻은 흰 먼지가 계단에 묻었지만, 린지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지하실 문고리를 돌리고 나가니 1층이 나왔다. 겨우 5분이 지났다. 40분쯤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려진 블라인드 틈으로 빛이 들어왔다. 린지는 우리 집이랑 똑같이 생긴 집에 서서 머뭇거렸다. 「이브닝 블레틴」이 현관 입구 층계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신문 배달 소년이 자전거 종을 울리며 지나갔다.

동생은 방들을 기술적으로 뒤지면 필요한 것이 나올 거라고 중얼거렸다. 집에 있는 아버지에게 가져갈 트로피를 손에 넣으리라. 내게서 자유로워질 길이 생길 터였다.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도 경쟁심은 늘 있는 법이다. 린지는 현관홀에 깔린 판석을 보면서—우리 집이랑 똑같이 수박색과 회색 돌이었다.—자신이 아기였고 내가 걸음마를 배울 때 기어서 날 쫓아다니던 상상을 했다. 린지는 뒤뚱뒤뚱 걷는 내 몸이 린지 옆을 휙 지나 옆방으로 들어가던 장면을 떠올렸다. 린지는 몸을 뻗으며 걸어 보려고 안간힘을 썼고, 나는 거실에서 린지를 놀리고.

하지만 하비 씨네 집은 우리 집보다 썰렁했고, 따스함을 줄 러그도 깔려 있지 않았다. 린지는 판석에서 반들거리는 마룻바닥으로 발을 옮겼다. 우리 집에서는 그 방이 거실이었다. 린지가 트인 현관홀에 대고 소리를 내자 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움직이는 모든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다.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밀려들었다. 모두 혹독한 경험이 있었다. 내 등에 업혀서 계단을 내려오는 버클리. 내가 엄마의 부축을 받으며, 크리스마스 트리 꼭대기에 은별을 매달자, 샘나는 눈으로 올려다보는 린지. 계단 난간을 타고 내려와서 린지에게 해 보라고 부추기는 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버지에게 만화 잡지를 달라고 보채는 우리 자매. 마구 짖어 대는 할리데이를 쫓아 달음질하는 우리들. 그리고 수없이 피곤한 미소를 짓고 있는 생일, 명절 사진들. 아, 방과 후에 찍은 사진도 있고. 벨벳이나 면으로 된 옷이나 노란색 옷을 똑같이 입은 자매. 물들인 달걀과 토끼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있는 우리. 끈과 버클 장식이 달린 가죽 구두. 엄마가 들고 있는 카메라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어색한 웃음을 짓는 우리. 사진은 늘 눈이 빨갛고 흐릿하게 나왔다. 우리가 집에서 같이 놀거나 장난감을 놓고 싸웠던 순간에 린지에게 그런 기억이 남겨질 줄은 몰랐는데. 우리가 언니와 동생이었을 때는.

린지도 그걸 알았다. 나는 다음 방으로 갔다. 우리 집의 식당인 방에 하비 씨가 만든 인형 집들이 있었다. 나는 아이가 되어 린지보다 앞서 달렸다.

린지가 서둘러 쫓아왔다.

아래층 방을 쫓아다녔다. 축구 연습을 하는 린지였지만, 현관으로 돌아왔을 때는 숨이 차서 헐떡거렸다. 점점 현기증이 일어났다.

엄마가 버스 정류장에 있던 남자 애에 대해 늘 하던 말이 생각났다. 그 남자 애는 몸집이 우리 또래보다 두 배나 컸지만 2학년이었다. 엄마는 "그애는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센지 모르니까, 곁에 있을 때는 너희가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 남자 애는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은 꼭 끌어안기를 좋아했다. 이런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서 만지고 싶은 욕망에 불을 당겼다. 그가 일반 학교에서 쫓겨나 딴 곳으로 옮겨 가기 전, 대픈이라는 여자 애를 끌어안은 일이 있었다. 얼마나 꼭 안았는지, 포옹을 풀었을 때 대픈은 길바닥에 쓰러졌다. 나는 린지에게 닿으려고 천국과 지상의 경계를 힘껏 밀어 대다가, 문득 도와 주고 싶은 때 오히려 그애를 다치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동생은 넓은 계단 밑바닥에 앉아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는 데만 집중했다. 그리고 하비 씨의 집에 들어온 이유를 따져 봤다. 린지는 무거운 무엇인가에 갇힌 기분이었다. 촘촘한 거미집에 걸려든 파리 같은 기분이었다. 굵은 견사가 몸을 칭칭 감는 것 같았다. 옥수수밭을 걸을 때 아버지를 사로잡았던 뭔가가 이제 린지에게 스물스물 기어들고 있었다. 린지는 그걸 알았다. 린지는 딛고 올라설 수 있는 실마리를 들고 가고 싶었다. 아버지에게 사실을 알려 주고, 아버지가 형사에게 설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고 싶었다. 하지만 린지는 아버지를 따라서 바닥 없는 구멍에 빠지는 자신을 보았다.

20분 남았다.

그 집에서 린지는 유일하게 살아 있는 존재였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또 나만 린지와 함께 있는 게 아니었다. 나를 살해한 범인이 평생에 걸쳐 건축물 짓듯 살해해서 남겨 둔 여자들의 시신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내 동생이 그 집에 있으니 그들은 내게 나타났다. 나는 천국에 있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 보았다.

재키 메이어. 델라웨어, 1967년. 13세.

의자가 뒤로 넘어졌다. 의자 쪽에 몸을 동그랗게 만 재키는 줄무늬 티셔츠만 걸친 차림이었다. 머리 부근에는 피가 흥건했다.

플로라 헤넌데즈. 델라웨어, 1963년. 8세.

하비 씨는 만지려고만 했는데, 아이가 비명을 질렀다. 나이에 비해 체구가 작았다. 나중에 아이의 왼쪽 양말과 구두가 발견되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뼈는 낡은 아파트의 지하실에 묻혀 있다.

레아 폭스. 델라웨어, 1969년. 12세.

하비 씨는 고속도로 램프 밑에 놓인 소파에서 이 아이를 아주 조용히 죽였다. 그는 아이 몸 위에서 잠들었다. 머리 위에서 나는 자동차 소리를 들으면서. 10시간 후, 어느 부랑자가 하비 씨가 버려진 문으로 대충 지은 집의 문을 두드렸다. 그제서야 하비 씨는 정신을 차리고 레아 폭스의 시신을 치우기 시작했다.

소피 시케티. 펜실베이니아, 1960년. 49세.

집주인 여자. 아파트에 석고보드 벽을 세워서 방 두 칸을 만들어 세를 놨다. 하비 씨는 벽 때문에 생긴 반원형 창이 마음에 들었고, 집세도 쌌다. 하지만 여자가 아들에 대해 너무 수다를 떨었고, 시를 읽어주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하비 씨는 여자의 방에서 사랑을 나누었고, 그녀가 말을 하기 시작하자 두개골을 깨 버렸다. 여자의 시신을 근처 개천 강둑으로 옮겼다.

레이디아 존슨. 1960년. 6세. 펜실베이니아의 벅스 카운티.

하비 씨는 채석장 부근 언덕 안쪽에 땅을 파고 기다렸다. 이 아이가 제일 어렸다.

웬디 리히터. 코네티컷, 1971년. 13세.

이 소녀는 술집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비 씨가 숲으로 끌고 가 강간한 다음 목졸라 죽였다. 가끔 일어나는 증상인 무감각 상태에서 깨어나 의식을 찾기 시작했을 때,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그가 죽은 소녀의 얼굴을 자기 쪽으로 돌렸을 때, 사내들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그는 아이의 귀를 깨물었다. 술 취한 사내 둘이 부근

숲에 소변을 보러 가면서, 하비 씨에게 "미안하오."라고 말했다.

이제 무덤이 둥둥 떠다니는 고장이 보였다. 그곳은 바람이 불어 추웠고, 살해된 희생자들은 살아 있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들어갔다. 하비 씨의 다른 희생자들이 그의 집에 들어차 있는 광경도 보였지만 그날 나는 그들을 보내 주고 린지에게 갔다. 그들은 지상을 떠나기 전에 그런 기억을 남겼다.

내가 관심을 돌린 순간 린지가 일어났다. 우리 둘은 나란히 계단을 걸었다. 린지는 할과 새무얼 형제가 좋아하는 영화에 나오는 유령이 된 기분이었다. 한 발씩 옮기며 앞을 바라보았다. 린지는 우리 집에서 부모님 침실인 방에 들어갔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2층 복도를 둘러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내 방인 방으로 들어갔다. 나를 살해한 범인의 방이었다.

그 집에서 가장 을씨년스럽지 않은 방이었고, 린지는 물건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선반에 쌓인 셔츠 사이에 손을 넣었다. 칼이나 총, 할리데이가 씹은 볼펜 같은 증거물이 있는지 살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린지는 어떤 소리를 들었다. 무슨 소린지 파악할 수 없었지만, 침대 쪽으로 몸을 돌리자 작은 탁자가 눈에 들어왔다. 거기 독서등 옆에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다. 린지가 그쪽으로 갔을 때 다시 소리가 났다. 자동차가 집 앞으로 들어오는 소리. 브레이크 밟는 소리. 차 문이 닫히는 소리.

스케치북을 넘기니, 잉크로 그린 서까래와 기둥, 작은 탑, 부벽 그림이 나왔다. 수치와 메모가 적혀 있었지만, 린지는 별다른 것을 알아낼 수 없었다. 마지막 장을 넘길 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비 씨가 현관문 열쇠를 돌릴 때, 린지는 연필로 가볍게 그린 스케

치를 보았다. 움푹 팬 구멍 위에 옥수숫대가 있는 그림이었다. 땅굴 속에 선반이며 난로에서 나는 연기를 뺄 굴뚝까지 자세히 그려져 있었다. 이 스케치를 보자 린지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림 아래쪽에는 고물고물 기어가는 글씨체로 '스톨퍼즈 옥수수밭'이라고 적혀 있었다. 내 팔꿈치가 발견된 기사를 읽지 않았다면, 린지는 '스톨퍼즈'가 옥수수밭 주인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터였다. 이제 동생은 내가 알게 해 주려던 것을 알았다. 나는 그 구멍에서 죽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발버둥치다가 목숨을 잃었다.

린지가 그 페이지를 찢었다. 하비 씨는 부엌에 들어가 차를 만들고 있었다. 그가 좋아하는 소시지와 청포도 한 송이도 준비했다. 그는 마루가 삐걱이는 소리를 들었다. 몸이 굳어졌다. 또 소리가 나자, 갑자기 상황이 이해됐다.

포도가 바닥에 떨어져 그의 발에 밟혔다. 그 사이 침실에 있던 린지는 알루미늄 블라인드를 젖히고, 빡빡한 창문을 열었다. 하비 씨가 한 번에 두 계단씩 올라왔고, 린지는 방충창을 밀어내고 현관 위쪽 지붕으로 내려갔다. 그가 2층 복도를 지나 다가왔다. 린지가 지붕 위에서 구를 때 홈통이 부서졌다. 마침내 하비 씨가 침실에 들어섰을 때, 린지는 가시나무 수풀로 몸을 던졌다.

하지만 다치지는 않았다. 다행히 부상은 입지 않았다. 젊었기에. 린지가 일어났을 때, 하비 씨는 창 밖으로 내려왔다. 그러다가 그가 멈춰섰다. 그는 린지가 딱총나무 쪽으로 달려가는 광경을 봤다. 운동복 등판에 적힌 숫자가 눈에 확 들어왔다. 555.

축구복을 입은 린지 새먼이었다.

린지가 집에 도착해 보니, 새무얼이 집에 와서 부모님, 린 할머니와

함께 있었다.

"맙소사."

현관문에 난 작은 유리창으로 맨 먼저 린지를 본 엄마가 중얼거렸다.

엄마가 문을 열 즈음, 새무얼이 얼른 달려 나왔다. 린지는 엄마나 다가오는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새무얼의 품에 안겼다.

"하나님 맙소사. 맙소사."

엄마는 흙투성이가 된 린지가 긁힌 상처까지 있자 연신 중얼댔다.

할머니가 다가와서 린지 곁에 섰다.

새무얼이 린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디 갔다 왔니?"

하지만 린지는 아버지에게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는 이제 분노한 딸보다도 왜소하고 힘이 없어 보였다. 그날 종일토록 나는 린지가 살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아빠?"

"그래."

"해냈어요. 그의 집에 들어갔어요."

린지는 가볍게 떨었지만 울지 않으려 애썼다.

엄마가 말했다.

"뭘 했다고?"

하지만 린지는 엄마를 쳐다보지 않았다. 한 번도.

"이걸 가져왔어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린지는 줄곧 공처럼 뭉친 스케치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것 때문에 뛰어내리기가 더 힘들었지만, 어쨌든 잘 갖고 빠져 나왔다.

아버지는 그날 읽은 책 구절을 생각했다. 그는 딸의 눈을 들여다보

면서 그 구절을 말했다.

"사람은 전쟁 상황에 가장 빨리 적응하는 법이지."

린지가 그림을 아버지에게 주었다.

"난 버클리를 데리러 갔다 올게요."

엄마가 말했다.

"이게 뭔지 보고 싶지도 않아요, 엄마?"

"뭐라고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외할머니가 와 계시잖니. 장볼 것도 있고. 칠면조를 구워야 되니까. 우리에게 가족이 있다는 걸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에겐 가족이 있지. 가족과 아들이 있어. 엄만 가 봐야겠다."

린 할머니가 엄마를 따라 뒷문으로 갔지만, 말리려 하지는 않았다.

엄마는 가 버렸고, 린지는 새무얼에게 손을 뻗었다. 아버지는 린지가 하비 씨의 손아귀에서 빼온 것을 보았다. 그것이 내 무덤의 청사진일 가능성이 있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이제 나를 믿니?"

아버지가 린지에게 물었다.

"네, 아빠."

아버지는 고마운 마음으로 전화를 걸러 갔다.

"아빠."

린지가 불렀다.

"응."

"그자가 저를 본 것 같아요."

그날 내게는 린지가 무사한 것보다 큰 축복은 없었다. 전망대에서 나오는데, 두려움 때문에 몸이 떨렸다. 린지를 잃으면 아버지, 엄마,

버클리, 새무얼에게만 큰 상실이 아니라, 내게도 큰 상실이었다.

프래니가 식당에서 나와 내게 다가왔다. 나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그녀가 말했다.

"수지, 할 말이 있는데."

프래니가 나를 고풍스런 가로등 아래로 데려갔다. 그녀는 네 쪽으로 접은 종이를 내밀었다.

"강해졌다는 기분이 들면, 이걸 보고 거기로 가 봐."

이틀 후, 프래니가 준 지도를 보고 들판으로 나갔다. 늘 걷던 곳이었다. 아름답긴 했지만 아직 구석구석까지는 살피지 않았던 곳이었다. 지도에는 길을 나타내는 선이 있었다. 초조하게 밀 사이에 난 움푹한 길을 찾아봤다. 바로 앞에 있는 길이 보여, 그곳으로 발을 옮기니 손에 든 종이가 없어졌다. 앞쪽에 아름다운 늙은 올리브나무 한 그루가 보였다.

태양은 높이 뜨고, 올리브 나무 앞에는 빈터가 있었다. 잠시 기다리니, 들판 저쪽에서 자라는 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군가 왔다는 표시였다.

여자 아이는 지상에서처럼 나이보다 체구가 작았다. 옥양목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치마 밑단과 손목 부분이 닳아서 너덜거렸다.

아이가 걸음을 멈추었고, 우린 서로 바라보았다.

"매일 여기 왔어. 소리를 듣는 게 좋아서."

아이가 말했다.

주변에서 바람이 부는 대로 밀이 쓰러졌다.

"프래니를 아니?"

내가 물었다.

아이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프래니가 내게 여기로 오는 지도를 줬어."

"그럼 언니는 준비가 된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이는 제 천국에 있느라 빙빙 돌았다. 치맛단이 둥그렇게 펼쳐졌다. 나는 나무 밑에 앉아 아이를 지켜봤다.

아이는 일을 마치자, 내게 다가와 숨을 몰아쉬며 앉았다.

"난 플로라 헤넌데즈야. 언니는 이름이 뭐야?"

아이가 물었다.

이름을 말하니 울음이 터져 나왔다. 하비 씨가 죽인 다른 아이와 알게 된 게 위로가 됐다.

"곧 다른 사람들도 여기 올 거야."

플로라가 말했다.

플로라가 빙빙 돌 때, 다른 소녀들과 여자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다. 우린 서로 마음 아파했다. 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조금씩 아픔이 줄어들었다. 그날, 내가 가족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걸 알았다. 지상의 두려움은 생생하고, 매일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은 꽃이나 태양 같아서 어디에 담아 둘 수가 없었다.

15

처음에는 아무도 그들을 말리지 않았다. 상점에서 나와서 훔친 물건을 아들에게 내보이며, 엄마는 즐거워서 웃음을 터뜨렸다. 조지 하비는 함께 웃으면서, 기회를 엿봐서 엄마를 끌어안곤 했다. 엄마는 손에 넣은 물건에 정신이 팔려 있었고.

오후에 아버지로부터 빠져 나와, 부근 읍내로 물건을 사러 나오자 어머니와 아들은 안도했다. 그들은 폐품 수집상이었다. 쇳조각과 빈 병을 모아서 고물 트럭에 싣고, 그것을 갖다 팔아 돈을 벌었다.

처음 모자가 도둑질하다 들켰을 때, 계산대에 있던 여자는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다.

"돈을 낼 수 있으면 계산해요. 돈을 낼 형편이 아니면, 그대로 카운터에 놔 두고요."

그녀는 활달하게 말하며, 여덟 살이 된 조지 하비에게 눈을 찡긋했다. 그의 엄마는 아스피린 병을 주머니에서 꺼내, 가만히 카운터에 올

려놓았다. 그녀의 얼굴이 시무룩해졌다. 가끔 조지 하비의 아버지는 아내를 애랑 똑같다고 나무랐다.

도둑질하다 들킨 순간은 하비의 인생에 두려움을 가져왔다. 뱃속에서 시큰한 느낌이 똬리를 트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도둑질을 하는 걸 본 남자가 그들을 향해 다가올 때, 주변 사람들의 굳은 얼굴과 사나운 눈빛으로 감이 잡혔다. 그 사람은 상점 직원이었다.

어머니는 훔친 물건을 몸에 숨기라며 아들에게 주었고, 그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다. 상점 밖에 나와 트럭에 올라타면, 어머니는 웃으면서 운전대를 탁탁 두드리며 그를 '꼬마 공범'이라고 부르곤 했다. 그러면 트럭 안에는 어머니의 예측할 수 없는 사랑이 넘쳐흘렀다. 한동안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었다. 길거리에 있는 그럴듯한 물건이 눈에 들어올 때까지는. 어머니는 조사해 봐야겠다 싶은 물건을 '작업 대상'이라고 불렀다. 새로운 작업 대상이 생길 때까지 조지 하비는 자유로웠다. 자유롭고 따스했다.

텍사스의 도로를 달릴 때 거리의 나무 십자가를 보고, 어머니가 처음으로 한 충고를 하비는 기억했다. 흰 십자가 주변에는 싱싱한 꽃과 죽은 꽃이 있었다. 고물 수집상답게 하비의 눈은 꽃 색깔에 쏠렸다.

"죽은 사람도 넘겨다볼 줄 알아야 한다. 가끔 죽은 사람한테도 빼앗을 만한 괜찮은 물건이 있거든."

그때도 하비는 그것이 나쁜 짓임을 분간할 수 있었다. 그들은 트럭에서 내려 십자가 쪽으로 올라갔다. 어머니의 눈빛이 물건을 찾을 때의 눈빛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눈 모양과 하트 모양의 장식품을 찾고는 아들이 볼 수 있도록 내밀었다.

"네 아버지가 보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우리 둘이 보관하고 있자

꾸나."

그녀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비밀 주머니를 가지고 있었다.

"눈 모양을 가질래, 하트 모양을 가질래?"

"눈이요."

조지 하비가 대답했다.

"장미가 싱싱해서 갖고 갈 만하겠는데. 트럭에 두면 좋겠다."

그날 밤, 그들은 트럭에서 잤다. 아버지가 임시로 판자를 패는 일을 하는 곳까지는 운전해서 갈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트럭에서 몸을 웅크리고 잤다. 자주 있는 일이었다. 트럭 안은 어색하나마 둥지 같았다. 어머니는 담요를 갖고 낑낑대는 개처럼 뒤치락댔다. 조지 하비는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몸을 옮기도록 몸에 힘을 빼고 누워 있는 게 상책이라는 걸 일찌감치 알았다. 어머니가 편안해질 때까지 둘 다 잠을 자지 못했다.

한밤중에, 그가 도서관에서 본 그림책에 나온 궁전에 있는 꿈을 꾸는데, 누가 트럭 창문을 두드렸다. 조지 하비 모자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조지는 트럭 창문을 들여다보는 세 남자를 알아봤다. 가끔 술에 취해 들여다보는 아버지의 눈길과 비슷했다. 그들은 어머니와 아들을 동시에 쳐다봤다.

하비는 비명을 지르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잠자코 가만 있어. 저 사람들이 널 어쩌려고 온 게 아니니까."

어머니는 하비에게 속삭였다. 하비는 낡은 군용 담요를 뒤집어쓴 채 덜덜 떨기 시작했다.

한 남자가 트럭 앞에 올라섰다. 나머지 둘은 트럭에 올라와 지붕을 두드리면서, 웃고 혀를 빼물었다.

어머니가 마구 고개를 젓자, 사내들은 더 화를 냈다. 트럭을 막고

있던 사내가 엉덩이를 앞뒤로 흔들어 대기 시작하자, 다른 두 사내는 더 크게 웃어 댔다.

어머니가 속삭였다.

"내가 천천히 움직이면서 트럭에서 내리는 시늉을 할게. 내가 신호하면, 넌 손을 앞으로 뻗어 시동을 걸렴."

조지 하비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걸 알았다. 어머니에게 그가 필요했다. 어머니는 차분한 체했지만, 쉰 목소리가 갈라졌다.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묻어났다.

어머니가 미소짓자 사내들은 환호성을 울리며 긴장을 풀었다. 어머니는 팔꿈치로 트럭의 기어를 움직였다.

"지금이야!"

어머니가 담담하게 말하자, 조지 하비는 손을 뻗어 열쇠를 돌렸다. 시동이 걸리면서 트럭이 털털 소리를 냈다.

갑자기 사내들의 얼굴빛이 변했다. 사내들의 시시덕거리던 표정이 사라졌을 때, 어머니는 트럭을 후진시켰다. 그들은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어머니는 기어를 주행으로 바꾼 다음, 아들에게 소리쳤다.

"바닥에 엎드려!"

조지 하비는 가까이서 사내의 몸이 트럭에 받치는 느낌이 들었다. 사내의 몸이 트럭 지붕 위에 걸쳐졌다. 어머니가 다시 차를 후진시켰다. 그 순간, 하비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깨달았다. 아이나 여자로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그 두 가지가 가장 연약한 존재였다.

린지가 생울타리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자, 하비 씨는 가슴이 몹시

뛰었지만 곧 침착해졌다. 그는 선택한 일을 최악의 경우까지 꼼꼼히 따진 후에 행동에 옮기는 것을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에게 배웠다. 그는 칼이 든 봉지를 살펴봤다. 칼을 들고 지하실로 내려가서, 바닥에 뚫어 둔 구멍에 던졌다. 철제 선반에 있던 여자들의 소지품을 챙겼다. 내 팔찌에서 뗀 펜실베이니아 돌을 손에 꽉 쥐고 행운을 빌었다. 나머지를 흰 손수건에 담고는, 손수건의 네 귀퉁이를 집어 주머니처럼 만들었다. 그는 이것을 바닥에 낸 구멍에 넣었다. 배를 깔고 엎드려서 팔을 구멍 깊숙이 넣었다. 손을 휘저으니 철근 끝이 만져졌다. 그는 손수건 꾸러미를 철근에 매달았다. 초여름에 '밸리 포지 공원' 숲에서 손에 넣은 시집도 천천히 넣었다.

기껏해야 5분쯤 흘렀으리라. 그동안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고 설명하면 그만일 터였다. 셔츠 소매에 다는 단추, 현금, 여러 가지 공구 등 경찰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만한 물건을 점검했다. 하비 씨는 더 흘려보낼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쯤에서 경찰에 전화해야 했다.

몸을 일으켰다. 빨리 걸으면서 숨을 재빨리 들이쉬고 내쉬었다. 경찰서 교환원과 통화가 되자, 긴장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누군가 집에 침입했어요. 경찰이 필요한데요."

그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설명하면서, 속으로는 언제 어떤 걸 챙겨서 떠나면 될지 계산했다.

아버지는 경찰서에 전화해서 렌 퍼너먼 형사를 찾았다. 하지만 통화할 수 없었다. 경찰에서는 경찰관 둘이 이미 사건을 조사하러 파견됐다고 했다. 경관들이 도착했을 때 현관문을 열어 준 하비 씨는 피해자가 지을 법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약간 머쓱한 표정은 울려던 남자로서 자연스럽게 보였다.

경찰관들은 린지가 가져간 그림에 대한 정보를 무전으로 들었지만, 하비 씨가 집을 수색하라고 순순히 허락하는 데 감명받았다. 그는 새 먼 가족을 안쓰러워하는 눈치였다.

경찰관들은 마음이 불편해졌다. 집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하비 씨가 극도로 외롭게 산다는 것과 2층 방에 예쁜 인형 집이 가득 있다는 점만 특이할 뿐이었다. 경찰관들은 화제를 바꿔서, 언제부터 인형 집을 만들었냐고 물었다.

나중에 그들은 하비 씨의 태도가 친절하게 변했다고 말했다. 하비 씨는 침실로 가더니 스케치북을 가지고 나왔다. 하지만 도둑맞은 그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경찰관들은 하비 씨가 인형 집의 설계도를 보여 주면서 점점 따뜻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신경 써서 질문을 던졌다.

"하비 씨, 저희랑 경찰서로 가셔서 질문에 응해 주시겠습니까? 변호사를 출석시킬 권리가 있으시지만……."

하비 씨가 말을 막았다.

"뭐든 여기서 대답하면 좋겠는데요. 그 가엾은 소녀에게 죄를 묻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피해자가 아닙니까."

다른 경찰관이 말했다.

"소녀가 집에 침입해서 뭔가 가져갔지요. 옥수수밭과 거기 있는 구조물의 그림이었고……."

이 말에 하비 씨가 갑자기 설득하는 태도로 변했다. 경찰관들은 나중에 퍼너먼 형사에게 그렇게 보고할 터였다. 하비 씨는 앞뒤가 맞는 설명을 했고, 경찰은 그를 달아날 위험이 있는 인물로 보지 않았다. 처음부터 살인범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아, 가엾은 아이지요."

하비 씨는 손가락으로 입술을 매만졌다. 그는 스케치북을 보더니, 린지가 가져간 그림과 비슷한 그림을 찾았다.

"바로 이게 그 그림과 비슷합니다. 맞지요?"

경찰관들이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자 하비 씨가 털어놓았다.

"어찌된 일인지 알아 내고 싶었어요. 솔직히 사건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이웃 주민 모두, 어떻게 하면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까 고민할 겁니다. 왜 아무 소리도 못 들었을까. 왜 아무것도 못 봤을까. 죽은 아이는 분명히 비명을 질렀을 텐데."

그는 펜으로 그림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여기서…… 양해하십시오. 나는 이 구조물 안에서…… 옥수수밭에 피가 흥건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지역의 특징을 따져 본 끝에 결론을 내리기를……."

그가 경찰관들의 눈빛을 살폈다. 둘 다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설명에 신경을 썼다. 지금껏 사건의 실마리도, 시신도, 혐의점도 나오지 않았다. 하비 씨가 말을 이었다.

"범인은 땅 밑에 이런 걸 만들었을 거예요. 땅굴을 판 거지요. 그런 결론을 내리자, 인형 집을 만드는 방식으로 땅굴의 내부를 자세히 그리기 시작했어요. 굴뚝이랑 선반도 넣고, 내 습관이에요."

그는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시간이 많으니까요."

경찰관 한 명이 물었다.

"그래서 잘 됐나요?"

"늘 거기 뭔가 있다는 생각을 했죠."

"왜 저희에게 전화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그댁 딸을 살리지 못할 테니까요. 퍼너먼 형사님에게 조사

를 받으면서, 엘리스네 아들이 의심스럽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엉뚱한 의심이었다는 게 밝혀졌지요. 공연한 예상으로 수사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경찰관들은 사과하는 말투로, 다음 날 퍼너먼 형사가 다시 연락하면 같은 내용을 되풀이해서 말해야 될 거라고 말했다. 스케치북을 보여 주고, 옥수수밭에 대한 주장을 되풀이해야 될 거라고. 하비 씨는 그것을 충실한 시민의 역할로 받아들였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본인이면서도. 경찰관들은 린지의 침입 경로를 지하실 창으로 들어가서 침실 창으로 나갔다고 봤다. 그들이 피해 내용을 묻자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 하비 씨는 몇 달 전 새먼 씨가 깊이 슬퍼하는 걸 눈치챘는데, 죽은 아이의 동생까지 영향을 받은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가족을 지켜보면서, 나는 하비 씨가 체포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걸 알아차렸다.

엄마는 네이트의 집에서 버클리를 데리고 나와, 30번 도로에 있는 편의점에 차를 세웠다. 편의점 밖에 공중전화가 있었다. 엄마는 렌 형사에게 근처 쇼핑몰의 복잡한 가게에서 만나자고 했다.

렌 형사는 곧 집에서 나왔다. 차도를 빠져 나올 때 집에서 전화벨이 울렸지만 그는 듣지 못했다. 그는 차 속에서 엄마를 생각했다. 모든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러다가 그녀에게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얼른 사라져서, 그 이유를 궁리할 수가 없었다.

엄마는 편의점에서 가까운 쇼핑몰로 차를 몰고 갔다. 버클리의 손을 잡고 놀이방 시설로 갔다. 부모가 쇼핑을 할 동안 아이들을 맡길 수 있었다. 버클리는 들떠 있었다.

"놀이방이다! 가도 돼?"

유리벽 안에서는 또래 아이들이 정글짐에서 뛰어내리고, 고무 바닥 위에서 공중제비를 돌고 있었다.

엄마가 물었다.

"정말로 저기서 놀고 싶니?"

"놀래."

엄마는 큰맘 먹고 허락하는 듯이 말했다.

"좋아."

버클리는 빨간 미끄럼틀로 쏜살같이 뛰어갔다.

"얌전하게 굴어야 된다."

버클리의 등에 대고 엄마가 외쳤다. 엄마는 버클리를 여기서 혼자 놀게 한 적이 없었다. 엄마는 놀이방 직원에게 버클리의 이름을 대고, 1층에서 쇼핑하겠다고 말했다.

하비 씨가 경찰관들에게 나를 살해한 범인에 대한 견해를 밝힌 그 시간, 엄마는 '스펜서'라는 잡화점 안에서 등을 스치는 손길을 느꼈다. 기대감으로 몸을 돌렸지만, 가게에서 나가는 렌 퍼너먼의 뒷모습만 보였다. 형광색 가면, 검은 플라스틱 공, 열쇠고리 더미, 씩 웃는 커다란 해골 옆을 지나 엄마는 렌을 따라갔다.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를 쫓아가면서 엄마는 처음에는 흥분했다가 곧 짜증이 났다. 발걸음을 옮기는 틈틈이 생각할 시간이 충분했지만 엄마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마침내 엄마는 그가 벽 사이에 난 흰 문을 여는 것을 봤다. 엄마는 처음 보는 문이었다.

어두운 복도에서 나는 소음으로 미루어, 고객들이 다니지 않는 건물 안쪽으로 왔음을 알 수 있었다. 통풍 장치나 수도관이 있는 지역이

었다. 엄마는 상관하지 않았다. 엄마는 어둠 속에서 심장 속에 있는 자신을 상상했다. 병원에서 본 확대 사진이 머리에 들어왔고, 동시에 가운을 입고 검은 양말을 신은 아버지가 진찰대에 누운 장면이 떠올랐다. 의사는 심장마비의 위험성을 이야기했다. 슬픔에 빠져들고, 비명을 지르며 혼란의 나락에 떨어지려는 순간, 엄마는 복도 끝에 닿았다. 3층 높이의 큰 방이 나타났다. 철제 탱크와 드럼통에 작은 전구가 뒤죽박죽으로 박혀 있었다. 엄마는 걸음을 멈추고 소리에 귀를 귀울였다. 쇼핑 공간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웅웅대는 소리만 들렸다.

엄마보다 먼저 내가 렌 형사를 보았다. 그는 어두운 곳에 서서, 잠시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는 엄마의 눈빛에 녹아든 욕망을 읽었다.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에게 미안했지만, 그는 그 눈에 빨려들었다. 그는 '당신 눈에 빠져 버리고 싶소, 애비게일.' 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엄마는 쇠붙이가 뒤섞인 공간이 점점 분간되기 시작했다. 순간, 나는 그곳이 엄마가 위로받기에 충분할 만큼 이국적인 공간이라고 느꼈다. 누구도 닿을 수 없는 곳 같은 분위기였다.

렌이 손을 뻗어 엄마의 손끝을 만지지 않았다면 내가 엄마를 끌어안았을 것이다. 그 방에서 엄마는 '새먼 부인' 노릇을 떨치고 짧은 휴가를 얻을 수 있었다.

그가 엄마의 몸을 만지자 엄마가 몸을 돌렸다. 하지만 아직도 그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 렌은 이런 멍한 태도를 받아 주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다가 몸을 홱 돌려, 전망대에 있는 벤치로 갔다. 숨이 가빴다. 엄마가 렌의 머리칼을 쓰다듬고, 그가 엄마의 등을 끌어당겨 안을 때, 나를 죽인 자는 경찰관들을 현관까지 배웅하고 있었다. 엄마와 렌 형사는 그걸 몰랐다.

나는 엄마의 목덜미와 가슴에 쏟아지는 입맞춤을 느꼈다. 생쥐의 작고 가벼운 발걸음처럼, 꽃잎 같은 입맞춤이었다. 황폐하면서 동시에 신비로웠다. 입맞춤은 내게서, 가족에게서, 슬픔에게서 엄마를 불러내는 속삭임이었다. 엄마는 몸을 따랐다.

렌이 엄마의 손을 잡아 파이프가 엉킨 공간으로 이끈 순간, 하비 씨는 소지품을 챙기기 시작했다. 남동생은 놀이방에서 훌라후프를 돌리는 어린 여자 애를 만났다. 린지는 초조해하며 침대에 새무얼과 나란히 누워 있었다. 할머니는 텅빈 식당에서 술을 석 잔째 들이켰다. 아버지는 전화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가 재킷과 셔츠를 탐욕스럽게 벗기려 하자, 렌이 거들었다. 그는 엄마가 스스로 옷을 벗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머리 위로 스웨터를 벗은 다음, 점퍼 스커트를 벗은 다음 터틀넥을 벗었다. 엄마는 팬티와 속치마 차림이 되었다. 렌 형사가 엄마를 바라보았다.

새무얼은 린지의 목에 키스했다. 비누 냄새가 풍겼다. 그는 린지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렌이 무슨 말인가 하려 했다. 엄마는 그의 입술이 벌어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눈을 꼭 감았다. 세상을 닫아 버렸다. 머릿속에서 말은 비명이 되었다. 엄마가 다시 눈을 뜨고 렌을 보았다. 그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엄마가 머리 위로 면 속치마를 벗고, 팬티마저 벗었다. 엄마는 피부가 희고 바다 같은 눈매를 가졌다. 내가 죽지 않고 어른이 됐다면 꼭 그런 몸매를 가졌으리라. 하지만 엄마는 휑하고, 길을 잃고, 버려졌다.

하비 씨는 마지막으로 집을 떠났다. 그 사이 엄마는 당장 가장 원하는 일을 했다. 황폐한 가슴을 벗어나는 문을 찾았다. 은총과도 같은 외도 속에서.

16

내가 죽은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싱 박사는 전화해서 집에서 저녁 식사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루아나는 사정이 어떻든 운동을 하고 싶었다. 따뜻한 러그 위에서 요가를 하면서도, 남편의 부재가 마음에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자, 생각이 멋대로 휘젓고 다니도록 내버려 두었다. 결국 몸이 남편을 놔 주고 집중해서 움직이라고 청했다. 머리에서 잡념을 털어 내고 모든 걸 잊고, 몸을 숙여 손을 발끝으로 쑥 뻗어 근육이 펴지는 즐거움에 몰두했다.

식당 창 앞에는 난방용 라디에이터가 있었다. 루아나는 난방 소리가 방해가 되자, 라디에이터를 꺼 버렸다. 밖에 벚나무가 보였다. 나뭇잎과 꽃이 모두 떨어져 버렸다. 나뭇가지에 걸린 텅빈 새 모이통이 흔들렸다.

스트레칭 동작을 하다가, 자신을 잊어버렸다. 이 집도 떨어져 나갔다. 그녀의 나이도, 아들도. 하지만 그래도 그녀 안에 남편의 모습이

스멀스멀 파고들었다. 루아나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여자 때문은 아니라고 믿었다. 빈번해진 남편의 늦은 귀가는 그를 숭배하는 학생 때문도 아니었다. 루아나는 무엇 때문인지 알았다. 오래 전 상처받은 후 그녀 자신도 겪었던 일이기에. 그것은 야망이었다.

이제 소리가 들렸다. 거리 두 블록 밑에서 할리데이가 짖었고, 길버트네 개가 화답했다. 레이가 위층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곧 제스로 털의 음악이 터져 나와 다른 소리를 잠재워 버릴 터였다.

아들에게 담배를 피워도 좋다는 인식을 심어 주지 않으려고 가끔 몰래 담배를 피우는 걸 제외하면, 루아나는 건강을 잘 유지했다. 이웃 여자 중에는 어떻게 그렇게 몸매를 잘 관리하냐며 방법을 알려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루아나는 그런 요청을 동네에서 유일한 외국인인 그녀에게 말을 거는 방법이라고 치부해 버렸다. 한데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깊은 리듬에 맞춰 천천히 호흡을 하는데도, 긴장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레이가 더 크고, 남편이 일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 무슨 일을 할까 하는 생각이 발 안쪽으로 스며들어 정갱이를 지나 무릎 뒤쪽까지 올라오더니 허벅지를 파고들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루아나는 관심을 돌리게 되어 반가웠다. 그녀는 질서를 명상의 한 부분으로 삼고 있었지만, 펄쩍 일어나서 의자에 걸쳐진 숄을 집어 허리에 둘렀다. 레이가 틀어놓은 음악 소리가 계단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현관으로 나갔다. 이웃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웃이 음악 소리를 불평하러 왔으리라. 그녀는 빨간 타이츠 위에 숄을 두른 차림이었다.

현관 앞 계단에 루스가 식료품 봉지를 들고 서 있었다.

"안녕? 무슨 일이니?"

루아나가 물었다.

"레이를 만나러 왔는데요."

"들어오렴."

위층에서 나는 음악 소리 때문에 목청을 높여서 대화해야 했다. 루스가 현관으로 들어섰다.

"올라가 보렴."

루아나가 계단을 손짓하며 소리를 질렀다.

루아나가 루스의 헐렁한 작업복 바지와 터틀넥 스웨터와 파카를 유심히 보는 걸 난 눈치챘다. 루아나는 속으로 중얼댔다.

'저애부터 시작하면 되겠어.'

루스는 엄마랑 식품점에 갔을 때, 종이 접시와 플라스틱 포크와 숟가락 사이에서 양초를 봤다. 학교에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 확실히 알게 된 루스가 지금까지 한 일은 책을 읽고, 엄마를 도와 아버지는 연장 창고라고 하고 자기는 시 창고라고 부르는 곳을 청소하고, 식품점까지 쫓아간 것이 전부였다. 내 죽음을 기념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뭔가 할 작정이었다.

루스는 양초를 보자마자, 레이의 집에 찾아가서 함께 나가자고 부탁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투포환장에서 만났기 때문에, 학교 아이들은 둘이 사귄다고 여겼다. 사실 모든 정황은 그 반대인데도. 루스는 원하는 만큼 여자 나체와 머릿속에 있는 스카프를 그리고, 제니스 조플린에 관한 글을 쓰고, 다리와 겨드랑이 면도를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 페어팩스 고등학교의 반 친구들 눈에, 루스는 요상한 남자애랑 키스하다가 들킨 요상한 여자 애로 남아 있었다.

그게 두 사람이 실험해 본 거라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그들은 누

구한테 운을 뗄 수도 없었다. 레이는 나랑만 키스해 봤고, 루스는 전혀 경험이 없었다. 그래서 둘이서 키스해 보기로 합의했다.

"아무 느낌도 없는데."

나중에 루스는 교직원 주차장 뒤에 있는 단풍나무 아래 누워 말했다.

"나도 그래."

레이도 인정했다.

"수지랑 키스했을 때는 느낌이 있었니?"

"응."

"어떤?"

"더 원했어. 그날 밤, 수지랑 다시 키스하는 꿈을 꿨고, 그애도 같은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어."

"그럼 섹스는?"

"거기까지 가 보진 않았어. 이제 너랑 키스해 보니 똑같지가 않아."

레이가 말했다.

"우리 둘이 계속 노력해 볼 수 있을 거야. 네가 누구한테 말하지 않으면 난 계속할래."

"난 네가 여자 애들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레이가 말했다.

"우리 합의를 하자. 넌 나를 수지로 여겨 봐. 나도 수지처럼 굴게."

루스가 말했다.

"완전히 돌았구나."

레이가 씩 웃으며 말했다.

"그러기 싫다는 거야?"

루스가 놀렸다.

"네가 그린 그림 좀 보여 줘."

"내가 돌았을지도 모르겠다."

루스는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다. 「플레이보이」지에서 베낀 나체 그림이 많았다. 여러 신체 부위에 털과 주름을 그려 넣은 그림이었다.

"그래도 성도착자는 아니야."

루스가 들어갔을 때 레이는 방을 빙빙 돌면서 춤추고 있었다. 그는 안경을 끼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되도록이면 안경을 안 끼려고 했다. 아버지가 싸고 테가 부러지지 않는 안경을 사 주었기 때문에 알이 두꺼웠다. 헐렁한 청바지에는 얼룩이 있고, 잘 때 입은 티셔츠를 그대로 입고 있었다.

레이는 봉지를 들고 문간에 서 있는 루스를 보자마자 춤을 멈췄다. 그러고는 곧 안경을 벗었다. 손에 안경을 들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안경을 흔들며 인사했다.

"왔구나."

"볼륨 좀 줄여 줄래?"

"그래!"

음악 소리가 멎은 후에도 루스는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다. 그 순간, 루스는 레이의 눈이 반짝이는 걸 봤다.

그는 방 저쪽에 서 있었고, 둘 사이에는 시트가 둘둘 말려 있는 침대가 놓여 있었다. 벽에는 루스가 기억으로 그린 내 그림이 붙어 있었다.

루스가 말했다.

"저걸 걸어 놨구나."

"진짜 좋은 것 같아서."

"너랑 나만 그렇게 생각하지 딴 사람은 안 그래."

"우리 엄마는 좋다고 하셔."

루스가 봉투를 내려놓으면서 대꾸했다.

"독특한 분이야. 네가 별종인 것도 이해가 돼."

"봉투에 뭐가 들었니?"

"양초. 식품점에서 샀어. 오늘이 12월 6일이거든."

"나도 알아."

"옥수수밭에 가서 초를 켤까 해서. 작별 인사를 하려고."

"몇 번이나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을까?"

"그냥 생각해 본 거야. 혼자 갈게."

"아냐, 나도 갈게."

레이가 말했다.

루스는 파카를 입은 채로 앉아서, 레이가 셔츠를 바꿔 입는 동안 기다렸다. 그가 등을 돌리고 서서 옷을 갈아입었다. 루스는 그가 말랐지만 남자답게 팔 근육이 발달했다는 생각을 했다. 피부색도 보기 좋았다.

"네가 원한다면 키스해도 괜찮은데."

루스가 말하자, 레이가 웃으면서 몸을 돌렸다. 레이는 키스 실험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내 생각을 하지 않았다. 루스에게 그 말은 못했지만.

레이는 루스가 학교를 욕하고 싫어하는 게 좋았다. 영리한 것도 마음에 들었다. 또 루스가 의사(루스가 진짜 의사는 아니라고 지적하긴 했지만)인 자기 아버지를 부러워하지 않으며, 낡은 집을 부수고 재활용품이나 가져오는 그녀의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도 좋았다. 자

기 집에 잔뜩 쌓인 책들을 부러워하면서도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는 것이 좋았다.

레이는 루스 옆에 앉았다.

"파카를 벗고 싶니?"

루스는 파카를 벗었다.

그래서 내 1주기 추도일에 레이는 루스에게 반했고, 둘은 키스했다. 루스가 그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느낌이 오는 것 같아."

옥수수밭에 도착한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레이가 루스의 손을 잡고 있었다. 루스는 그게 내 죽음을 함께 애도하기 때문인지, 레이가 자기를 좋아해서인지 몰랐다. 루스의 머리에는 폭풍이 몰아쳤다. 평소의 통찰력은 사라져 버렸다.

그때 루스는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걸 알았다. 할과 새무얼 헤클러가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옥수수밭에 서 있었다. 그들은 등을 돌리고 있었다. 루스는 땅바닥에 놓인 노란 수선화를 봤다.

루스가 새무얼에게 물었다.

"네가 꽃을 가져왔니?"

"아니. 우리가 여기 왔을 때 벌써 있던걸."

할이 동생 대신 대답했다.

스테드 부인은 위층 침실에서 옥수수밭을 내다봤다. 코트를 입고 나가 보기로 했다. 그녀가 이 동네 주민이든 방문객이든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레이스 타킹은 동네를 돌다가, 포인세티아 화분을 들고 집을 나서는 스테드 부인을 봤다. 그들은 길에 서서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그레이스 타킹은 집에 들렀다가 옥수수밭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그레이스는 전화를 두 통 걸었다. 한 통은 남자 친구에게, 한 통은 길버트 부부에게 걸었다. 그녀의 남자 친구는 멀지 않은, 제법 잘사는 동네에 살고 있었다. 길버트 부부는 내 죽음을 발견하는 데 묘한 역할을 한 일로 아직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들의 개가 첫 번째 증거를 발견했으니까. 그레이스는 함께 가자고 했다. 길버트 부부가 나이가 많아서, 이웃집 잔디밭을 지나 울퉁불퉁한 옥수수밭에 가는 게 힘들 수도 있었다. 하지만 길버트 씨는 가겠다고 나섰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아내가 특히 그렇다고. 사실 내가 보기엔 길버트 씨가 더 힘들어했다. 그는 늘 아내를 잘 보살피는 것으로 자기 고통을 감췄다. 부부는 개를 보내 버릴까 잠시 고민했지만, 개가 주는 위안이 커서 그럴 수도 없었다.

길버트 씨는 레이가 알고 있는지 궁금했다. 레이는 부부의 심부름을 잘 해 주는 착한 소년인데, 내 사건으로 공연한 오해를 받았다. 그가 싱 씨 집에 전화를 걸었다. 루아나 싱은 아들이 벌써 옥수수밭에 갔을 거라며, 그녀도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린지는 창 밖을 내다보다가, 그레이스 타킹이 길버트 부인의 팔을 부축하고 걷는 광경을 보았다. 그레이스의 남자 친구는 길버트 씨의 팔을 붙잡았다. 네 사람은 오드와이어네 잔디밭을 지나고 있었다.

린지가 말했다.

"옥수수밭에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엄마."

엄마는 몰리에르의 작품을 읽고 있었다. 대학 때 열심히 읽던 책인데 졸업 후 통 보지 못하고 지냈다. 곁에는 엄마를 '아방가르드(전위적인) 학부생'으로 낙인찍게 한 책들이 쌓여 있었다. 사르트르, 콜레트, 프루스트, 플로베르. 엄마는 침실 서가에서 그 책들을 골랐고, 그해에

다시 읽겠다고 다짐했다.

엄마가 린지에게 말했다.

"난 관심 없다. 하지만 아빠는 집에 오시면 관심을 가지시겠지. 올라가서 동생이랑 놀지 그러니?"

몇 주째 린지는 엄마가 가 보라는 신호를 보내는데도, 주위를 맴돌았다. 얼음장 같은 표면에 뭔가 있었다. 린지는 확신했다. 엄마 곁을 떠나지 않고, 옆에 앉아서 창 밖으로 우리 이웃 사람들을 내다보았다.

어둠이 내리고, 늦게 합류한 사람들이 밝힌 촛불이 옥수수밭을 환하게 비추었다. 유치원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내가 알거나 교실에서 옆에 앉았던 사람이 다 모인 것 같았다. 보트 선생님은 다음 날 할 동물 실험 수업 준비를 마치고 퇴근하다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봤다. 옥수수밭으로 가다가, 무슨 일인지 알고 다시 학교로 들어가 전화를 걸었다. 내 죽음을 슬퍼하는 행정실 비서가 있었다. 보트 선생님의 전화를 받은 그녀는 아들을 데리고 왔다. 학교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선생님 몇 사람도 왔다.

추수 감사절 밤, 하비 씨가 용의자라는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다. 다음 날 오후, 이웃 사람들은 그 이야기만 했다. 그가 범인일까? 이상하긴 해도 조용히 살았던 그가 정말 수지 새먼을 죽였을까? 하지만 우리 집에 와서 자세한 정황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동네 사람들끼리 아는 게 있냐고 서로 물을 뿐이었다. 경찰이 하는 일을 아는 사람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내 추도식은 나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이웃끼리 서로 위로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살인범이 동네에 살았고, 거리에서 그들과 마주쳤다. 걸스카우트인 그들의 딸들에게서 과자를 사고, 아들들이 권하는 잡지 구독 신청을 했으니…….

점점 많은 사람이 옥수수밭에 모여들어 촛불을 켜자, 천국에서 나는 열기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오드와이어 씨가 더블린 출신 할아버지에게 배운 장송곡을 부르자, 모두 콧노래로 따라 불렀다. 오드와이어 씨가 목청을 높이자 학교 행정직원이 나직이 따라부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루아나 싱은 아들과 멀찍이 떨어져 외곽에 서 있었다. 그녀가 집에서 나올 때, 싱 박사가 전화해서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퇴근한 다른 아버지들은 차도에 주차시키고, 이웃들을 따라 옥수수밭으로 왔다. 그들은 어떻게 가족을 부양하면서 동시에 자녀들의 안전을 챙길지 고민했다. 아무리 단속을 해도 위험하다는 걸 그들 모두는 알고 있었다. 내가 당한 일은 누구라도 당할 수 있었다.

아무도 우리 집에 전화해 성가시게 하지 않았다. 지붕, 굴뚝, 장작더미, 차도, 담장 주위에 벽을 두른 것 같았다. 겨울에 비가 내렸다가 추워져서, 나무에 투명한 얼음이 얼어버린 것처럼. 우리 집은 단지 안의 다른 집과 같았지만, 완전히 달랐다. 살인에는 핏빛 문이 있었다. 누구도 상상 못할 일의 저편에 붉은색 문이 나 있었다.

하늘이 장밋빛으로 물들 무렵, 린지는 무슨 일인지 알아차렸다. 엄마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수지 언니를 위해 추도식을 하고 있어요. 들어 보세요."

린지는 창문을 열었다. 12월의 찬 공기가 들어왔고, 멀리서 노랫소리가 들렸다.

엄마는 있는 힘을 다 내서 말했다.

"우린 추도식을 했잖니. 그만하면 됐다."

"뭐가 됐는데요?"

엄마는 노란 의자의 팔걸이에 팔꿈치를 올렸다. 엄마가 몸을 가볍게 숙이자 얼굴이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린지는 엄마의 표정을 알아보기가 힘들었다. 엄마가 대답했다.

"수지가 저기서 우릴 기다릴 것 같지 않아. 촛불을 밝히고 저런 행사를 하는 게 수지를 추도한다는 생각도 안 들고. 다른 방법으로 추도할 수도 있잖니."

"어떤 방법이요?"

린지가 물었다.

린지는 바닥에 책상다리를 하고 엄마 앞에 앉았다. 엄마는 책의 읽던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고 있었다.

"난 엄마 이상이 되고 싶다."

린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기도 여학생 이상이 되고 싶었으니까.

엄마는 몰리에르 작품집을 커피 탁자에 내려놓고, 바닥에 앉았다. 나는 엄마의 이런 행동에 깜짝 놀랐다. 평소에 엄마는 바닥에 앉지 않았다. 고지서를 처리하는 작은 책상이나 안락 의자에 앉았다. 할리데이를 끼고 소파 끝에 앉거나.

엄마가 두 손으로 린지의 손을 잡았다.

린지가 물었다.

"우릴 두고 떠날 거죠?"

엄마는 흔들렸다.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대신 거짓말을 했다.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엄마가 가장 원하는 것은 다시 자유로운 아가씨가 되는 일이었다. 백화점 그릇 코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웨지우드 커피잔 손잡이

를 깨서 매니저 몰래 숨기고, 보봐르와 사르트르처럼 파리에서 사는 꿈을 꾸고…… 집에 돌아와 얼간이 잭 새면 생각을 하는 자신을 비웃고. 잭은 담배를 싫어하긴 해도 꽤 귀여웠다. 그녀가 파리의 카페는 담배투성이라고 말하자, 잭은 깊은 인상을 받은 눈치였다. 여름이 끝날 무렵, 그녀는 잭을 초대했고 둘은 사랑을 나누었다. 둘 다 첫 경험이었다. 그녀가 담배를 피우자, 잭은 자기도 농담 삼아 한 대 피워야겠다고 했다. 그녀는 깨진 웨지우드 잔을 재떨이로 주면서, 그릇을 깨고 코트 속에 감춰 온 사연을 그럴듯하게 꾸며 이야기했다.

"이리 와 봐라, 우리 딸."

엄마가 말하자, 린지는 시키는 대로 했다. 엄마의 가슴에 몸을 기대자, 엄마는 어색하게 몸을 흔들어 주었다.

"린지, 넌 잘 하고 있어. 네가 아빠를 살리고 있는 거야."

그때 집 앞 차도에 차가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렸다.

린지를 품에 안고서, 엄마는 루아나 싱을 떠올렸다. 집 뒤에서 담배를 피우는 그녀를, 향긋한 던힐 담배 냄새가 길에 감돌자, 엄마의 마음은 멀리 날아갔다. 아버지를 만나기 전의 애인은 골르와라는 담배를 좋아했다. 잘난 체하는 사람이었지만, 나름대로 진중한 면이 있어서 그녀도 진지한 태도로 대하게 만들었다.

린지가 창 밖으로 눈을 돌리며 물었다.

"촛불이 보여요, 엄마?"

"가서 아빠를 모셔 와라."

엄마가 말했다.

린지는 장화와 외투를 보관하는 장 앞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는 열쇠와 코트를 걸고 있었다. 아버지는 당연히 가겠다고 했다. 물

론 둘 다 가고 싶었다.

"아빠!"

버클리가 2층에서 부르자, 린지와 아버지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버클리가 달려들어 몸을 부딪히자, 아버지가 말했다.

"네가 봐야 될 차례인데."

"쉬쉬하는 데 지쳤어요. 버클리만 모르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요. 수지 언니는 없어요. 버클리도 알아요."

린지가 말했다.

버클리가 누나를 올려다봤다.

"수지를 위한 모임이 있어. 나랑 아버지가 널 데려갈 거야."

린지가 말했다.

버클리가 물었다.

"엄마는 아파?"

린지는 거짓말하기 싫었지만, '아프다'는 게 그 아이가 아는 바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말 같기도 했다.

"그래."

린지는 아버지와 아래층에서 만나기로 했다. 먼저 버클리를 방에 데려가서 옷을 갈아입혀야 했다.

"난 누나랑 만나."

린지가 버클리를 쳐다보았다. 남동생이 설명했다.

"작은누나가 축구하러 가면, 큰누나가 와서 나랑 이야기하면서 같이 있어 줘."

린지는 달리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몰라서, 버클리를 끌어안았다. 버클리가 가끔 할리데이를 덥석 안는 것처럼.

"넌 정말 특별해. 무슨 일이 있어도 누나가 늘 옆에 있을게."

린지가 말했다.

아버지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계단 밑에 닿을 때까지 난간을 놓지 않았다. 엄마는 책을 들고 조용히 식당으로 갔다. 거기 있으면 아버지와 마주치지 않을 터였다. 엄마는 가족을 피해 식당 구석에 서서 책을 읽었다. 현관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나기를 기다리면서.

이웃들, 선생님들, 친구들은 내가 죽은 곳에서 가까운 곳에 모여 있었다. 아버지와 동생들이 집 밖에 나오자, 다시 노랫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안의 모든 것이 밝고 따스함을 향해 쏠렸다. 아버지는 내가 모두의 마음속에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나는 지켜보면서 알게 됐다. 모든 사람이 내게 작별을 고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실종된 소녀가 되고 있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나를 쉬게 하리라. 다시 펼치거나 다시 쓰지 않을 과거의 편지처럼. 나도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행운을 빌고, 축복을 빌어 줄 수 있었다. 거리에서 악수를 나누고, 물건을 떨어뜨리면 누군가 주워서 돌려 주고, 멀리 창가에서는 다정하게 손을 흔들고, 목례와 미소가 오가고…… 아이의 익살스런 몸짓에 시선이 얽혀드는 그런 순간처럼.

루스가 맨 먼저 우리 가족을 보고, 레이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가서 도와 드려."

루스가 속삭이자, 레이가 앞으로 나갔다. 그는 범인을 찾는 긴 여정이 시작된 첫날 우리 아버지를 만났다. 새무얼도 다가왔다. 젊은 사제들처럼 그들은 우리 아버지와 린지, 버클리를 사람들 속으로 안내했다. 사람들은 비켜섰고 사방이 조용해졌다.

몇 달 동안 아버지는 직장에 오갈 때 외에는 집에서만 지냈다. 가끔 뒷마당에 나가 앉아 있는 정도였다. 이제 아버지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았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의 마음에 따스함이 차 올랐다. 버클리와 잠시 사랑을 나눌 때를 제외하면, 오랜만에 느끼는 푸근함이었다.

아버지가 오드와이어 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드와이어 씨, 수지는 여름에 당신이 마당에서 노래할 때면 창가에 서서 듣곤 했어요. 우리를 위해 노래해 주겠어요?"

이런 종류의 은총이 내리기도 하지만, 정말 간절히 바랄 때, 사랑하는 이가 죽지 않게 해 달라고 할 때 은총은 없다. 오드와이어 씨는 첫 소절은 불안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청아한 소리로 멋지게 노래했다.

다들 따라 불렀다.

아버지가 말한 여름밤이 기억났다. 어두워지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던가. 시원해지리라는 기대로 밤이 되기를 기다리곤 했다. 가끔 현관홀의 열린 창 앞에 서 있으면 바람이 느껴졌다. 오드와이어네 집에서 불어오는 음악이라는 바람이었다. 오드와이어 씨가 부르는 아일랜드 노래를 듣고 있노라면, 바람에 흙과 공기, 이끼 냄새가 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곧 천둥 번개가 친다는 걸 의미했다.

잠시 고요한 순간이 있었다. 린지는 자기 방 소파에 앉아서 공부하고, 아버지는 자기 방에서 책을 읽고, 엄마는 아래층에서 바느질이나 설거지를 했다.

나는 긴 잠옷으로 갈아입고 뒷문에 나가는 걸 좋아했다. 굵은 빗방울이 지붕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 잠옷 자락을 휘감았다. 시원하고 쾌적해졌다. 그러면 번개가 치고, 잠시 후에는 천둥 소리가 났다.

엄마도 문 앞에 서서, 늘 하는 말을 했다.

"그러다 감기 들면 큰일난다."

그리고는 입을 다물었다. 우리는 빗소리와 천둥 소리를 들었다. 흙냄새가 풍겼다.

어느 밤 엄마가 말했다.

"넌 못 말리는 아이야."

난 이런 때가 좋았다. 우리가 똑같이 느낄 때. 나는 엄마에게 몸을 돌리고 말했다.

"맞아요."

스냅사진

나는 부모님에게 받은 카메라로 가족의 스냅사진을 많이 찍었다. 어찌나 많이 찍어 댔던지, 아버지는 어떤 필름을 인화할 건지 고르라고 했다. 인화 비용이 많이 들자, 나는 옷장에 상자 두 개를 넣고, '사진관에 보낼 필름'과 '보관용 필름'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엄마는 정리 정돈을 잘하는 게 내 진면목이라고 했다.

플래시큐브(섬광 전구 4개가 차례로 발광하는 장치 : 역주)가 터지는 게 좋았다. 그 순간, 사진이 없으면 사라져 버릴 장면이 포착되니까. 나는 플래시를 다 쓰면 뜨거울 때 빼서 가족들에게 돌렸다. 터진 플래시의 필라멘트는 푸르스름한 색으로 변하거나 검게 탈 때도 있었다. 카메라로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시간을 멈춰 간직하는 길임을 알게 됐다. 누구도 그 이미지를 빼앗아 가지 못했다. 그 순간은 내 것이니까.

1975년 여름, 어느 저녁, 엄마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바다에서 사랑을 나눠 본 적 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했다.

"아니."

"나도 없어요. 우리 여기가 바다인 것처럼 생각해 봐요. 내가 떠나면 다시는 못 만날지도 몰라요."

엄마가 말했다. 다음 날 엄마는 뉴햄프셔에 있는 외할아버지의 통나무집으로 떠났다.

그해 여름, 린지나 버클리,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면 계단에 음식 냄비나 케이크가 놓여 있곤 했다. 가끔 사과 파이도 있었다.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지만 음식맛은 예측 불가였다. 스테드 부인의 냄비 요리는 끔찍했다. 길버트 부인의 케이크는 지나치게 촉촉했지만 맛이 괜찮았다. 루아나 싱의 사과 파이는 천국의 맛이었고.

엄마가 떠난 후 아버지는 서재에서 오래 머물며, 남북 전쟁 당시 메리 체스트넛이 남편에게 쓴 편지를 읽는 데 정신을 쏟으려 애썼다.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희망도 갖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버지가 싱긋 웃은 건 그동안 딱 한 번이었다.

아버지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루아니 싱의 사과 파이는 끝내준다.'

어느 가을날 오후, 아버지는 린 할머니의 전화를 받았다.

"잭, 자네 집에 가서 지내려 하는데, 어떤가?"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자네와 아이들을 돌봐 주고 싶어서 그러네. 이 무덤 같은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도 지겹고 말이지."

아버지가 머뭇머뭇 말했다.

"장모님, 저희는 이제 막 다시 시작하는 참인데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버클리를 네이트의 엄마에게 맡길 수는 없었다. 엄마가 떠난 지 4개월. '잠시'의 이별이 '영원히'로 바뀔지도 몰랐다.

할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나는 할머니가 잔에 남은 보드카를 마시지 않으려고 참는 것을 보았다.

"술 때문이라면……."

외할머니는 깊이 생각한 후 말을 이었다.

"5시가 넘은 후에나 마시겠네……. 쳇, 필요하다면 완전히 끊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할머니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럼, 알지. 알고 있네."

전화를 끊은 후에야 아버지는 생각했다. 장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가족 모두 고민이었다.

1975년 12월, 하비 씨가 짐을 싸서 사라진 지 1년이 지났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한동안 그의 얼굴 포스터가 상점마다 나붙었다. 주인들은 종이가 찢어지고 테이프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포스터를 붙여 두었다. 린지와 새무얼은 동네에서 산책을 하거나 할의 오토바이 가게에서 시간을 보냈다. 내 동생은 다른 애들이 가는 식당에 가기를 꺼려했다. 식당 주인은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는 하비 씨의 얼굴 그림을 두 배로 확대해서, 가게 문에 붙였다. 그는 손님이 묻기라도 하면 지나치게 자세히 이야기했다. 여학생이 옥수수밭에서 일을 당했는데, 팔꿈치만 발견됐다고.

마침내 린지는 할에게 경찰서까지 태워 달라고 부탁했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 알아 보고 싶었다.

새무얼이 오토바이 가게에 남고, 둘은 눈 내리는 12월의 공기 속을 달렸다.

처음부터 경찰은 린지를 어린애로 여기고 가볍게 대했다. 하지만 그애가 누구인지 알게 되자, 다들 피했다. 성난 똑똑한 열다섯 살짜리 소녀. 가슴은 봉긋하고, 다리는 가늘지만 곡선미가 있었다. 꽃잎 같은 눈은 조약돌처럼 반짝였고.

린지와 할은 서장실 밖에 놓인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린지는 저쪽에 놓인 뭔가가 신경에 거슬렸다. 곧 그게 뭔지 파악했다. 그것은 퍼너먼 형사의 책상에 놓여 있었다. 복잡한 경찰서 안에서 눈에 띈 것은 색깔 때문이었다. 엄마는 그 색을 '중국 빨강색'이라고 불렀다. 장미빛보다 더 붉은 색으로, 립스틱에 많은 색깔이었다. 자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색상이었다. 우리 엄마는 '중국 빨강색' 스카프를 맬 때마다 자부심을 느꼈다. 린 할머니도 시도하지 못하는 색상이었다.

린지는 퍼너먼 형사의 책상에 놓인 낯익은 물건을 보면서 차츰 근육이 뻣뻣해졌다.

"할."

"응."

"저기 빨간 천 보이지요?"

"응."

"가서 나한테 갖다 줄래요?"

할이 빤히 쳐다보자 린지가 덧붙였다.

"엄마 스카프 같아서요."

할이 스카프를 가지러 가려고 일어났을 때, 렌 퍼너먼이 린지 등 뒤

에서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린지의 어깨를 두드리는 순간, 할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아차렸다. 린지와 렌 형사는 서로 쳐다봤다.

"엄마 스카프를 왜 형사님이 갖고 계세요?"

그는 말을 더듬었다.

"저번 날 내 차에 놓고 가셨나 봐."

린지가 일어나서 그와 마주섰다. 내 동생의 또렷한 눈빛은 최악의 소식을 향해 달려갔다.

"엄마가 형사님 차에서 뭘 했죠?"

"잘 있었어, 할?"

렌이 할에게 말을 걸었다.

할은 스카프를 손에 들고 있었다. 린지가 그것을 낚아채며, 성난 투로 물었다.

"왜 형사님이 우리 엄마의 스카프를 갖고 있냐고요?"

렌이 형사이긴 했지만, 할이 먼저 알았다. 린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동생은 수학 시간이나 영어 시간에 X값이 얼마인지,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되는 단어가 뭔지, 학급에서 맨 먼저 알았다. 그 때처럼 린지의 머리를 퍼뜩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할은 린지의 어깨를 잡아 끌었다.

"저희는 가 봐야겠어요."

할이 말했다.

나중에 린지는 오토바이 가게 뒷방에서, 새무얼에게 믿기 힘든 일을 털어놓으며 흥분을 터뜨렸다.

버클리는 일곱 살이 되자, 날 위해 요새를 지어 주었다. 우리 둘이 언제나 같이 요새를 짓자고 마음으로 말했다. 아버지는 이제 버클리

와 요새를 지으며 놀아 주지 않았다. 그걸 보면 종적을 감춘 하비 씨가 지은 천막이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비 씨의 집으로 딸이 다섯 있는 집이 이사를 왔다. 하비 씨가 도망친 후 봄에 아이들이 수영장에 물을 채우고 깔깔대는 소리가 아버지의 서재까지 퍼졌다. 여자 애들 웃음소리…… 다른 집 딸들이 웃는 소리.

아버지의 귀에는 유리 깨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1976년 봄, 엄마가 집을 떠난 후 아버지는 아무리 더워도 서재의 창문을 닫았다. 아버지는 갯버들나무 사이에서 혼잣말을 하며 노는 외로운 아들을 지켜봤다. 버클리는 차고에서 토분을 죄다 끌어냈다. 집 한쪽에 팽개쳐져 있던 부츠털이개까지 꺼내 왔다. 요새를 지을 벽으로 쓸 만한 건 뭐든 챙겼다. 동생은 새무얼과 할, 린지의 도움으로, 차도에서 뒷마당까지 커다란 벽 두 개를 세웠다. 갑자기 바람이 불자, 새무얼은 새로운 생각을 했다.

"지붕을 덮으면 어떨까?"

버클리는 놀라서 그를 올려다봤고, 할은 오토바이 가게에 있는 양철판을 떠올렸다. 골진 양철판 두 장이 벽에 세워져 있었다.

이제 무더운 밤, 아버지는 마당을 내려다봐도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버클리는 요새 안에 들어가 있었다. 안으로 기어 들어가, 토기 그릇을 당기고, 판자를 세워서 지붕을 떠받쳤다. 책을 읽을 만한 빛이 들어왔다. 할은 판자문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출입 금지'라고 써 주었다.

버클리는 '어벤저'와 'X맨'을 읽었다. 우주에서 가장 강한 금속으로 만들어서 하룻밤 새 치료가 되는 월버린이 되는 꿈을 꾸었다. 기분이 묘할 때는 날 생각하곤 했다. 내 동생은 내 목소리를 그리워했고,

내가 집에서 나타나 요새 지붕을 두드리며 들어가게 해 달라고 말하기를 바랐다. 가끔 새무얼과 린지가 더 오래 같이 있거나 아버지가 전처럼 놀아 주기를 바랐다. 가족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에는 걱정스런 표정이 있었다. 버클리는 힘없는 사람이 강한 인조인간으로 변하거나, 눈의 광선이나 마법 망치를 이용해서 힘을 얻고 높은 건물로 기어오르는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화가 나면 헐크가 되고, 편안할 때는 스파이더맨이 됐다. 마음이 아프면, 어린 소년이 아니라 더 강한 존재로 변했다. 내 동생은 그런 식으로 자랐다. 마음이 돌이 되고, 돌이 마음이 됐다. 린지와 내가 외할머니 등 뒤에서 눈을 허옇게 굴리며 인상을 찌푸릴 때 할머니가 했던 말이 기억났다.

"표정을 지을 때는 조심해라. 그렇게 굳어 버리니까."

어느 날 2학년인 버클리는 학교에서 이야기를 지은 종이를 들고 집에 왔다.

'옛날에 빌리라는 아이가 살았다. 빌리는 모험을 좋아했다. 구멍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 끝.'

아버지는 아들의 이런 면을 보자 속이 상했다. 버클리는 엄마 흉내를 내느라, 이야기가 적힌 종이를 냉장고에 붙여 놓았다. 전에 자신이 그린 그림 사이에. 하지만 버클리는 자기가 지은 이야기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다. 선생님의 반응이 묘했다. 선생님은 글을 읽더니, 만화책에 나오는 그림처럼 깜짝 놀라며 다시 쳐다봤다. 버클리는 종이를 냉장고에서 떼서 옛날 내 방으로 가져갔다. 외할머니는 아래층에 있었다. 버클리는 종이를 반듯하게 접어서, 이제는 텅빈 내 침대 안쪽에 넣었다.

1976년 가을 꽤 더운 날, 랜 퍼너먼 형사는 증거물 보관실에 갔다.

하비 씨네 집 바닥에서 나온 이웃 애완견들의 뼈가 보관실 금고에 있었다. 생석회를 뿌렸다는 감식반의 확인서도 함께 있었다. 렌 형사는 수사를 지휘했지만, 아무리 땅을 깊게 파도 하비 씨의 집에서 다른 뼈는 나오지 않았다. 차고 바닥의 핏자국이 유일한 내 흔적이었다. 그는 몇 주일 아니 몇 달간 린지가 훔친 스케치 복사본을 들여다봤다. 팀을 옥수수밭에 보내서, 다시 땅을 파게 했다. 마침내 그들은 옥수수밭 끝 쪽에서 콜라병을 찾아 냈다. 하비 씨의 지문이 묻어 있었다. 그의 집 곳곳에서 찾아 낸 지문과 맞아떨어졌다. 또 병에는 출생 증명서에 있는 내 지문과 똑같은 지문도 묻어 있었다. 그는 확신했다. 처음부터 잭 새먼의 주장이 옳았음을.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하비 씨를 추적해도, 그는 집을 벗어남과 동시에 공중으로 증발한 것 같았다. 어디에도 그 이름이 없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하비 씨는 인형 집을 남기고 떠났다. 그래서 렌은 인형 집을 판매 대행해 준 사람에게 전화했다. 그는 여러 가게에서 주문을 받아 주고 수수료를 챙겼다고 했다. 또 부자들이 자기 집의 모형을 주문한 적도 있었다. 하비 씨의 흔적은 없었다. 인형 집에 들어가는 모형 의자와 문, 유리, 놋쇠용품, 나무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연락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렌 형사는 경찰서 지하실에 놓인 썰렁한 책상에 증거물을 놓고 앉았다. 아버지가 만든 전단 더미를 들여다봤다. 그는 최근 우리 동네가 개발되고 있는 데 희망을 걸었다. 땅을 갈아엎고 있으니, 단서가 될 만한 게 나올 수도 있었다.

증거물 상자 밑바닥에 내 귀마개가 든 봉지가 있었다. 그가 그걸 내밀자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언제부터 엄마에게 사랑을 느

꼈는지 정확히 집어내지 못했다. 그가 우리 거실에 왔을 때 엄마가 종이에 사람을 막대기처럼 그린 순간이었다는 걸 난 알았다. 버클리와 네이트가 팔을 맞대고 소파에서 자던 그날…… 렌 형사는 나를 살해한 범인을 잡으려고 애썼지만 실패했다. 그는 우리 엄마를 사랑하려고 애썼지만 실패했다.

렌 형사는 린지가 훔쳐 낸 옥수수밭 그림을 쳐다보며 깨달았다. 그의 부주의로 살인범이 줄행랑을 쳤다. 아무도 그런 말은 안 했지만, 그날 엄마랑 쇼핑몰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지 하비가 도망친 것은 그의 책임이었다.

렌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그가 맡았던 미해결 사건의 피해자 사진을 꺼냈다. 그 중에는 아내의 사진도 있었다. 사진을 뒤집어서 '끝'이라고 적었다. 이제 누구 짓인지, 왜 그랬는지, 어떻게 그랬는지 알아 낼 날을 기다리지 않으리라. 아내가 자살한 이유도 알아 내지 못하리라. 이 많은 아이들이 실종된 이유도 밝히지 못하리라. 내 사건 증거물과 함께 사진 모두를 상자에 넣었다. 불을 끄고 서늘한 방에서 나왔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게 있었다.

1976년 9월 10일 코네티컷에서 사냥꾼이 도로에서 반짝이는 물건을 발견했다. 내 팔찌에 달렸던 펜실베이니아 돌이었다. 그는 부근에서 곰이 땅을 파다 만 흔적도 보았다. 땅 위로 나온 것은 틀림없이 아이의 발 뼈였다.

엄마는 뉴햄프셔에서 한 해 겨울만 지내고, 차를 몰아 캘리포니아로 가겠다는 생각을 했다. 늘 해 보고 싶었지만 못해 본 일이었다. 뉴햄프셔에서 만난 남자가, 샌프란시스코 위쪽의 계곡에 와인 제조지가

있는데 거기 가면 일자리가 있다고 말해 주었다. 일을 얻기가 쉬웠고, 육체 노동인데다가, 원하면 이름을 숨기고 지낼 수 있었다. 이 세 가지 모두 엄마의 마음에 들었다.

이 남자는 잠자리를 하고 싶어 했지만 엄마는 거절했다. 그즈음, 엄마는 그게 길이 아님을 알았다. 렌 형사와 쇼핑몰 배관실에서 관계를 하던 때부터, 엄마는 두 사람 사이에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다. 그를 느낄 수조차 없었다.

캘리포니아로 갈 짐을 꾸린 엄마는 도중에 들리는 곳마다 린지와 버클리에게 엽서를 보냈다. '안녕. 엄마는 데이턴에 있단다. 오하이오 주의 새는 홍관조란다.', '어제 해질녘에 미시시피 강에 도착했단다. 강이 정말 크구나.'

떠난 곳으로부터 여덟 주를 지나서 애리조나에 도착하자 호텔방을 잡았다. 다음 날 캘리포니아 입성을 자축하려고 샴페인을 사 왔다. 호텔 복도에 비치된 얼음 기계에서 얼음을 떠와서 샴페인을 차갑게 했다. 엄마는 뉴햄프셔에서 만난 남자가 한 말을 떠올렸다. 그는 1년 내내 땅에 누워 칼로 와인통의 곰팡이를 긁어 내는 일을 했다. 곰팡이는 붉은색인데, 아무리 빡빡 문지르고 닦아도 몇 시간 후까지 초파리들이 꼬여들었다고 했다.

엄마는 플라스틱 컵에 샴페인을 따라 마시다가 거울을 봤다. 억지로 얼굴을 쳐다봤다.

12월 31일 밤, 우리 집 거실 광경이 기억났다. 나, 린지, 버클리, 아빠까지 우리 다섯 식구는 밤을 샜다. 엄마는 버클리가 미리 낮잠을 자게 했다.

어두워진 후 일어난 버클리는, 그날 밤에 산타할아버지보다 멋진 사람이 온다고 믿었다. 동생은 굉장한 명절의 환상을 품고 있었다. 누

군가 와서 장난감 나라로 데려갈 거라고 기대했다.

몇 시간 후, 버클리는 하품을 하면서 엄마 무릎에 엎드렸다. 엄마는 머리를 쓰다듬어 줬고, 아버지는 부엌에 가서 코코아를 만들었다. 나랑 린지는 초콜릿 케이크를 준비했다. 시계가 자정을 알리자, 멀리서 외침 소리가 났다. 이웃에서 쏘는 폭죽 소리도 몇 방 울렸다. 버클리는 믿지 못했다.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자, 엄마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당황했다. 아들이 '겨우 이거야?' 라고 생각할 것 같았다.

엄마는 그날 아버지가 버클리를 안고 '올드 랭 사인'을 부르기 시작하던 일을 기억했다. 우리도 따라 불렀다.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여, 작별이란 웬 말인가, 가야만 하는가. 어디 간들 잊으리요, 두터운 우리 정. 다시 만날 그날 위해 노래를 부르자……."

버클리는 우리를 빤히 쳐다봤다. 못 들어 본 노래였다.

"무슨 노래야?"

버클리는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올드 랭 사인'이 무슨 뜻이에요?"

나도 노래 제목의 뜻을 몰라서 부모님에게 물었다.

"옛 시절이란 뜻이지."

아버지가 대답했다.

"지나간 날이란 뜻이야."

엄마가 거들었다. 갑자기 엄마는 케이크 가루를 반죽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말했다.

"여보, 이제 어떡할까?"

엄마는 모임을 끝내자는 말로 알아들었다.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서

더니, 내게 뒷정리를 도와 달라고 했다.

1976년 가을, 엄마는 캘리포니아에 도착하자 곧장 해변으로 가서 차를 세웠다. 나흘간 가족들 사이를 달려온 기분이었다. 말다툼 벌이는 가족들, 소리치는 가족들, 비명 지르는 가족들, 하루하루 기적 같은 노력을 하며 사는 가족들. 엄마는 차에 앉아 파도를 보자 마음이 놓였다. 대학 시절 읽은 책들이 생각났다. 『각성 *The Awakening*』(케이트 초핀이 지은 여성주의 소설 : 역주), 버지니아 울프라는 작가가 겪은 일도 떠올랐다. 주머니에 돌을 넣고 물로 들어가는 것이(버지니아 울프는 그렇게 자살했다 : 역주) 당시에는 멋지고 낭만적으로 보였다.

스웨터를 허리에 느슨하게 매고, 절벽으로 내려갔다. 밑으로 깔쭉한 바위와 파도만 보였다. 나는 엄마의 발을 지켜봤다. 엄마가 미끄러질까 걱정스러웠다.

엄마가 원하는 것은 파도가 치는 곳에 가 보는 것이었다. 서부에 가서 바다에 발을 담그는 것만 생각했다. 세례받는 것처럼. 쏴악!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 혹시 인생은 체육관에서 나무 조각을 이리저리 옮기는 왕복달리기 같은 지긋지긋한 게임은 아니었을까? 엄마는 '파도가 치는 곳으로 가야지.' 라는 생각만 했고, 나는 엄마의 발이 바위에 닿는 것만 지켜보았다. 그러다가 아기 소리가 나자, 우린 하나가 되어 올려다보았다.

해변에 아기가 있었다.

바위 사이에 모래더미가 있고, 거기 담요에 싸인 아기가 있었다. 뜨개질한 분홍 모자를 쓰고, 내의를 입고, 신발을 신고 있었다. 아기 담요 옆에는 흰 장난감이 놓여 있었다. 엄마는 양 인형이라고 생각했다.

엄마가 바위를 타고 해변으로 내려갈 때, 등을 돌리고 서 있는 어른

들이 있었다. 모두 딱딱한 표정이었다. 그들은 검정과 파란색 옷차림에 모자를 쓰고, 부츠를 신고 있었다. 그때 사진 작가를 꿈꾸던 내 눈에 삼각대와 은색 조명막이 들어왔다. 젊은 사람이 조명막을 좌우로 움직였고, 담요에 싸인 아기에게 조명이 터졌다.

그 광경을 본 엄마가 웃음을 터뜨리는데, 촬영팀 조수가 몸을 돌리다가 바위 사이에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다른 사람은 너무 분주했다. 광고 촬영이라 짐작됐다. 하지만 어쩌려고 했을까? 아기를 데려다 내 자리를 메우려 했을까? 엄마는 웃었고, 난 엄마의 얼굴이 밝아지다가 묘하게 일그러지는 것을 봤다.

엄마는 아기 뒤쪽에서 부서지는 파도를 보았다. 파도는 얼마나 아름다우면서도 매혹적인가. 가만히 밀려와서 아기를 해변에서 휩쓸어 갈 수도 있었다. 광고를 찍던 사람들이 쫓아갈 수 있겠지만, 아기는 한순간에 익사할 터였다. 누구도, 무슨 일이 있을까 신경을 쓰던 엄마까지도 파도가 밀려오면 아기를 구할 수 없으리라.

그 주일에 엄마는 바닷가 위쪽 계곡에 있는 '크루소 양조장'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엄마는 내 동생들에게 엽서를 보냈다. 엽서의 좁은 지면에 밝은 이야기를 채우려고 애썼다.

쉬는 날이면 소살리토나 산타로사의 거리를 거닐었다. 부유층이 사는 작은 동네인데, 모두 이방인들이었다. 엄마는 낯선 것에 관심을 기울이려고 노력했지만, 작은 가게나 카페에 들어서면 벌써 호흡이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슬픔이 장딴지를 타고 올라와 내장으로 파고드는 기분이었다. 사정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엄마는 사람들 앞에서 울음을 멈추려고 숨을 크게 들이쉬어야 했다. 레스토랑에서 커피와 토스트를 주문하고, 빵에 눈물을 발라서 먹었다. 꽃집에 가서 수선화를 샀다. 꽃집에 수선화가 없으면, 빼앗긴 기분이 들었다. 개나리색

꽃을 갖고 싶다는 것은 작은 소망이건만.

옥수수밭에서 즉석 추도식이 열린 후, 아버지는 바라는 게 많아졌다. 이제 아버지는 매년 추도식을 열었고, 참석하는 이웃과 친구들은 갈수록 줄었다. 루스, 길버트 부부처럼 매년 참석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주로 고등학생들이 왔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내 이름만 알거나, 혼자 다니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의 주인공 정도로 알았다. 특히 여학생들은.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입에 올리면, 바늘로 찔리는 기분이었다. 아버지가 내 이름을 말하거나 루스가 내 이름을 일기장에 쓸 때처럼 흐뭇하지 않았다. 단숨에 내가 부활했다 파묻히는 기분이었다. 사회 경제 시간에, 변형된 상품 목록으로 몰린 기분이랄까. '살해된 자' 칸으로. 보트 선생님 같은 분들은 나를 제자로 기억했다. 그는 가끔 점심 시간이면 빨간 피아트 승용차에 앉아서, 백혈병으로 죽은 딸을 생각했다. 창 밖으로 멀리 옥수수밭이 어렴풋이 보일 때면 나를 위해 기도하곤 했다.

몇 년이 지나면서 레이 싱은 미남으로 변해서, 사람들 틈에 있으면 빛이 났다. 열일곱 살인 그에게서는 이제 어른 티가 나기 시작했다. 꿈꾸는 듯한 중성적인 이미지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매력을 느꼈다. 긴 속눈썹과 눈꺼풀,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고운 얼굴 선은 아직 소년 같았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열망을 안고 레이를 지켜봤다. 만지고 껴안고 싶었다. 그가 찬찬히 뜯어보는 그 신체에 대해 나도 이해하고 싶었다. 레이는 책상에 앉아 좋아하는 『그레이의 해부학』을 읽으면

서, 손가락으로 자기 경동맥을 짚어 보거나 엄지로 몸에서 가장 긴 근육(봉공근으로 엉덩이 바깥쪽에서 무릎 안쪽까지 뻗은 근육이다 : 역주)을 꾹꾹 눌러 보았다. 마른 체격이 도움이 됐다. 뼈와 근육이 명확히 드러났으니까.

레이가 펜실베이니아로 가려고 짐을 꾸릴 즈음, 난 그가 워낙 많은 용어와 그 뜻을 암기하고 있는 게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많은 걸 아는데 어떻게 또 다른 걸 담을 수 있을까? 수정체와 피막, 귀의 세반고리관, 또는 내가 좋아하는 교감 신경계 같은 것이 루스의 우정과 어머니의 사랑, 나에 대한 추억을 밀어내 버렸다.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레이의 어머니 루아나가 집 안을 뒤져서 아들이 가져가야 될 것을 찾아 냈으니까. 그녀는 레이가 꽃잎을 모으는 취미를 잃지 않기를 바라며, 짐 속에 『그레이 해부학』 대신 인도 시집을 넣었다. 그 시집 안에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내 사진이 들어 있었다.

레이가 기숙사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을 때, 내 사진이 침대 옆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사진 속의 안구며 콧구멍, 외피 색조 같은 것을 해부학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었지만 그가 키스했던 입술만은 그럴 수가 없었다.

1977년 6월, 내가 살았다면 졸업했을 그날 루스와 레이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페어팩스 고등학교에서 마지막 수업이 끝나던 날, 루스는 엄마의 낡은 옷가방에 새로 산 검은 옷을 챙겨 뉴욕으로 떠났다. 조기 졸업한 레이는 이미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1학년을 마쳤다.

같은 날 우리 집 부엌에서는 외할머니가 버클리에게 꽃에 대한 책을 주었다. 할머니는 식물이 씨앗에서 나오는 과정을 설명했다. 버클

리가 질색하는 빨간 무가 가장 빨리 자라고, 그가 좋아하는 꽃들도 씨앗에서 싹트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할머니는 꽃 이름도 가르쳐 주었다. 백일초, 금잔화, 팬지, 라일락, 카네이션, 피튜니아, 나팔꽃.

엄마는 가끔 캘리포니아에서 전화를 걸었다. 부모님은 서둘러서 힘든 통화를 했다. 엄마는 버클리, 린지, 할리데이의 안부를 물었다.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엄마가 알아야 될 것은 없는지 물었다.

1977년 12월, 낙엽이 떨어져 바람에 날리거나 치워지고, 대지가 눈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눈이 내리지 않은 날이었다. 그날 아버지가 엄마에게 말했다.

"우린 여전히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소."

"알아요."

"선생 일은 어떻게 됐어? 그럴 계획이었다고 아는데."

"그래요."

엄마가 대답했다. 엄마는 포도주 양조장 사무실에서 전화하고 있었다. 분주한 점심 시간이 끝난 후 좀 조용해졌지만, 곧 다섯 대의 리무진을 타고 노부인들이 들이닥칠 예정이었다. 엄마는 한참 말이 없다가,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할 말을 했다. 누구보다도 우리 아버지는.

"계획은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뉴욕에서 루스는 로어 이스트 사이드의 어느 노파 집 옷방에서 살았다. 형편이 그런데다, 집에 오래 머물지도 않았다. 루스는 매일 소파 겸용 침대를 접어서 한편에 세우고, 옷을 갈아입을 공간을 확보했다. 그녀는 그 방에 하루에 한 번만 갔고, 가능하면 집 밖에서 시간을 보냈다. 옷방은 잠자기 위한 공간이고, 뉴욕에서 주소를 확보할 수 있

는 수단이었다.

루스는 바에서 일하며, 여가 시간은 맨해튼 구석구석을 걸어다녔다. 나는 그녀가 큼직한 부츠 발로 시멘트 바닥을 쿵쿵 밟는 것을 보며, 여자는 어디 가든 살해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계단통에서, 아름다운 고층 건물 안에서. 루스는 가로등 주변을 맴돌며 거리를 바라보곤 했다. 화장실에 가려고 들어간 카페나 바에서, 일기장에 간단한 기도문을 적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투시력을 가졌다고 믿게 됐다. 그 능력을 어떻게 이용할지 모른 채 미래를 위해 메모를 할 뿐이었다. 차츰 두려움이 사라졌다. 루스에게 죽은 여자들과 아이들의 세계는, 그녀가 살고 있는 세계만큼이나 생생하게 느껴졌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도서관. 레이는 큰 활자체로 『죽음의 조건』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다. 요양 시설에서 한 연구로, 시설에 수용된 환자 다수가 의료진에게 밤에 침대 끝에 누군가 서 있는 걸 봤다고 보고했다는 내용이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말을 걸려고 하거나 이름을 부르려 했다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때로 이런 환자들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흥분했기 때문에 안정제를 주사하거나 침대에 묶기도 했다.

다음에는 이런 착시 현상이 죽음 전에 일어나는 가벼운 발작의 결과라는 설명이 나왔다.

"환자 가족과 면담해 보면, 일련의 발작과 사망 직전의 가파른 상태 악화가 뒤섞여 흔히 저승 사자라고 믿는 존재가 나타나는 것이다."

레이는 읽던 부분을 손으로 짚고, 노인 환자의 침대를 내려다보고 서 있으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봤다.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있으면, 뭔가 그를 스치고 지나는 감각이 있을지 몰랐다. 몇 년 전, 루스가 주차장에서 뭔가 느꼈던 것처럼.

하비 씨는 보스턴의 외딴 지역에서 남부 주들이 시작되는 부근에 이르는 북동부 코리더 지역에서 멋대로 살았다. 남부쪽 주에 가면, 꼬치꼬치 캐묻는 질문 같은 것 없이 쉽게 일자리를 얻곤 했다. 그는 항상 펜실베이니아를 좋아해서, 길쭉한 주를 누비고 다녔다. 가끔 우리 집이 있는 단지 앞 국도 밑의 편의점 뒤에서 야영을 하기도 했다. 그 지역에는 24시간 편의점과 철도 사이에 나무가 빽빽이 자라고 있었다. 하비 씨는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깡통과 담배 꽁초가 더 많아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옛 이웃들 가까이 운전해서 지나는 게 좋았다. 그래서 이른 아침이나 밤 늦게 모험에 나서곤 했다. 밤이면 야생 꿩들이 도로에 나와 걸어다녔고, 전조등 불빛에 길을 건너는 꿩들의 휑한 눈이 보였다. 이제 아이들은 주택 단지 끝으로 머루를 따러 가지 않았다. 농가 담장을 무너뜨려서 새 집 몇 채를 지을 대지를 조성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비 씨는 독버섯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고, 어떤 때는 '밸리 포지 공원'의 들판에서 밤을 새면서 야생 버섯을 따 먹기도 했다. 어느 밤, 야영 경험이 없는 두 사람이 독버섯을 먹고 죽었다. 나는 하비 씨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죽은 사람들의 몸에서 귀중품을 벗겨 가지고 떠났다.

버클리의 요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할과 네이트, 그리고 우리

개 할리데이뿐이었다. 요새 밑의 잔디가 죽었고 비가 오면 요새 안에 흥건하게 물이 고였다. 점점 버클리가 요새에 들어가는 일은 줄었지만, 요새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할은 버클리에게 요새를 손보자고 권했다.

어느 날 할이 말했다.

"방수 처리를 해야겠다, 버클리. 넌 열 살이다. 이제 뾰족한 징을 박는 공구를 사용할 만큼 컸어."

린 할머니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못 말렸다. 할머니는 버클리에게 할의 말대로 하라고 부추겼다. 그리고 할이 오기로 한 날, 할머니는 화려하게 꾸몄다.

토요일 아침, 아버지는 상큼한 레몬과 버터 냄새를 맡고 서재에서 나왔다. 오븐에서 케이크가 노릇노릇 구워지고 있었다.

"뭘 하시는 거예요?"

"머핀을 굽고 있지."

린 할머니가 대답했다.

아버지는 린 할머니가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에 빤히 쳐다봤다. 아버지는 아직도 가운 차림이었고, 아침 10시에 30도 가까이 되는 날인데도 할머니는 팬티 스타킹을 신고 화장까지 했다. 그때 아버지는 마당에서 런닝셔츠 바람으로 일하는 할을 보았다.

"아니, 장모님……. 저 아이는 아직 어리다고요."

"그래도 유쾌한 청년이잖아!"

아버지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식탁에 앉았다.

"사랑의 머핀은 언제 다 구워지나요, 마타하리?"

1981년 12월, 렌은 델라웨어에서 반갑지 않은 전화를 받았다. 윌밍

턴에서 살해한 범인이 1976년 코네티컷에서 발견된 소녀의 시신과 관계가 있다고 했다. 수사에 매달린 형사는, 코네티컷 사건에서 발견된 돌 장식이, 내 사건의 분실품 목록에 들어 있다는 것을 어렵사리 추적했다.

렌은 전화를 건 델라웨어의 형사에게 말했다.

"이미 폐기한 서류인데요."

"그쪽에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조지 하비의 짓입니다."

렌 형사가 목청을 높이자, 주위 동료들이 그를 바라봤다. 렌이 말을 이었다.

"1973년 12월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살해된 희생자는 수지 새먼, 당시 14세였습니다."

"시몬이요?"

"새먼이요. '연어'랑 같은 새먼……. 당시 희생자의 팔꿈치가 발견됐습니다."

렌이 말했다.

"희생자의 가족이 있나요?"

"네."

"코네티컷에 치아가 있는데요. 희생자의 치과 기록이 남아 있나요?"

"그렇습니다."

"가족의 슬픔이 줄어들지 모르겠군요."

델라웨어의 형사가 렌에게 말했다.

렌은 다시는 보지 않기를 바랐던 증거물을 뒤적였다. 내 가족에게 전화해야 되리라. 하지만 그는 최대한 오래 기다릴 작정이었다. 델라

웨어의 형사가 알려 준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할은 동생에게 린지가 훔친 그림 이야기를 들은 후 8년 동안, 오토바이를 타는 친구들을 동원해서 조용히 조지 하비의 자취를 추적했다. 하지만 그도 렌 형사처럼 확실한 대목이 나타날 때까지는 신고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지금껏 확실한 건 없었다. 어느 날 늦은 밤, 랠프 시케티라는 오토바이 그룹 단원이 오토바이 가게에 왔다. 한동안 감옥에 있었다고 순순히 털어놓은 랠프는, 어머니가 세입자에게 살해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할은 평소처럼 조사에 들어갔다. 키, 체중, 관심사 등 기초 사항을 물었다. 세들었던 사내의 이름은 조지 하비가 아니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문제는 살해된 방법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었다. 소피 시케티는 49세였다. 그녀는 자택에서 둔기에 맞아 살해됐고, 근처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 할은 범죄 관련 서를 많이 읽어서, 살인범들이 같은 유형으로 살해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독특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할은 시케티의 오토바이를 손봐 주면서 다른 화제를 꺼냈다. 그러다가 순간 침묵에 빠졌다. 시케티의 말에 할은 머리칼이 곤두서는 느낌이 들었다.

"그자는 인형 집을 만들었지."

랠프 시케티가 말했다. 그러자 할은 렌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월이 흘렀다. 우리 마당에 있는 나무들의 키가 많이 컸다. 나는 가족, 친구, 이웃, 선생님들, 꿈꾸던 고등학교를 지켜봤다. 전망대에 앉아서, 단풍나무 꼭대기에 앉은 체했다. 버클리는 그 나무의 잔가지를 삼켰고, 그 나무 밑에서 지금도 네이트와 숨바꼭질을 했다. 아니면 나는 뉴욕에 있는 건물의 계단 난간에 앉아서 루스가 지나가기를 기

다렸다. 레이 곁에서 공부하기도 했다. 따뜻한 오후, 엄마와 나란히 바닷바람을 맞으며 태평양 해안 고속도로를 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매일 마지막에는 아버지와 서재에 있었다.

내 마음에 이런 사진들을 나란히 놓았다. 계속 지켜보면서 모은 사진들을 펼치니, 이런 이미지들이 하나의 근원, 내 죽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를 잃은 것이 지상의 순간들을 이렇게 바꿀 줄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겠지. 하지만 나는 그 순간들에 매달렸다. 그 순간들을 모았다. 내가 거기서 지켜보는 한, 한순간도 없어지지 않았다.

어느 밤, 저녁 기도 시간에 할리가 색소폰을 불고 베델 어트메이어가 함께 했다. 그때 난 그를 봤다. 할리데이가 흰 세모이드 옆을 지나갔다. 할리데이는 지상에서 늙도록 살았다. 엄마가 떠나자 아버지의 발치에서 잤고, 늘 아버지를 쫓아다녔다. 버클리가 요새를 만들 때 옆에 서 있었고, 린지와 새무얼이 키스할 때도 유일하게 옆에 있도록 허락받았다. 할리데이는 마지막 몇 년간 일요일 아침마다 할머니가 만들어 주는 큼직한 땅콩버터 팬케이크를 먹었다. 할머니는 팬케이크를 바닥에 놓고는, 할리데이가 그걸 뒤집느라 끙끙대는 것도 보지 않고 가 버리곤 했다.

나는 할리데이가 내 냄새를 맡기를 기다렸다. 녀석이 천국에서도 내 곁에서 잠을 잘지 조바심이 났다. 하지만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할리데이는 날 보자 행복해하면서 달려들었다.

17

21세인 린지는 내가 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을 해 봤지만, 이제 나는 서글퍼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린지가 다니는 곳을 따라다녔다. 나도 린지처럼 대학 졸업장을 챙겨서 새무얼의 오토바이에 타고 달렸다. 두 팔로 그의 허리를 안고, 그의 등에 가슴을 밀착시켜 온기를 느끼면서…….

그랬다. 그게 린지였다. 나는 그걸 깨달았다. 하지만 동생을 지켜보면서, 내가 누구보다도 빼앗긴 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린지와 새무얼이 템플 대학교를 졸업한 날 밤, 둘은 오토바이를 타고 우리 집으로 가고 있었다. 아버지와 린 할머니에게 오토바이 사물함에 실린 샴페인을 집에 갈 때까지 손도 대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한 참이었다. 새무얼은 '어쨌든 저희는 대학 졸업생이 됐어요!' 이라고 말했었다. 아버지는 그를 신뢰했다. 오랜 세월 딸 곁에서 올바른 일만 한 청년이니까.

그런데 필라델피아에서 30번 도로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시속 5마일로 달리는 그들의 얼굴에 가볍게 내리쳤다. 무더운 6월의 태양에 달궈진 도로를 시원한 빗줄기가 적시자 아스팔트 냄새가 올라왔다. 린지는 새무얼의 등에 얼굴을 대고, 아스팔트 냄새를 맡는 게 좋았다. 길 양옆으로 드문드문 키작은 나무 수풀이 있었다. 린지는 폭우가 몰려들기 몇 시간 전 바람이 불어, '메이시 홀'에 선 졸업생들이 걸친 흰 가운이 펄럭이던 장면을 떠올렸다. 한순간 모두들 하늘을 떠다닐 듯한 표정이었다.

집으로 이어진 지선 도로까지 8마일을 남겨 놓고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다. 새무얼은 고개를 돌리고, 오토바이를 세워야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잡초가 잔뜩 자란 자갈길로 들어갔다. 상가와 상가 사이의 빈터로, 곧 쇼핑몰이나 자동차 수리점이 들어설 자리였다. 자갈길 위에서 오토바이는 흔들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다. 새무얼은 발을 땅에 대고 오토바이를 세운 뒤 할이 가르쳐 준대로 린지가 내려서 몇 걸음 떨어진 후에야 오토바이에서 내렸다.

그는 헬멧의 마스크 부분을 열고, 린지에게 말했다.

"여기도 괜찮은데. 오토바이를 저 나무들 밑에 세워야겠어."

린지가 뒤따라갔다. 헬멧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들은 자갈과 흙탕길을 걸었다. 잔가지가 흩어져 있고, 길가에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린지는 졸업식에서 입었던 옷을 벗고, 가죽 재킷과 바지로 갈아입은 걸 다행스러워 했다. 린지가 이상해 보인다며 반대했지만, 할은 가죽옷을 입어야 한다고 고집했었다.

새무얼은 길에서 가까운 참나무 밑으로 오토바이를 끌고 갔고, 린지가 뒤따랐다. 둘은 지난주에 마켓 거리에 있는 같은 미용실에서 커

트를 했다. 새무얼보다 린지가 머리카락이 가늘고 색도 밝았지만, 미용사는 똑같이 삐쭉삐죽 서는 스타일로 잘라 주었다.

헬멧을 벗자, 나무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삐죽삐죽한 머리카락에 맺혔다. 린지의 얼굴에 마스카라가 번졌다. 나는 새무얼이 엄지손가락으로 린지의 뺨을 닦아 주는 것을 봤다.

"졸업 축하해."

어둠 속에서 그가 키스했다.

내가 죽고 2주일 후, 우리 집 부엌에서 둘이 첫 키스를 한 이후로, 그는 린지의 '하나뿐인 사랑'이었다. 우리 자매는 바비 인형을 갖고 놀거나 TV에서 바비 셔먼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하며 키득대곤 했다. 새무얼은 린지의 욕구를 잘 맞췄고, 곧 둘의 관계는 돈독해졌다. 그리고 나란히 템플 대학에 진학했다. 새무얼은 그 학교를 싫어했으나 린지는 마음에 들었다. 그 덕분에 졸업 때까지 린지가 새무얼을 거들어야 했다.

새무얼이 말했다.

"나무가 빽빽하게 난 곳을 찾자."

"오토바이는 어쩌고?"

"비가 멎으면 형이 우리를 찾으러 와야 할 거야."

"이런!"

린지가 중얼댔다.

새무얼은 웃으면서 린지의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다. 그때 천둥이 치자, 린지가 화들짝 놀랐다. 새무얼은 린지를 꼭 안았다. 멀리서 번개가 내리쳤고, 천둥소리가 점점 커졌다. 린지는 나랑은 달랐다. 천둥번개가 치면 놀라고 초조해했다. 그애는 나무가 갈라지고, 집에 불이 나고, 개들이 지하실에서 벌벌 떤다고 상상했다.

두 사람은 나무 밑을 걸었다. 나무 밑이지만 계속 몸이 젖었다. 오후인데도, 새무얼의 손전등을 빼면 사방이 캄캄했다. 그래도 사람들의 흔적이 있었다. 발에 깡통이 밟혔고, 빈 병이 굴러다녔다. 어두운 잡초 사이로 깨진 창문이 보였다. 오래된 빅토리아식 집의 꼭대기에 창이 있었다. 새무얼은 곧 손전등을 껐다.

린지가 물었다.

"안에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어두운데."

"유령이 나올 것 같아."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린지가 둘이 똑같이 한 생각을 말했다.

"비는 안 맞잖아!"

쏟아지는 빗속에서 둘은 손을 잡고 그 집으로 달려갔다. 점점 질퍽해지는 진흙탕에서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애쓰며 있는 힘껏 뛰었다.

집이 가까워지자, 새무얼은 경사진 지붕과 박공이 십자 모양으로 장식된 것을 알아봤다. 아래층 창은 모두 판자로 막아 놓았지만, 현관문은 열려 있었다. 문이 홱 열리며 회벽에 닿았다. 새무얼은 처마 밑에 서 있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린지를 안으로 밀었다. 두 사람은 몇 발자국 안으로 들어가서, 덜덜 떨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는 얼른 낡은 집의 방들을 살폈다. 그들뿐이었다. 구석에서 튀어나올 무시무시한 귀신도, 거기 사는 사람도 없었다.

이런 개발하지 않은 땅은 점점 사라지는 추세였지만, 내가 어린 시절에는 그런 곳이 많았다. 우리는 인근의 농지를 처음으로 택지로 개발한 단지에 살았지만—우리 단지가 모델이 되어 지금은 그런 주택단지가 수없이 늘어났다.—나는 늘 한적한 길을 상상하곤 했다. 화사한 색상의 지붕널과 배수관, 집 앞까지 이어진 차도, 큼직한 우편함이

들어차지 않은 조용한 길을. 새무얼 역시 그런 상상을 했다.

린지가 말했다.

"와! 몇 년이나 된 집일까?"

교회당에 둘만 서 있는 것처럼 소리가 울렸다.

"살펴보자."

새무얼이 말했다.

1층 창이 죄다 막혀서 분별하기가 힘들었지만, 새무얼의 손전등 덕분에 벽난로와 벽을 따라 놓여 있는 등받이 의자를 알아볼 수 있었다.

"바닥을 봐."

새무얼은 무릎을 꿇고 앉아 린지를 끌어 당겼다. 그가 물었다.

"사개 물림한 부분이 보이지? 이집 주인은 이웃 사람들보다 돈이 많았나 본데."

린지는 씩 웃었다. 할이 오토바이 구조에만 신경 쓰는 것처럼, 새무얼은 점점 나무로 된 것에 애착을 가졌다.

그가 손으로 바닥을 쓰다듬자, 린지도 따라 했다. 새무얼이 말했다.

"이 집은 멋진 폐가인걸."

"빅토리아식 건축이야?"

린지가 아는 것을 다 동원해서 넘겨짚었다.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내 생각엔 고딕 양식을 되살린 것 같아. 박공 끝에 십자 모양 기둥이 있었거든. 그건 1860년 이후에 건축됐다는 뜻이지."

"봐봐."

린지가 말했다.

바닥에 누군가 오래 전 불을 피운 흔적이 있었다.

"비극이군."

새무얼이 중얼댔다.

"왜 벽난로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방마다 난로가 있는데."

하지만 새무얼은 불길이 솟아 천장에 난 구멍을 올려다보느라 바빴다. 그는 창틀의 목공 패턴도 조사했다.

새무얼이 말했다.

"위층으로 올라가자."

린지가 계단을 오르면서 말했다.

"꼭 동굴에 있는 기분이야. 여긴 너무 조용해. 빗소리도 거의 안 들려."

새무얼은 올라가면서 주먹으로 벽을 살짝 두드렸다.

"이런 곳에 사람을 가둘 수도 있겠는걸."

갑자기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다. 그동안 둘은 이런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야 한다는 걸 배웠고, 나는 이런 순간을 기대하며 살았다. 중요한 질문은 이랬다. 내가 어디 있는가? 내 이야기가 나올까? 두 사람은 내 일을 의논할까? 보통 대답은 실망스럽게도 '아니다' 였다. 이제 지상에 '수지 관련 회의' 는 없었다.

하지만 집의 분위기와 어둠 때문에 린지는 평소보다 더 오래 내 생각을 했다. 늘 졸업식과 생일은 가족에게 내 생각을 더 하게 했다. 그래도 입 밖에 꺼내지는 않았다. 린지는 하비 씨의 집에서 경험한 묘한 감정을 기억했다. 그 이후 종종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애의 생각과 몸 속에 왠지 내가 같이 있는 느낌…… 쌍둥이처럼 같이 움직이는 그런 느낌.

계단 끝에서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발견했다. 아래서 올려다보던 방이었다.

새무얼이 말했다.

"난 이 집을 갖고 싶어."

"뭐야?"

"이 집에 내가 필요해. 그걸 느낄 수 있어."

"해가 다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정해야 될 거야."

린지가 말했다.

"내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워."

새무얼이 말했다.

"새무얼 헤클러야 부서진 물건 고치기 대장이니까."

"좋은 대화 상대고."

새무얼이 말했다.

둘은 잠시 말없이 서서, 굴뚝을 타고 들어오는 축축한 공기 냄새를 맡았다. 빗소리가 났지만, 린지는 숨어 있는 기분이었다. 세상의 구석에 안전하게 쏙 들어가 있는 기분이었다. 가장 사랑하는 이와…….

린지가 새무얼의 손을 잡았다. 나는 그들을 따라 바로 앞에 있는 작은 방으로 갔다. 아래층 현관홀 바로 위에 있는 방으로 8각형 모양이었다.

새무얼이 말했다.

"퇴창이야……."

새무얼은 린지를 돌아보며 덧붙여 설명했다.

"창을 튀어나오게 내서, 창이 작은 방 같지. 그런 창을 '퇴창'이라고 해."

"너를 유혹하는 게 그거야?"

린지가 생긋 웃으며 물었다.

나는 빗줄기와 어둠 속에 그들을 두고 떠났다. 둘이 가죽 재킷의 지퍼를 내리기 시작할 때, 번개가 멎고 하나님의 에헴 소리—천둥소리

—가 그쳤다는 걸 린지가 알까 궁금했다.

아버지는 서재에 앉아, 속에서 눈이 내리는 스노우볼을 집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위로를 주었다. 공을 흔드니 펭귄이 사라졌다가, 내리는 눈 속에서 천천히 다시 나타났다.

할은 오토바이를 타고 졸업식에서 돌아왔다. 그는 자기가 빗속을 오토바이를 타고 무사히 돌아왔으니, 두 사람도 별일 없을 거라고 말했지만 아버지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의 가능성만 마음에 쌓였다.

아버지는 린지의 졸업식에서 뭉클한 기쁨을 느꼈다. 버클리가 곁에 앉아서, 언제 웃고 반응을 보여야 할지 가르쳐 주었다. 아버지도 그런 때를 알아차리곤 했다. 자신은 보통 사람들처럼 신경이 빨리 반응하지 않는다는 변명을 하긴 했지만. 그것은 그가 검토하는 보험금 청구서를 보고 반응하는 시간과 비슷했다. 보통 뭔가 닥치는 것을 알아차리는 시간과 조치를 취하는 시간 사이에 몇 초의 간격이 있었다. 아버지의 반응 시간은 보통 사람보다 느렸다. 꼭 정확한 인식 능력을 빼앗긴 세상에서 움직이는 사람처럼.

버클리가 서재 문을 노크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들어오너라."

아버지가 말했다.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아빠."

열두 살인 내 동생은 진지하고 사려 깊은 소년이 되었다. 버클리는 생활비를 내거나 식사를 준비하지는 않지만, 살림을 꾸려 갔다.

아버지가 말했다.

"우리 아들, 양복 차림이 멋지더라."

"고마워요."

동생에게는 이런 칭찬이 중요했다. 그는 아버지가 대견해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졸업식에 가기 전 모양을 내느라 시간을 끌었다. 그날 아침 할머니에게 앞머리를 다듬어 달라는 부탁까지 했다. 동생은 사춘기의 가장 묘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단계. 늘상 큼직한 티셔츠에 헐렁한 청바지를 입었지만, 린지의 졸업식 날은 정장을 입는 걸 좋아했다.

"할 형이랑 할머니가 아래층에서 기다려요."

버클리가 말했다.

"금방 내려가마."

동생은 문을 꼭 닫았다.

그해 가을, 아버지는 내가 '보관용 필름' 통에 넣어 둔 필름 중 마지막 필름을 인화했다. 이즈음 아버지는 식사하기 전이나 TV나 신문을 보기 전에 짬을 내서, 내가 찍은 사진들을 꺼내곤 했다.

아버지는 내가 '예술 사진'이라고 우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잔소리하곤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의 얼굴을 화면 가득 차게 찍은 사진을 제일 좋아했다.

그 사진을 찍을 때 아버지가 가르쳐 준 카메라 앵글과 구도를 귀담아들었던 것 같다. 아버지는 필름들이 어떤 순서로 있는지, 필름에 어떤 사진이 담겨 있는지 몰랐다. 할리데이의 사진이 많았고, 내 발이나 풀잎을 찍은 사진도 있었다. 공중에 회색 얼룩 같은 것은 새였고, 버드나무 위로 해가 지는 광경을 찍은 사진도 있었다. 한데 어느 시점에서 나는 엄마를 찍으려고 결심했다. 아버지는 이제는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여인의 사진을 보았다.

그 이후 아버지는 이 여인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에서 뭔가 커지

는 감정을 느꼈다. 그게 뭔지 깨닫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상처받은 신경은 최근에야 그 감정의 이름을 인식하게 허락해 주었다. 아버지는 다시 사랑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는 결혼해서 매일 보는 두 사람이 상대방의 모습을 어떻게 잊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이 일어난 일에 이름을 붙이자면, 바로 그랬다. 필름에 찍힌 마지막 사진 두 장이 열쇠가 되었다. 그때 아버지가 퇴근했다. 아버지의 차가 차고로 들어가는 소리가 나자 할리데이가 짖었고, 난 엄마가 개에게 관심을 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애쓴 기억이 난다.

"아빠가 오실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말했다. 엄마는 가만히 있었다.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다는 것도 사진 촬영이 좋은 이유였다. 부모님이라고 해도 내가 지시할 수 있었다.

나는 곁눈질로 아버지가 옆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얇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오래 전 우리 자매는 그 가방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 보려고 난리였다. 아버지가 가방을 내려놓을 때, 난 엄마의 독사진을 찍었다. 엄마는 초조한 듯 자꾸 움직였다. 그 다음 사진도 그저 그랬고, 마지막 사진에서는 아버지가 엄마의 뺨에 입맞추려고 약간 몸을 숙이고 있었다.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했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아버지는 나란히 늘어놓은 사진 속의 엄마에게 물었다.

"번개가 그쳤어."

린지가 말했다. 빗방울이 맺혔던 몸에는 이제 땀방울이 솟았다.

새무얼이 말했다.

"사랑해."

"알아."

"아니, 정말로 사랑하고 너랑 결혼하고 싶어. 너랑 이 집에서 살고 싶다고!"

"뭐야?"

"그놈의 끔찍한 대학 생활이 끝났잖아!"

새무얼이 소리쳤다. 작은 방이라 소리가 흡수되어 메아리치지 않았다.

린지가 말했다.

"나한테는 안 그랬어."

린지 곁에 누워 있던 새무얼이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꿇었다.

"결혼해 줘."

"새무얼?"

"올바른 일만 하는 데 질렸어. 나랑 결혼해 줘. 그러면 이 집을 근사하게 만들게."

"생활은 어쩌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 거야."

린지가 일어나서, 새무얼과 나란히 무릎을 꿇었다. 옷을 반만 입고 있었으므로 몸의 열기가 사라지자 점점 추워졌다.

"알았어."

"알았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결혼하겠다는 뜻이야!"

린지가 말했다.

천국에 와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된 표현들이 있다. 전에는 '좋아서 팔딱팔딱 뛰다'라는 말뜻을 잘 몰랐다. 알아도 공감하지 못했다. 하지

만 그 순간, 나는 천국에서 뛰어다녔다. 좋아서 팔딸팔딱! 정말로 행복해서 계속 소리를 질러 댔다. 내 동생! 새무얼! 내 꿈!

린지는 울고 있었고, 새무얼이 끌어안았다.

그가 물었다.

"행복해?"

가슴을 드러낸 린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린지가 갑자기 얼어붙었다. 동생은 고개를 들고 새무얼을 보더니 말을 이었다.

"아빠…… 몹시 걱정하실 거야."

"그래."

새무얼은 린지의 옷을 입혀 주었다.

"여기서 집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10마일쯤. 아니 8마일쯤."

새무얼이 대답했다.

"할 수 있겠는데."

"미쳤구나."

"소지품 칸에 운동화가 있잖아."

가죽옷을 입고는 뛸 수가 없어서, 속옷에 티셔츠만 걸쳤다. 우리 가족 중 가장 노출이 심한 차림이었을 것이다. 몇 년 동안 그랬듯이 새무얼이 앞장서서 린지를 독려했다. 도로에는 차가 거의 없었지만, 어쩌다 지나갈 때는 물을 잔뜩 튀겨서 둘은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빗속에서 달려 본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뛰기는 처음이었다. 두 사람은 달리면서 누가 비를 피할 곳을 많이 찾는지 게임을 했다. 다리가 흙투성이가 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춤추듯 나무 밑

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만 3마일쯤 달리자, 둘은 입을 다물고, 몇 년간 익힌 자연스런 리듬에 몸을 맡기고 내달렸다. 자기 숨소리와 젖은 운동화가 아스팔트에 닿는 소리에만 정신을 집중했다.

어디쯤에서 린지는 물이 많이 고인 곳을 첨벙대며 지나갔고, 그때부터 둘은 웅덩이를 피하지 않았다. 린지는 내가 죽기 전까지 우리가 회원이었던 수영장을 떠올렸다. 내가 죽은 후 가족은 공공장소에 별로 나타나지 않게 됐지만, 이 부근에 그 수영장이 있었지만, 동생은 고개를 들어 눈에 익은 수영장의 철망 울타리를 찾지 않았다. 대신 추억을 떠올렸다. 린지와 나는 치마에 러플이 달린 수영복을 입고 물 속에 있었다. 물 속에서 눈을 뜨고 서로 쳐다봤다. 이것은 린지에겐 새로운 기술이었다. 우리 몸이 물 속에서 쭉 늘어났다. 머리카락이 둥둥 뜨고, 수영복 치맛단이 쫙 퍼졌다. 공기를 잔뜩 머금어 뺨이 불룩했다. 우린 서로의 몸을 잡고 같이 수면 위로 올라갔다. 공기를 한껏 들이마시고 귀가 뻥 뚫리도록 같이 깔깔댔다.

나는 아름다운 내 동생이 달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폐와 다리를 계속 움직였고, 수영장에서 배운 기술을 사용해서 빗속에서 눈을 뜨려고 애썼다. 린지는 새무얼이 뛰는 속도에 맞춰서 다리를 움직이려고 애썼다. 나는 그애가 내게서 멀어지는 것도, 내게 다가오는 것도 아님을 알았다. 총을 맞고도 살아난 사람처럼, 기나긴 8년 세월 동안 상처는 점점 아물었다.

집까지 1마일쯤 남았을 즈음, 빗줄기가 가늘어지면서 사람들이 창밖의 거리를 내다보기 시작했다.

새무얼이 속도를 늦추자 린지도 보조를 맞췄다. 티셔츠가 몸에 딱 달라붙었다.

린지는 옆구리가 결렸지만, 괜찮아지자 새무얼과 속도를 맞춰 뛰었

다.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우린 결혼한다!"

린지가 소리치자, 새무얼이 멈춰 서서 포옹했다. 두 사람이 키스할 때, 차 한 대가 지나가며 경적을 울렸다.

우리 집 초인종이 울린 시간은 4시였다. 할은 부엌에서 엄마의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린 할머니를 도와 컵케이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뭔가 도울 일이 없을까 하고 머뭇거렸고, 할머니는 그에게 일 시키기를 좋아했다. 두 사람은 마음이 잘 맞는 짝이었다. 버클리는 먹는 걸 좋아했고.

"내가 나가마."

아버지가 말했다. 아버지는 비가 내리는 동안, 할머니가 만들어 준 위스키 소다를 마시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제 약간 마음이 놓여서 몸이 가벼웠다. 오랜 세월 한 발로 서서 뛰다가 은퇴한 발레리나 같달까.

"무척 걱정했다."

아버지는 문을 열고 말했다.

린지는 가슴에 팔을 끼고 있었고, 그 모습에 아버지도 웃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시선을 돌리고 얼른 현관 장에 든 담요를 꺼냈다. 새무얼이 먼저 린지에게 담요를 둘러 주자, 아버지는 그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 주었다. 그의 몸에서 물이 뚝뚝 흘러 바닥이 흥건했다. 린지가 몸에 담요를 휘감았을 때, 버클리와 할, 할머니가 나왔다.

린 할머니가 말했다.

"버클리, 가서 수건을 가져오너라."

"이런 빗속에서 오토바이를 탔니?"

할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아니, 우린 뛰어왔어."

새무얼이 대답했다.

"너희가 어쨌다고?"

"거실로 들어가자. 불을 피워야겠다."

아버지가 말했다.

두 사람은 벽난로에 등을 대고 앉았다. 처음에는 덜덜 떨면서, 할머니가 버클리를 시켜 은쟁반에 들려 보낸 브랜디를 마셨다. 다들 오토바이와 버려진 집 이야기를 들었다. 새무얼을 꿈꾸게 한 8각형 모양 창문에 대해서도.

할이 물었다.

"그럼 오토바이는 무사하네?"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견인해야 될 거야."

새무얼이 대답했다.

"너희 둘이 무사하니 정말 기쁘다."

아버지가 말했다.

"새먼 씨 때문에 집에 뛰어온걸요."

할머니와 버클리는 벽난로에서 먼 쪽에 앉아 있었다.

린지가 말했다.

"가족들 걱정시키지 않으려고요."

"린지는 특히 아버님이 걱정하실까 봐 염려했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물론 새무얼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그 말에는 한 가지 통렬한 사실이 배어 있었다. 린지와 버클리가 약한 아버지에게 맞춰서 살아왔다

는 사실이.

린 할머니는 린지와 눈을 맞추고, 눈을 찡긋 하며 말했다.

"내가 할과 버클리를 데리고 컵케이크를 만들었단다. 그리고 뭣하면 냉동 라자냐도 있고."

할머니가 일어서자, 버클리도 거들려고 일어섰다.

"컵케이크를 먹고 싶은데요, 린."

새무얼이 말했다.

"린? 그 호칭이 맘에 드는구나. 그럼 이제 잭도 '잭'이라고 부를 거냐?"

"아마도요."

할머니와 남동생이 거실에서 나가자, 할은 긴장감 도는 분위기를 느꼈다.

"저도 가서 거들게요."

그가 말했다.

린지, 새무얼, 아버지는 부엌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다. 거실 구석에서 벽시계 소리가 났다. 엄마가 '촌놈 시계'라고 부르던 시계였다.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걱정이 지나치다는 건 알아."

"새무얼은 그런 말을 하려던 게 아니에요."

린지가 말했다.

새무얼은 조용했고, 나는 그를 지켜보았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잭, 제가 린지에게 청혼했어요."

린지는 가슴이 뛰었지만 새무얼을 쳐다보지 않고 아버지를 바라보

았다.

버클리가 컵케이크 쟁반을 들고 들어왔고, 할이 1978년 산 동페리뇽(고급 샴페인 : 역주)과 샴페인 잔을 들고 들어왔다.

"할머니가 졸업 축하 선물로 준비하신 거야."

할이 말했다.

린 할머니는 위스키소다 잔만 들고 들어왔다. 술잔에 불빛이 반사되어 다이아몬드처럼 빛났다.

린지에게는 아버지와 단 둘이 있는 것 같았다. 린지가 물었다.

"뭐라고 하실래요, 아빠?"

아버지는 일어나서 새무얼과 악수하며 말했다.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사윗감이라고 말하고 싶다."

린 할머니가 환호성을 올렸다.

"세상에. 얘야! 축하한다!"

평소 침착한 버클리도 긴장을 풀고 기뻐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와 린지 사이에 묶인 줄이 살짝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줄 같은 것이.

할이 샴페인을 땄다.

"전문가 솜씨네!"

할머니는 샴페인을 따르는 할에게 말했다.

아버지와 린지가 다가와서 할머니의 끝없는 건배의 말을 들을 때, 나를 본 사람은 버클리였다. 그는 '촌놈 시계' 밑에 서서 물끄러미 바라보는 나를 봤다. 그는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다. 내 주위에는 줄이 나와서 흔들렸다. 누군가 그에게 컵케이크를 주었다. 버클리는 컵케이크를 받았지만 먹지는 않았다. 그는 여전히 앞가르마를 타고, 새 가슴에 엉덩이는 납작한 내 모습을 보자 나를 부르고 싶어졌다. 한순간

이었다. 나는 곧 사라졌다.

몇 년 지나면서 지켜보는 게 지루해지면, 나는 필라델피아의 '서버 번 역'을 왕복하는 기차 뒷칸에 앉아 있곤 했다. 승객들이 타고 내릴 때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기차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사이에 섞여 들렸다. 역무원들이 역 이름을 외치는 소리, 신발 질질 끄는 소리, 구두 뒷굽이 아스팔트에 닿다가, 카펫이 깔린 기차 통로를 밟을 때 내는 탁탁 소리도 들렸다.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기차의 움직임을 느꼈다. 가끔 나처럼 지상에 살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 친구, 필요할 때 따뜻한 음식이나 환한 미소를 지어 준 친절한 타인. 내가 누군가 지켜보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지상의 사랑하는 이에게 말을 거는 소리가 들렸다. 물론 나처럼 소용없는 일이겠지만. 어리거나 젊은이를 달래고 가르치는 소리, 배우자를 사랑하고 갈망하는 소리, 대답 없는 일방적인 안타까움.

30번가에서 오버부룩 부근까지 가는 기차가 멈추거나 출발하면,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거나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유리를 조심해.', '네 아빠도 생각해 드려야지.', '아, 저 아이가 드레스를 입으니 어른처럼 보이네.', '제가 함께 있어요, 엄마.', '……에스메랄다, 샐리, 루프, 키샤, 프랭크…….' 여러 이름들. 그러고 나면 기차는 다시 속력을 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천국에서 쏟아지는 들리지 않는 소리의 볼륨은 점점 커졌다. 우리의 갈망이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커지면 나는 눈을 뜰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조용해진 기차 창 밖으로 빨래를 널거나 걷는 부인들이 보였다. 그들은 허리를 굽혀 바구니에서 흰색이나 노란색, 분홍색 이불

보를 꺼내서 줄에 널었다. 나는 남자 어른의 속옷과 남자 아이의 속옷의 개수를 헤아렸다. 면으로 된 여자 아이 속바지도 있었다. 끝없이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잦아들고, 그 자리에 내가 갈망하고 그리워하는 소리가 들어찼다. 삶의 소리가.

젖은 빨래, 탁탁 이불보 펴는 소리, 묵직한 이불보가 줄에 널리고. 어릴 적의 기억을 되살려 주는 살아 있는 소리. 나는 줄에 걸린 빨래 밑에 누워서 혀로 물방울을 받거나, 이불보 사이를 누비며 린지와 서로 잡으러 다니곤 했었다. 그러면 엄마의 잔소리가 이어지고. 땅콩버터 묻은 손으로 깨끗한 이불보를 만지지 말라거나, 우리가 아빠 셔츠에 레몬 사탕을 묻혔다거나. 이런 현실적인 광경과 소리, 상상이 뒤섞여 추억이 되었다.

그날 지상에서 몸을 돌린 후, 기차를 타고 가는데 딱 한 가지만 떠올랐다.

내가 병 속에 든 배를 잡고 있으면, 아버지는 돛을 펴는 줄을 불로 태워 쾌속선을 파란 인조 바다에 띄우면서 "가만히 잡고 있어라."라고 말했다. 아버지가 작업을 마치기를 기다리노라면 바싹 긴장이 되었다. 그럴 때면 병 속의 세상이 온전히 내 손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18

아버지가 전화로 토굴에 대해 말했을 때, 루스는 뉴욕 1번가에 있는 옷방에 있었다. 그녀는 전화기에 달린 검은 선을 팔목과 팔에 둘둘 감으면서 짧게 대꾸했다. 방을 세놓은 노파가 엿듣기를 좋아해서, 루스는 통화할 때 말을 적게 하려 애썼다. 나중에 거리에서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하고, 집에 갈 계획을 세웠다.

루스는 토지개발업자들이 토굴을 막기 전에 가서 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토굴 같은 장소에 은밀한 환상을 가졌다. 내 살해 사건과 우리가 교직원 주차장에서 만났던 일에 대해서도 환상을 품었다. 루스는 뉴욕에서도 그런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술에 취해 술집을 전전한 이야기며, 가족에게 매춘을 시킨 이야기, 술 때문에 생긴 상처 등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곤 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야기들 같았다. 루스는 일기와 시에 그런 내용을 기록했다. 그녀는 말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나직이 '적어 둬.' 라고 중얼댔다. 그리고 내

가 죽은 옥수수밭이나 아버지가 오래된 건축 자재를 구하는 곳을 구경하는 대신, 오래도록 시내를 걸어다니며 구경했다. 뉴욕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완벽한 배경을 제공해 주었다. 거리와 뒷골목을 돌아다니긴 했지만, 도시 자체는 그녀의 내적인 삶과는 별로 관계가 없었다.

루스의 눈에서는 고교 시절처럼 멍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사람을 초조하게 만드는 기운이 느껴졌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사람이나 물건을 찾느라 계속 두리번거리는 사람 같은 표정이었다. 이러한 궁금증으로 몸 전체가 비스듬하게 됐다. 일하는 바에서 머리나 손이 예쁘다는 칭찬을 들었고, 가끔 카운터 밖으로 나가면 손님들이 다리가 늘씬하다고 했지만 눈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도 안 했다.

그녀는 서둘러 검은 타이츠와 검은 미니스커트, 검은 부츠, 검은 티셔츠를 입었다. 일할 때나 평소나 같은 차림이어서 옷에 얼룩이 많았다. 나중에 야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스커트를 내려다봤을 때에야 보드카나 위스키를 엎지른 자국이 보였다. 알코올은 검은 천을 더 검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 루스는 그런 게 재미있었다. 일기에 '술은 사람뿐 아니라 물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 적었다.

한 번은 집 밖, 1번가에 커피를 마시러 가다가, 살찐 애완견들과 나누는 비밀 대화를 꾸며 냈다. 우크라이나 여자들이 치와와나 포메리언들을 무릎에 놓고 계단에 앉아 있었다. 루스는 옆을 지날 때 마구 짖어 대는 사나운 작은 개들이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걸었다. 빠른 속도로 걸음을 옮겼다. 발뒤꿈치가 땅에 닿아 아플 정도로 서둘러 걸었다. 치근대는 이상한 남자들을 빼면 아무도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루스는 사람이나 차 때문에 멈추지 않고 한 번에 몇 개의 거리를 지날 수 있는지 게임을 했다. 사람들이 있어도 속

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 뉴욕 대학 학생들이나 빨래 바구니를 든 부인들 사이를 바람처럼 누비고 지나갔다. 그녀가 지날 때 세상이 자신을 돌아본다는 상상을 하는 게 좋았다. 하지만 루스는 자신이 완전히 익명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알았다. 직장에서가 아니면,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그녀를 기다리지 않았다. 정말 '익명의 삶' 그 자체였다.

레이가 알려 주지 않았다면, 그녀는 새무얼이 내 동생에게 청혼했다는 소식도 모를 터였다. 학교 친구 중 유일하게 레이와 연락이 닿았다. 아직 고등학교에 다닐 때, 루스는 우리 엄마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학교 전체에 소문이 돌았고, 루스는 린지가 담담히 감당하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가끔 둘은 복도에서 마주쳤다. 루스는 말을 걸어도 린지가 마음 상하지 않겠다 싶을 때만 몇 마디 말을 했다. 루스는 학교에서 별종으로 통한다는 걸 알았고, 영재 캠프에서 함께 보낸 하룻밤이 꿈 같다는 걸 알았다. 꿈속에서는 교칙 같은 것에 억눌리지 않았다.

하지만 레이는 달랐다. 둘이 나눈 입맞춤과 가벼운 애무가 루스에게는 특별했다. 고이 간직한 추억이었다. 그녀는 집에 갈 때마다 레이를 만났다. 토굴을 보러 갈 때도 그를 데려가야겠다 싶었다.

레이는 잠시의 휴식을 반가워할 터였다. 루스가 운이 좋다면, 레이는 자신이 관찰한 수술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줄 터였다. 레이가 뭔가 설명하면, 그 광경이 상상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느낌이 정확히 일어났다. 그는 무의식중에 내뱉는 간단한 말 한 마디로도, 루스의 내면에서 모든 걸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1번가로 향하면서, 여자 어른이나 아이가 살해된 장소를 일일이 지적할 수 있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그런 곳을 일기장에 기록하려 했

지만 그러기에는 힘이 들었다. 이런저런 어두운 발코니나 좁은 뒷골목에서 일어났을 것 같은 일들에 골몰하느라, 신문에서 읽고 가 본 현장이나 무덤같이 확실한 곳들을 기록하는 일은 미루게 됐다.

루스는 자신이 천국에서 유명 인사가 됐다는 걸 몰랐다. 나는 사람들에게 루스 이야기를 했다. 그녀가 시내의 조용한 곳들을 관찰하면서 일기장에 개인적인 기도를 적는다는 걸 말했다. 그 소문이 쫙 퍼지자, 자기가 살해된 곳을 루스가 알아 냈는지 알아 보려고 여자들이 줄을 섰다. 천국에는 루스의 팬이 많았다. 이들이 웅성대며 모여서 십대 잡지를 보는 애들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면 루스는 실망할 것이다. 그녀는 천상에서 울리는 팀파니 소리에 맞춰 낮게 장송곡이 퍼지는 상상을 할 테니까.

따라다니면서 지켜보는 사람은 나였고, 이런 순간은 놀라우면서도 마음 아팠다. 루스는 이미지를 떠올렸고, 그것은 기억 속으로 타들어 가곤 했다. 어떤 때는 그런 이미지가 순간으로 그쳤고—계단에서 굴러 떨어짐, 비명, 밀치기, 목을 꽉 움켜잡는 손길—다른 때는 소녀나 여자가 살해되는 시간에 맞게 그녀의 머릿속에서 시나리오 한 편이 떠올랐다.

거리를 지나는 누구도, 검은 옷을 입은 아가씨가 도심 한가운데 멈춰 서서 생각에 몰두한다는 걸 몰랐다. 그녀는 미술학도인 체하고 맨해튼을 누빌 수 있었다. 한편 천국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루스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다. 산 사람들은 겁나서 생각도 못할 일을.

린지와 새무얼의 졸업식 다음 날, 나는 루스의 산책에 동행했다. 이미 점심 시간이 지났지만 센트럴 파크는 아직도 복잡했다. 잔디밭에 한 커플이 앉아 있었다. 루스는 그들을 쳐다봤다. 햇살 좋은 오후에는 죽음을 떠올리기가 힘들었고, 젊은 남자들은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다가 눈을 돌렸다.

그녀는 공원 안을 거닐었다. 그 공원에서 일어난 폭력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갈 만한 곳이 뻔했지만, 루스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곳들이 더 마음에 들었다. 공원의 동남쪽 구석에 있는 오리 연못이나 노인들이 손으로 깎은 아름다운 배를 띄운 잔잔한 인공호수를 좋아했다.

그녀는 센트럴 파크 동물원으로 접어드는 오솔길의 벤치에 앉았다. 자갈길 저편에 보모랑 같이 온 아이들이나 군데군데서 홀로 책을 읽는 어른들이 눈에 들어왔다. 걷는 게 고단해서,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무릎에 일기장을 펴 놓고, 생각하는 자세로 펜을 들었다. 먼 곳을 바라볼 때는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더 좋다는 것을 루스는 알고 있었다. 그러지 않으면 이상한 사내들이 다가와서 말을 걸 테니까. 일기장은 가장 가깝고 중요한 동반자인 셈이었다. 거기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다.

저편에서 여자 애가 보모가 자는 사이 담요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아이는 공원과 5번가 사이에 놓인 울타리로 이어지는 나무숲 사이로 향했다. 루스가 보모를 불러서 경고하려는 찰나, 보이지 않았던 얇은 줄이 보모를 깨웠다. 보모는 퍼뜩 일어나 앉더니, 아이에게 돌아오라고 소리쳤다.

이런 순간이면, 루스는 자라서 어른이 되는 여자 애들에 대해 생각했다. 그들의 나이는 그러지 못한 이들에게는 암호나 다름없었다. 그렇게 살아난 이들의 삶에는 살해된 이들이 달라붙으리라. 보모가 가방을 꾸리고 담요를 둘둘 말아서 일어서려 할 때, 루스는 한 아이를 보았다. 어느 날 숲으로 들어갔다가 실종된 아이를.

옷차림을 보고 얼마 전에 일어난 일임을 알 수 있었지만, 그뿐이었

다. 다른 단서는 없었다. 보모나 엄마도 없고, 낮인지 밤인지도 몰랐다. 그저 여자 애가 사라졌다는 것만 알았다.

나는 루스 곁에 있었다. 그녀는 펼친 일기장에 적어 내려갔다.

'시간? 센트럴 파크에서 여자 애가 숲 쪽으로 가다. 흰 레이스 칼라가 달린 고급 드레스.'

그녀는 일기장을 덮고 가방에 넣었다. 가까운 곳이 위안을 주었다. 동물원의 펭귄집.

우리는 오후 내내 그곳에서 보냈다. 루스는 펭귄 진열장 앞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어두운 곳에서 검은 옷을 입고 있어서, 얼굴과 손만 보였다. 펭귄들이 뒤뚱뒤뚱 걷다가 물 속에 들어가거나, 바위에서 미끄러져 물에 빠졌지만 턱시도를 입은 것 같은 몸은 물 속에서도 안전했다. 아이들은 소리치고, 고함을 지르고, 진열장 유리에 뺨을 바싹 댔다. 루스는 죽은 자의 수를 헤아리듯, 산 자의 수도 헤아렸다. 펭귄집에서 아이들의 고함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지자, 그녀는 다른 종류의 비명을 떠올렸다.

그 주말, 버클리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다. 이제 중학교 1학년인 남동생은 학교에서 점심을 사 먹었다. 그는 토론팀의 일원이었으나 예전의 루스처럼 체육 시간에는 인기가 없었다. 버클리는 린지와는 달리 운동에 열중하지 않았다. 대신 린 할머니가 '귀티난다' 고 말하는 일에 매달렸다. 버클리가 좋아하는 선생님은 도서관 사서였다. 키가 크고 가는 몸매에 머리결이 뻣뻣한 그녀는 홍차를 담은 보온병을 가지고 다녔고, 어릴 때 영국에 살았던 일을 얘기했다. 그후 몇 달간 버클리는 영국식 억양을 구사했고, 린지가 '설작 희곡' 을 볼 때 관심을 보였다.

그해 남동생은 아버지에게 정원을 가꿔도 되는지 물었다. 전에 엄마가 보살폈던 곳이었다. 아버지는 "그럼, 열심히 해 보렴." 하고 대답했다.

과연 버클리는 열심이었다. 정원 가꾸기에 별스러울 만큼 매달렸다. 잠이 안 오는 밤이면 화초 카탈로그를 봤고, 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얼마 안 되는 원예 관련 도서도 읽었다. 할머니는 파슬리와 바질 같은 허브를 심으라고 권했고, 할은 '진짜 괜찮은 것' —가지, 멜론, 오이, 당근, 콩 등—을 심어 보라고 했다. 엄마는 전에 그 땅에 두 종류를 다 키웠었다.

버클리는 책에서 읽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꼭 꽃과 토마토를 따로 심고, 허브를 한쪽에 심을 이유가 있을까. 그는 정원 전체를 삽으로 천천히 일궜고, 매일 아버지에게 씨앗을 갖다 달라고 부탁했다. 린 할머니를 따라 슈퍼마켓에 가서 살 물건을 얼른 챙기고, 화원에 들러 작은 화초를 사기도 했다. 이제 토마토와 데이지, 피튜니아, 팬지, 샐비어가 피기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버클리는 전에 지은 요새를 정원용 도구 창고로 만들어 도구와 물품을 보관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모든 걸 함께 키울 수 없으며 어떤 씨앗은 어떤 때는 싹이 트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을 순간을 기다렸다. 솜털이 보송보송한 오이의 덩굴손은 당근과 토마토 아래서 자라지 못하며, 파슬리는 억센 잡초에 파묻히고, 벌레 때문에 약한 꽃에 마름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버클리가 알게 될 날이 올 터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할머니는 이제 말로 설명하는 것은 믿지 않았다. 일흔의 나이에 할머니는 시간의 힘만 믿었다.

버클리가 지하실에서 옷상자를 끌고 부엌으로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커피를 마시러 내려왔다.

"농부 총각, 그게 뭐냐?"

아버지가 물었다. 그는 아침에 컨디션이 가장 좋았다.

"토마토에 막대기를 대 주려고요."

"아직 땅 위로 나오지도 않았잖아?"

아버지는 파란 타월 가운을 입고 맨발로 부엌에 서 있었다. 그는 할머니가 매일 아침 작동시켜 놓는 커피 메이커에서 커피를 따랐다. 아버지는 커피를 마시며 남동생을 바라봤다.

"오늘 아침에 봤어요. 손을 구부린 것처럼 말려 있어요."

나중에 아버지는 조리대 앞에서 이 말을 할머니에게 전하다가 창밖으로 그 광경을 봤다. 버클리가 상자에서 꺼내는 물건이 아버지의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내 옷이었다. 린지가 보관하려고 골라 둔 옷가지였다. 할머니는 내 방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 옷들을 상자에 넣었다. 아버지가 출근했을 때 조용히 상자들을 지하실로 옮겼다. 상자에는 '보관'이라고만 적은 라벨을 붙였다.

아버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방충문을 지나 성큼성큼 마당으로 나가며 버클리를 불렀다.

"왜요, 아빠?"

동생은 아버지의 말투에 놀랐다.

"그건 수지 옷이야."

버클리와 가까워지자, 아버지는 차분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더 다가서며, 버클리의 손에서 원피스를 빼앗았다. 그리고 버클리가 잔디밭에 쌓아 놓은 옷가지를 조용히 챙겼다. 아버지가 말없이, 숨도 쉬지 않고 옷을 가슴에 안아 들고 집으로 향하자, 불꽃이 튀고 말았다.

안색이 변하는 걸 본 사람은 나뿐이었다. 버클리의 귀와 뺨, 턱이

붉으락푸르락했다.

그가 물었다.

"왜 그 옷을 쓰면 안 되는데요?"

그 말이 아버지의 등에 비수처럼 꽂혔다.

"토마토에 막대기를 대는 데 그 옷을 쓰면 왜 안 되는 거죠?"

아버지가 몸을 돌렸다. 그는 버티고 선 아들을 보았다. 버클리의 등 뒤로 잘 일궈 놓은 땅에 작은 묘목이 흩어져 있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걸 묻니?"

"아빤 선택을 하셔야 해요. 이건 공평하지 않다고요."

동생이 말했다.

"버클리!"

아버지는 옷가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나는 버클리가 타오르는 것을 봤다. 내가 죽을 때보다 두 배는 자란 생울타리 위로 태양이 빛났다.

동생이 소리쳤다.

"지겨워 죽겠어요! 키샤도 아빠가 돌아가셨지만, 멀쩡하다고요!"

"키샤라니, 학교 친구냐?"

"네!"

아버지는 얼어붙었다. 아무것도 신지 않은 발과 발목에 물기가 느껴졌다. 차고 축축한 땅바닥이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안됐구나.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빤 아무것도 모르세요."

동생은 홱 몸을 돌리더니, 토마토 모종을 발로 콱콱 밟기 시작했다.

"버클리, 그만 해!"

아버지가 외쳤다.

동생이 몸을 돌렸다.

"아빠는 몰라요."

버클리가 말했다.

"미안하다. 이건 수지가 입던 옷이고 난 그저…… 납득이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 아이의 옷이라서…… 수지가 입던 거잖니."

"구두 한 짝도 아빠가 가져가셨죠?"

버클리가 물었다. 이제 차분해진 목소리였다.

"뭐라고?"

"구두 한 짝이요. 제 방에서 가져가셨잖아요."

"버클리,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모노폴리 게임에서 쓰는 구두를 보관했는데 없어졌어요. 아빠가 가져가신 거 아녜요! 아빤 누나를 아빠 혼자만의 것인냥 생각하신다고요!"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말해 봐. 네 친구 키샤의 아빠는 어떻게 그렇게 됐지?"

"옷을 내려놓으세요."

아버지는 가만히 옷을 내려놓았다.

"키샤의 아빠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말해 보렴."

이제 아버지는 급했다. 무릎 수술을 한 직후 같은 상태였다. 진통제에 취해 있다가, 눈을 뜨면 눈을 꿈벅이며 '까꿍, 아빠.' 라고 말하려고 기다리는 다섯 살배기 아들이 있던 때 같았다.

"누난 죽었어요."

세월이 흘러도 늘 가슴이 아팠다.

"나도 알아."

"하지만 아빠는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키샤는 여섯 살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애는 아빠 생각조차 안 한대요."

"그렇겠지."

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누구?"

"우리요, 아빠. 저랑 린지 누나요. 엄마는 현실을 못 받아들이고 떠나셨어요."

"진정해라, 버클리."

아버지는 최대한 깊이 호흡했다. 그때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보내 줘. 보내 줘. 보내 주라고.'

"뭐라고?"

아버지가 물었다.

"아무 말 안 했는데요."

'보내 줘. 보내 줘. 그만 보내 줘.'

"미안하구나.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축축한 풀밭에 서 있으려니 아버지는 발이 너무 차가웠다. 가슴 속이 텅 비어서, 벌레 떼가 날아다니는 기분이었다. 거기서 메아리가 울려 귓전을 때렸다. '보내 줘.'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팔이 따끔거리기 시작했다. 바늘로 꼭꼭 쑤시는 것 같았다. 버클리가 얼른 아버지에게 갔다.

"아빠?"

"얘야."

목소리에는 떨림과 내 동생을 향해 뻗는 손길이 깃들어 있었다.

"할머니를 모셔 올게요."

버클리가 달려갔다.

아버지는 내 옷더미로 얼굴을 돌리고 모로 누워서 속삭였다.

"선택을 할 수가 없단다. 너희 셋 모두를 사랑했는걸."

그날 밤 아버지는 병원에 누워 있었다. 몸에 붙인 모니터에서 삐-이 소리와 웅웅대는 소리가 났다. 발 주위와 등뼈를 따라 맴돌 시간이었다. 그를 밀어 댈 때였다. 하지만 어디로?

침상 위에 달린 시계 소리에 린지와 마당에서 하던 놀이가 떠올랐다. 데이지 꽃잎을 하나씩 떼면서 '아빠는 날 사랑한다/아니다' 라고 말하는 놀이였다. 시계 소리에 맞춰 '나 때문에 죽는다/아니다' 라는 말을 되뇌었다. 거기엔 내 두 가지 소망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의 심장이 약해지자 괴로웠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죽는다면, 난 영원히 그를 차지하리라. 그런 바람이 잘못일까?

집에서는 버클리가 어둠 속에 누워 이불을 끌어당겼다. 아버지가 실린 구급차 뒤를 린지가 할머니를 태우고 따라갈 때, 버클리는 집에 있으라는 말을 들었다. 린지가 침묵하자 버클리는 큰 죄책감을 느꼈다. 린지는 연거푸 두 마디만 물었다.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아빠가 왜 그렇게 흥분하셨지?"

남동생은 소중한 사람이 떠나는 게 가장 두려웠다. 그는 린지와 린 할머니, 새무얼, 할을 사랑했지만, 늘 아버지에게 달라붙어 지냈다. 잘 지키지 않으면 아버지를 잃을 것 같았기에.

우리는—죽은 자식과 산 자식은—같은 바람을 안고 아버지 양쪽에 서 있었다. 아버지를 차지하고픈 갈망을 안고.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했다.

지금껏 아버지가 버클리의 잠자리를 봐 주지 않은 것은 딱 두 번뿐이었다. 전에 하비 씨를 찾으러 밤에 옥수수밭에 나갔을 때와 병원에 입원한 지금. 두 번째 심장마비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의료진이 지켜보는 중이었다.

버클리는 다 컸으니 아버지가 밤에 없는 걸 꺼려선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나는 동생과 공감했다. 아버지의 굿나잇 키스는 워낙 특별했다. 아버지는 베네치아식 블라인드가 편편하도록 세심히 커튼을 드리우고—혹시 비스듬한 곳이 있어서, 아침에 아들을 깨우러 오기 전에 빛이 들어올까 신경을 썼다.—침대 끝에 서면, 버클리는 가끔 팔다리에 소름이 돋았다. 기대감이 너무 짜릿해서.

"준비됐니, 버클리?"

아버지가 물으면, 동생은 "완료!"라고 대답하거나 가끔은 "이륙!"이라고 외치기도 했지만, 너무 두렵거나 평안을 원할 때는 "네!"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얇은 면이불을 엄지와 검지로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그런 다음 하늘색(내 이불보를 쓸 경우에는 연보라색) 이불보를 떨어뜨리면, 이불보가 낙하산처럼 퍼지면서 천천히 버클리의 벗은 몸 위로, 무릎, 팔뚝, 뺨, 턱으로 내려앉았다. 공기와 이불보가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을 때 느껴지는 자유와 보호받는 느낌이 대단했다. 가장자리에서 떠는 느낌…… 기분이 좋았다. 버클리는 아버지에게 부탁하면, 다시 한 번 해 줄 것 같았다. 공기와 이불 커버.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끈이 있었다. 소년과 상처받은 남자.

그날 밤 버클리는 자궁 속의 태아처럼 웅크리고 누웠다. 블라인드를 내린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 이웃집 불빛에 언덕이 보였다. 방 저편에 있는, 미늘살 옷장 문을 바라보았다. 어릴 때는 거기서 마녀가 나와 침대 밑에 있는 용을 만난다는 상상을 했다. 이제 그런 두

려움은 없어졌지만.

버클리가 속삭였다.

"제발 아빠를 돌아가시게 하지 마, 큰누나. 내겐 아빠가 필요해."

남동생 곁을 떠났다. 전망대 앞을 지나 포도송이처럼 걸린 전등 밑으로 걸어가니, 앞에 벽돌 길이 펼쳐져 있었다.

한참 걸으니 바닥의 벽돌이 판석으로 변했다가, 작은 돌멩이가 되더니, 흙이 수 킬로미터나 뻗쳤다. 나는 거기 서 있었다. 천국에서 오래 지내다 보니, 이럴 때는 뭔가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불빛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하늘이 짙은 파란색으로 변했다. 내가 죽은 날 밤처럼. 그때 누군가 눈에 들어왔다. 너무 멀어서 처음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이인지, 어른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달빛이 환해지면서 모습이 분명히 보였다. 남자 어른이었다. 이제 난 두려워서 숨이 가빠졌다.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곳까지 뛰어갔다. 아버지일까? 내가 간절히 원하던 일이 일어났을까?

"수지."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다가가 몇 발자국 앞에서 멈췄다. 그가 내게 양팔을 뻗었다.

"기억하니?"

그가 물었다.

나도 모르게 다시 작아졌다. 여섯 살쯤, 나는 일리노이 주에 있는 할아버지 댁 거실에 있었다. 그 시절처럼 나는 할아버지의 발에 발을 올렸다.

"할아버지."

내가 말했다.

천국에 우리 둘뿐이었고, 나는 여섯 살 때처럼 가뿐하게 움직였다. 그때 할아버지는 쉰여섯 살이었다. 아버지가 우리를 할아버지 댁에 데려갔다. 우리는 천천히 춤을 췄다. 지상에서 할아버지는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울었는데.

"기억하니?"

할아버지가 물었다.

"네!"

"'현을 위한 아다지오' 지."

할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춤추며 돌 때—지상에서처럼 어색하지 않았다.—이 음악을 들으면서 할아버지가 울던 기억이 나서, 이유를 물었다.

"사랑하는 이가 오랫동안 떠나가면 울게 되는 법이란다, 수지."

할아버지는 나를 꼭 끌어안았고, 나는 린지와 놀려고 달려 나갔다. 그때는 마당이 아주 커 보였는데.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시간을 알 수 없는 파란 불빛 속에서 몇 시간이고 춤췄다. 우리가 춤출 때 지상과 천국에서 무슨 일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난 알았다. 들썩임 같은 것. 과학 시간에 배운 지각의 움직임 같은 것. 지진 같은 것이 시공을 찢고 갈랐다. 할아버지의 가슴에 착 달라붙으니, 노인 냄새가 풍겼다. 아버지에게 나던 좀약 냄새와 비슷했다. 지상에서는 피, 천국에서는 하늘…… 귤 냄새, 스컹크 냄새, 고급 담배 냄새.

음악이 멎자, 우린 영원토록 춤춘 기분이었다. 할아버지가 뒤로 물러서자, 그의 등에 닿는 불빛이 노랗게 변했다.

"난 가야겠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어디로요?"

내가 물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얘야. 우린 아주 가까이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몸을 돌려 걷다가, 점과 먼지처럼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무한대 속으로.

19

그날 아침 엄마가 케루소 양조장에 출근하니, 메모가 기다리고 있었다. 관리인이 대충 휘갈겨 쓴 글에는 '위급'이란 말이 있었다. 엄마는 커피를 마시면서 포도밭을 내다보는 이른 아침의 의례도 건너뛰었다. 고객 시음장으로 쓰는 방의 문을 열었다. 전등을 켤 새도 없이, 카운터 밑에 놓인 전화기부터 찾았다. 펜실베이니아 집으로 전화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래서 펜실베이니아 교환원에게 전화해서, 닥터 아크힐 싱의 번호를 알아 냈다.

루아나가 전화를 받았다.

"그래요, 레이와 저는 몇 시간 전에 구급차를 봤어요. 가족이 모두 병원에 있나 보네요."

"누가 아팠을까요?"

"친정어머님이시겠죠?"

하지만 엄마는 메모 내용으로, 전화를 건 사람이 린 할머니임을 알았다. 그러면 아이 중 하나거나 아버지였다. 엄마는 루아나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묵직한 전화기를 꺼내 카운터 위로 올리려 했다. 그 와중에 고객에게 주는 포도주 색깔표(레몬색은 샤도네이, 지푸라색은 쇼비뇽 블랑……) 묶음이 쏟아졌다. 엄마는 양조장에 취직한 후 습관적으로 일찍 출근했다. 이제 그런 습관이 고마웠다. 생각나는 것은 우리 동네 병원 이름뿐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열이 나거나 넘어져서 다쳤을 때 가는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다. 내가 버클리를 데려간 병원이 바로 거기였다.

"잭 새먼은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자분과 어떤 관계신가요?"

엄마는 몇 년 동안 입에 올리지 않았던 단어를 말했다.

"제 남편인데요."

"심장마비를 일으키셨습니다."

엄마는 전화를 끊고, 고무와 코르크로 된 바닥에 주저앉았다. 한참 앉아 있으니 지배인이 출근했고, 엄마는 낯선 단어를 그대로 옮겼다. 남편이니 심장마비니.

나중에 엄마가 고개를 드니, 지배인의 트럭에 앉아 있었다. 포도밭 부근을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는 지배인은 엄마를 태우고 샌프란시스코 국제 공항으로 냅다 달렸다.

엄마는 시카고행 비행기표를 샀다. 그곳에 가서 필라델피아행 비행기로 갈아타야 했기 때문이다.

비행기가 높이 올라 구름 속에 파묻히자, 엄마는 멀리서 들리는 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승무원들에게 할 일이나 준비할 사항을 알리

는 벨소리였다. 곧 음료를 담은 카트가 지나는 소리가 났고, 엄마의 눈에는 승객들이 아니라, 양조장의 서늘한 돌 아치 뒤로 놓인 빈 오크통들이 보였다. 그곳은 양조장 인부들이 햇볕을 피해 들어와 앉아 있곤 했지만, 엄마는 깨진 본차이나 컵을 내미는 아버지가 거기 앉아 있는 상상을 했다.

시카고 공항에 내려 두 시간을 기다리는 사이, 엄마는 정신을 차리고 칫솔과 담배를 샀다. 그러고는 다시 병원에 전화해서, 이번에는 린 할머니를 바꿔 달라고 부탁했다.

"어머니, 여긴 시카고인데 지금 가는 길이에요."

"애비게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양조장으로 전화했더니, 네가 공항으로 떠났다더구나."

할머니가 말했다.

"그이는 어때요?"

"널 찾고 있다."

"애들도 거기 있나요?"

"그래. 새무얼도 있다. 원래는 오늘 네게 전화해서 얘기하려 했는데…… 새무얼이 린지에게 청혼했단다."

"잘 됐네요."

엄마가 말했다.

"애비게일?"

"네."

엄마는 할머니가 주저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드문 일이었다.

"잭이 수지도 찾고 있다."

엄마는 시카고 오헤어 공항 터미널 밖으로 나와 담배에 불을 붙였

다. 작은 가방과 악기를 든 학생들이 밀려들었다. 각자 악기 케이스에 '애국자들의 집' 이라고 적힌 노란색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시카고는 매캐하고 습했다. 이중 주차가 되어 있어 매연이 심하고 공기가 부옇게 흐렸다. 엄마는 아주 빨리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새 담배에 다시 불을 붙였다. 한 손은 가슴을 잡고, 다른 손은 연기를 내뿜을 때마다 앞으로 뻗었다. 양조장에서 일할 때 입는 옷차림 그대로였다. 물이 빠졌지만 깨끗한 청바지와 주머니에 '케루소 양조장' 이라고 인쇄된 오렌지색 티셔츠. 피부가 검어져서, 하늘색 눈이 더 파랗게 보였고, 머리는 느슨하게 묶고 있었다. 귓가와 관자놀이 부근이 희끗희끗했다.

엄마는 모래 시계의 양끝을 다 붙들고 있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했지만. 엄마 혼자 누려 온 시간은 가족이 당기면 중심을 바꾸어 모래가 거꾸로 흘러내리곤 했다. 이제 양쪽이 잡아당겼다. 결혼 생활과 심장마비.

터미널 밖에 서서,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양조장에서 일하면서 남자용 지갑을 거기 넣어 보관했다. 카운터 밑에 핸드백을 두고 분실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엄마는 택시 타는 곳에 피우던 담배를 던지고, 콘크리트 화단 구석에 앉았다. 화단에는 잡초와 매연 때문에 시들한 어린 묘목만 자랐다.

엄마의 지갑 속에는 몇 장의 사진들이 있었다. 엄마는 매일 그것들을 꺼내 봤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넣는 칸에 엎어서 넣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경찰서의 증거물 박스에도 있는 그 사진…… 레이가 어머니의 인도 시집에 끼워 놓은 사진…… 경찰서에서 인쇄물로 만들어서 집집마다 우편함에 넣었던 학급 단체 사진.

8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엄마에게도 그 사진은 어디에나 있는 유명

인의 사진처럼 느껴졌다. 하도 많이 봐서, 내가 그 사진 속에 들어 있는 것 같았다. 사진에 있는 것보다, 뺨이 더 붉고 눈도 더 파랗게 느껴졌다.

엄마는 그 사진을 꺼내서, 반듯하게 뒤집어서 손에 쥐었다. 엄마는 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둥그런 톱니 모양의 내 치아를 좋아했기 때문에 늘 사진을 찍을 때 내가 이를 보이지 않는 걸 아쉬워했다. 그래서 사진 찍을 때 활짝 웃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진사 앞에만 서면 너무 쑥스러워서 입술 끝만 올리고 웃었다.

엄마는 연결 비행기편의 탑승 안내 방송을 들었다. 일어섰다. 몸을 돌리다가, 힘들게 버티는 어린 나무를 봤다. 엄마는 그 사진을 나무에 기대 세워 놓고, 서둘러 터미널로 들어갔다.

필라델피아행 비행기에서, 엄마는 나란히 놓인 좌석 셋 중 가운데에 앉았다. 여행 중인 엄마라면 옆의 두 자리에 자식들이 앉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다. 한 자리에는 린지가, 그리고 다른 한 자리에는 버클리가. 하지만 명색이 엄마라 할지라도 어느 시점에서 엄마 노릇을 멈추지 않았던가. 자식들의 삶에서 5년 넘게 빠져 지냈으니,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었다. 이제 엄마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 소명이라는 걸 알았다. 많은 젊은 여성이 어머니가 되는 것을 꿈꾸었다. 하지만 엄마는 그런 꿈을 가져 본 적이 없었고, 나를 원치 않았던 데 대해 상상할 수 없이 가혹한 벌을 받았다.

나는 비행기에서 엄마를 보면서, 엄마를 해방시키고 싶은 소망을 구름 속으로 보냈다. 엄마는 앞으로 닥칠 일이 두려워 자꾸 몸이 무거워졌지만, 이 무거움 속에는 안도가 깃들어 있었다. 승무원이 파란 베개를 주자, 엄마는 잠시 잠들었다.

필라델피아에 도착한 비행기가 활주로 위를 미끄러지자, 엄마는 어디에 있는지, 올해가 몇 년도인지 떠올렸다. 자식들과 친정 어머니, 남편을 보면 무슨 말을 할지 서둘러 생각해 봤다. 그때 비행기가 완전히 멈췄고, 엄마는 할 말을 준비하는 걸 포기하고 비행기에서 내리는 데만 집중했다.

그녀는 여객기의 긴 트랩 끝에서 기다리는 자식들을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다. 지난 세월 동안 린지는 지방이 다 빠져 마른 체격이 되었다. 곁에는 린지와 남자 쌍둥이 같은 체격의 청년이 서 있었다. 키가 더 크고, 살집이 조금 있기는 했지만 분명 새무얼이었다. 엄마가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자, 그들도 그녀를 바라봤다. 처음에 엄마는 의자 팔걸이에 걸터앉은 통통한 남자 아이를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린지와 새무얼에게 다가가려는 찰나—처음 한동안은 모두 꼼짝도 못하는 것 같았다.—그녀는 버클리를 보았다.

엄마가 카펫 깔린 트랩을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안내 방송이 들렸고, 승객들이 마중 나온 이들과 자연스럽게 인사하며 곁을 지나갔다. 하지만 아들을 안는 순간, 엄마는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았다. 1944년 위네쿠카 캠프. 엄마는 뺨이 통통하고 다리가 굵은 열두 살 소녀였다. 나중에 딸들이 그런 체격을 닮지 않아 다행스러웠는데, 아들이 그런 모습이었다. 그녀는 너무 오래 떠나 있었다.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었다.

엄마가 나같이 걸음 수를 헤아렸다면, 7년이 다 되도록 두려워서 다가가지 못했던 거리가 일흔세 걸음이었다는 걸 알았으리라.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린지였다.

"엄마."

엄마는 린지를 쳐다보았다. 위네쿠카 캠프에서 쓸쓸하게 지내던 38

년 전이 떠올랐다.

"린지."

엄마가 말했다. 린지는 엄마를 빤히 쳐다봤다. 이제 버클리는 일어났지만, 먼저 제 신발을 내려다보더니, 어깨 너머를 힐끗 봤다. 그는 창 너머로 승객들이 내리는 비행기들을 바라봤다.

엄마가 물었다.

"아빠는 어떠시니?"

린지는 '엄마'란 말을 한 후 얼어붙었다. 입에서 비누맛 같은 어색함이 느껴졌다.

"제가 보기에, 그리 좋은 상태는 아니세요."

새무얼이 말했다. 그들이 나눈 말 중 가장 긴 말이었다. 엄마는 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버클리?"

엄마는 그를 볼 면목이 없었다. 엄마라고 나서기가 힘들었다.

버클리는 엄마 쪽으로 머리를 홱 돌렸다.

"벅이에요."

버클리가 말했다.

린지는 묻고 싶었다. '왜 반지를 안 끼고 있어요?'라고.

"갈까요?"

새무얼이 물었다.

네 사람은 긴 터널을 지나, 중앙 터미널로 향했다. 그들이 수화물 찾는 곳으로 향하는 것을 알고 엄마가 말했다.

"짐을 안 가져왔는데."

그들은 어색하게 머뭇거렸고, 새무얼은 주차장 안내판을 찾았다.

"엄마."

린지가 다시 운을 뗐다.

"난 너희에게 거짓말을 했다."

린지가 더 말하기 전에 엄마가 말했다. 두 사람의 눈길이 마주쳤다. 둘 사이에는 뜨거운 줄 같은 게 있었다. 뱀의 뱃속에서 소화되지 않아 불룩 튀어나온 쥐 같은 것…… 렌 형사에 대한 비밀이.

새무얼이 말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구름다리를 지나면 주차장이 나오는데요."

새무얼이 버클리를 불렀다. 버클리는 공항 경찰들 쪽에서 머뭇거렸다. 그는 제복 입은 사람들만 보면 반했다.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린지가 말했다.

"병원에서 버클리를 아빠 병실에 드나들지 못하게 해요, 나이가 어리다고."

"내가 어떻게 해 보마."

엄마는 좌석에 앉은 채 몸을 돌렸다. 그녀가 버클리를 쳐다보며, 처음으로 미소지으려 했다.

"웃기시네."

버클리가 고개도 안 들고 중얼댔다. 엄마는 얼어붙는 듯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썰렁해졌다. 증오와 긴장감이 넘쳤다. 핏빛 파도를 헤치고 나가야 되는 분위기였다. 엄마는 아들이 '벅'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말했다.

"벅, 엄마 좀 쳐다볼래?"

버클리는 조수석을 노려보았다. 엄마를 향한 분노가 고스란히 묻어났다.

결국 엄마는 몸을 돌려 앉았고, 새무얼과 린지, 버클리는 조수석에

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참으려고 애쓰는 흐느낌. 하지만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버클리의 마음을 씻지 못했다. 매일, 매주, 해마다 증오심을 차곡차곡 쌓으며 살았으니까. 그 안에는 네 살 난 아이가 가슴을 졸이며 있었다. 그러다 가슴이 돌덩이가 되어 버렸다, 돌덩이가.

"새먼 씨를 만나면 우리 모두 기분이 나아질 거예요."

새무얼 역시 분위기를 참을 수 없어서, 몸을 숙여서 라디오를 켰다.

8년 전 한밤중에 엄마가 달려간 그 병원이었다. 층이 다르고 내부가 다른 색으로 칠해졌지만, 복도를 걸으면서 엄마는 뭔가가 몸을 조이는 기분을 느꼈다. 그곳에서 저지른 일이. 렌이 몸을 밀자, 그녀의 등이 거친 벽에 눌렸었다. ……달아나고 싶었다. 캘리포니아로 도망치고 싶었다. 이방인 틈에서 일하며 조용히 살 수 있는 곳으로. 그곳에서는 나무와 남국의 꽃잎 사이에 숨을 수 있었다. 이국적인 식물과 사람들 틈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다.

복도를 걷다가 눈에 들어온 할머니의 발목과 신사용 단화가 엄마를 붙들었다. 멀리 살아서 잃은 소박한 것 중 하나가 할머니의 발과 신발이었다. 일흔 살 먹은 할머니가 불편한 구두를 신은 모습.

하지만 엄마가 병실에 들어가자, 다른 사람들, 그녀의 아들, 딸,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는 엄마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힘들게나마 눈을 떴다. 팔목과 어깨에 여러 가지 튜브와 전선이 연결되어 있었다. 작고 네모난 베개를 벤 아버지는 허약해 보였다. 엄마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울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당신이군, 푸른 눈동자!"

아버지가 말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상처받고 무너진 남

자…… 그녀의 남편.

"내 사랑."

아버지가 힘겹게 숨쉬며 말했다.

"잭."

"이 정도는 돼야 집에 오는군."

"그럴 가치가 있었어요?"

엄마가 공허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두고 봐야지."

아버지가 말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광경은, 실오라기 같은 믿음이 이루어진 것 같았다. 아버지는 엄마의 눈에서 반짝임을 봤다. 매달릴 만한 것들을. 그는 오래 전 큰 암초에 걸려 가라앉은 배에서 떨어진 나무 판자들 사이에서 이런 것을 보았다. 이제 그에게는 잔재만 남았다. 그는 손을 뻗어 엄마의 뺨을 어루만지려 했지만, 팔에 힘이 없었다. 엄마가 가까이 다가가서 뺨을 아버지의 손바닥에 댔다.

할머니는 구두를 신고도 조용히 움직일 줄 알았다. 할머니가 조용히 병실에서 나갔다. 할머니가 평소의 걸음걸이로 복도를 걸어 대기실로 다가갈 때, 간호사가 508호실의 잭 새먼에게 온 전갈이라며 메모지를 건네 주었다. 할머니는 그를 만나 보지는 못했지만 이름은 알고 있었다.

'렌 퍼너먼이 곧 문병할 것임. 건강을 기원함.'

할머니는 메모지를 말끔하게 접었다. 앞서서 새무얼이 있는 대기실로 간 손주들을 만나기 전에, 할머니는 메모지를 핸드백에 넣었다. 파우더와 빗 사이에.

20

그날 밤 하비 씨가 코네티컷에 있는 양철 지붕집에 들어갔을 때는 비가 내릴 것 같았다. 몇 년 전 그는 이 오두막에서 젊은 식당 여종업원을 살해했고, 그녀의 앞치마 주머니에 든 팁으로 바지를 샀다. 이제 시체 썩는 냄새는 없어졌다. 시체를 묻은 곳에 다가가도 지독한 악취가 반겨 주지 않는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오두막은 열려 있었고, 그가 땅을 팠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하비 씨는 숨을 들이쉬고 힘없이 오두막으로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빈 무덤 옆에서 잠들었다.

어느 시점에서 나는 죽은 사람들을 헤아리지 않고, 산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기 시작했다. 렌 퍼너먼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걸 눈치챘다. 그는 비번일 때는, 여자 아이부터 할머니에 이르는 모든 연령대의 여자들을 주의깊게 보고 관심을 기울였다. 쇼핑센터에서 본 소녀는

훌쩍 자라서 치마가 짧았는데, 그 연약함이 렌 형사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젊었을 때처럼 염색해 달라고 고집을 부리는,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들도 그랬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식품점에서 뛰다시피 장을 보는 사이, 아이들은 선반에서 사탕봉지를 떨어뜨렸다. 나는 그들을 보면, 명단에 올렸다. 살아서 숨쉬는 여자들 명단에. 가끔 상처받은 이들, 남편에게 구타당하거나 타인에게 성폭행당하거나, 아버지에게 강간당하는 아이들을 보면, 내가 끼어들어 해결해 주고 싶었다.

렌도 늘 이런 상처받는 여자들을 봤다. 늘 경찰서에 그런 사람들이 왔지만, 일과 관련없는 곳에서도 그는 그런 여자들을 알아봤다. 낚시도구 상점의 부인은 얼굴에 멍은 없었지만, 개처럼 기가 죽어서 사과조로 속삭이듯 말했다. 누이들이 사는 집에 갈 때마다 길에서 보는 아가씨.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는 뺨의 살이 빠지고 말라 갔다. 슬픔이 눈에 가득 찬, 무겁고 희망 없이 늘어진 모습이었다. 그녀가 보이지 않으면, 렌은 걱정했다. 그녀가 길에 있으면, 절망감과 생기가 동시에 느껴졌다.

렌은 오랫동안 내 서류철에 기록할 내용이 별로 없었다. 지난 몇 달 사이, 예전에 작성한 증거란에 몇 가지 항목을 첨가했을 뿐이었다. 다른 희생자 이름인 소피 시케티. 그녀의 아들 이름. 조지 하비의 가명. 또 그가 손에 든 물건도 있었다. 내 팔찌에 매달렸던 펜실베이니아 돌 장식품. 그는 증기물 비닐 속에서 돌을 만지다가, 내 이름 머리글자를 보았다. 돌에 실마리가 있을까 해서 세세히 검사했다. 더욱이 다른 소녀의 살해 현장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현미경까지 동원되었다.

렌 형사는 그 돌이 내 것임이 확인되자마자, 아버지에게 돌려 주려고 했다. 그러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규칙 위반이

었다. 젖은 교과서와 내 생물책에 끼워진 남자 애의 연애편지만 나왔다. 콜라병. 방울 달린 귀마개. 이런 증거품은 잘 보관해 두었다. 한데 팔찌 장식은 그런 것들과 성격이 달랐다. 꼭 돌려 주고 싶었다.

우리 엄마가 떠나고 몇 년간 렌과 데이트한 간호사는, 입원 환자 명단에 '잭 새먼'이라는 이름이 있자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렌은 병원으로 아버지를 찾아가서, 돌 장식을 넘겨 주기로 마음먹었다. 렌은 그 돌을, 아버지가 빨리 회복하게 도와 주는 부적으로 여겼다.

나는 그를 보면서, 할의 오토바이 수리점 뒤편에 있는 독극물 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잘 봉인했지만, 안에 든 내용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엄마가 떠난 후 렌에게 연민과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파악하기 힘든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점에서는 나와 비슷했다.

병원 밖에서 소녀가 수선화 다발을 팔고 있었다. 초록색 줄기는 보랏빛 리본으로 묶여 있었다. 나는 엄마가 소녀의 수선화를 전부 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8년 전에 엄마를 봤다고 기억하는 엘리엇 간호사는, 엄마가 가슴 가득 꽃을 안고 복도에 나타나자 나서서 도와 주었다. 그녀가 비품장에서 남는 물병들을 가져왔다. 두 사람은 물병에 물을 채워서 꽃을 꽂아, 아버지가 자는 동안 병실 곳곳에 꽃병을 놓았다. 엘리엇 간호사는, 만일 상실감이 여성의 미모를 재는 척도라면, 우리 엄마는 훨씬 더 아름다워졌다고 생각했다.

초저녁, 린지, 새무얼, 린 할머니는 버클리를 집으로 데려갔다. 엄마는 아직 집을 볼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엄마는 아버지에게만 집중했다. 다른 것은 모두 미뤄야 했다. 집도, 자식들의 말없는 비난도, 병

원 구내 식당은 불을 훤히 밝혀서, 나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보호자들을 재우지 않으려는 헛된 노력을 하는 인상을 주었다. 묽은 커피, 딱딱한 의자, 층마다 서는 승강기. 그래서 엄마는 구내 식당에 가지 않고, 병원에서 나와서 입구로 나가는 경사진 인도를 걸었다.

이제 밖은 어두웠고, 오래 전 한밤중에 잠옷 바람으로 왔던 주차장에는 차가 몇 대밖에 없었다. 엄마는 할머니가 어깨에 둘러 주고 간 스웨터를 여몄다.

주차장을 가로질러 걸으면서, 어두운 차 안을 들여다보며 병원에 온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 봤다. 어떤 차 뒷좌석에는 카세트 테이프들이 흩어져 있고, 다른 차에는 아기용 보조 의자가 있었다. 엄마는 차마다 들여다보며 게임을 했다. 혼자인 것이 외롭고 낯설지 않았다. 꼭 친구 부모님 집에서 스파이 게임을 하는 아이 같은 기분이었다.

'애비게일 요원이 우주 비행 관제 센터에게. 털이 복실복실한 강아지 인형이 보인다! 축구공이 보인다! 여자가 보인다!'

거기 운전석에 앉아 있는 여자가 있었다. 여자는 엄마가 쳐다보는 것을 몰랐고,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마자 엄마는 얼른 시선을 돌려, 가고 있는 식당의 불빛을 쳐다봤다. 엄마는 고개를 돌려 그녀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없었다. 여자는 병원에 들어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엄마는 그 얼굴을 알았다. 거기 있는 일이 아닌 다른 것을 원하는 표정이었다.

엄마는 병동과 응급실 입구 사이에 난 좁은 길에 서니, 담배를 피우고 싶어졌다. 그녀는 그날 아침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잭이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집에 가야 했다. 한데 막상 여기 있으니,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떠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무슨 일이 생길까?

등 뒤로 주차장에서 차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났다. 그 여자가 병원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식당은 뿌옇게 보였다. 엄마는 혼자 앉아서, 캘리포니아에는 없는 것 같은 음식—닭고기 튀김 스테이크—을 주문했다.

맞은편에 앉은 남자가 빤히 쳐다봤다. 엄마는 그의 외모를 샅샅이 살폈다. 습관적인 행동이었다. 서부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살해된 후 펜실베이니아에 살 때, 엄마는 믿지 못하는 낯선 남자만 보면, 곧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먼저 이런 증상이 일어났다. 두려움 때문이었다. 닭고기 튀김 스테이크와 홍차가 나오자, 엄마는 음식에만 집중했다. 고무 같은 고기에 씌운 기름진 빵가루와 쇠 같은 맛이 나는 오래된 홍차를 먹고 마셨다. 집에 며칠 이상은 못 머무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는 곳마다 내가 보였다. 맞은편에 앉은 사내가 내 살해범일 수도 있었다.

엄마는 식사를 마치자 돈을 치르고, 식당을 나섰다. 허리 위로는 눈도 들지 않았다. 출입문에 달린 종이 소리를 내자, 엄마는 화들짝 놀랐다. 가슴이 철렁했다.

한길을 쭉 걸어서 병원으로 돌아왔지만, 주차장을 지날 때는 숨이 가빴다. 불안해하던 여자의 차는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

사람이 거의 없는 중앙 로비에 앉아서, 다시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아버지 곁에서 몇 시간 있다가, 그가 깨어나면 작별 인사를 할 예정이었다. 결정을 하자마자, 몸 속에 시원한 기운이 밀려왔다. 갑자기 책임감에서 벗어난 기분이었다. 머나먼 곳으로 가는 차표를 얻은 기분.

이제 10시가 넘은 늦은 시간이었다. 엄마는 텅빈 승강기를 타고 5

층까지 올라갔다. 복도 불빛이 어둠침침했다. 간호사실을 지나는데, 안에서 간호사 둘이 나직이 수다를 떨고 있었다. 유쾌하고 나른한 목소리로 아는 소문을 서로 털어놓았다. 느긋한 친밀감이 울려 퍼졌다. 한 간호사가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릴 때, 엄마는 아버지 병실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혼자뿐이었다.

문이 닫히자, 마치 진공 상태인 듯 고요해졌다. 나는 거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았다. 나도 가야 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대로 거기 있었다.

침대 위에 달린 촉수 낮은 형광등 불빛에 잠든 아버지 모습을 보자, 엄마는 이 병원에서, 그에게서 멀어지려고 일을 벌였던 기억이 떠올랐다.

엄마가 아버지 손을 잡는 걸 보면서, 나는 린지와 함께 우리 집 위층 복도에 걸린 묘비 탁본 밑에서 놀던 일이 떠올랐다. 나는 죽어서 충성스런 개와 함께 천국에 간 기사 역할을 했고, 린지는 그의 미망인 역을 했다. 린지가 좋아하던 대사는 '시간 속에 얼어붙은 남자의 아내로서 어떻게 평생을 붙잡혀 살 수 있단 말인가?' 였다.

엄마는 오랫동안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깨끗한 이불 위로 올라가 아버지 곁에 누우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란 생각도.

엄마는 몸을 숙였다. 방부제와 알코올 냄새가 났지만, 아버지의 체취를 맡을 수 있었다. 집을 떠나면서 엄마는 좋아하는 아버지의 셔츠를 챙겨 갔다. 가끔 그의 물건을 몸에 대고 싶으면, 그 셔츠를 몸에 걸치곤 했다. 입고 밖에 나가지 않아서, 셔츠에는 아버지의 체취가 배어 있었다. 아버지가 몹시 그리운 어느 밤, 엄마는 베개에 셔츠를 입혀서

끌어안았다. 여고생처럼.

닫힌 창문 너머, 멀리 간선도로를 달리는 차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밤에는 문을 닫는 병원에서는 야간당직 간호사가 복도를 지날 때 고무 구두굽 소리만 들렸다.

그해 겨울 엄마는 토요일에 시음장에서 일하는 젊은 여직원에게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다. 남녀 사이에는 언제나 더 강한 쪽이 있다고.

"그렇다고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엄마가 변명조로 말했다. 젊은 여직원은 엄마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하지만 엄마에게는 그 말을 하면서 문득 자신이 약한 쪽임을 알았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그걸 깨닫자 아찔했다. 왜 오랜 세월 그 반대로 생각했을까?

엄마는 아버지 머리에 최대한 가까이 의자를 끌어다 놓고, 베개 끝에 얼굴을 댔다. 그가 숨쉬는 것을 지켜봤다. 그가 꿈꿀 때 눈꺼풀 속에서 눈이 움직이는 것도 보았다. 어떻게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집에서 멀리 떠나, 매일 눈을 뜨면서 자신에게 그걸 비밀로 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 그녀는 둘 사이에 벽과 길을 끼웠다. 뒤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백미러를 떼어 냈다. 그러면 그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그들의 삶과 아이들을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믿었을까?

아버지가 규칙적으로 호흡하자 엄마는 마음이 차분해졌다. 그를 보자니, 처음에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점이 너무도 분명했다. 엄마는 집에 있는 방들과 그 안에서 잊으려고 애썼던 시간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단지에 담아 두고 잊은 과일처럼 다시 왔을 때는 달콤함이 더

했다. 선반에는 둘이 처음 사랑을 나누던 시절의 데이트와 우스운 짓, 둘이 꿈을 엮기 시작하던 것, 가족의 뿌리가 있었다. 모든 것의 확실한 첫 증거도 있었다. 나.

엄마는 아버지의 얼굴에 새로 생긴 주름을 어루만졌다. 관자놀이 부근에 난 흰 머리가 좋았다.

자정이 지나자 엄마는 눈을 뜨고 있으려 안간힘을 쓰다가 잠들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모든 걸 담아야 했다. 그가 깨면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엄마가 눈을 감고 두 분이 조용히 잠들자, 나는 그들에게 속삭였다.

돌과 뼈,
눈과 서리,
씨앗과 콩과 올챙이,
오솔길과 잔가지, 여러 가지 입맞춤,
우리 모두 알지. 수지가 누굴 그리워하는지…….

밤 2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는 병원에도, 내 옛 집에도, 내 천국에도 내렸다. 하비 씨가 잠든 양철 지붕 얹은 오두막에도 비는 내렸다. 비가 양철판을 두드리자, 그는 꿈을 꾸었다. 하비가 꿈에서 본 것은, 그가 살해해서 수사 중인 여자 애가 아니라, '555'라 적힌 운동복을 입고 생울타리로 달아나는 린지 새먼이었다. 그는 위협당하는 기분을 느낄 때마다 이 꿈을 꾸었다. 그의 삶이 제멋대로 휘휘 돌아가기 시작한 것은 린지의 축구복 셔츠를 힐끗 봤을 때였다.

새벽 4시쯤, 나는 아버지가 눈을 뜨는 것을 봤다. 아버지는 엄마가

자는 것을 알기도 전에, 뺨에 닿는 그녀의 숨결을 느꼈다. 우리는 함께 아버지가 엄마를 안기를 바랐지만, 그는 너무 힘이 없었다. 다른 방법이 있어서 아버지는 그쪽을 택했다. 그는 내 죽음 이후 느낀 점들을 아내에게 말하고 싶었다. 자주 마음에 떠올랐지만, 나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엄마를 깨우고 싶지 않았다. 빗소리만 들릴 뿐 병원은 조용했다. 아버지는 빗방울이 쫓아오는 기분이었다. 어둡고 축축했다. 홀딱 젖은 채 씩 웃는 얼굴로 문간에 서 있던 린지와 새무얼을 생각했다. 그를 안심시키려고 그 먼길을 뛰어온 아이들. 아버지는 자기도 모르게 중심을 잡자는 명령을 되뇐 적이 많았다. 린지. 린지. 린지. 버클리. 버클리. 버클리.

병원 주차장에 설치된 전등 불빛은 창 밖에 내리는 비를 비추었다. 그러자 그는 소년 시절 보러 간 영화들이 떠올랐다. 할리우드의 비. 아버지는 뺨에 닿는 엄마의 편안한 숨결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얇은 철제 창틀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그러다가 새소리가 들렸다. 작은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들을 보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하니, 병실 창문 바로 바깥에 둥지가 있을 것 같았다. 빗속에서 아기 새들이 깨 보니, 어미 새는 없고…… 아버지는 아기 새들을 구해 주고 싶었다. 엄마의 가는 손가락을 만졌다. 잠들어 그녀의 손가락은 힘이 없었다. 그녀가 여기 있었다. 이번에는 그녀의 본모습 그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리라.

내가 엄마 아버지 곁으로 쑥 들어간 것은 그때였다. 나는 예전과는 달리, 한 사람으로 거기 있었다. 전에는 늘 맴돌기만 했지 곁에 서 본 적은 없었다.

어둠 속에서 나를 작게 만들었다. 두 분이 날 볼 수도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엄마나 루스와 레이, 동생들 곁을 떠난 적이 있었다. 하비까지도 버려 두고 떠났었다. 또 8년 반 동안 매일 몇 시간씩 아버지 곁을 떠났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를 떠나 본 적이 없다는 걸 이제 알았다. 아버지의 헌신은 내게 거듭해서 알게 해 주었다. 내가 사랑받았음을.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나는 수지 새먼으로 남아 있었다. 살아갈 많은 날들이 앞에 펼쳐진 소녀로.

아버지가 속삭였다.

"내가 아주 조용히 있으면 네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 가만히 있으면 네가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엄마가 잠에서 깼다.

"잭? 내가 잠들었나 봐요."

"당신이 돌아와서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가 말했다.

그러자 엄마는 그를 바라봤다. 모든 게 벗겨져 나갔다.

"어떻게 버티며 지냈어요?"

엄마가 물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애비게일. 내가 달리 뭘 할 수 있겠어?"

"떠나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엄마가 대답했다.

"효과가 있었소?"

두 사람은 침묵했다. 나는 손을 뻗다가 사그라들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이리 올라와서 눕지 그래? 의료진이 와서 당신을 내쫓기 전에, 잠깐 시간이 있는데."

엄마는 꼼짝하지 않았다.

그녀가 말했다.

"병원 사람들이 잘 대해 주네요. 엘리엇 간호사는 당신이 자는 사이에 꽃을 꽂는 걸 거들어 줬어요."

아버지가 병실을 둘러보다가 꽃을 봤다.

"수선화군."

아버지가 말했다.

"수지가 좋아하던 꽃이죠."

아버지는 보기 좋게 웃으며 말했다.

"보라고, 그런 식이지. 꽃과 수지를 연결시키는 것으로 당신은 현실을 직시하며 사는 거야."

"그건 너무 슬퍼요."

엄마가 대꾸했다.

"그래, 그렇지."

아버지가 말했다.

엄마는 침대 모서리에 한쪽 엉덩이를 걸치고 불안하게 균형을 잡아야 했지만, 두 분은 잘 해냈다. 엄마와 아버지는 서로의 눈을 볼 수 있게 나란히 몸을 뻗었다.

"버클리와 린지를 만나는 게 어땠어?"

"믿기 힘들 만큼 어려웠어요."

엄마가 말했다.

두 분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아버지가 엄마의 손을 꼭 쥐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은 많이 달라 보여."

"더 늙었다는 뜻이겠죠."

나는 아버지가 손을 뻗어, 엄마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 주는 것

을 보았다.

아버지가 말했다.

"당신이 없는 사이, 난 다시 당신이랑 사랑에 빠졌어."

나는 내가 얼마나 엄마가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랐던가 깨달았다. 엄마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뒤돌아보고 변치 않을 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다. 엄마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었다. 아버지는 엄마가 가슴이 무너져서 도망친 것도, 해가 뜨고 의료진이 회진 오기 전에 엄마가 거기 있는 것도 모두 사랑했다. 그것은 손끝으로 머리칼을 매만지고, 바다같이 깊은 눈을 두려움 없이 바라보는 그런 사랑이었다.

엄마는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물었다.

"머물 거야?"

"한동안은요."

이건 변화였다.

아버지가 말했다.

"잘됐군. 한데 캘리포니아에서 사람들이 가족에 대해 물으면 뭐라고 대답했지?"

"큰 소리로 아이가 둘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소리 없이 '셋' 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늘 수지에게 미안함을 느꼈어요."

"남편에 대해서도 말했어?"

아버지가 물었다.

엄마는 그를 바라보았다.

"아뇨."

"이런."

"난 없는 말이나 하려고 온 게 아니라고요."

엄마가 말했다.

"그럼 왜 돌아왔어?"

"어머니가 전화하셨더라고요. 심장마비라기에 당신 아버님을 떠올렸어요."

"내가 죽을까 봐?"

"네."

아버지가 말했다.

"당신은 자고 있었어. 당신은 그애를 못 봤어."

"누구요?"

"누군가 병실에 들어왔다가 떠났어. 내 생각에는 수지 같아."

"잭?"

엄마는 의문을 가졌지만, 반쯤은 이해했다.

"당신도 수지를 볼걸."

엄마가 털어놓았다.

"어디서나 그애를 봐요."

엄마는 안도의 숨을 쉬고 말을 이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수지는 어디에나 있었어요. 버스를 타거나, 차를 몰고 학교 앞을 지날 때 길에 있었어요. 머리칼이나 몸매, 움직이는 모습이 수지였는데, 얼굴이랑은 맞지 않았죠. 더 나이 많은 자매들이 남동생이랑 있는 걸 보거나, 자매처럼 보이는 여자 아이 둘을 볼 때면, 린지가 평생 누리지 못할 것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린지와 버클리가 잃어버린 좋은 관계가 생각났어요. 그럴 때면 나까지 떠났으니까 더욱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죠. 당신이랑 어머니한테까지 어려움을 떠넘겼다는 생각도 들고요."

"린지는 바위같이 지냈어. 스폰지 같은 바위긴 하지만, 어쨌든 굳건했지."

"네, 나도 알아요."

"내가 10분 전 수지가 방에 있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뭐라고 하겠소?"

"당신은 제정신이 아지만, 어쩌면 당신 생각이 맞을 거라고 하겠어요."

아버지는 손을 뻗어 엄마의 콧날을 쓰다듬다가 입술에 손가락을 댔다. 아버지의 입술이 약간 벌어졌다.

"당신이 몸을 굽혀야겠는걸. 난 아직 병자니까."

아버지가 말했다.

부모님이 키스하는 광경을 지켜봤다. 그들은 눈을 뜨고 입맞췄다. 먼저 운 사람은 엄마였다. 그녀의 눈물이 아버지의 뺨에 흘렀다. 결국 아버지도 흐느꼈다.

21

나는 부모님을 병원에 남겨 두고, 레이 싱을 보러 갔다. 당시 우린 열네 살이었다. 그애와 나는. 이제 난 베개를 베고 자는 레이를 보았다. 노란 침대보에 검은 머리를 대고 잠든 모습을. 노란 침대보에 검은 피부가 두드러졌다. 난 언제나 그를 사랑했다. 눈을 감은 그의 속눈썹을 헤아렸다. 레이는 내 연인이 될 뻔한 친구였지만, 난 가족과 마찬가지로 그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우리가 강당의 임시 무대 위에 있고 루스가 밑에 있을 때, 나는 가까이 앉은 레이의 숨결을 느꼈다. 정향과 계피가 뒤섞인 냄새가 났다. 아침마다 시리얼에 섞어 먹을 거라고 짐작했다. 그리고 체취도 밀려들었다. 그 깊은 곳에서 화학 작용이 일어나 몸 안의 장기가 나와 분리되어 떠 있는 것 같았다.

그게 다가올 줄 알았을 때부터 마침내 그때가 됐을 때까지, 나는 학교 안팎에서 레이와 둘만 있는 자리를 피했다. 가장 하고 싶은 것이지

만 두려웠다. 그의 입맞춤이. 사람들의 얘기나 「세븐틴」, 「글래머」, 「보그」 같은 잡지에 나오는 입맞춤처럼 근사하지 않을 것 같았다. 내가 잘하지 못할까 봐 걱정스러웠다. 첫 키스가 사랑이 아니라 거부가 될까 봐 두려웠다. 그래도 난 키스에 대한 이야기를 흘려보내지 않았다.

어느 날 린 할머니가 전화로 말했다.

"첫 키스는 운명이 노크하는 거란다."

내가 수화기를 들고 있는 사이, 아버지가 엄마를 부르러 갔다. 부엌에서 아버지가 '곤드레만드레 상태'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다시 첫 키스를 하게 된다면, 근사한 걸 입에 바르고 할 거야. '불과 얼음' 같은 립스틱을 바르고. 한데 그때는 레블론에서 그런 립스틱을 만들지 않았거든. 남자의 뺨에 입술 자국을 남길 것을."

엄마가 침실에서 전화기를 들었다.

"어머니?"

"우린 키스에 대해 이야기 중이란다, 애비게일."

"술을 얼마나 드신 거예요?"

"봐라, 수지. 레몬처럼 키스하면, 레모네이드를 만드는 거야."

린 할머니가 말했다.

"어땠는데요?"

엄마가 끼어들었다.

"아, 키스 이야기군요. 둘이 알아서 하세요."

그전에 난 엄마와 아버지에게 몇 번이고 키스 경험을 말하게 했다. 나는 부모님이 담배 연기 속에서 키스하는 상상을 했다. 구름 속에서 입술이 살짝 스치는 그런…….

잠시 후 린 할머니가 속삭였다.

"수지, 듣고 있니?"

"네, 할머니."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다.

"난 네 나이였을 때, 남자 어른이랑 첫 키스를 했단다. 친구의 아버지였지."

"할머니!"

솔직히 난 충격을 받았다.

"나한테 털어놓지 않을 거지?"

"네."

린 할머니가 말했다.

"멋진 경험이었단다. 그는 키스하는 법을 알았지. 남자 애들이랑 키스할 때는 참을 수가 없더구나. 난 남자 애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냈지. 맥가헤른 씨는 입술을 쓰는 법을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쳇. 난 옳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적어도 내겐 근사하긴 했단다. 그에게 어땠는지 묻지 않았고, 그후로도 둘만 만난 적은 없었어."

"그런데 또 하고 싶었나요?"

"그랬지. 늘 첫 키스 같은 키스를 찾았지."

"할아버지랑은 어땠어요?"

"키스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할머니가 말했다.

할머니가 얼음 깨무는 소리가 들리더니 다시 말이 이어졌다.

"난 맥가헤른 씨를 잊어 본 적이 없단다. 잠깐 동안의 일이긴 해도. 너랑 키스하고 싶어 하는 남자 애가 있니?"

부모님은 내게 그런 건 묻지 않았다. 지금은 안다. 두 분이 이미 눈

치채서 알고 있었고, 서로 알아차린 것을 이야기하며 웃는다는 것을.

나는 침을 꼴깍 삼키고 대답했다.

"네."

"이름이 뭐냐?"

"레이 싱이요."

"넌 그애를 좋아하니?"

"네."

"그런데 뭐가 장애물이냐?"

"제가 잘하지 못할까 봐 겁나요."

"수지?"

"네?"

"그냥 재미있게 하렴."

그날 오후 내 사물함 옆에 서서 내 이름을 부르는 레이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이번에는 머리 위가 아니라 뒤에서 불렀다.—그것은 재미있게 느껴지지 않았다. 재미없는 것도 아니었다. 전에는 쉽게 흑백으로 판단했지만, 첫 키스에는 그런 잣대가 안 통했다. 말로 표현해야 한다면, 휘휘 도는 것 같았다고 할까. 행복감 + 두려움 = 휘휘돌기.

"레이."

내가 말했지만, 입에서 말이 나가기도 전에, 그는 몸을 숙이고 내 벌린 입에 입술을 댔다. 몇 주일째 기다렸지만, 예상치 않게 일어난 일이었고 난 그 이상을 원했다. 레이 싱이 다시 키스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다.

다음 날 아침, 코너스 씨는 신문 기사를 오려서, 딸 루스에게 보여

주려고 보관했다. 프래너건 일가의 땅에 팬 구멍을 그린 그림과 그곳을 메울 거라는 내용의 기사였다. 루스가 옷을 입는 사이, 코너스 씨가 메모를 했다. 거기에는 '여기는 땅굴이다. 언젠가 불쌍한 공부벌레의 차가 처박힐걸.' 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빠에겐 죽음의 종소리가 울리고 있다는데."

레이가 파란색 차를 몰고 차도 끝으로 들어오자, 루스가 오린 신문 기사를 흔들어 보이며 말을 이었다.

"우리 집이 분양용 택지에 들어간대. 이걸 봐, 이 기사에는 미술 시간에 그리는 육면체 같은 블록이 네 개 있어. 그래서 그 땅 구멍을 막는 거지."

레이는 차를 후진시키고, 루스가 매지 않은 띠를 힐끗 보면서 대답했다.

"만나서 반가워, 루스."

"미안해. 잘 있었지?"

루스가 말했다.

"기사에 뭐라고 나왔는데?"

"오늘 화창하네. 정말 좋은 날씨야."

"알았어, 알았다고. 기사에 나온 내용이나 말해 봐."

레이는 몇 달만에 루스를 만날 때마다, 그녀의 조급함과 호기심을 느끼곤 했다. 두 사람이 친구가 되게 해 주는 두 가지 요소였다.

루스가 말했다.

"처음 셋은 같은 그림인데, 각각 화살표가 있고 '표토', '갈라진 석회암', '약해지는 돌' 이라는 설명이 있어. 마지막 것에는 '복개된다' 라는 큰 제목이 있고 그 밑에 '콘크리트로 주둥이를 채우고, 시멘트풀로 갈라진 틈을 메운다.' 라고 적혀 있고."

"주둥이?"

레이가 반문했다.

루스가 대답했다.

"알아. 그런데 다른 쪽에 다른 화살표가 있어. 무슨 큰 프로젝트라도 돼서, 독자들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쉬어 가야 되나 보지. 여기 '그런 다음 구멍을 흙으로 메운다.' 고 나와 있어."

레이는 웃기 시작했다.

루스가 말했다.

"진료 과정 같은데. 혹성을 메꾸려면 복잡한 수술이 필요한가."

"땅에 난 구멍은 어쩐지 원초적인 공포를 끌어내는 것 같아."

"맞아. 그런 구멍에는 주둥이도 있잖아! 우리 여기부터 가 보자."

1.5킬로미터쯤 내려가니, 건설 현장 표지판이 있었다. 레이는 좌회전해서, 새로 만든 아스팔트 도로로 들어갔다. 도로마다 나무를 쳐내고, 드문드문 허리 높이의 철망에 울긋불긋한 깃발이 걸려 있었다.

그들은 둘뿐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들어가다가, 앞에서 걸어가는 조 엘리스를 보았다.

루스는 손을 흔들지 않았고, 레이도 마찬가지였지만, 조는 알은체했다.

루스가 말했다.

"엄마 말로는, 조가 아직 집에 사는데 직업도 못 구했대."

레이가 물었다.

"온종일 뭘 하면서 지낸대?"

"어슬렁대겠지."

"그 일을 극복하지 못하네."

레이가 말했다. 루스는 공터를 내다보았고, 레이는 다시 큰길로 나

갔다. 그들은 철로 위를 지나, 30번 도로 쪽으로 향했다. 그쪽으로 가면 프래너건의 땅구멍이 나왔다.

루스는 창 밖으로 손을 내밀고, 비 온 후의 축축한 아침 공기를 느꼈다. 레이는 내 실종 사건과 관련됐다는 의심을 받았지만, 왜 그런 의심을 받았는지 이해했다. 그는 경찰이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하비 씨가 죽인 개와 고양이를 죽였다는 의심을 받은 조 엘리스는, 그 일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는 이웃 주민들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주위를 어슬렁거렸다. 개와 고양이를 사랑하는 데서 위안을 얻고 싶어 했다. 내게 가장 슬픈 것은, 동물들도 조 엘리스에게서 상처의 냄새를—인간의 결점을—맡고 도망간다는 점이었다.

레이와 루스가 30번 도로의 '일스 로드 파이크' 부근을 지날 때, 나는 이발소 위층 집에서 나오는 렌 형사를 보았다. 그는 학생용 배낭을 들고 차로 갔다. 아파트 주인인 아가씨가 준 선물이었다. 어느 날, '웨스트 체스터 대학'의 범죄학 수업의 일환으로 경찰서에서 만난 후, 그녀는 렌에게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청했었다.

렌은 배낭에 여러 가지 물건을 챙겼다. 아버지에게 보여 줄 것도 있고, 아버지가 볼 필요 없는 것도 있었다. 후자에는 발견된 주검이 묻힌 묘지—사건마다 양쪽 팔꿈치가 있었다.—사진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가 병원에 전화했을 때, 간호사는 새민 씨가 부인과 가족과 함께 있다고 알려 주었다.

렌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시 앉아 있자니, 죄책감이 커졌다. 차의 앞창으로 뜨거운 햇살이 들어와 더웠다.

나는 렌이 무슨 말을 할지 고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머리

에 단 한 가지 가설만 떠올릴 수 있었다. 1975년 말 이후 거의 7년간 가끔 만나면서 우리 부모님이 가장 바라는 것은, 시체나 하비 씨가 발견됐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그들에게 팔찌 장식을 돌려 줘야 했다.

배낭을 꺼내 들고 차 문을 잠갔다. 양동이에 수선화를 채워 와서 파는 소녀 옆을 지났다.

렌 형사는 아버지의 병실을 알기에, 5층 간호사실에 들를 필요가 없었다. 열린 병실 문을 가볍게 노크하고 들어섰다.

등을 돌리고 서 있던 엄마가 고개를 돌렸을 때, 렌이 압박감을 느끼는 것을 난 알아차렸다. 엄마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다. 난 갑자기 몹시 외로워졌다.

엄마는 렌과 눈이 마주치자 약간 흔들리더니, 가장 쉬운 길을 택했다.

"이렇게 뵈니까 좋은데요?"

엄마가 농담을 했다.

아버지가 말했다.

"렌이군요. 여보, 나 좀 일으켜 주지?"

"몸은 어떠십니까, 새먼 씨?"

엄마가 침대를 올리는 단추를 누를 때, 렌이 물었다.

"잭이라고 해요."

아버지가 말했다.

"희망을 가지실까 봐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를 잡지 못했습니다."

렌이 말했다.

아버지는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엄마는 베개를 매만져서 아버지의 등과 목 뒤에 받쳤다. 그녀가 물었다.

"그럼 왜 여기 오셨어요?"

"수지의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렌이 말했다.

그는 방울이 달린 귀마개를 가지고 집에 왔을 때와 똑같이 말했다. 엄마의 머릿속에서 메아리가 울렸다.

엄마가 아버지가 잠든 모습을 봤고, 아버지는 깨서 바로 옆에서 잠든 엄마를 봤던 전날 밤, 부모님은 눈이 내리고 폭풍우가 일고 서로 매달리던 첫날 밤의 기억을 외면했다. 아무도 가장 큰 희망을 입에 담지 않았다. 마지막 밤, 마침내 "수지는 집에 오지 않을 거야."라고 말한 사람은 아버지였다. 나를 아는 사람 모두 인정한 분명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해야 했고, 엄마는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들어야 했다.

렌 형사가 말했다.

"팔찌에 달린 장식인데요. 수지의 머리글자가 새겨진 펜실베이니아 판석입니다."

아버지가 대답했다.

"내가 그애에게 사 준 겁니다. 어느 날 펜실베이니아에 갔을 때, 30번가 역에서 산 거죠. 부스가 있었는데, 보안경을 쓴 사내가 공짜로 이름을 새겨 줬어요. 린지 것도 샀지요. 기억나지, 애비게일?"

"기억나요."

엄마가 대답했다.

"코네티컷에 있는 어느 무덤 부근에서 찾았습니다."

부모님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얼음 속에 빠진 동물들 같았다. 그들의 눈이 얼어붙었다. 얼음 위를 걷는 사람에게 꺼내 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다.

렌은 얼른 여백을 채우느라 말했다.

"수지는 아니었습니다. 하비가 델라웨어와 코네티컷에서 일어난 다른 살인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수지의 팔찌 장식이 발견된 곳은 코네티컷 주의 하트포드 외곽에 있는 묘지였습니다."

부모님은 렌이 약간 빡빡한 배낭의 지퍼를 여는 것을 보았다. 엄마는 아버지의 머리를 뒤로 넘기고 눈을 맞추려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렌이 꺼낼 물건에 집중했다. 내 사건 수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발을 더 굳건히 딛는 기분을 느끼기 시작한 엄마는, 수사의 재개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숨겨야 했다. '조지 하비'라는 이름이 엄마를 침묵하게 했다. 그에 대해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엄마에게 하비 씨를 잡아서 벌을 주는 일은, 내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보다는 적과 함께 사는 쪽을 택한다는 의미였다.

렌이 큼직한 비닐 봉투를 꺼냈다. 부모님은 봉투 밑바닥 구석에 반짝이는 금색 물건을 볼 수 있었다. 렌에게 봉투를 건네받은 엄마는 약간 거리를 두고 봉투를 들었다.

아버지가 물었다.

"이게 필요하지 않아요, 렌?"

"모든 검사를 마쳤습니다. 발견된 곳을 서류에 기록하고, 필요한 사진 촬영도 했고요. 그걸 돌려 달라고 부탁드릴 때가 올지도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보관하십시오."

렌 형사가 대답했다.

"꺼내 봐요, 애비게일."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엄마가 비닐 봉투를 들고 침대에 몸을 숙이는 것을 보았다. 엄마가 말했다.

"당신이 받아요. 당신이 준 선물이니까."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팔찌 장식을 만졌다. 손끝에 작고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닿았다.

"그가 다른 여자 애들을 죽였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엄마가 물었다. 엄마는 아버지의 손바닥에 놓인 금색 쇠붙이를 쳐다봤다.

"확실한 건 없어요."

렌이 대답했다.

다시 엄마 머릿속에서 메아리가 울렸다. 렌은 똑같은 말을 했다. 전에 아버지가 가족을 위로하려고 했던 그 말이었다. 희망을 잡아먹는 잔인한 말이었다.

엄마가 말했다.

"이제 가 주시면 좋겠어요."

"애비게일?"

아버지가 나섰다.

"더는 못 듣겠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다.

"팔찌 장식을 갖게 되어 기쁩니다, 렌."

렌 형사는 아버지에게 모자를 벗어 인사하는 시늉을 내고, 몸을 돌렸다. 엄마가 떠나기 전, 렌은 엄마와 어떤 종류의 사랑 행위를 나누었다. 잊기 위한 행위로서의 섹스. 이발소 위층에서 더욱 많이 했던 그런 사랑 행위들.

나는 루스와 레이가 있는 남쪽으로 향했지만, 친구들 대신 하비 씨를 보았다. 그는 여러 대의 자동차에서 떼어 낸 부품으로 만들어서 마

치 괴물처럼 보이는 오렌지색 차를 몰고 있었다. 차가 움직이면 보닛 밖으로 나온 전선이 아래위로 덜렁거렸다.

엔진이 약해서 가속 페달을 아무리 힘껏 밟아도 제한 속도를 넘지 못했다. 그는 텅빈 무덤 옆에서 잠을 잤고, 잠든 사이 꿈에서 555를 봤다. 새벽녘에 잠이 깬 그는 펜실베이니아로 달렸다.

하비 씨의 예민한 감각이 이상하게 흐려진 듯했다. 몇 년간 그는 살해한 여자들의 기억과 거리를 두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하나씩 머리에 떠올랐다. 그가 처음으로 여자 애에게 상처를 준 것은 우연한 일 때문이었다. 그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멈출 수가 없었다. 혹은 그런 쪽으로 감각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같은 고교에 다니던 여자 애였는데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그게 하비 씨에게는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다. 그즈음 그는 워낙 이사를 많이 다녔으므로, 여자 애도 그런가 보다 하고 짐작했다. 하비 씨는 학교 친구를 조용히 강간한 일이 후회됐지만, 둘 다 오래 마음에 둘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에는 꼭 그의 외부에 있는 것이 몸과 몸의 충돌을 만들어 낸 것 같았다. 일을 치른 후, 여자 애는 잠시 빤히 쳐다봤다. 밑도 끝도 없는 눈길이었다. 그녀는 찢어진 팬티를 흘러내리지 않도록 치마 허리춤에 끼웠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여자 애는 떠났다. 하비는 주머니칼로 손등을 그었다. 아버지가 핏자국에 대해 물으면, 그럴 듯하게 둘러댈 수 있었다. '보세요, 사고였다니까요.' 라면서 손등을 보여 주면 그만일 테니까.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묻지 않았고, 그를 찾으러 온 사람도 없었다. 여자 애 아버지도, 오빠도, 경찰도.

그때 난 하비 씨가 느끼는 것이 뭔지 보았다. 그 여자 애…… 그녀가 죽은 것은 오빠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지 겨우 몇 년 뒤였다. 그

녀가 앞좌석에 앉아 있었다. 얼마나 있어야 하비 씨가 나를 기억하기 시작할지 궁금했다.

* * *

하비 씨가 프래너건의 땅에 판 구멍으로 내 시신을 옮긴 날 이후, 유일하게 변한 것은 오렌지색 탑이 생긴 것뿐이었다. 그것은 땅에 판 구멍이 넓어졌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집의 동남쪽 구석이 아래로 경사지고, 현관은 땅 속으로 조용히 가라앉는 중이었다.

레이는 조심하느라 플랫 거리 맞은편 덤불 밑에 주차시켰다. 그래도 조수석은 아스팔트 끝에 걸쳤다. 차에서 내리자 레이가 물었다.

"프래너건 일가는 어떻게 됐지?"

"아빠 말씀으로는 땅을 산 회사에서 살 곳을 줘서 떠났대."

"주변이 으스스하다, 루스."

레이가 말했다.

둘은 텅빈 길을 건넜다. 옅은 파란색 하늘에 연기 같은 구름이 몇 개 떠갔다. 그들이 선 곳에서, 철도 건너편에 있는 할의 오토바이 가게 뒤쪽이 보였다.

루스가 말했다.

"할 헤클러가 아직도 저 가게를 하는지 모르겠네. 어릴 때 난 할한테 반했거든."

그녀는 땅 쪽으로 몸을 돌렸다. 둘 다 말이 없었다. 루스는 빙빙 돌아 구멍 가장자리로 다가갔다. 레이가 그 뒤를 바싹 쫓았다. 멀리서 보면, 구멍은 아무 해도 없이 자연스러워 보였다. 흙바닥에 생긴 웅덩이가 차츰 마르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다. 구멍 주위에 군데군데 풀

과 잡초가 있었다. 자세히 보면 거기까지만 마른 흙이 있고, 안쪽으로는 엷은 코코아색의 구멍이 시작됐다. 구멍 입구는 부드러운 흙이 도톰하게 쌓여 있었다. 거기에 버릴 물건을 밀어 넣었다.

레이가 물었다.

"우리가 빨려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아?"

"우린 그 정도로 무겁지 않아."

루스가 대답했다.

"빠지는 기분이 들면 멈춰."

그들을 보니, 냉장고를 버리러 가던 날 버클리의 손을 꼭 잡던 기억이 났다. 아버지가 프래너건 씨랑 이야기하는 사이, 나는 버클리를 데리고 땅이 부드럽고 경사진 곳으로 갔다. 교회 묘지를 걷다가, 묘비 사이에 있는 두더지가 파 놓은 굴에 발이 쑥 빠질 때와 똑같은 느낌이었다.

결국 그런 두더지가 떠올랐다. 내가 무거운 철제 금고 안에 담겨 하수구에 빠지는 것을 받아들인 것은 두더지 사진 때문이었다. 소란스러운 두더지 사진들을 책에서 찾아본 적이 있었다. 어쨌거나 난 두더지에게는 해를 당하지 않았다.

루스는 발끝으로 땅 구멍의 가장자리로 다가갔다. 나는 오래 전 그날, 아버지의 웃음소리를 생각했다. 집으로 오는 길에 난 버클리에게 이야기를 지어서 해 주었다. 땅 구멍 속에 아무도 모르는 큰 마을이 있다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구멍으로 내려온 가재 도구를 땅 위 천국에서 보낸 선물로 받아들인다고.

"우리 냉장고가 내려가면,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할 거야. 그들은 물건을 수리하는 일을 좋아하는 난쟁이들이거든."

내가 말하자, 아버지는 차 안이 울리도록 웃어 댔다.

레이가 말했다.

"루스, 너무 들어가지 마."

루스의 발끝은 부드러운 부분에, 발뒤꿈치는 딱딱한 부분에 닿았다. 그녀를 지켜보면서, 그녀가 양팔을 들고 손끝을 가리키면서 내 옆으로 떨어질 듯한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바로 뒤에 레이가 있었다.

그가 말했다.

"땅의 목구멍이 트림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셋은 금속으로 된 물건의 모서리를 보았다.

레이가 말했다.

"69년형 메이텍(미국의 가전 제품사 이름 : 역주) 제품인데."

하지만 그것은 세탁기나 금고가 아니었다. 낡은 빨간색 가스렌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루스가 물었다.

"수지 새먼의 시체가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난 레이의 파란색 자동차가 세워진 잡목숲 아래서 걸어 나오고 싶었다. 길을 건너서 땅 구멍 밑으로 걸어가, 다시 올라와서 루스의 어깨를 건드리며 외치고 싶었다.

'나야! 네가 해냈어! 짱이다! 끝내주는데!'

레이가 대답했다.

"아니. 그 문제는 너한테 맡길래."

"여긴 모든 게 변하고 있어. 돌아올 때마다, 다른 곳과는 달랐던 것이 사라지고 없어."

루스가 말했다.

"집에 들어가 볼래?"

레이는 그렇게 물으면서도, 나에 대해 생각했다. 열세 살 무렵, 어

떻게 나한테 반하게 됐는지를. 그는 방과 후 집에 가는 나를 뒤에서 봤다. 아주 소박한 모습이었다. 이상한 모직 치마에 개털투성이 모직 윗도리. 내가 걸음을 옮길 때 누르께한 머리칼 여기저기에 오후의 햇살이 쏟아졌다. 그리고 며칠 후, 사회과학 시간에 레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발표를 했는데, 1812년 전쟁이 아니라 『제인 에어』에 관한 보고서를 읽는 실수를 저질렀다. 나는 그를 쳐다봤고, 그는 그 눈길을 보기 좋다고 생각했다.

레이는 곧 철거할 주택 쪽으로 걸어갔다. 어느 밤, 코너스 씨가 귀한 문고리며 세면대를 다 떼어갔다. 루스는 땅 구멍 부근에 서 있었다. 그녀는 곁에 서 있는 나를 똑똑히 봤다. 나는 하비 씨가 나를 버린 자리를 보고 있었다.

"수지."

루스는 내 이름을 말하면서, 내 존재를 더 분명히 느꼈다.

하지만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를 위해 시를 쓰고 있어."

루스는 나를 붙들려고 말을 걸었다. 평생 바라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녀가 물었다.

"넌 바라는 게 없니, 수지?"

그때 내가 사라졌다.

루스는 계속 중얼댔다. 펜실베이니아의 어스름 속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질문이 내 귓전에 울렸다.

'넌 바라는 게 없니?'

철로 건너편에 있는 할의 오토바이 가게는 비어 있었다. 할은 가게 문을 닫고, 동생 새무얼과 버클리를 래드노어에서 열리는 오토바이쇼

에 데려갔다. 나는 버클리가 빨간 미니 오토바이의 앞바퀴를 만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곧 그의 생일이었고, 할은 새무얼이 쓰던 알토 색소폰을 버클리에게 주고 싶었지만, 린 할머니가 말렸다.

"버클리는 뭔가 두드려 댈 필요가 있지. 예민한 것은 아껴 두려무나."

할머니는 그렇게 조언했다. 그래서 할과 새무얼 형제는 중고 드럼을 샀다.

린 할머니는 쇼핑몰에서, 엄마에게 입힐 옷을 고르고 있었다. 단순하면서도 우아해야 했다. 오랜 세월에 걸친 숙련된 손놀림으로, 검은 옷들이 걸린 곳에서 청색 원피스를 골라냈다. 나는 옆에 있던 여자가 시샘하는 눈길로 옷을 흘끔대는 것을 지켜봤다.

병원에서는 엄마가 아버지에게 하루 지난 「이브닝 블레틴」 지를 읽어 주고 있었다. 아버지는 엄마가 읽어 주는 뉴스는 귀담아 듣지 않고, 엄마의 달싹이는 입술을 쳐다봤다. 입맞추고 싶었다.

그리고 린지.

나는 하비 씨가 벌건 대낮에 우리 동네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볼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고, 심지어 평소처럼 눈에 띄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그를 잊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주민이 많은 이 동네에서. 사람들은 항상 그가 수상하다고 했다. 그가 희생자의 이름을 죽은 부인의 이름으로 말했을 거라고.

린지는 집에 혼자 있었다.

하비 씨는 단지 끝에 있는 네이트의 집 앞을 지났다. 네이트의 엄마는 집 앞 꽃밭에서 시든 꽃을 따고 있었다. 차가 지나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낯선 고물차를 보면서, 여름 방학이라 집에 온 어느 집 자식의 대학생 친구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운전석에 앉은

하비 씨를 보지 못했다. 하비 씨는 아래쪽 길로 좌회전해서, 예전에 살던 집 앞으로 갔다. 할리데이가 내 발치에서 으르렁댔다. 동물 병원에 데려갈 때 내던 낮고 고통스런 신음 소리였다.

루아나 싱은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녀가 새 책을 알파벳 순서로 서가에 차곡차곡 꽂는 모습이 식당 창을 통해 보였다. 마당에서 아이들이 그네를 타고, 용수철 달린 목마를 탔다. 물총을 쏘면서 뛰어다니기도 했다. 동네에는 하비 씨에게 희생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많았다.

그는 우리 집이 있는 길 끝에서 커브를 돌아, 작은 공원 앞을 지났다. 길버트 부부가 거기 살고 있었다. 길버트 부인이 아파서, 부부는 늘 집에 있었다. 그때 하비 씨의 눈에 옛집이 보였다. 우리 가족과 내게는 늘 '초록집'이지만, 이제는 초록색이 아니었다. 새 주인은 지붕을 보라색으로 칠하고 수영장도 만들었다. 지하실 창문 부근에 삼나무로 만든 전망대도 있었다. 담쟁이덩굴을 올린 전망대에는 장난감이 넘쳐났다. 앞쪽 꽃밭이었던 곳은 시멘트를 발라 현관 앞길을 확장했고, 현관에는 서리 방지용 유리를 끼웠다. 그 뒤로 사무실 같은 게 보였다. 하비 씨는 뒷마당에서 울리는 여자 애들 웃음소리를 들었다. 선캡을 쓴 부인이 전지용 가위를 들고 현관문으로 나왔다. 그녀는 오렌지색 차에 앉은 남자를 보자, 뱃속이 찔리는 기분을 느꼈다. 빈 자궁이 채이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얼른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가, 창문 뒤에 서서 남자를 보았다. 기다려 봤다.

하비 씨는 차를 몰고 몇 집 아래로 내려갔다.

거기 그녀가 있었다. 소중한 내 동생이. 그는 우리 집 위층 창으로 린지를 볼 수 있었다. 그 사이 머리를 짧게 자르고 더 날씬해졌지만, 분명히 린지였다. 린지는 책상으로 쓰는 제도판 앞에 앉아서 심리학

책을 보고 있었다.

길로 내려오는 그들이 내 눈에 띈 것은 바로 그때였다.

하비 씨가 우리 집 창들을 훑어보며, 다른 가족은 어디 있을지 궁금해하는 사이—지금도 아버지는 그의 다리를 후들거리게 했다.—나는 그의 집을 떠나는 동물들과 여자들의 마지막 흔적을 봤다. 그들은 비틀비틀 앞으로 나갔다. 하비 씨는 린지를 보면서, 신부용 천막에 드리운 이불보를 떠올렸다. 그날, 그는 아버지 앞에서 내 이름을 입에 올렸다. 그리고 그의 집 밖에서 짖어 대던 개는 지금쯤은 죽었을 거고.

창문 안쪽에서 린지가 움직였고, 나는 하비 씨가 그녀를 지켜보는 광경을 봤다. 린지는 일어나서 몸을 돌리고, 방 안쪽에 있는 천장까지 닿는 서가로 갔다. 그녀가 손을 뻗어 다른 책을 꺼냈다. 그리고 책상으로 돌아왔고, 하비 씨는 그녀의 얼굴을 쳐다봤다. 그때 뒤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순찰차가 백미러에 나타났다.

하비 씨는 순찰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운전석에 앉은 채로, 수십 년 동안 경찰을 만날 때마다 짓는 표정—순박해서 동정하거나 경멸할지언정 비난은 못할 표정—을 준비했다. 순찰차가 그의 차 옆에 서자, 여자들이 슬그머니 창가에 나타났다.

"길을 잃었습니까?"

그가 얼굴을 붉히자, 젊은 경찰관이 물었다.

"전에 여기 살았거든요."

하비 씨가 말했다. 그 말에 내 몸이 떨렸다. 그는 사실대로 말하는 쪽을 선택했다.

"의심스런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옥수수밭 자리에 뭔가 짓고 있군요."

하비 씨가 말했다. 그때 나의 일부는 다른 희생자들과 합쳐져서 밑으로 떨어졌다. 그가 죽여서 토막 낸 신체 부위들이 차에 와르르 쏟아졌다.

"학교를 확장하는 중입니다."

하비 씨가 부러운 듯 말했다.

"동네가 더 윤택해 보이는 것 같군요."

"가셔야겠습니다."

경찰관이 자동차 번호를 옮겨 적으며 말했다. 그는 하비 씨의 차가 누더기 같아서 당황스럽기까지 했다.

"누굴 겁주려던 의도는 아니었는데요."

하비 씨는 프로였지만, 그 순간 내겐 상관없었다. 그가 여기저기 어슬렁대자, 나는 집에서 교재를 보며 공부하는 린지에게 신경을 집중했다. 내 동생이 얼마나 영리한지, 얼마나 무사한지에 신경 썼다. 그녀는 템플 대학에 다니면서 심리치료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나는 환한 우리 앞마당과 불안한 엄마와 형사가 뒤섞인 공기에 대해 생각했다. 지금껏 내 동생이 안전하게 지낸 것은 순전히 행운이었다. 매일 의문 부호가 생겼다.

루스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레이에게 말하지 않았다. 먼저 일기에 쓰겠다고 다짐했다. 길을 건너 차로 가면서, 레이는 건설 인부가 흙을 쌓은 벼랑 위쪽 덤불에서 보라색 꽃을 봤다.

레이가 말했다.

"협죽도야. 따다가 엄마에게 드려야겠어."

"그럼 좋아하시겠다. 천천히 해."

루스가 대답했다.

레이가 운전석 옆쪽으로 난 풀숲에서 협죽도를 따는 사이, 루스는 차 옆에 서 있었다. 이제 레이는 내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는 엄마의 미소를 떠올렸다. 이런 야생화를 따서 집에 가져가면 엄마는 책갈피에 꽂아 두었다. 두꺼운 사전이나 참고 문헌을 펼쳐 납작한 꽃이 나오면, 엄마는 환하게 웃었다. 레이는 벼랑 위로 올라가더니, 꽃을 더 찾을 욕심으로 저쪽으로 사라졌다.

내 등에 소름이 돋은 것은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레이가 벼랑 너머로 사라진 순간이었다. 할리데이가 두려워서 낮게 으르렁대는 소리가 났다. 그제야 개가 그러는 게 린지 때문이 아님을 깨달았다. 하비 씨는 '일스 로드 파이크'의 꼭대기를 넘어서, 땅 구멍을 봤다. 그의 차 색깔과 똑같은 오렌지색 탑도 보였다. 여기 시체를 버린 적이 있었다. 그는 자기 어머니의 호박 목걸이를 기억했다. 그녀가 건네 준 목걸이에 남아 있던 온기도 생각났다.

루스는 차에 가득 탄 핏빛 옷차림의 여자들을 보았다. 그녀가 그들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내가 묻힌 바로 그 길에서, 루스는 하비 씨를 지나쳤다. 그녀는 그 여자들만 볼 수 있었다. 그 순간. 어둠.

내가 지상에 떨어진 건 바로 그 순간이었다.

22

루스가 길바닥에 쓰러졌다. 나는 그걸 인식했다. 미끄러지듯 달아난 하비—들키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고, 초대받지도 않은. 나는 그를 놓쳐 버렸다.

나는 균형을 잃고 무기력하게 엎어졌다. 열린 전망대 문 사이로 넘어져, 잔디밭을 지나고, 그동안 살았던 천국의 경계선을 넘었다.

위쪽 공중에서 레이가 지르는 비명 소리가 들렸다. 그의 목소리가 아치를 그렸다.

"루스, 괜찮아?"

레이는 루스가 있는 곳으로 와서, 몸을 움켜쥐었다.

레이가 소리쳤다.

"루스, 루스, 무슨 일이야?"

나는 루스의 눈 속에 있었고,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등이 아스팔트에 닿는 느낌과 날카로운 자갈 모서리에 살이 찢겨서 난 상처가

그대로 느껴졌다. 모든 감각이 살아났지만—햇살의 따스함, 아스팔트 냄새—루스는 보지 못했다.

루스의 폐에서 거품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뱃속에 현기증이 일어났지만, 아직도 폐에 공기가 들어오고 있었다. 몸에 긴장이 일어났다. 그녀의 몸에. 몸 위에 레이가 있었다. 그의 눈—그는 고동치는 잿빛 눈으로, 오지 않는 도움의 손길을 찾느라 도로 이쪽저쪽을 살폈다. 레이는 하비 씨의 차를 보지 못하고, 엄마에게 줄 야생화 다발을 들고 기분 좋게 덤불을 빠져 나오던 참이었다. 한데 루스가 길에 쓰러져 있었다.

루스는 피부를 밀어 댔다. 그녀는 떠나려고 발버둥쳤고, 나는 그녀의 몸 안에 같이 있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나는 루스를 되돌리려고 애썼다. 그 불가능한 일을 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빠져 나가려고 했다. 어쩔 수 없었고, 누구도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휘휘 날아갔다. 천국에서 여러 번 봤지만, 이번에는 내 옆에서 흐릿하게 날았다. 그것은 위로 오르려는 욕망과 분노였다.

레이가 말했다.

"루스, 내 말이 들리니, 루스?"

루스가 눈을 감고 모든 빛이 사라지고, 세상이 미쳐 버리기 직전, 나는 레이 싱의 잿빛 눈을 들여다봤다. 그의 검은 피부. 나와 입맞춤했던 입술. 그때 꽉 쥔 손을 펴듯이 루스가 레이 곁을 지나갔다.

레이의 눈길이 나를 앞으로 밀었다. 나는 그를 응시하면서 안쓰러운 갈망에 잠겼다. 이 지상에서 다시 살고 싶은 열망. 위에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곁에 있고—가장 좋은 게 그것이었다.—싶었다.

푸르디푸른 천국과 지상의 경계에서 루스를 보았다. 내가 지상에 떨어질 때 그녀가 옆을 스쳤다. 하지만 루스는 인간 형태를 가진 그림

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규칙을 깨는 영리한 아가씨였다.

그리고 난 그녀의 몸속에 있었다.

천국에서 날 부르는 소리가 났다. 프래니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전망대로 달려오며 날 불렀다. 할리데이가 요란하게 짖어서, 목구멍 밑바닥에서 계속 소리가 울렸다. 그때 불쑥 프래니와 할리데이가 사라졌고, 사방이 조용해졌다. 뭔가 나를 잡아 누르는 기분이었고, 내 손을 잡는 손길이 느껴졌다. 내 귀는 바다 같았다. 내가 아는 목소리들, 얼굴들, 사실들이 그 바다에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죽은 후 처음으로 눈을 뜨니, 잿빛 눈동자가 날 바라보고 있었다. 나를 누르는 기분 좋은 무게감이 인간의 체중임을 깨달았다.

나는 말을 해 보려 애썼다.

레이가 말했다.

"가만히 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죽었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난 죽었다가 지금은 세상으로 돌아왔어.' 라고 말한담.

레이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의 주변과 내 몸 위에 그가 어머니를 주려고 꺾은 꽃들이 흩어져 있었다. 루스의 검은 옷 위에 놓인 타원형 꽃잎이 눈에 들어왔다. 그때 레이가 내 가슴에 귀를 대고, 숨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내 팔목 안쪽에 손을 대고 맥박을 짚었다.

"기절했니?"

검사가 끝나자 그가 물었다.

난 고개를 끄덕였다. 지상에서의 이 은총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리란 것을 알았다. 루스의 소망은 일시적일 뿐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

대답을 하려 했지만 소리가 너무 힘없고 작아서, 레이는 듣지 못했

다. 우리의 눈길이 얽혀들었다. 나는 최대한 눈을 크게 떴다. 뭔가 나를 일으키려 했다. 몸이 둥둥 떠올라 천국에 돌아가나 보다 생각했지만, 나는 일어나려고 애쓰고 있었다.

레이가 말했다.

"루스, 힘이 없으면 움직이지 마. 내가 차까지 옮길 수 있어."

나는 미소지었다, 활짝.

"괜찮아."

내가 대답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 내 팔을 놔 줬지만 다른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내가 일어서자 레이는 곁에서 걸었다. 야생화가 아스팔트 위에 흩어졌다. 천국에서는 여자들이 루스 코너스를 보자 장미를 던지고 있었다.

나는 그의 아름다운 얼굴에 어색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봤다.

"그러니까 괜찮은 거지."

그가 말했다. 레이는 가만히 입맞출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지만, 동공의 크기가 같은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나는 루스의 몸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가슴과 허벅지가 욕망으로 몸서리쳐졌지만, 동시에 오싹한 책임감도 느껴졌다. 나는 다시 지상에 온 영혼이었다. 천국에서 잠시 무단 외출을 선물로 받은 몸이었다. 정신을 모아서 똑바로 섰다.

"루스?"

그 이름에 익숙해지려고 애썼다.

"응."

내가 대답했다.

레이는 말했다.

"넌 변했어. 뭔가 달라졌어."

우리는 길 한가운데 서 있었지만, 지금은 나의 순간이었다. 그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뭐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난 수지야. 시간이 조금밖에 없어.' 라고?

너무 두려웠다. 그래서 대신 이렇게 말했다.

"키스해 줘."

"뭐야?"

"하기 싫어?"

두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감쌌다. 8년 전에는 없던 까칠한 수염이 만져졌다.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레이가 당황해하며 물었다.

"가끔 고양이들이 고층 건물의 10층 창에서 떨어져 땅에 가뿐히 내려앉아. 한데 사람들은 그 장면을 사진으로 봐야 믿지."

레이는 신비롭게 날 바라봤다. 그가 고개를 숙이자 둘의 입술이 가만히 닿았다. 또 한 번의 입맞춤. 잃어버린 소중한 선물. 그의 눈이 가까이 있어서, 잿빛 눈동자 속의 초록색 얼룩점이 보였다.

내가 그의 손을 잡았고, 우린 말없이 차로 걸어갔다. 그가 나를 부축하고 있었다. 내가 등 뒤로 팔을 내밀자, 그는 내 손을 잡고 루스가 제대로 걷는지 확인하려고 몸을 훑어봤다.

레이가 조수석 문을 열어 주자, 나는 차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발을 디뎠다. 그는 차를 빙 돌아 운전석에 들어와 앉았다. 레이는 또 한 번 날 찬찬히 살폈다.

"왜 그래?"

내가 물었다.

그는 다시 입술에 가볍게 입맞췄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원하던 일이었다. 그 순간이 느릿느릿 흐르면서, 나는 거기 취했다. 그의 입술이 스치는 감촉, 그의 까칠한 수염. 그리고 입맞추는 소리—둘의 입술이 닿아 밀착되었다가 다시 떨어지는 소리. 기나긴 고독의 터널 속에서 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제 나는 지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만지고 애무하는 것을 지켜보지 않았다. 이런 신체 접촉을 해 본 적이 없었다. 억센 손길에 상처를 입은 경험뿐이었다. 하지만 죽은 후 내 천국에는 달빛이 휘휘 감돌다가 깜빡거렸다. 그것은 레이 싱의 키스였다. 웬일인지 루스는 이걸 알았다.

그때 머리가 욱신댔다. 나는 모든 면에서 루스 안에 숨어 있지만, 레이가 키스하거나 둘의 손이 닿을 때는 루스의 욕망이 아닌 내 욕망이 일어났다. 그녀의 살갗 가장자리에서 밀어 대는 것은 나였다. 할리가 보였다. 그녀는 머리를 젖히고 웃고 있었다. 그러더니 할리데이가 으르렁대는 소리가 들렸다. 할리데이는 내가 우리가 살던 곳에 돌아왔다는 걸 알았다.

레이가 물었다.

"어디 가고 싶어?"

너무 큰 질문이어서 대답도 광범위했다. 하비 씨를 뒤쫓고 싶지는 않았다. 레이를 바라보자, 내가 어디 있는지 똑똑히 알았다. 난 전에는 모르던 천국의 한 부분을 가져왔다.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할 헤클러의 오토바이 가게."

"뭐야?"

"어디 가고 싶냐며."

내가 말했다.

"루스?"

"응?"

"다시 키스해도 돼?"

"응."

내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그는 시동을 걸고 몸을 숙였고, 입술이 다시 만났다. 루스는 베레모와 검은 터틀넥 스웨터 차림의 노인들에게 강연을 하는 중이었다. 노인들은 불 밝힌 라이터를 공중에 들고, 리듬에 맞춰 그녀의 이름을 연호했다.

레이는 등을 기대고 앉으며 날 바라봤다.

"왜 그래?"

레이가 물었다.

"네가 키스하면, 난 천국을 봐."

내가 대답했다.

"어떻게 생겼는데?"

"사람마다 달라."

"자세히 듣고 싶어. 사실만."

레이가 씩 웃으며 말했다.

"나와 사랑하고 나면 말해 줄게."

"너 누구야?"

그가 물었지만, 아직 뭘 알고 묻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차가 출발할 준비가 됐어."

내가 말했다.

그는 운전대 옆에 있는 반짝이는 기어를 잡았고, 우린 달렸다. 매우 평범하게. 남자와 여자 둘이서. U턴을 할 때, 오래된 도로 표면에 생

긴 돌비늘같이 갈라진 틈이 햇살에 비췄다.

"여기도 금방 바뀔 거야."

레이가 자갈길을 지나 흙길로 접어들었다. 철로는 한쪽은 해리스버그, 한쪽은 필라델피아로 이어졌다. 철로변의 건물들이 철거되는 중이었고, 예전에 거기 살던 가족들은 이사했다. 그 자리에는 산업 시설이 들어왔다.

내가 물었다.

"학교를 마친 후 여기 남을 거야?"

"그런 사람은 없지. 알잖아."

레이가 대답했다.

앞이 캄캄했다. 내가 지상에 남아 있다면,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구나. 어디든 원하는 곳에. 그렇다면 궁금했다.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일까? 나는 놓아 버려야 얻는 방랑벽을 놓치고 지낸 걸까?

우리는 할의 오토바이 가게 양쪽으로 뻗은 좁은 길로 들어갔다. 레이가 차를 세웠다.

"왜 여기야?"

그가 물었다.

"우린 탐험 중이라는 걸 기억해."

내가 대답했다.

나는 레이를 데리고 가게 뒤로 가서, 문설주 위를 더듬어 열쇠를 찾았다.

"거기 있는지 어떻게 알지?"

"사람들이 열쇠를 감추는 걸 봤거든. 천재가 아니라도 짐작할 수 있지."

내가 말했다.

가게 안은 기억 그대로였다. 오토바이 기름 냄새가 자욱했다.

내가 말했다.

"난 샤워를 해야겠어. 너도 편하게 있어."

나는 침대를 지나가서 불을 켰다. 할의 침대 위에 달린 작은 백색 전구가 반짝거렸다. 작은 창에서 들어오는 어스름한 빛을 제외하면, 전구 불빛만 있었다.

"어디 가는 거야? 어떻게 여길 잘 알아?"

레이가 물었다. 방금 전과는 다른 긴장한 목소리였다.

내가 대답했다.

"잠시만 시간을 줘. 그럼 내가 설명할게."

작은 욕실로 들어갔지만, 문을 꽉 닫지 않았다. 루스의 몸이 입고 있는 옷을 벗으면서, 물이 따끈해지기를 기다렸다. 루스가 날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자기 몸을 내가 보는 것처럼 본다면…… 이 살아 있는 완벽한 아름다움을.

욕실은 축축하고 퀴퀴한 냄새가 났고, 욕조는 오랜 세월 물만 흘려보내고 닦지 않아 물때가 끼어 있었다. 까마귀 발 모양의 발이 달린 낡은 욕조로 들어가 물줄기를 맞으며 서 있었다. 물을 가장 뜨겁게 했지만, 아직도 추웠다. 나는 레이의 이름을 불렀다. 그에게 욕실로 와 달라고 부탁했다.

"커튼 안으로 네가 보여."

그가 눈길을 돌리며 말했다.

"괜찮아, 난 좋아. 너도 옷을 벗고 이리 들어와."

"수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너도 알잖아."

레이가 말했다.

심장이 오그라들었다.

"뭐라고 했어?"

내가 물었다. 레이가 '커튼'이라고 한 흰 투명 가리개 저편의 그를 빤히 쳐다봤다. 그의 검은 몸을 작은 불빛이 감싸고 있었다.

"난 그런 타입이 아니라고 했어."

"넌 날 '수지'라고 불렀어."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레이가 커튼을 걷었다. 그는 내 눈만 쳐다보려고 애썼다.

"수지?"

내 눈에 눈물이 차 올랐다.

"이리 와. 제발 이리 와 줘."

눈을 감고 기다렸다. 머리를 물 속에 넣고, 뺨과 목, 가슴, 배, 허벅지에 닿는 따끈한 느낌을 맛봤다. 그가 더듬더듬 옷 벗는 소리가 났다. 허리띠 버클이 찬 시멘트 바닥에 떨어졌다. 주머니에 든 동전도 쏟아졌다.

어릴 때 부모님이 운전하는 동안 뒷좌석에 누워서, 집에 도착하면 그들이 날 안아서 옮겨 주리라 기대하곤 했다. 그와 똑같은 기대감이 일어났다. 그것은 신뢰에서 오는 기대감이었다.

레이가 커튼을 걷었다. 고개를 돌려, 그와 마주하며 눈을 떴다. 허벅지 안쪽에 황홀한 떨림이 일었다.

내가 말했다.

"괜찮아."

레이는 느릿느릿 욕조에 발을 디뎠다. 처음에는 내 몸을 만지지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옆구리에 난 작은 흉터를 쓰다듬었다. 우리는 울퉁불퉁한 흉터를 더듬는 그의 손끝을 바라보았다.

"루스가 배구를 하다 다쳤어. 1975년에."

내가 말했다. 또 몸이 떨렸다.

"넌 루스가 아니야."

레이는 경이감이 넘치는 얼굴로 말했다.

나는 상처 끝에 닿은 그의 손을 잡아, 내 왼쪽 젖가슴 밑에 놓았다.

내가 말했다.

"오랜 세월 너희 둘을 지켜봤어. 사랑해 주면 좋겠어."

레이는 말을 하려고 입을 벌렸지만, 입술에 걸린 말이 하도 이상해서 내뱉을 수가 없었다. 레이가 엄지손가락으로 유두를 건드리자, 나는 그의 머리를 끌어당겼다. 그리고는 키스했다. 우리의 몸이 물에 잠겼고, 그의 가슴과 배에 듬성듬성 난 털이 젖었다. 루스가 보기를 바랐기에 그와 키스했다. 할리가 보기를 바랐기에. 그들이 날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었기에. 샤워를 하면서 난 울 수 있었고, 레이는 내 눈물에 입맞출 수 있었다. 내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정확히 모르면서도.

그의 몸 구석구석을 만지고 쥐어 봤다. 손바닥으로 그의 팔꿈치를 감쌌다. 그의 성기에 난 털을 가만히 당겨 봤다. 하비 씨가 억지로 내 몸에 넣었던 그 부분을 만져 봤다. 머릿속에서 '가만히.' 라고 말하다가, '이런.' 이라고 중얼댔다.

"레이?"

"널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

"수지."

나는 레이의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말했다.

"나한테 쓴 편지, 기억해? 너 자신을 '무어인' 이라고 불렀지?"

잠시 우리는 그대로 서 있었고, 나는 물방울이 그의 어깨에 맺혔다 미끄러지는 것을 보았다.

말없이 그가 나를 안자, 나는 양 다리로 그의 몸을 감쌌다. 레이는

물줄기에서 벗어나, 욕조 가장자리에 몸을 기댔다. 그가 안으로 들어오자, 나는 그의 얼굴을 양 손바닥으로 감싸고 힘껏 키스했다.

1분쯤 지났을까, 그가 몸을 뗐다.

"거긴 어떤지 들려 줘."

레이가 말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가끔은 고등학교 같아. 고등학교에 가 본 적은 없지만, 천국에서는 교실에서 모닥불을 피워도 되고, 복도에서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뛰어도 괜찮아. 하지만 항상 고등학교 같은 건 아냐. 노바스코샤(캐나다 동부의 반도 및 주 : 역주)나 탕헤르(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 : 역주), 티베트와 비슷할 수도 있어. 꿈꾸던 것은 뭐든 비슷해 보이지."

"루스는 거기 있니?"

"루스는 연설을 하는 중이지만, 돌아올 거야."

"거기 있는 네 모습이 보여?"

"지금은 여기 있잖아."

내가 말했다.

"하지만 곧 떠날 거잖아."

레이가 말했다.

난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다. 머리를 숙였다.

"그럴 거야, 레이. 맞아."

우리는 사랑을 나누었다. 샤워를 하면서, 침실에서, 불빛과 형광 별 장식 아래서. 그가 쉬는 사이, 나는 그의 등에 입맞추며, 근육과 점, 생채기마다 축복했다.

"가지 마."

레이가 말했다. 그는 반짝이는 보석 같은 눈을 감았고, 나는 그의

몸에서 나오는 얕은 잠의 숨결을 느꼈다.

내가 속삭였다.

"내 이름은 수지야. 성은 '연어'란 뜻과 같은 새먼이고."

나는 머리를 그의 가슴에 기대고 잠들었다. 그의 곁에서.

눈을 떠 보니, 맞은편 창문에 검붉은 기운이 감돌았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밖에는 오랜 세월 지켜보았던 세상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에서. 하지만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다. 대신 이 시간에 사랑에 빠지고 싶었다. 죽음 속에서는 느끼지 못한 일종의 무력감……. 지나가면서 느끼고, 구석구석 더듬고, 팔을 벌려 빛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이 미지의 세계로의 항해가 되고.

루스의 몸에 힘이 빠졌다. 나는 한 팔에 기대고 레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곧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잠시 후 그가 눈을 뜨자, 나는 그를 응시하며 얼굴 선을 더듬었다.

"죽은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니, 레이?"

그는 눈을 깜박이며 나를 보았다.

"난 의대에 다니잖아."

"해부용 시체나 질병이나 장기가 망가지는 그런 것 말고. 루스가 말하는 그런 죽음 말이야. 우리를 말하는 거야."

내가 말했다.

"가끔 생각해. 항상 궁금하고."

"우린 여기 있어. 언제나. 산 사람은 죽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우리에 대해 생각할 수도 있어. 꼭 슬퍼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다고."

"널 다시 만져도 될까?"

그는 다리에 감긴 이불을 밀치고 일어나 앉았다.

내가 할의 침대 끝에서 뭔가를 본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것은 뿌옇고 가만히 있었다. 빛 때문이라고, 지는 해에 비친 먼지 티끌 덩어리일 뿐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레이가 내 몸에 손을 댔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

레이는 몸을 바싹 대며 어깨에 가볍게 입맞췄다. 느낌이 없었다. 담요 속에서 내 몸을 꼬집어 봤다. 무감각.

이제 침대 발치에 있는 뿌연 덩어리가 모양을 띠기 시작했다. 레이가 침대에서 내려가 똑바로 섰을 때, 나는 방에 가득한 남자들과 여자들을 보았다.

레이가 욕실에 가기 전에, 나는 그를 불렀다. '보고 싶을 거야.' 라거나 '가지 마.' 아니면 '고마워.' 라고 말하고 싶었다.

"응."

"루스의 일기장을 꼭 읽어 봐."

"그럴게."

그가 대답했다.

침대 발치에 모양을 이룬 영혼들 사이로, 레이의 미소짓는 얼굴이 보였다. 그가 날씬한 멋진 몸을 돌려서 저쪽으로 걸어갔다. 갑자기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다.

욕실에서 수증기가 나오기 시작하자, 나는 천천히 아동용 책상으로 다가갔다. 할은 거기에 청구서와 장부를 쌓아 두었다. 난 다시 루스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게 이런 일이 다가오리란 것을 까맣게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주차장에서 만난 후 루스가 꿈꿔 온 멋진 가능성에 대해 몰랐다. 대신 나는 어떻게 천국과 지상에서 소망을 바꾸었는지 알았다. 야생 생물 사진가가 되는 꿈, 졸업 전에 오스카상을 받는 꿈, 레이 싱과 다시 한 번 키스하는 꿈. 꿈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지 보라고.

내 앞에 전화기가 있었다. 나는 수화기를 들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 집의 번호를 눌렀다. 금고 번호를 돌릴 때 자동적으로 손이 척척 돌아가는 것처럼.

세 번째 벨이 울렸을 때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버클리?"

내가 말했다.

"누구세요?"

"나야, 수지."

"누구시죠?"

"수지야. 네 큰누나."

"소리가 안 들려요."

버클리가 말했다.

한참 수화기를 쳐다보다가 그들의 존재를 느꼈다. 이제 방에는 말없는 영혼들이 가득 찼다. 그 중에는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도 있었다.

"누구시죠? 모두 어디서 나왔나요?"

내가 물었지만, 내 목소리가 방에 울리지 않았다. 그걸 알아차린 것은 바로 그때였다. 나는 일어나 앉아서 다른 이들을 쳐다보았지만, 루스는 책상 위에 엎어져 있었다.

"수건 좀 던져 줄래?"

레이가 물을 잠그고 외쳤다. 내가 대답하지 않자, 그가 커튼을 걷었다. 나는 그가 욕조에서 나와 문간에 서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루스를 보았고, 루스에게 달려갔다. 레이가 어깨를 만지자 루스는 졸린 듯 일어났다. 그들은 서로 바라보았다. 루스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

다. 그는 내가 가 버렸음을 알았다.

부모님, 동생들과 기차를 탔을 때, 뒤로 앉아서 어두운 터널을 지난 적이 있었다. 두 번째로 지상을 떠나는 기분이 꼭 그랬다. 어쩐지 목적지는 피할 수 없었고, 풍경을 여러 번 지나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행이 있었고, 찢기지도 않았다. 우리가 머나먼 곳까지 긴 여행을 하리라는 걸 난 알았다.

돌아올 때보다 다시 지상을 떠나는 게 더 수월했다. 나는 옛친구 둘이 할의 오토바이 가게 뒤에서 조용히 손을 잡는 광경을 보았다. 루스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고단하고 행복했다. 레이는 지금까지 겪은 일과 이 일이 열어 준 가능성에 잠기기 시작했다.

23

다음 날 아침, 루아나가 빵을 굽는 냄새가 레이의 방까지 올라왔다. 그는 루스와 나란히 누워 있었다. 밤새 그들의 세계는 변했다. 아주 간단했다.

그들은 방에 들어갔던 흔적을 조심스럽게 없애고, 오토바이 가게에서 나왔다. 둘은 말없이 레이네 집으로 갔다. 밤늦게 루아나는 옷을 입은 채 몸을 웅크리고 자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녀는 아들이 마침내 이 묘한 친구를 얻게 되어 반가웠다.

새벽 3시, 레이는 몸을 뒤척였다. 그는 일어나 앉아서 루스를 바라보았다. 긴 팔다리, 그가 지난 밤 사랑했던 아름다운 몸. 갑자기 레이의 마음에 따스함이 밀려들었다. 그는 루스의 몸을 만지려고 손을 뻗었고, 바로 그때 창문으로 달빛이 비쳐들었다. 나는 몇 년간 레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그 창가에서 지켜봤다. 그가 달빛을 따라갔다. 바닥에 루스의 가방이 있었다.

레이는 그녀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침대에서 내려와 창가로 갔다. 안에 루스의 일기장이 있었다. 레이는 일기장을 꺼내 들고 읽기 시작했다.

'날개 끝에는 공기가 있고, 바닥에는 피가 있다. 나는 뼈들을 들어본다. 깨진 유리처럼 뼈들도 빛을 모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런 조각을 다시 모아, 단단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살해된 여자들을 되살리기 위해서.'

'펜역. 화장실 칸. 세면대로 나가려고 발버둥. 나이 든 여자들.'

'집 안에서. C 대로. 부부.'

'모트 가의 지붕. 십대 소녀. 총에 맞다.'

'시간? 센트럴 파크에서 여자 애가 덤불숲으로 가다. 고급 흰 레이스 칼라.'

그는 믿기 힘들 만치 추웠지만 계속 읽어 나갔다. 루스가 뒤척이는 소리가 날 때만 고개를 들었다.

"할 말이 너무 많아."

그녀가 말했다.

엘리엇 간호사는 아버지를 부축해서 휠체어에 앉혔고, 엄마와 린지는 병실을 돌아다니며 집에 가져갈 수선화를 모았다.

아버지가 말했다.

"엘리엇 간호사, 친절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지만, 오래 지난 후에 다시 만나면 좋겠군요."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엘리엇 간호사가 대답했다. 그녀는 방에 모여 어정쩡하게 서 있는 우리 가족을 보고 말했다.

"버클리, 어머니와 누나는 양손에 물건을 드셨구나. 네가 밀어 드려야겠는걸."

아버지가 말했다.

"도와 드리렴, 벅."

나는 네 사람이 복도로 나가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버클리와 아버지가 앞에 서고, 린지와 엄마는 물이 뚝뚝 흐르는 수선화를 한아름씩 들고 뒤따라갔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서, 린지는 노란 꽃송이의 목부분을 빤히 쳐다봤다. 첫 번째 추도식날 오후, 할과 새무얼이 옥수수밭에 놓인 노란 수선화를 본 일이 기억났다. 그들은 누가 꽃을 두고 갔는지 몰랐다. 린지는 꽃을 보다가 엄마를 쳐다봤다. 엄마와 몸이 닿았다. 반짝이는 휠체어에 앉은 아버지는 피곤하지만 집에 가서 행복해 보였다. 로비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고, 나는 그들만 거기 있어야 되는 걸 알았다. 네 사람만.

루아나는 계속 사과 껍질을 까느라 점점 손이 젖고 빨개지자, 마음으로 한 마디 말을 중얼대기 시작했다. 오랜 세월 피해 온 말. 이혼. 아들과 루스가 뒤엉켜 자는 모습이 마침내 그녀를 해방시켜 주었다. 마지막으로 남편과 동시에 잠자리에 든 게 언젠지 기억할 수가 없었다. 그는 유령처럼 방에 들어와서, 유령처럼 이불 속으로 들어가 꼿꼿하게 잤다. 남편은 TV와 신문을 장식하는 불친절한 타입은 아니었다. 그가 없는 데에 잔인성이 있었다. 집에 와서 그녀의 저녁 식탁에 앉아, 그녀가 만든 음식을 먹을 때조차도 남편은 그 자리에 없었다.

루아나는 위층 욕실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만하면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 판단될 때에야 아들과 루스를 불렀다. 그날 아침 우리 엄마가 전화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전화했을 때 알려 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루아나는 파이를 만들어 갖다 주기로 작정했다.

그녀는 루스와 레이에게 커피를 주고는, 너무 늦었으니 레이가 새먼의 집에 같이 가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용히 달려가 문간에 파이만 두고 오겠다고 했다.

"세상에."

루스가 중얼댔다.

루아나가 그녀를 쳐다봤다.

"죄송해요, 엄마. 저희는 어제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냈거든요."

레이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엄마가 그 말을 믿어 줄지 의심스러웠다.

루아나는 조리대로 가서 구운 파이 두 판을 들고 식탁으로 가져왔다. 갈라진 표면에서 김이 모락모락 났다. 그녀가 물었다.

"식사할래?"

루스가 대답했다.

"부인은 천사세요!"

루아나는 생긋 웃었다.

"배부터 채운 다음, 옷을 입고 둘 다 나랑 가자꾸나."

루스는 레이를 쳐다보며 말했다.

"사실 저는 가 볼 데가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들를게요."

할은 버클리에게 줄 드럼 세트를 가져왔다. 할과 할머니가 합의한 일이었다. 버클리의 열세 살 생일까지는 아직 몇 주일이나 남았지만,

그에겐 드럼이 필요했다. 새무얼은 린지와 버클리만 병원에서 부모님을 만나게 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귀가 행사'가 될 터였다. 엄마는 아버지와 내리 48시간을 지냈고, 그 사이 두 분의 세상이 변했다. 다른 사람의 세상도 변했고, 계속 변하고 또 변할 터였다. 막을 수가 없었다.

린 할머니가 말했다.

"너무 일찍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총각들은 무슨 독약으로 마시려나?"

"샴페인이 준비된 걸로 아는데요."

새무얼이 대답했다.

"그건 나중에 마시고. 식전에 뭘 마시겠냐 이거지."

할머니가 말했다.

"저는 안 마실래요. 나중에 린지랑 같이 마실게요."

새무얼이 대답했다.

"할은?"

"벅에게 드럼을 가르쳐 줘야겠어요."

린 할머니는 재즈의 장인들이 멀쩡한 정신으로 음악을 하느냐고 말하려다 참았다.

"그럼 냉수 석 잔?"

할머니는 음료수를 가지러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는 지상에서보다 죽은 후에 할머니를 더 사랑하게 됐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술을 끊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 말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난 술이 할머니를 할머니답게 만드는 요소임을 알았다. 할머니가 지상에 남긴 최악의 유산이 술에 취해 도와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는 좋은 유산으로 기록될 것이다.

할머니는 냉동고에서 얼음을 꺼내 개수대로 가져와서, 컵에 얼음을 듬뿍 담았다. 컵 하나에 일곱 덩어리씩. 할머니는 차가운 물이 나올 때까지 물을 흘려 버렸다. 딸 애비게일이 다시 집에 돌아올 터였다. 낯선 애비게일이. 사랑하는 딸이.

하지만 할머니가 고개를 들고 창문을 봤을 때, 그녀가 어릴 때 입던 옷을 입은 소녀가 버클리의 도구 창고 밖에 앉아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다음 순간 소녀는 사라졌다. 할머니는 기억을 떨쳐 냈다. 분주한 날이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아버지의 차가 차도에 들어서자, 내가 기다리던 게 이것이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우리 가족의 집에 오는 것이었을까. 이제 내게가 아니라, 나 없이 그들끼리 모이는 것이었을까.

오후 햇살에 아버지는 왜소하고 말라 보였지만, 감사에 넘치는 눈빛이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눈빛.

엄마는 다시 집에서 지내며 버텨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계속했다.

네 사람은 동시에 차에서 내렸다. 버클리는 뒷좌석에서 내려 아버지를 부축했다. 필요 이상으로 부축한 것은 엄마로부터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리라. 린지는 보닛 너머로 동생을 힐끗 봤다. 아무 일도 없는지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었다. 그녀 역시 남동생처럼 책임감을 느꼈다. 아버지처럼. 그때 린지는 몸을 돌렸고, 엄마가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엄마의 얼굴이 가슴에 안은 수선화 때문에 환했다.

"왜요?"

"넌 네 친할머니를 꼭 닮았어."

엄마가 말했다.

"가방 나르는 걸 도와 주세요."

린지가 말했다.

그들은 차 트렁크로 걸어갔고, 버클리는 아버지를 모시고 현관 쪽으로 갔다.

린지는 어두운 트렁크를 들여다보았다. 한 가지만 알고 싶었다.

"또 아빠에게 상처를 주실 거예요?"

"안 그러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약속하지 않으련다."

엄마가 말했다.

엄마는 린지가 힐끗 쳐다볼 때까지 기다렸다. 린지는 경찰이 와서 '땅바닥에 피가 너무 많은 걸로 봐서 딸/언니/누나가 죽었다.' 고 말한 날 이후, 빨리 자라 버린 아이의 도전적인 눈빛을 보였다.

"무슨 짓을 하셨는지 알아요."

"조심할게."

린지가 가방을 들었다.

그들은 외침 소리를 들었다. 버클리가 현관밖으로 뛰어 나왔다.

"린지 누나! 와서 할이 뭘 줬는지 봐!"

동생은 진지하던 태도를 던지고, 무거운 몸으로 팔딱팔딱 뛰었다.

그는 드럼을 마구 두드렸다.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 5분 후에도 여전히 싱긋 웃는 사람은 할뿐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의 일을 떠올렸다. 너무 소란스러웠다.

"이제 벅에게 스틱을 쓰는 법을 가르쳐 주면 좋겠구나."

린 할머니가 말했다. 할이 시키는 대로 했다.

엄마는 수선화를 할머니에게 주고, 화장실에 간다며 위층으로 올라갔다. 모두 엄마가 어디 가는지 알았다. 내가 쓰던 방.

엄마는 방 가장자리에 홀로 섰다. 마치 태평양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아직도 연보랏빛이었다. 할머니가 들여놓은 등을 젖히는 의자만 빼면 가구도 그대로였다.

"사랑한다, 수지."

엄마가 말했다.

지금껏 아버지에게 수없이 많이 들은 말이었지만, 다시 듣는 건 충격적이었다. 나도 모르게 엄마에게 그 말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는 이 사랑 때문에 나락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걸 아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이제 알고 보니 난 엄마에게 그 시간을 준 것이었다. 내겐 시간이 아주 많으니까 얼마든지 줄 수 있었다.

엄마는 서랍장 위에 놓인 사진을 알아봤다. 린 할머니는 사진을 금색 틀에 넣어 두었다. 내가 처음으로 촬영한 엄마 사진—가족이 일어나고 립스틱을 바르기 전에 은밀히 찍은 애비게일의 얼굴 사진. 야생생물 작가인 수지 새먼이 찍은 안개 낀 교외 주택의 잔디밭을 내다보는 여인 사진.

엄마는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을 요란하게 틀어놓고 수건을 만지작거렸다. 할머니가 구입한 수건임을 금방 알아보았다. 크림색 수건. 누가 그런 색 수건을 살까. 게다가 글자까지 수놓인 수건이었다. 그 또한 이상스럽다고 엄마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엄마는 자신을 비웃었다. 지난 세월 동안, 모든 기억을 지워 버리려던 방식이 과연 얼마나 통했는지 의아해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머니, 린 할머니는 술에 취하면 사랑스러웠고, 허영을 부릴 때는 단아했다. 언제쯤 죽은 자뿐 아니라 산 자도 놓아 버리게 될까?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될까?

나는 욕실에도, 욕조 안에도, 마개 속에도 없었다. 머리 위의 거울

에 나타나거나, 린지와 버클리의 칫솔 위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어떤 면으로 보면—그들은 아주 행복한 상태일까? 부모님은 영원히 함께 할까? 버클리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말하기 시작했을까? 아버지의 심장은 정말로 치료된 걸까?—나는 그들에 대한 열망이 다 끝나버렸는지, 그들이 날 열망하는 것이 다 끝났는지 알 수가 없었다. 여전히 그러고 싶지만. 그들도 여전히 그럴 테지만. 언제까지나.

아래층에서는 할이 버클리의 손목을 잡고, 브러쉬 스틱을 쓰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가볍게 그어 봐."

버클리는 그대로 하고 나서, 맞은편 소파에 앉은 린지를 쳐다보았다.

"끝내주는데, 벅."

린지가 말했다.

"방울뱀 같지 뭐."

할은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맞았어."

그는 머릿속에서 재즈 음악이 춤추는 기분이었다.

엄마가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그녀는 방에 들어가서 먼저 아버지를 쳐다봤다. 말없이 괜찮다는 것을 알게 했다. 여전히 제대로 숨을 쉬고 적응하고 있다고.

린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며 외쳤다.

"좋아요, 여러분! 새무얼이 발표할 소식이 있으니까 앉읍시다!"

모두 웃었고, 자기만의 껍데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모두 원하던 대로 되었다고 해도 함께 있는 게 힘들었다.—새무얼이 할머니를 따라 들어왔다. 할머니는 샴페인 잔이 담긴 쟁반을 들고 있었다. 새무

얼이 힐끗 린지를 쳐다보았다.

"할머니가 샴페인 따르는 걸 도와 주실 거예요."

새무얼이 말했다.

"그건 아주 잘 하시지."

엄마가 거들었다.

"애비게일?"

린 할머니가 불렀다.

"네?"

"널 다시 보니 정말 좋구나."

"새무얼, 말해 봐."

아버지가 채근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있게 되어 행복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은 동생을 잘 알았다.

"그것만이 아닐 텐데. 벅, 브러쉬로 드럼을 쳐 줘."

할은 이번에는 버클리가 혼자 치게 해 주었다. 버클리는 새무얼이 발표하도록 분위기를 잡아 주었다.

"새먼 부인이 집에 오시고, 새먼 씨께서도 집에 오셔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또 두 분의 아름다운 따님과 결혼하는 영광을 얻게 되어 기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고요."

"찬성! 찬성!"

아버지가 외쳤다.

엄마는 쟁반을 들고 서 있었다. 모두에게 샴페인 잔이 돌아갔다.

나는 가족들이 샴페인을 마시는 광경을 보면서, 내 죽음으로부터 그들의 삶이 앞으로 나갔다 뒤로 물러섰다 했다는 생각을 했다. 새무얼이 대담하게 가족 앞에서 린지와 키스하자, 나는 그곳에서 위로 훨

훨 날아올랐다.

내가 떠난 후 일어난 이런 일들은, 내 부재를 둘러싸고 자라난 아름다운 '뼈대' 이자, 유대였다.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큰 희생을 치러야 했지만, 멋진 경우도 많았다. 나는 내가 없는 세상을 끌어안는 식으로 사물을 보기 시작했다. 내 죽음으로 인해 생긴 일들은 몸의 뼈대였다. 언제인지 몰라도 언젠가 그 몸은 온전해지리라. 내 생명을 희생하고 이 기적 같은 몸을 얻었음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앞에 서 있는 딸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림자 딸' 은 없었다.

할이 식사 후에 드럼으로 트레몰로 연주를 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약속하자, 버클리는 드럼 스틱을 놓았다. 일곱 사람이 줄지어 부엌을 지나 식당으로 들어갔다. 식당에서는 새무얼과 할머니가 금이 가지 않은 접시를 놓고 있었다. 메뉴는 할머니의 단골 요리인 냉동 파스타 요리와 냉동 치즈케이크였다.

할이 창 밖에 있는 사람을 보았다.

"밖에 누가 있는데요. 레이 싱이군요!"

"들어오라고 해."

엄마가 말했다.

"가고 있는데요."

아버지와 할머니만 식당에 남고, 모두 할을 쫓아 나갔다.

"이봐, 레이! 기다려 봐!"

할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다가, 하마터면 파이를 밟을 뻔했다.

레이가 몸을 돌렸다. 루아나는 시동을 끄지 않고 차에 있었다.

"방해할 의도는 없었어요."

레이가 할에게 말했다. 린지, 새무얼, 버클리와 새먼 부인으로 보이는 부인이 현관문에 모였다.

엄마가 말했다.

"저기 어머니시구나? 어서 들어오시라고 해."

"정말 괜찮습니다."

레이는 가까이 오려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수지가 이 광경을 보고 있을까?' 라고 생각했다.

린지와 새무얼이 앞으로 나가, 레이에게 다가갔다.

엄마가 현관 앞길을 지나 차도로 가서, 차창에 기대 루아나와 대화를 나누었다.

레이는 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들어가려고 차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봤다. 루아나가 말했다.

"파이만 가져왔는걸요."

"싱 박사님은 일하시나요?"

우리 엄마가 물었다.

"늘 그렇죠."

루아나는 아들이 린지, 새무얼과 현관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물었다.

"저랑 냄새 고약한 담배나 피우실래요?"

"좋죠."

엄마가 대답했다.

"레이, 어서 오너라. 앉아."

레이가 거실을 지나 들어가자 아버지가 말했다. 그는 딸을 사랑했던 이 청년에게 특별한 마음을 가졌다. 하지만 버클리가 다른 사람보

다 먼저 아버지의 옆자리에 앉았다.

린지와 새무얼은 거실에서 의자 두 개를 가져와서, 식기장 옆에 놓았다. 루아나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 앉았고, 할은 혼자 식탁 끝에 앉았다.

나는 그제야 그들이 내가 가 버려도 모르리란 걸 깨달았다. 가끔 내가 어느 공간에 분명히 머물러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듯이. 버클리는 내게 말을 걸었고 나도 그에게 말을 했다. 난 그에게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말을 걸었다. 그들이 내게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보여 주게 되었다.

또 거기 루스가 있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한 방에 모여 있는 사이, 그녀는 홀로 옥수수밭을 걸었다. 그걸 알았지만, 이제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그녀는 딴 생각에 빠진 소녀였고, 이제 딴 생각에 빠진 여인이 될 터였다. 처음에는 우연히, 지금은 스스로 선택해서. 이 모든 것, 내 삶과 죽음의 이야기는 루스의 것이었다. 그녀가 말하고 싶다면 한 번에 한 사람에게라도 말할 수 있으리라.

루아나와 레이가 오고 한참 지난 후, 새무얼은 30번 도로 위의 잡초가 무성한 곳에 있는 고딕 양식 집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애비게일에게 집 구조를 세세히 설명했다. 또 거기서 린지에게 청혼하고, 거기서 둘이 살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레이가 불쑥 물었다.

"뒷방 천장에 큰 구멍이 있고, 앞쪽으로 멋진 창문이 있는 집이야?"

"맞아."

새무얼이 대답했다. 아버지가 걱정스런 표정을 짓자, 그는 얼른 말했다.

"하지만 그건 고치면 됩니다. 확실해요."

레이가 말했다.

"루스의 아버지가 집주인이야."

한동안 모두 조용했다. 그러자 레이가 말을 이었다.

"코너스 씨는 사업상 대출을 받아서 아직 철거되지 않은 오래된 집들을 구입했어요. 그런 집들을 수리하고 싶다던데요."

"맙소사."

새무얼이 중얼댔다.

나는 떠났다.

뼈 대

죽은 자가 진정으로 떠나기로 결정하면, 산 자들은 그가 떠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기껏해서 속삭임이나 속삭임의 물결이 굽이치는 정도로 느낄 뿐이다. 그것을,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강연장이나 극장 뒷좌석에 있다가 아무도 모르게 나가는 데 비유하고 싶다. 그 경우 린 할머니처럼 문 가까이 있는 사람만이 알아차린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문이 닫힌 방에 알 수 없는 바람이 스치고 지나는 것 같다.

린 할머니는 몇 년 후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 여기서는 만나지 못했다. 아마 할머니의 천국에서 테니시 윌리엄스(희곡 '욕망으로 가는 열차'의 저자 : 역주)와 딘 마틴(유명한 미국 배우 : 역주)과 줄렙(위스키, 브랜디에 설탕, 박하 등을 넣고 얼음으로 차게 한 음료 : 역주)을 마시고 있으리라. 할머니 나름의 좋은 시간에 여기 오실 것이다. 분명히 그럴 거다.

정직하게 말한다면, 난 아직도 가끔 슬그머니 빠져 나가 우리 가족을 지켜본다. 어쩔 수가 없다. 또 가끔 그들도 나를 생각한다. 그들도 어쩔 도리가 없다.

린지와 새무얼은 결혼한 후, 30번 도로에 있는 빈 집에 앉아서 샴페인을 마셨다. 높이 자란 나뭇가지가 위층 창까지 가리자, 그들은 가지치기를 해 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나무 밑에 모였다. 코너스 씨는 자신이 세운 재건축 회사의 첫 번째 직원으로 새무얼이 일해 준다면, 인건비로 집값을 대신하겠다고 했다. 여름이 끝날 무렵, 코너스 씨는 새무얼과 버클리의 도움으로 땅을 정리하고, 트레일러를 설치했다. 낮에는 사무실로 이용했고, 밤에는 린지의 서재로 쓸 수 있었다.

처음에는 불편했다. 배관과 전기 시설이 잘 안 되어서 샤워를 하러 양가 중 한 곳에 가야 했다. 그러나 린지는 학교 공부에 파묻혔고, 새무얼은 연대에 맞는 문 손잡이와 전등을 찾아 내느라 분주했다.

린지가 임신하자 모두 놀랐다.

버클리는 씩 웃으며 말했다.

"어쩐지 뚱뚱해 보인다 했지."

"귀신이네."

린지가 응수했다.

아버지는 손주에게 병 속에 든 배를 사랑하도록 가르칠 날이 오리라는 꿈을 가졌다. 거기에는 슬픔과 환희가 있으리란 것도 알았다. 언제나 나의 메아리가 있을 테니까.

이곳은 아름답다고 말하고 싶다. 나는,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하지만 이곳은 다르다. 거친 현실에서의 안전이 아니다. 우린 즐겁게 지낸다.

우린 사람들이 도전하고 고마워하는 일을 해 주기도 한다. 어느 해 버클리의 정원에 마구 뒤엉킨 식물들이 한꺼번에 꽃을 피웠다. 나는 엄마를 위해 그렇게 했다. 엄마는 집에 머물면서 다시 뜰과 마주하게 됐다. 꽃과 허브, 삐죽삐죽 올라오는 잡초를 보면서 자신이 한 일에 감탄했다. 돌아온 후 늘 감탄의 연속이었다. 인생의 얽힘에 대해.

부모님은 할머니의 물건과 함께 내 물건을 자선 단체에 내주었다. 그들은 나를 느낄 때마다 세상과 나누었다. 죽은 자와 함께 있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 대화하는 것이 두 분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또 나는 버클리의 드럼 연주를 귀기울여 들었다.

레이는 '닥터 싱'이 되었다. 루아나는 "집안에 진짜 닥터가 생겼구나." 하고 말하곤 했다. 그는 점점 많은 것을 믿게 되었다. 흑백 논리의 세계를 지배하는 진지한 의사들과 과학자들에 둘러싸여 살면서도, 그는 이런 가능성을 인정했다. 가끔 죽어 가는 환자에게 나타나는 저승사자를 발작의 결과로만 보지 않았다. 또 루스에게 내 이름을 부른 것은 나였기 때문이었고, 정말로 나와 사랑을 나누었다고 믿었다.

그는 의심이 생기면 루스에게 전화했다. 옷방 생활을 마감하고, 뉴욕 로어 이스트 사이드에 옷방 크기의 원룸을 마련한 루스는, 보고 경험한 것을 글로 쓰려고 모색 중이었다. 그녀가 아는 것을 모든 사람이 믿게 하고 싶었다. 죽은 자들도 우리에게 말을 걸며, 산 자들 사이에서 영혼들이 휘젓고 다니고 끼어들며 함께 웃는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가 바로 그들임을.

이제 나는 '넓고 넓은 천국'에 있다. 내 가장 소박한 욕망이 다 담겨 있기에 그렇게 부른다. 겸허하면서도 장엄한 욕망을 다 담고 있는 세계다. 할아버지는 '편안'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만.

케이크와 베개와 풍부한 색감이 있지만, 그 밑에 있는 눈에 띄는 조각 이불은 조용한 방과 같다.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방…… 사연을 말하지 않아도 되고, 주장할 필요도 없고.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는 곳. 이 넓고 넓은 천국은 머리가 납작한 못, 새순의 솜털, 정신없이 도는 롤러코스터 같은 곳이다. 없어졌다가, 상상도 못했던 곳에서 다시 찾게 되는 구슬 같은 곳.

어느 오후 친할아버지와 지상을 훑어봤다. 메인 주에 있는 소나무 꼭대기에서 폴짝폴짝 뛰는 새들을 보면서, 그들이 땅에 내려갔다가 다시 솟아오르고 다시 떨어지는 감각을 맛보았다. 구경은 맨체스터에서 끝났고, 우린 할아버지가 한창 때 동부 해안을 출장 다니던 시절에 있던 간이식당에 가 봤다. 50년 사이에 식당은 초라해졌다. 우린 둘러본 후 떠났다. 하지만 나는 몸을 돌리다가 그를 봤다. 하비 씨가 그레이하운드 버스에서 내렸다.

그는 간이식당에 들어가서, 카운터에서 커피를 주문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여전히 평범한 얼굴이었다. 눈 주위만 빼고. 하지만 그는 이제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않고 두꺼운 안경을 끼고 있었다. 사람들은 두꺼운 안경 너머까지 찬찬히 쳐다보지 않았다.

나이 든 여종업원이 스티로폼에 담긴 뜨거운 커피를 줄 때, 그는 문에 달린 종소리를 들었다. 문이 열리며 찬바람이 들어왔다.

지난 몇 시간 동안 몇 줄 앞에 앉아 있던 십대 소녀였다. 워크맨을 만지작대면서, 콧노래를 흥얼대던 아가씨. 하비 씨는 카운터에 앉아 있다가, 그녀가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가자 따라 나섰다.

식당 옆의 지저분한 눈밭을 지나 버스 승차장으로 가는 아가씨를 쫓아가는 하비 씨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바람을 쐬며 담배를 피우고

싶었다. 그녀가 멈춰 서자, 하비 씨가 곁으로 왔다. 그녀는 놀라지도 않았다. 어디 가나 허름한 행색의 사내가 있기 마련이니까.

하비 씨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다. 눈밭이고 추웠다. 앞에는 깊은 계곡이 있었다. 다른 쪽에는 시야를 가리는 숲이 있고. 그는 아가씨에게 말을 붙였다.

"지루하군요."

아가씨는 그가 말을 건 것이 믿기지 않는 것처럼 쳐다봤다.

"네."

그녀가 대답했다.

"혼자 여행해요?"

바로 그때였다. 그들의 머리 위에 기다란 게 여럿 매달려 있었다. 고드름이었다.

아가씨는 구두 뒷굽으로 담배를 문질러 끄고, 몸을 돌렸다.

"굼벵이 같아요."

그녀는 간단히 대꾸하고 걸음을 재촉했다.

잠시 후 고드름이 떨어졌다. 얼얼한 차가움 때문에 그는 몸의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다 엎어졌다. 계곡에 쌓인 눈이 녹고 그가 발견되려면 몇 주일은 있어야 될 터였다.

이제 특별한 사람에 대해 말하려 한다.

린지는 집 마당에 뜰을 꾸몄다. 기다란 꽃밭에서 잡초를 뽑는 동생을 지켜보았다. 매일 상담하며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장갑 안에서 손가락이 꼬였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삶이 준 카드를 깨닫게 도울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아픔을 덜어 줄 수 있을까? 나는 린지가 머리가 좋지만 아주 간단한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걸 기억

했다. 내가 늘 잔디를 깎겠다고 나섰던 것이 일하면서 할리데이와 놀기 위해서였음을 린지는 아주 오래 지난 후에야 깨달았다. 그제야 그녀는 할리데이가 생각났다. 나는 그녀의 생각을 쫓아갔다. 몇 년 후 집이 안정되고 담장을 치면, 딸에게 개를 구해 줄 때가 오리라. 그러자 지금은 기계로 몇 분 안에 담장 정리를 하는데, 우리는 몇 시간이나 툴툴대며 그 일에 매달렸던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 새무얼이 린지에게 다가왔다. 귀여운 아가가 그의 품에 있었다. 내가 지상에서 14년간 살다 간 지 10년 만에 태어난 아기. 애비게일 수잔. 내게는 '꼬마 수지'였다. 새무얼이 담요에 쌓인 수지를 꽃 옆에 내려놓았다. 그러자 내 동생, 나의 린지는 추억 속에 나를 남겨두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그곳이기에.

8킬로미터쯤 떨어진 작은 집. 남편이 흙투성이 팔찌를 아내에게 내밀었다. 장식물들이 달린 팔찌였다.

"옛 공업단지에서 찾아 냈어. 건설업자 말로는 부지 전체를 불도저로 밀었다더군. 자동차를 매립시켰던 것 같은 구멍이 더 있을까 봐 걱정이래."

부인이 물을 부어 주자, 그는 작은 자전거, 발레 슈즈, 꽃바구니, 골무를 씻어 냈다. 그녀가 컵을 내려놓자, 그가 팔찌를 내밀었다.

부인이 말했다.

"이걸 가졌던 소녀는 지금쯤 어른이 됐겠네요."

거의 맞는 말이다.

꼭 맞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오래도록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기원한다.

작가 앨리스 세볼드와의 대화

■ 독자들에게 이 책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요.

『러블리 본즈』는 수지 새먼이라는 살해된 소녀가 자신과 지상에 남은 사람들에 대해 그녀만의 천국이란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열네 살된 소녀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책은 사랑과 상실, 그리고 희망이라는 거대한 우주적인 테마를 다루고자 했습니다.

■ 표면적으로 이 책은 슬픈 이야기지만 또한 희망이 담겨 있기도 한데요.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요?

나의 개인적인 목적은 내 손안에서 지옥과 희망을 공존시키려는 것이었으며 『러블리 본즈』가 그것을 이루어 냈습니다. 나는 모두 선하거나 모두 악한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나는 선함이 거대한 고통과 비극에서 나올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살인이나 죽음이 일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사

실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상실감을 극복하는 단순한 공식이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존재했다면 우리는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을 테니까요. 나는 깊고 어두운 슬픔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에서 회복되는 데는 몇 년, 혹은 인생의 절반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슬픔이 치유된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치유되는 과정도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뒤에 남아 있는 동안 사람들은 빛을 찾고, 희망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점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죠.

치유는 시간이 걸린 내기가 아니라 개별적인 진행입니다. 슬픔을 치유하려면 어떤 의미로 무한한 시간이 있다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위해서 자신을 가장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이러한 점도 독자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하고 바랍니다.

■ 수지의 천국에는 흔히 상상하는 하프도, 천사의 날개도 없이 개들과 이상한 악기들이 존재하던데요. 어떻게 수지의 천국을 창조한 것인가요? 천국에 대한 영화나 책을 보고 착상했나요?

사실 천국에 대한 영화나 책들은 모두 피했습니다. 작품 속의 천국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모습을 그려내느라 생각이 많았어요. 나의 절친한 친구들은 처음에 내가 구상한 것들에 대해 언급하지 말아 달라고 하더군요. 전혀 색다른 천국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그 당시에도 나는 그 생각들이 꽤나 그럴듯하다고 느꼈습니다만.

천국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은 높은 곳에서 계속 다이빙하는 것과 같

은데, 성공하겠다고 작정한 이상 배가 시퍼렇게 멍들어도 끝까지 해내겠다고 결심하기 때문이죠.

시를 읽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시는 일반 소설과는 달리 규칙과 제한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시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생각한 천국의 이미지였지요. 나는 붉은 제라늄 꽃에 대한 스테판 도빈스의 시를 읽고 수지가 아버지를 위해 지상에서 피우고자 했던 꽃에 대해 영감을 받았습니다. 결국 수지는 그 꿈을 이룰 수 없었지만 천국에서는 그 꽃이 수없이 많이 피었어요.

■ 수지의 목소리는 아주 사실적인데요. 이렇게 쓰는 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러블리 본즈』를 쓰면서, 등장인물이 나에게 말을 걸어와 나는 단지 그녀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녀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매우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이는 내가 그녀에 대해 거짓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수지의 눈으로' 라고 책상 위에 써서 붙여 놓았으며, 글을 쓸 때 그 기준에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든 엄격하게 잘라냈습니다.

■ 『러블리 본즈』 안의 가족들은 매우 친근감이 드는데, 독자로 하여금 그들과 깊게 알고 지낸 느낌을 줍니다. 당신 가족들을 바탕으로 그들에 대해 쓴 건가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마당의 나무들이나 집 안의 가구들은 확실히 어렸을 때 교외에서 살던 시절에서 떠올린 것이지만 가족은 완전한 창작입니다. 내 여동생은 매우 활달한 편이고 남동생은 없어요. 엄마는 글쎄, 만약 소설 속의 엄마가 그녀를 바탕으로 한 거라고 생각하면 끔찍해하실걸요. 내가 겪은 바로는 만들어 낸 인물들이 실제생활에 아주 근접하게 묘사한 인물들보다 훨씬 생동감이 있는 것 같아요.

글을 쓸 때 감정이입과 동정은 나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등장인물들은 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들이 진짜로 되고 싶어 하는 인물은 누구일까? 인간이란 어려운 존재이므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쉽사리 나오지 않지요. 나는 인생에서나 글을 쓸 때나 "아하!" 하는 순간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분명 내가 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 법이니까요. 내가 신입생에게 작문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나를 올바로 인도해 주듯이 나의 등장인물들도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쓰도록 이끌어 줍니다. 나는 각양각색의 환경에서 온, 나이도 다양한 학생들의 삶 속으로 스스로를 내던지는 것이죠.

■ 수지를 죽인 옆집 하비 씨는,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일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의 모습은 어디서 떠올린 것인가요?

하비 씨도 수지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오랜 시간 구상했습니다. 살인자 역시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나의 신념에서 비롯된 인물이죠. 그 점이 살인자들이 더욱더 두려운 점입니다. 하비 씨는 나의 주인공을 죽이긴 했지만 나는 그를 매우 동정하고 있어요.

아무리 증오받아 마땅한 등장인물이라 하더라도 진심으로 그들을 동정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접근한다면 그들의 내면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살인은 끔찍한 영역이지만 우리는 그들이 인간을 죽이는 사이에 자기 아내에게 키스도 하지 않고 잔디도 가꾸지 않을 거라 착각하고 있지요.

■ 증거도 없이 아버지는 하비 씨가 딸을 죽였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나요?

때때로 예민한 감각을 갖게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력의 희생자들은 종종 육감을 가집니다. 이것은 위험한 점인데, 작품 속에서 경찰들이 잭 새먼을 대하는 것처럼 그것이 오해라면 비참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육감을 '사후 충격 스트레스 장애'라 부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험한 환경을 극복해 온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이 갑자기 전혀 다르게 바뀐다면 사람은 순응할 수밖에 없지요. 잭 새먼은 딸을 살해한 범인과 어떤 부분에서는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가족들과는 다른 감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리틀브라운(Little brown) 홈페이지에서〉

옮긴이 공경희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번역테솔대학교 겸임교수이며,
옮긴 책으로는 『호밀밭의 파수꾼』,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남자처럼 일하고 여자처럼 승리하라』,
『헬렌 니어링의 소박한 밥상』 등이 있다.

러블리 본즈

초판 1쇄 2003년 10월 15일
초판 2쇄 2003년 11월 20일

지은이 | 앨리스 세볼드
옮긴이 | 공경희
발행인 | 김종철
펴낸곳 | 북@북스

주소 |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66-3
전화 | 790-5999(마케팅부), 749-5004(편집부)
팩스 | 790-6656(마케팅부), 749-2058(편집부)
등록 | 1995년 3월 24일 제03-00986호

http:// www.moonhak.co.kr
e-mail: moonhak@moonhak.co.kr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ISBN 89-88182-69-3

북@북스 베스트셀러 소설 시리즈

텔미 유어 드림S
TELL ME YOUR DREAMS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엽기적인 연쇄 살인 사건,
반전에서 반전으로 이어지는 클라이맥스.

시드니 셸던 지음 | 정성호 옮김 | 전2권 | 각권 값 7,500원

여자는 두번 울지 않는다
THE BEST LAID PLANS

백악관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음모와 술수,
대통령을 파멸시키려는 한 여자의 화려한 복수극!

시드니 셸던 지음 | 정성호 옮김 | 값 9,000원

하늘이 무너지다
THE SKY IS FALLING

사랑과 권력 그리고 살인의 뒤얽힘,
전 세계를 무대로 누비는 숨가쁜 추격전!

시드니 셸던 지음 | 신현철 옮김 | 전2권 | 각권 값 7,500원

하얀 개와 춤을
TO DANCE WITH THE WHITE DOG

사랑을 생각하며 온종일 울고 싶은 가슴 뭉클한 서정 소설!
미국 사우스이스턴 도서관협회 '최고의 작가상' 수상작!

테리 케이 지음 | 최인자 옮김 | 값 8,500원

한번 더 사랑에게 묻는다
JOURNEY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찾아 떠나는 한 여인의 먼 여행,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우리 시대의 로맨스 소설.

다니엘 스틸 지음 | 최인자 옮김 | 값 9,500원

하얀집
A PAINTED HOUSE

정통적인 글쓰기를 시도한 존 그리샴의 자전적 소설.
순수의 세계에서 경험의 세계로 나아가는 소년의 성장기.

존 그리샴 지음 | 신현철 옮김 | 전2권 | 각권 값 8,500원

러블리 본즈

The Lovely Bones

이 책을 읽는 것은 은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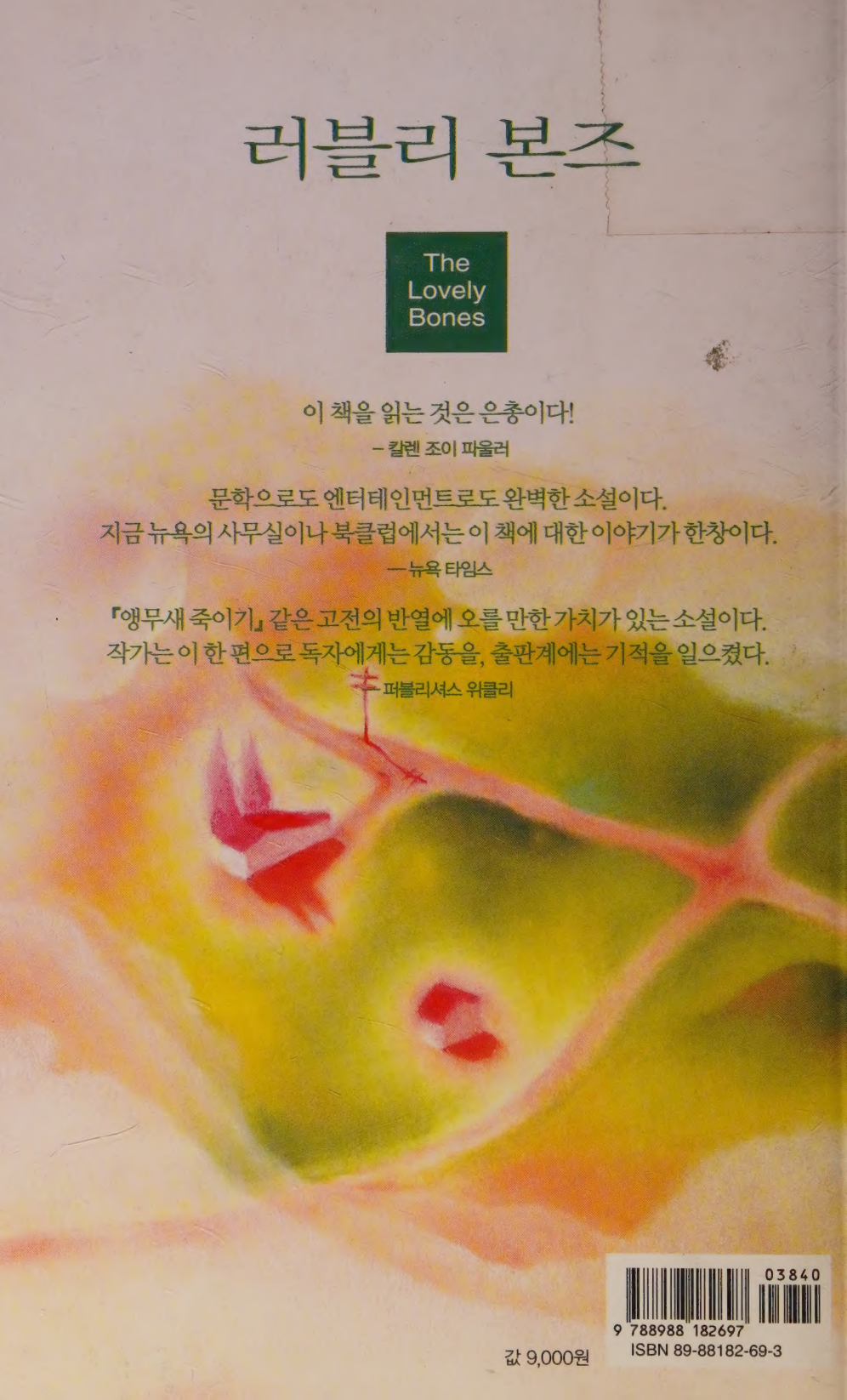
– 칼렌 조이 파울러

문학으로도 엔터테인먼트로도 완벽한 소설이다.
지금 뉴욕의 사무실이나 북클럽에서는 이 책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이다.

— 뉴욕 타임스

『앵무새 죽이기』 같은 고전의 반열에 오를 만한 가치가 있는 소설이다.
작가는 이 한 편으로 독자에게는 감동을, 출판계에는 기적을 일으켰다.

— 퍼블리셔스 위클리



03840
9 788988 182697
ISBN 89-88182-69-3

값 9,000원